신이시여로이먼드 황태자의 집무실.젊은 황태자와 눈주름 지긋한 근위기사가 진지하게 마주보고 있었다.레온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차라리 잘못 들은 것이길 바랐다.자신은 황태자 휘하의 근위기사이고, 따라서 호위는 물론, 그의 명이라면 뭐든 따르는 것이 법도이긴 하나...“오늘 사면된 자를 말입니까?”벨 제국의 연말 연례행사 중에는 모범수의 특별 사면이 있었다.그 중 하나를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라는 명.거기까지는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했지만, 타겟에 대해 듣고 나자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만 같았던 것이다.‘만삭의 여인이라니.’그 여인이 용서 못할 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라 해도, 뱃속의 아이는 죄가 없다.설령 사형수라도 임산부의 경우, 집행은 출산 이후로 미뤄지는 것이 관례였다.게다가 사면된 이상, 전과자일망정 평범한 국민.사람 하나 조용히 처리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영 마음에 걸렸다.흉악범이라면 차라리 낫다.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될 테니까.하지만 흉악 범죄나 황실, 신성 모독 등이라면 애당초 사면될 리 없었다.“편치 않은 임무란 건 알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명 받들겠습니다.”\*어둠이 짙게 깔린 숲 속.길 따윈 없는, 사방 분간조차 되지 않는 지점.여자는 수풀과 가시덤불을 헤치며 무작정 앞으로 나아갔다.나뭇가지와 가시에 긁혀 얼굴이 생채기로 엉망이었다.신고 있던 낡은 천 덧신은 벗겨진 지 오래.깊은 숲으로 들어서면서부터 발바닥의 감각이 사라졌다.“아헉, 허윽...”여자는 둥글게 부푼 아랫배를 부여잡고 연신 거친 숨을 토해냈다.심장이 터져버릴 듯 숨이 가빴지만 멈출 수도, 뒤를 돌아볼 수도 없었다.‘잡히면 죽어!’추격자를 눈치 채자마자, 위험을 직감했다.불길한 예감은 어쩜 이리도 잘 들어맞는지.그는 성 밖으로 나오면서부터는 대놓고 따라붙었다.하지만 따돌릴 수도,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었다.‘이상해.’계속해서 추격자와의 일정 간격이 유지되고 있었다.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절대, 같은 속도일 리 없는데...’알고는 있었다.따돌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걸.홀몸이라도 불가능에 가깝건만, 하물며 뱃속에 아기까지.아이러니하게도 아기가 있어 포기할 수 없었다.비참한 수옥생활을 버텨낸 단 하나의 이유.어미 된 자로서, 아무리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스스로 놓아서는 안 된다.그래서 이 악물고 필사적으로 도망치고는 있지만...흡사 토끼몰이와 같았다.언제든 피식자를 잡을 수 있는 포식자의 여유.‘못 잡는 게 아냐. 일부러 더 깊은 숲으로 모는 거야.’거기까지 생각한 여자는 체념하고 발걸음을 멈추었다.여자를 따라 추격자도 멈춰 섰다.추격자에겐 숨 가쁜 기색이 전혀 없었다.여자는 그야말로 허무한 발악을 했던 것이다.뜨거운 절망이 볼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이윽고 추격자가 검을 뽑아들었다.스릉-.낙엽 밟히는 소리가 가까워지자 여자는 천천히 뒤돌았다.북받쳐 오르는 슬픔에 목이 메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말-“제발, 살려, 주세요.”추격자는 눈도 깜박이지 않았다.추격자-레온은 모자가 안됐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다고 살려 보내줄 수는 없었다.집무실을 나서는 자신의 등에 대고“여자의 머리를 가져와.”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기에 더더욱.레온은 오랫동안 황태자 곁에서 함께 했기에 그의 성정을 잘 알고 있었다.이번 명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종류의 것이었다.레온이 검을 높이 치켜들자, 여자는 사력을 다해 쥐어짜듯 외쳤다.“부탁이에요...!!”때마침 구름이 물러가고 앙상한 겨울나무 가지 사이로 달빛이 쏟아졌다.그제야 새삼 여자의 몰골이 레온의 눈에 들어왔다.피투성이 발, 계절에 맞지 않는 낡고 얇은 옷, 부른 배와 대조적인 앙상한 팔다리, 헝클어진 머리카락, 오래 된 화상 흉터와 생채기로 덮인 얼굴.레온은 쉬이 검을 내리치지 못하고 마른 침을 삼켰다.여자의 처참한 몰골이 수잔의 마지막 모습과 겹쳐 보인 탓이었다.“저를 살려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되도 좋으니... 아기만은 살려 주세요.”수잔은 자신이 없는 사이 들이닥친 도적떼로부터 갓난아기인 딸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다.어쩌면 수잔도, 지금 이 여자와 같은 말을 하며 애원했을지도 몰랐다.그런데도 도적떼는 가차 없이 수잔을 죽이고, 딸을 납치해갔다.수잔과 겹치는 여자, 도적떼와 겹치는 자신.어디로 흘려보내면 좋을지 모를 더러운 감각.“이 아기는, 로이먼드 황태자님의 핏줄이에요! 그러니...”‘뭐!?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뱃속의 아기가 황실 아기님이라고?레온이 눈을 날카롭게 뜨고 노려보았지만 여자의 낯빛은 처연했다.달리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세상의 순수가 고인 아득한 심연.그 어떤 거짓도 부정도 없을 것만 같은 깊고 맑은 눈동자.‘정신 차려! 미쳤어?’레온은 스스로를 채근했다.딸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지금 이러고 있는 순간에도 딸은 위험하거나 괴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지도 모른다.딸을 1분 1초라도 빨리 찾아야 한다.이런 데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여자의 말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황태자의 결정에 자신의 잣대와 가치관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통 없이, 단칼에 끝내 주는 것이 최선.결연하고 검을 휘두르는 순간,“당신은, 자식이 없나요?”여자의 외침에 간신히 부여잡고 있던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레온의 손을 떠난 검이 저만치 날아가 나무 기둥에 박혔다.여자는 배를 감싼 채 낮게 흐느꼈다.“부탁드려요. 저는 얌전히 죽을게요... 아기만은...”그토록 외면하고 싶었건만.여자의 흐느낌은 레온의 아픈 부분을 파고들었다.레온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길게 숨을 내뱉었다.그 전에, 짚고 넘어가고 싶었다.“황태자님의 아이라는 게 사실인가?”“네... 네! 봄에 그린우드 사냥터에서 황태자님을 모셨어요... 저에게 남자는 황태자님뿐이에요. 그 분 아이가 확실해요.”분명 황태자는 봄에 그린우드 숲의 황실 사냥터로 사냥을 나갔었다.여자는 고개를 힘없이 떨구었다.속절없이 떨어지는 눈물이 낡은 치맛자락 위로 번져나갔다.“임신한 걸 알게 되자마자 무작정 수도로 왔어요. 알현까지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줄 몰랐거든요.”‘역시 평민이군. 돈도 백도 없는.’여비가 떨어져 잡일을 하다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그 때문에 황태자님이 알아보지 못하신 것 같다며 여자는 울먹였다.요컨대 황실을 기만했다는 오해를 받아 수감되었다는 것.황실 기만은 절대 사면될 수 없는 데다, 혹시 모를 배후까지 캐내려 대대적인 조사가 벌어진다.레온이 알기로는 근래 그런 시끄러운 일은 없었다.조사가 벌어지면 아기에 대한 것도 밝혀질 테고, 황태자는 꼼짝없이 여자를 후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황태자는 그 상황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진정 황족을 기만했다면 마땅한 죄를 물으면 그만.다른 죄목을 씌워 수감시켰다는 것은, 아기가 황태자의 핏줄이라는 반증이었다.사정을 알 리 없는 황제가 여자를 사면시켜버렸고...여자를 외부와 격리시키고 감시하려면 수감보다 나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똑똑한 황태자가 왜 하필 수감을 택했는지는 의문이었다.‘이제 와서 날 보내 죽이라 할 바에야 진즉 죽였어도 되었지 않나?’“신전의 감별을 받고 다시 알현하면 오해를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여자는 “당신과 마주치기 전까지는.”이라는 뒷말을 생략했다.“특별 사면은, 결국 이런 거였네요...”여자는 티끌만큼도 황태자를 의심하지 않고, 황제가 사면자의 뒤통수를 치는 거라 여겼다.‘이럴 수가.’레온은 탄식했다.몇 마디 듣지 않고도 여자가 세상 물정에 어둡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욕심이 있어서 황태자를 찾은 것이라면, 조금만 자신의 안위를 살필 줄 알았다면.황태자를 먼저 찾을 게 아니라 신전의 감별부터 받았을 것이다.또한 몇 년을 대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황태자의 대척점인 황후를 알현해야 했다.그래야 빼도 박도 못할 것이 아닌가.평민 중에도 제 아이를 외면하는 부나 모는 얼마든지 있다.하물며 범국가적 이해관계로 빼곡히 얽힌 황족이다.연애관계도 아닌 하룻밤 시중, 그것도 평민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순순히 받아들여 줄지 어떨지, 한 번이라도 고려했다면...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나쁘게 말하면 아둔한 여자.세상으로 나오지 말고 조용히 살라 하면 그리했을 여자인데.‘꼭 죽여야만 한단 말입니까.’자신은 딸을 찾기 위해 남은 인생을 걸었다.그런 자신에게, 태연히 친자를 임신한 여인을 죽이라 명한 황태자.그에겐 인정도, 부정도 없단 말인가.어찌 친자까지-‘!!’순간, 레온의 눈이 번뜩 빛났다.그러고 보니 황태자는 아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여자의 머리를 가져오라 했을 뿐.레온은 성큼성큼 걸어가 나무기둥에 박힌 검을 뽑았다.“치마를 걷어라.”“?!”여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한껏 움츠렸다.역시 믿어주지 않는구나, 임산부를 욕보이려는가, 지금이라도 혀를 깨물까-.여자의 표정을 읽은 레온이 급히 손을 휘저었다.“그런 게 아니라. 배를 갈라 아기를 꺼낼 거다.”“...”“황실로는 보낼 수 없다. 대신 책임지고 양부모를 찾아주마.”\*여자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꼬옥 안았다.씻기지 못해 피 냄새가 났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다.두 번 다시 안아볼 수 없을, 작고 사랑스러운 존재.추격자는 인간적인 사람이었다.자칫 자기가 곤란해질 수 있는데도 아기를 살려 주었다.그는 기꺼이 자신의 상의와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싸 주고,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것도 허락해주었다.여자는 눈물을 훔치고 또 훔쳤다.이제 곧 헤어져야 하는데.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자꾸만 시야가 흐려져 애달팠다.아무리 닦아도 흐릿한 것이, 눈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멎지 않는 출혈이 이별을 재촉하고 있었다.점점 팔에 힘이 빠져 이대로라면 아기를 떨어뜨릴 지도 몰랐다.“사랑해, 내 딸.”여자는 아기의 이마에 입술을 맞추었다.추격자를 바라보자, 그는 천천히 다가와 아기를 옮겨 받았다.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에, 여자는 추격자가 약속을 지키리라는 것을 확신했다.추격자가 조금 떨어진 낙엽더미 위에 아기를 내려놓으며 물었다.“고향은 어디지? 그 곳에 묻어 주겠다.”“몰라요. 사우스 바인에서... 자랐어요.”추격자는 대꾸 없이 다가와 검을 치켜들었다.“감사, 합니다...”가죽 주머니 안에 든 머리가 타겟의 머리임을 확인한 로이먼드는 레온을 칭찬했다.하지만 레온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다.어서 자리를 뜨고 싶단 생각뿐이었다.전장에 나가 적을 해치운 것이 아닌데 칭찬 받고 있다.말 잘 듣는 개.달리 무어라 표현할까.신임을 잃지 않아 다행이지만 한 편으로 기사로서 치욕스러웠다.궁금하지도 않은지, 로이먼드에게서 아기 얘기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수고했어. 쉬어.”라는 말이 나오기 무섭게 레온은 빠른 걸음으로 집무실을 빠져나왔다.레온은 신전으로 향했다.집에 돌아간들 이런 기분으로 편히 쉴 수 있을 리 없었다.로이먼드는 필요하지 않은 자를 곁에 두지도, 베풀지도 않는다.남작 작위를 받은 것은 대대적인 공을 세워서가 아니었다.제아무리 검술 실력이 뛰어나도 평민이 황족의 검술 스승이 된다는 건 상상조차 못할 일이기에, 로이먼드의 필요에 의해 받게 된 작위였다.그의 신임을 잃으면 박탈당할 허상.비록 영지도 하사받지 못한 이름뿐인 작위라지만, 어쨌든 귀족은 귀족인지라 덕분에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었다.신전 출입이 자유로워져서, 수시로 신탁을 받으며 딸의 생사와 대략적인 방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평민으로 돌아가면 신탁 한 번 받기까지 최소 반 년 이상은 걸린다.대기하는 동안 아무 실마리 없이 헤매야 한다.지금도 오리무중인데, 그 시절로 돌아가면 기약이 없다.그 때문에 명을 받들긴 했지만, 여자도 누군가의 귀한 딸일 텐데.자기 딸 빨리 찾자고 애먼 남의 딸을 죽인 꼴이라 매우 착잡했다.어쩌면 자기 마음 편해지려는 짓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명복이라도 빌어주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았다.신전에 도착하자 당직중인 사제가 반겨주었다.워낙 자주 출입하다 보니 레온을 모르는 사제가 없었다.“오늘도 따님에 대한 신탁입니까?”“예에, 뭐...”명복을 빌어주고 나면 당연히 딸에 대한 기도를 올릴 것이다.딸의 상태를 확인하고 해후를 소원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일과였다.사자의 명복을 비는 것은 신전에서 한 사람에게 할당하는 하루치 신력을 상당부분 소모하는 일이기에, 오늘은 소원 기도밖에 올리지 못 하겠지만.레온이 말끝을 흐리자 사제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기도실로 안내해 주었다.성물을 모신 제단.레온이 그 앞에 서자, 사제는 언제나처럼 사전 의식을 치러주고 자리를 떠났다.혼자가 되자마자 레온은 쓰러지듯 무릎을 꿇고 낮게 흐느꼈다.사제는 걱정스런 눈길로 레온 남작을 살폈다.어째 오늘은 오래 걸린다 싶더니, 기도실을 나온 남작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았다.정문에 다다를 때까지 남작은 말이 없었다.원래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눈이 부어 있어서 신경 쓰였다.걸음걸이를 보니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혹시 좋지 않은 신탁이 내려진 걸지도.“저어... 괜찮으신지요?”“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얼마든지요.”“신탁이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신께서는 진심이 담긴 기도에는 항상 화답하여 주십니다.”“하지만 성물에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성물을 통한 신탁에는 나름의 요령이 필요하다.성물은 말을 못 하므로 O, X로 답변이 가능하도록 기도해야 한다.신전에 출근부를 찍는 레온 남작이 이걸 모를 리 없었다.그렇다면, 답은 하나.“이미 이루어진 기도에는 답을 내릴 수 없지요. 축하드립니다. 따님을 만나셨군요!”“예...? 예? 아닙니다.”“아직 서로를 모르더라도 만남 자체는 성립되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이에, 따님 또래의 여성을 마주한 적이 없으신가요?”남작은 잠시 생각에 빠졌다.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낯빛이 창백해졌다.고요한 참상레온이 여자의 명복을 빌자 성물에 한동안 백색 빛이 감돌았다.부정적인 의미의 답에는 푸른빛이다.백색 빛은 신이 여자의 혼을 돌볼 것을 약조한 증거.사후세계가 어떤지, 윤회가 실제 하는지 아닌지 아무도 모른다.하지만 사람들은 신이 돌봄을 약조한 혼은 내세에서 반드시 행복을 누린다고 믿었다.평민 이하는 신전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니, 현세는 물론 내세의 행복마저 황족과 귀족에게 우선권이 있는 셈이 되겠지만.작위를 유지하고자 여자를 죽였고, 작위가 있어 명복을 빌어줄 수 있었다.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래도 한결 나아졌다.‘딸아이와 한시라도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레온은 소원을 기도하고 성물을 바라보았다.꽤 기다렸으나 성물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어제까지만 해도 백색 빛을 냈는데.‘한 번도 이런 적 없더니. 왜지?’재차 기도했지만 이번에도 묵묵부답이었다.‘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 살인자의 소원에는 답하지 않는 건가?’만약 그렇다면 죄까지 지어가며 작위를 유지한 의미가 없었다.레온은 찜찜함을 안고 기도실 밖으로 나왔다.정문에 다다라 사제가 말을 걸어오기 전까지, 그가 옆에 있는 것도 몰랐을 정도로 머릿속이 복잡했다.신탁이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질문했더니, 사제는 의외의 답변을 했다.“이미 이루어진 기도에는 답을 내릴 수 없지요. 축하드립니다. 따님을 만나셨군요!”“예...? 예? 아닙니다.”‘그랬으면 참 좋으련만.’“아직 서로를 모르더라도 만남 자체는 성립되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이에, 따님 또래의 여성을 마주한 적이 없으신가요?”사제의 말이 생뚱맞긴 해도 일리는 있었다.레온은 기억을 더듬었다.지금까지 여러 번 마주쳤던 영애들, 하녀들, 가게 점원 등은 해당사항이 없고.길에서 스쳐지나간 경우라면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으니 ‘만남’으로 정의할 수 없으리라.‘만났다’라고 정의내릴 만한 여자가... 있었던가?순간, 어느 장면이 레온의 뇌리를 스쳤다.-감사, 합니다...목이 베이기 직전 서글프게 미소 짓던 여자.만난 여자라곤 그 여자뿐이다.레온의 낯빛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치료수를, 치료수를 주십시오! 어서!!”레온의 다급한 외침에 사제는 영문도 모르고 허둥지둥 신전 안으로 들어갔다.잠시 뒤 사제가 작은 물병을 가지고 나오자마자 레온은 낚아채듯 받아들고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달리는 내내 심장이 내려앉은 것만 같았다.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어떤 풍광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슬프게 죽어간, 자신이 죽인 여자의 얼굴만이 아른거렸다.‘설마! 설마! 설마!!’황궁 입구에 다다르자 경비병들이 레온을 알아보고 꾸벅 인사했지만, 레온은 그들을 무시하고 뛰어넘어 황태자궁으로 돌진했다.황태자궁 안으로 들어서자 이상하다 싶었는지 보초를 서던 기사와 시종 몇이 막아섰다.하지만 레온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레온은 그들을 튕겨내고 무서운 속도로 복도를 가로질렀다.집무실 앞에도 보초가 있었지만 레온은 막무가내로 몸을 날렸다.퍽!! 쾅!!떠밀린 보초들과 박살난 문이 벽까지 날아갔다.황태자는 잠자리에 들었는지 집무실은 비어 있었다.쓰러졌던 보초가 일어서며 힐책했다.“대체 왜 이러십니까? 아무리 레온 경이라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레온의 뒤를 쫓아 다른 보초들과 시종들이 우르르 몰려왔다.레온은 목에 핏대를 세웠다.“이만한 갈색 가죽 주머니! 아무도 못 보았나? 못 봤냐고!!”다들 눈치만 보며 우물쭈물하던 차에, 시종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쓰레기 자루 안에서 본 것 같아요. 좀 전에 실어 보냈는데...”\*소각장 인근의 허름한 여관.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레온은 지체 없이 가죽 주머니를 펼쳤다.피와 머리카락이 엉겨 붙은 머리를 꺼내들고 적신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냈다.화상 흉터와 자잘한 생채기로 덮여있어 전혀 몰랐다.밝은 곳에서 자세히 보니 성숙한 목소리와 달리 앳된 소녀였다.레온은 소녀의 얼굴에 치료수를 부었다.소녀의 얼굴에서 화상 흉터와 생채기가 빠르게 사라져갔다.소녀의 본래 얼굴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레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어째서 그 때는 자세히 살피려고 하지 않았을까.자세히 살폈더라면...수잔을 꼭 빼닮은 이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을 리 없는데.레온은 딸의 머리를 끌어안고 숨죽여 오열했다.‘내가 죽였어! 내가! 누구보다도 감싸주고 지켜줬어야 할 너를!!’저 죽을 곳인 줄 모르고 숲으로 도망쳐 들어갈 때.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깊고 맑은 눈동자를 보았을 때.수잔과 겹쳐 보였을 때.순진하다는 걸 알았을 때.멈췄어야 했다.업보였다.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제 딸을 위한답시고 남의 딸을 죽인 업보.남의 딸은, 곧 나의 딸이었다.살면서 큰 걸 바란 적 없었다.그저 단란한 가정, 사랑하는 이들과의 소박한 삶을 꿈꾸었건만.아내 수잔을 지키지 못했고, 딸은 제 손으로 해쳤다.‘이런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레온은 검을 뽑아들고 자신의 목에 갖다 댔다.이대로 가족 곁으로 가자고 마음먹었다.남은 생을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수잔. 약속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딸아, 너와의 약속도... ...약속?’책임지고 양부모를 찾아주마.“헉!”레온은 황급히 검을 집어던졌다.마음대로 미칠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다.하마터면 슬픔에 젖어 현실을 놓치고 크나큰 잘못을 또 저지를 뻔 했다.그랬다간 저승에서 수잔과 딸을 볼 면목이 없었을 것이다.아직 그에겐 지켜주어야 할 가족이 남아있었다.‘내 모든 것을 걸고 너만은 반드시 지킨다!’\*“내 모든 것을 걸고 너만은 반드시 패준다!”“에헹~ 잡아 보시지!”산 중턱에 위치한 사냥꾼의 오두막 근처에서는 때 아닌 추격전이 벌어졌다.“쒸익..! 이놈, 잡히기만 해!”“할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알면 잡혀 주든가!”“메롱.”얄밉게 촐싹대며 나무 사이를 종횡 무진하는 소녀.제법 큰 키지만, 얼굴과 목소리는 앳되었다.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황동 금발과 황금안.소녀의 움직임에 맞춰 이리저리 춤추는 질끈 묶인 뒷머리가, 마치 족제비의 꼬리 같았다.그 뒤를 머리와 수염이 듬성듬성 희끗한 노중년이 쫓고 있었다.노중년의 움직임도 상당했지만, 소녀가 워낙 날쌔서 잡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노중년은 숨을 몰아쉬다 나무 그루터기에 걸터앉았다.“아이고오. 응가 기저귀 갈아주며 키웠더니만~~.”“그래서 내가 할배 운동 시켜준 거잖아.”“그게 빵 빼앗아 먹고 할 소리냐?”“헤헤.”‘읏! 귀여워.’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 얄밉던 손녀가, 웃으니까 무척 귀여웠다.지금까지 저 모습에 몇 번을 낚였는지 셀 수도 없다.애교는 눈곱만큼도 없는데 귀엽기로는 세계 최강이라니 진짜 말도 안 된다.“안 돼. 이번엔 안 통해.”“에헤헷.”“...안 통한다니까.”“훨씬 맛있는 빵 사올게.”“사랑한다.”“킥킥, 나도.”소녀는 말려둔 동물 가죽과 고기가 가득 찬 포대를 어깨에 메고, 허리춤에는 검집 벨트를 찼다.그리고는 제 키보다 높은 나무 위로 훌쩍 뛰어올랐다.“폴리모프 잊지 마.”“응!”대답을 마친 소녀는 나무 사이로 미끄러지듯 빠르게 멀어져갔다.노중년은 손녀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헤이온은 다람쥐처럼 이리저리 나무를 옮겨 타며 능선을 따라 이동했다.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스쳐지나가는 두 묘비를 향해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할머니, 엄마! 다녀올게!”헤이온은 마을로 바로 내려가지 않고 적당하다 싶은 곳에 자리를 잡고 섰다.‘이왕 내려가는 거, 더 벌어서 가자.’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뽑아든 별 볼일 없는 싸구려 검이 찬란한 검기를 뿜어냈다.대충 몇 차례 휘두르자 나무 몇 그루가 온데간데없고 포대 옆에는 장작이 우수수 쌓였다.그런데 문제가 있었다.‘이거 어떻게 다 가져가지?’옮기는 방법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다.결국 두 팔로 양껏 안고 가는 것이 최선이었다.팔을 쓸 수 없어 나무를 타지 못하니 아무래도 전보단 속도가 느렸다.아니나 다를까, 산기슭 초입에 다다르자 로건이 입술을 삐죽 내밀고 있었다.오랜 시간 함께해온, 가족과 다름없는 친구.때마침 불어온 바람에, 그의 짙은 자색발이 나부꼈다.냉정해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와는 달리 자상해서, 때때로 묘했다.“늦었잖아.”로건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장작을 나누어 들어주었다.보기 드문 장신에, 길게 뻗은 팔다리가 이럴 땐 썩 유용했다.“뭐가 이렇게 많아?”“할배 케이크 값. 돌격, 빵집 앞으로!”로건이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그 전에 너, 아직 이거든.”“앗, 깜박했다.”헤이온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뱉었다.순식간에 소년의 모습으로 바뀌었다.정확히는 가슴만 바뀐 거지만 남자로 보이기에는 충분했다.레온은 헤이온이 폴리모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안 뒤로, 남들 앞에서는 남자의 모습을 하도록 종용했다.이유를 자세히 가르쳐주진 않았다.그저 ‘추적을 피하려면 정체에 혼선을 주는 편이 좋다’ 고.어릴 적부터 쭉 폴리모프를 사용해온 탓에 유모인 폴칸 부인과 유형제인 로건 외에는 다들 헤이온을 남자로 알았다.변신 마법.시골 촌뜨기인 그들도 세상에서 이것이 폴리모프라고 불린다는 걸 알고 있었다.워낙 유명한 상급 마법이라 풍문으로 들은 적이 있는 것이다.주문도 수식도 없이 한 순간에 변신하기란 8서클 마법사라도 힘들다는 것은 몰랐지만.로건이 감탄했다.“워후, 볼 때마다 신기하네.”“팔을 늘릴 수 있었으면 케이크 두 갠데.”“연습하면 되지 않을까?”“심장에서 멀면 안 되더라고.”헤이온은 아주 어릴 적부터 마나 로드가 전신에 활성화되어 있었다.수련을 한 적도, 영약을 먹은 적도 없으니 어쩌면 선천적인 걸지도 몰랐다.그렇다고 마법에 재능을 가졌다고하기엔, 기초 마법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호기심에 샀던 입문서는 펼치기만 해도 골치가 아팠다.일주일도 안 되어 불쏘시개로 썼다.제대로 쓸 수 있는 마법은 폴리모프가 유일했다.이것만큼은 배운 적 없는데도 숨 쉬듯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다.다만 상체가 한계였다.길이 잘 닦여 있어도, 작고 낡은 수레로는 옮길 수 있는 짐이 적고 멀리까지 보낼 수도 없다.마찬가지로 마나 로드가 활성화되어 있다 한들, 대량의 마나를 한 번에 멀리까지 융통할 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무색한 것이다.수련하면 향상될 테지만 마법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만날 일도 배울 일도 없으니 별 수 없었다.헤이온이 마법에 흥미가 없는 것도 한 몫 했다.조기교육이 중요하다고 그 누가 말했던가.레온의 검술 지도는 마나 로드의 경이로운 활성화와 맞물려 얼토당토않게도...대륙 내 최연소 소드마스터를 탄생시켜버렸다.이미 스스로를 지키기에 차고 넘치도록 강하니 마법까지 배울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차라리 다행이었다.헤이온과 주변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 하고 있지만, 만약 대도시로 나가 마법학원에 다녔다면 큰 파란이 일어났을 것이었다.\*산 아래 위치한 시골 마을 엔델.작지만 활기차고, 사람들도 유순하다.마을 사람들은 이방인인 레온과 헤이온을 아무 텃세 없이, 오래된 친구처럼 친근하게 받아들여주었다.영주 역시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았다.이런저런 말 못할 사정으로 떠돌다 흘러들어오는 이방인은 으레 있었다.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문제를 일으키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받아준다는 방침.경계가 심한 영주도 있지만, 엔델 마을은 인구수가 많지 않아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였다.산 속에 오두막을 짓고 눌러앉은 지 벌써 17년째.몇 년 전에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묘를 이장해오기까지 했다.엔델 마을이 진짜 고향은 아닐지언정 제 2의 고향임은 틀림없었다.그렇기에 눈앞의 광경은 차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헤이온과 로건은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장작을 전부 떨어트리고 말았다.저만치 보이는 마을길에 사람들이 피를 토한 채 쓰러져 있었다.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땅을 박찼다.마을 안에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 생명체는 없는 듯했다.어른들의 수다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벌레 우는 소리조차도 들려오지 않았다.대장간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만이 숨 막히는 정적을 깨고 있었다.일촉즉발보고도 믿기 힘든 기괴한 광경.길에 쓰러진 사람들과 동물들은 전부 피를 토하고 죽은 상태였다.집 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지 마을은 너무나도 고요했다.헤이온과 로건은 진동하는 피비린내를 뚫고 시체를 뛰어넘으며 달리고 또 달렸다.콰앙!!집 앞에 도착한 로건은 현관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엄마!”“유모!”대답이 없었다.실내는 연기로 자욱했고 음식물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주방으로 들어서자, 화덕 앞에 엎드려 쓰러진 폴칸 부인이 보였다.“엄마, 엄마!”로건이 급히 폴칸 부인의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그녀의 고개가 축 늘어졌다.입에서 흘러내리는 피, 느껴지지 않는 숨결, 미동 없는 몸.“아... 유모...”“으아아아아아아!!!”로건은 절규하며 폴칸 부인의 시신을 꽉 끌어안았다.폴칸 부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로건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다.어떤 말로 위로한들 위로가 될까.헤이온은 말없이 로건의 등을 감싸 안고 그의 등을 적셨다.로건의 떨림이 전해져왔다.어떤 심정인지 얼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폴칸 부인은 자신에게도 어머니와 같았기에.17년 전 겨울, 문을 두드린 낯선 이방인에게 묵을 방을 내어주고, 그가 데리고 있던 갓난아기가 배고파 울자 망설임 없이 젖을 먹여 준 사람.이후에도 유모를 자처하며 자신을 돌봐준 따뜻한 사람.인정 많고 상냥한 폴칸 부인이 어째서 이런 식으로 세상을 떠나야 하는지.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했는데...눈물이 멈추지 않았다.“흑...”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문득, 로건의 귀에 헤이온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어왔다.안고 있던 어머니를 내려놓고 뒤돌아보니 헤이온이 눈물범벅이었다.자신의 옷자락을 쥐고 끅끅거리고 있었다.등이 흠뻑 젖어 축축했다.‘이렇게나 함께 울어주었구나.’“고마워.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로건은 두 손으로 헤이온의 얼굴을 감쌌다.“이제 그만. 우리 그만 울자. 나, 너...!”헤이온이 촉촉이 젖은 눈으로 올려다보는 바람에, 로건은 하마터면 속마음을 소리 내어 말할 뻔 했다.“나, 뭐?”“...울어서 못생겨진 얼굴 그만 보고 싶어.”\*폴칸 부인의 시신을 안방 침대에 눕혀두고 둘은 밖으로 나왔다.먼저 나온 헤이온이 돌아보자 로건이 명치를 살살 주무르고 있었다.“엄살 그만 부릴래?”“네 주먹이 보통 주먹인 줄 아나 본데.”“우선 할배 부르자.”“말 돌리긴.”주먹을 치켜든 헤이온을 피해 로건은 부리나케 마을 중앙의 종탑으로 향했다.헤이온은 주변을 둘러보았다.다들 피를 토하고 죽은 탓으로 마을은 역한 피비린내에 잠겨 있었다.새까지 떨어져 죽어 있으니 참으로 기괴했다.심지어 벌레까지도.자신을 마중 나오지 않았다면 로건도 죽어있을지 모른다 생각하니 아찔해졌다.‘로건이 나올 때만 해도 정상이었겠지.’몇 시간 사이 마을의 모든 움직이는 생명체가 같은 방식으로 죽는다?자연 발생한 일은 절대 아니고, 물리적인 수단으로는 불가능하다.다들 외상은 전혀 없고, 이유모를 내상으로 죽었다.‘어떻게 다 똑같이 죽냐고.’헤이온은 길을 따라 걸었다.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시신을 줄줄이 보는 것은 괴롭지만,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다.문이 열린 집은 안쪽을 들여다보았으나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저항할 틈 없이, 불가항력적인 무언가에 의해 일순간에 죽었다는 건 분명했다.내상을 입어 괴로움에 몸부림친 흔적도, 맞서 싸운 흔적도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그야말로 즉사.‘죽기 전이 아니라 숨이 끊어지고 난 후 토한 건가.’그런데 살피자니 위화감이 느껴졌다.이를테면, 지금 보고 있는 부자의 시신이라든지.아버지가 아들을 감싸고 있었다.아들을 지켜주려는 것처럼.생업으로 바쁠 낮 시간에 유난히 길에서 죽은 사람이 많은 것도.‘본 거야. 뭔가를 보고 도망가려다...’죽는 줄도 모르고 죽은듯한 시신도 많았지만, 뭔가를 본 듯한 시신도 많았다.적어도 눈에 보이는 위협이었다는 뜻이다.하지만 대체 무엇이었을지는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로건이 종탑에 도착했는지 종소리가 들려왔다.평소에는 점심과 저녁에만 일정 간격을 두고 울린다.전쟁, 화재 등 비상시에만 연달아 치도록 되어 있다.종소리는 산 속 오두막까지도 들린다.잠시 후 다시 종소리가 들려왔다.‘그렇지. 잘 한다.’헤이온이 마을에 내려가 있는 이상, 도적떼든 구조작업이든 간단히 해결될 테니 할배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었다.무력으로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냉큼 오란 것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시신들을 수습하고, 영주에게도 알리러 가려면 일손이 하나라도 많은 편이 좋다.‘너무 여러 번 치는데.’“시끄러워! 그만-!!!”소리를 빽 지르며 종탑 쪽으로 고개를 돌린 헤이온의 눈이 커다래졌다.엔델 마을로 새카만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검은 구름이 가까워질수록 유리를 긁는 것 같은 듣기 싫은 소리도 커져갔다.그것이 구름이 아니라 날개가진 새의 형상이란 것을 분간하게 되었을 때쯤 로건이 사색이 되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여태 뭐 해! 도망치라고 알려줬더니!”“너 두고는 못 가.”로건은 멈칫했다.저 말을 평상시에 들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로건은 헤이온의 등을 세게 떠밀었다.“나한테 속도 맞추지 말고 빨리! 저것들 평범한 새가 아니야!!”가끔 철새 무리가 이동하는 것을 본 적 있었다.가히 장관이었지만 그렇다 해도 저 정도는 아니었다.로건은 종을 치자마자, 마을 저편 숲에서 일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검은 새들을 보았다.그 숫자가 실로 어마어마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생김새였다.남다른 시력을 지닌 로건의 눈에는 똑똑히 보였다.저것들은 도마뱀의 몸통과 새의 날개를 합쳐놓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새빨간 눈이 하나, 주름이 자글자글한 배, 여덟 개나 되는 팔다리.생전 처음 보는 종이었다.설마하니 멀지 않은 곳에 저런 게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했지만, 이제 와서 종을 친 것을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마을의 참상에 이은 해괴한 새 무리.불길한 예감이 들었다.위험을 알리려 여러 번 종을 쳤건만.바보같이 기다리고 있다니.속도 모르고 뒤돌아보는 바보에게 외쳤다.“최대한 빨리! 처마나 나무 밑으로만!”만약 검은 새들이 마을의 참상과 연관이 있다면, 실내에 숨는 것은 소용없을 것이다.실내에 있던 사람들도 빠짐없이 죽었으니까.찜찜한 것은 피하는 게 상책.모르긴 몰라도 저것들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게 정답일 것 같았다.들키지 않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을 대비해 검은 새들의 기동력을 제한할 엄폐지형을 확보해야 한다.어릴 적부터 누비던 엔델 산은 둘에게 놀이터와 마찬가지였다.저 곳 말고는 달리 생각할 수 없었다.헤이온과 로건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산을 향해 달렸다.그런데 검은 새들의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다.유리 긁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앞서가던 헤이온이 측면으로 빠지는가 싶더니, 그녀는 뒤따르던 로건을 낚아채듯 안아들었다.“!”“가만있어.”헤이온은 발에 마나를 집중시켰다.폴리모프처럼 생체 조직의 변환이 필요치 않은 단순 순환이라면 심장과 먼 곳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했다.애당초 소드마스터란 손에 집중시킨 마나를 검에 전달함으로써 물아일체의 경지로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자들이 아니던가.팡! 파앙!가죽 신발이 마나의 응집을 이겨내지 못하고 터져나갔다.‘모양새는 좀 빠지지만 뭐 어때.’비록 맨발이라도 마나가 응집되면 사바톤에 버금가는 강도와 탄성을 지닌다.헤이온은 로건을 안아들고 질주했다.약 5미터 간격으로, 밟는 곳마다 움푹움푹 패여 들어갔다.족적이 남긴 하지만 산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몸을 숨길 수 있으니 상관없었다.건물 안도 아니고, 찾아내려면 산 전체를 뒤져야 하는데 제깟 것들이 별 수 없으리라.“우와...!”“나 좀 대단하지?”로건은 풋, 하고 실소를 흘렸다.‘대단하기야 대단하지.’그렇지만 절로 감탄사가 튀어나온 건 헤이온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녀와 밀착해있는 상황 때문이었다.집에서 울 때도 헤이온이 등에 기대있던 것 같긴 했다.그 땐 경황이 없어 전혀 의식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새삼 가슴이 뛰었다.체온과 체취가 확 와 닿고 있었다.달리던 중이라 다행이었다.빠른 심장박동을 헤이온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테니까.‘이런 때에, 반칙이려나.’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참혹한 죽음과 징그러운 검은 새가 주는 중압은 상당했다.다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어떨지.잘못되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어머니처럼 우리도 죽게 되면?이게 마지막이면...?로건은 헤이온을 온 힘을 다해 끌어안았다.“쫄려? 안 떨어트릴게!”“...”\*순식간에 산 중턱에 다다랐다.헤이온과 로건은 적당한 높이까지 나무 위로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았다.멀리 떨어진 숲과 들이 밝은 것과 대조적으로, 검은 새 무리에 햇빛이 차단되어 어두웠다.그 때였다.마을 상공을 빙빙 돌던 새 무리 중 일부가 고도를 낮추더니, 일시에 모습을 감췄다.“뭐야. 왜 갑자기 사라져?”“불꽃 터지듯 팍 터졌어.”터진 새는 검은 안개가 되어 공기 중에 흩뿌려졌다.순식간에 마을은 검은 안개로 뒤덮였다.사람들은 저 안개를 들이마셨을 것이고, 그 결과는 저항조차 하지 못한 죽음.종소리에 다시 몰려와 뒤덮은 걸로 보아 생존자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했다.“대체 왜!!”헤이온과 로건은 분노에 차올라 이를 갈았다.그 때였다.검은 새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 하늘 길을 텄다.그 사이로 날개 달린 사람이 나타나 마을 종탑 꼭대기로 내려왔다.사람이라기엔 검은 비늘로 얼굴까지 덮여 있어 기괴했다.원래 피부인지 복면인지는 식별할 수 없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검은 새를 다루는 자.엔델 마을을 이렇게 만든 원흉임이 틀림없었다.검은 날개인간은 종탑 위에서 아래를 둘러보았다.순간 로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그가 마을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족적을 발견하고는 산을 빤히 응시했던 것이다.“눈치 챘나 봐. 이쪽 본다.”검은 날개인간이 손가락 끝으로 산을 가리키자 검은 새들이 일제히 산으로 향했다.산 전체를 덮을 기세였다.헤이온은 저것들로부터 살아남을 자신이 있었다.자신이 훨씬 빠르니까.이대로 로건과 저들의 시야에서 벗어날 때까지 달리면 그만.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어찌 저만 살자고 레온 할배를 버리고 간단 말인가.종을 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친 속도로 중턱까지 올랐으니 시간상 레온 할배는 아직 산 아래에 당도하진 못했을 터였다.산 어딘가에 있을, 엇갈린 할배를 찾아 함께 도망쳐야 한다.‘빨리 찾아야...’“할아버지가 마을에 계셔!”검은 날개인간을 주시하던 로건이 소리쳤다.“어디? 어디 있어?!”“검은 날개인간 앞에.”검은 날개인간은 종탑 위에 있었다.‘할배가 벌써 마을 중앙에 가 있다고?’로건이 잘못 봤을 리 없고 이런 상황에 농담을 할 리도 없는데...뭐가 뭔지.헤이온이 아는 레온 할배라면 그럴 수가 없었다.“잠깐, 할배 어때? 아직 안개가 남았잖아!”“코를 틀어막으셨어. 아직 괜찮아.”그렇다 해도 시간문제-로건은 굳이 뒷말을 하지 않았다.검은 새들은 산 위에 거대한 그림자를 그리며 맴돌았다.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것 같았다.불행인지 다행인지 마을 상공은 비어 있었다.\*레온은 검은 날개인간과 일 대 일 대치중이었다.좀 전, 잇따른 종소리에 날다시피 산을 내려왔다.산 아래에 도착했더니 약 5m간격으로 패인 족적이 이어져 있었다.보아하니 헤이온이 급히 산으로 돌아온 모양이었다.엇갈리긴 했지만 산 어딘가에 있을 터.어쩌면 오두막에 도착해 있을지도 모르니 돌아갈까 싶었다.그런데 갑자기 마을 상공에 검은 새들이 잔뜩 몰려왔고 그것들의 일부가 하강해서 몸을 터트리며 안개를 만드는 것이 보였다.헤이온이 족적까지 남기며 급히 도망친 이유가 저것들 때문임을 짐작했다.아마도 저 안개는 무척 위험한 것일 것이다.곧이어 정체불명의 검은 날개인간이 등장했고 그가 지시하자 검은 새들이 산 위로 몰려갔다.‘안 돼! 산에는 헤이온이 있어.’레온은 황급히 소매를 찢어 코에 쑤셔 넣었다.헤이온이 남긴 족적을 골라 밟으며 마을까지 한달음에 달려 나갔다.족적이 반대 방향으로 더욱 크고 깊게 패였다.마을로 들어서니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검은 날개인간은 줄곧 산 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달려오는 레온을 금방 눈치 챘다.그는 새들에게 다음 지시를 내리는 것을 잊고 레온을 지그시 내려다보았다.레온은 종탑 아래에 도착해 검은 날개인간을 올려다보았다.이목을 끄는 것은 성공했지만 그를 쓰러트릴 수 있을지 어떨지 자신은 없었다.앞뒤 생각할 겨를이 없어 헤이온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겠단 일념으로 달려왔지만.일이 이렇게 된 걸 알면 녀석 성격에 도망가기는커녕 도리어 튀어나올 가능성이 컸다.그럼 하다못해 검은 날개인간의 힘을 빼 놓거나, 뭔가 정보라도 남겨주어야 하지 않겠는가.‘해치울 수 있다면 더 좋고.’레온의 검에 서슬 퍼런 검기가 서렸다.쿵, 바닥을 박찬 그가 종탑 외벽을 한 차례 딛고 공중으로 솟아올랐다.검은 날개인간의 몸에 검을 찔러 넣었다고 생각한 찰나, 그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다.레온의 뒤로 빠르게 이동한 검은 날개인간은, 손끝을 종으로 그었다.레온의 왼팔이 깨끗하게 잘려져 나갔다.한줄기 빛마나를 순환시켜 강도를 올린 팔이 종이 잘리듯 너무 간단히 잘려나갔다.날개가 있으니 기동력이 뛰어날 것은 예상했다.맨손이 어지간한 검보다 예리한 무기일 줄은 몰랐지만.“훅...!”하강하던 레온은 종탑 기둥에 검을 박아 넣고 양 발로 기둥을 박찼다.반동을 더해 역 공중제비를 돌아, 따라붙던 검은 날개인간의 머리 위를 넘었다.녀석의 목을 꺾을 절호의 기회건만 아쉽게도 팔이 하나뿐이었다.넘으면서 한 손으로 검은 날개인간의 머리채를 쥐고, 그의 등에 두 발 모아 발차기를 날렸다.아쉬운 대로 발에 마나를 집중시켰으니 쇠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줄 수 있으리라.하지만 검은 날개인간은 맞기 직전 몸을 사라락 흩어버렸다.“!?”그의 온 몸을 덮고 있는 검은 비늘은, 갑주나 피부가 아니라 그의 몸 자체였다.여러 겹의 비늘이 방사형으로 넓게 퍼졌다가, 이내 허공을 가른 레온에게로 날아들었다.무수한 비늘에 관통당한 레온의 몸이 힘없이 추락했다.바닥과 부딪히는 동시에 뼈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허망한 레온의 눈에, 새들을 몰고 어디론가 유유히 떠나는 검은 날개인간의 뒷모습이 보였다.\*레온의 왼팔이 잘리는 걸 보자마자 헤이온은 마을로 튀어나가려 했다.그렇게 나올 것을 예상했다는 듯, 로건이 한 발 앞서 헤이온을 붙들었다.둘은 수풀 위로 떨어져 뒤엉킨 채 실랑이를 벌였다.“놔! 놓으라고!”“늦었어!”로건은 손에 깍지를 끼고 사력을 다해 헤이온을 붙들었다.‘지금 가면 무사할 수 없어.’지금까지 왜 숨겼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레온 할아버지는 소드마스터였다.그런데도 검은 날개인간은 너무도 쉽게 할아버지의 팔을 잘랐다.헤이온이 간다 해도 전력이 되기는커녕 개죽음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었다.할아버지는 분명 헤이온을 위해 미끼를 자처했을 텐데 헛수고로 만들 순 없었다.“안 늦었어! 빨리 구하면 돼! 안 놔? 너라도 가만 안 둬!”“그래, 차라리 죽이고 가! 나 먼저 죽이고 가라고!”헤이온은 로건의 깍지를 풀어내려 했지만 그가 워낙 단단히 잡고 있었다.팔을 부러트리든, 잘라내든, 다치게 하지 않고서는 풀 수 없을 듯 했다.“그럼 이왕 잡은 거, 놓지 마.”“뭐? 어엇!”헤이온이 손바닥으로 바닥을 쳐내며 완력으로 몸을 일으켰다.로건은 졸지에 헤이온에게 매달려 강제 기상하게 되었다.헤이온은 로건의 두 다리를 잡아 올려 옆구리에 끼우고 쏜살같이 하산하기 시작했다.“미치겠네!!”\*얼마 지나지 않아 산 아래 자락에 도착했다.산에서부터 마을 어귀까지 어둡게 그늘져있어 올려다보니, 검은 새 무리가 이동 중이었다.헤이온은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으나 잠시 대기했다.발각되면 저것들이 검은 안개로 변할 테니.‘로건까지 휩쓸리게 할 순 없어.’새들이 산 상공에 있을 때와는 사정이 달랐다.뒤에서 쫓기는 상황일 땐 빠르게 달리면 된다지만, 머리 위 반경 상당면적을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장담할 수 없었다.헤이온의 품에서 빠져나온 로건이 눈을 가늘게 떴다.성긴 나무들 사이로 새 무리를 앞장서 이끄는 검은 날개인간이 보였다.상태가 멀쩡했고, 후퇴하는 기색이 아니었다.‘그렇다는 건...’상상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 자꾸 그려졌다.검은 새 무리는 마을 상공을 지나 저편으로 날아갔다.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졌을 즈음 헤이온이 튀긴 공처럼 튕겨나갔다.헤이온이 미친 듯이 달려 도착한 종탑 앞은 혈흔이 낭자해 있었다.이미 여러 구의 시신을 보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외형이라도 멀쩡했다.레온의 시신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었다.한 팔이 잘려나간 데다, 여기저기 베이고 관통당해 몸이 너덜너덜한 종잇장 같았다.“할배! 할배!!”헤이온은 울부짖으며 레온의 시신을 끌어안았다.유모와 마찬가지로, 할배와도 마지막 인사 한 마디 나누지 못했다.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 또한 사랑한 세상 하나뿐인 혈육-.‘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해줄걸.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나 때문이지? 정말 미안해...’철저히 숨겨왔던 정체를 드러내면서까지 적과 맞섰던 건, 필시 자신을 지켜주려던 것이다.혹시라도 손녀를 발견하고 되돌아오지 않을지, 적의 사라지는 뒷모습을 끝까지 보고 있었을 두 눈.헤이온은 레온의 뜬 눈을 감겨주고 입술을 맞추었다.‘안심해, 할배. 나 무사해. 그런데... 어떡하지? 할배 없이 어떻게 살아...?’이제 다시는 할배와 마주보며 웃을 수도, 대화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니 사무치는 슬픔이 밀려들었다.유모의 죽음에 로건도 이런 심정이었겠구나.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슬픔.이 절절한 비통함을 두고, 감히 어떤 심정인 줄 안다 여겼었다니.표현할 수 없는 고통임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다.헤이온의 뜨거운 눈물이 레온의 뺨을 적셨다.뒤따라 종탑에 도착한 로건은 헤이온의 슬픈 뒷모습에, 말없이 다가가 그녀의 등을 감쌌다.그녀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푸욱!날아온 무언가를 맞고 고꾸라졌다.“컥..! 컥, 허윽!”“로건!!”쓰러진 로건의 호흡이 단번에 거칠고 불안정해졌다.로건의 등에는 화살이 깊숙이 박혀있었다.화살이 날아온 방향에 수레를 끌고 온 중년 남자 둘이 보였다.그 중 한 명은 활을 장비하고 있었다.“오올~. 솜씨 안 죽었구먼.”“당연하지! 나한테 걸리면 끽- 이거야.”“그보다, 진짜였구먼. 싹 다 뒤져버렸네.”“몇 번을 말해. 그것들 지나간 자리는 이렇다니까. 오길 잘했지?”“그러게. 운도 좋구먼. 계집까지 있을 줄은.”“빨리 쓸고 뜨자고.”헤이온은 자리에서 일어나 둘을 노려보았다.중년 남자 둘의 표정이 급격히 나빠졌다.“괜히 좋아했구먼. 사내놈이었다니.”“헷갈리게 생겨가지고 열 받게 만드네. 뒤져라!”활을 든 남자가 분노하며 화살을 쏘았다.헤이온은 날아드는 화살을 피하지 않았다.“어엇!?”남자 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헤이온이 화살을 손으로 잡아버렸기 때문이다.그에 그치지 않고, 화살대에서 화살촉을 분리해내 또각, 반으로 나누었다.“뭐, 뭐야! 말도 안 돼!”“튀자!”잘못 걸렸다는 생각에 중년 남자들은 수레를 버리고 달아났다.그들이 건물 사이로 숨어들어가기 직전,팅! 슈와아아아악-!헤이온이 손끝으로 튕겨낸 화살촉 두 조각은, 매섭게 날아가 중년 남자들의 머리를 각각 꿰뚫었다.명중을 확인하자마자 헤이온은 로건을 살폈다.로건은 얕고 빠른 호흡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었다.아무래도 폐를 다친 것 같았다.‘할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 가르쳐 줘. 응?’어떻게든 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마을 의사도, 약초꾼도 전부 죽어 물어볼 사람도 없다.‘이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야? 싫어!’폭풍처럼 몰아치는 가족과 지인들의 죽음 앞에 정신이 나갈 것 같았다.로건이 반쯤 풀린 눈으로 헤이온을 응시했다.헐떡이면서도 그는 뭔가를 전하고자 애썼다.“헤이..온, 나...”“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너... 를...”“닥치라고! 신전 갔다 올 테니까, 꼭 살아서 기다려!”이제 와서 다른 마을 의사를 데려온다 해도 처치가 늦어 소용없을 것 같았다.지금 상황에서 로건을 확실하게 살릴 방법은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았다.이웃한 자작령에 위치한 작은 신전.그곳에 가서 사제를 데려오거나 치료수를 구해오기.위급할 땐 신성력을 이용한 치료만한 게 없다고 들었다.‘하핫...’로건은 힘없이 미소 지었다.평민이 사제를 만나려면 여러 달 대기해야 하고, 치료수는 귀한 만큼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쌌다.사냥과 농사로는 평생을 벌어 봐야 구경도 할 수 없을 정도로.로건의 미소가 무얼 말하는지 헤이온도 알고 있었다.“넌 살아만 있어. 신전 그깟 거, 다 썰어버릴 거야.”“안 됩니다.”“!!!”갑자기 들려온 낯선 목소리에 돌아보니, 한 남자가 언제 다가왔는지도 모르게 곁에 서 있었다.계절에 맞지 않게 망토와 복면으로 온 몸을 감싸고 있어 수상하기 짝이 없었다.‘또 뭐야.’헤이온이 허리춤의 검 손잡이로 손을 가져가자, 남자가 손바닥을 펴 보였다.뽑아들지 말라는 의미였다.“저 분을 살리고 싶으신 게 아닙니까?”“그런데?”헤이온은 잔뜩 경계했지만 남자의 어조는 부드럽고 정중했다.“저에게 치료수가 있습니다.”“...”남자는 어깨에서 허리로 둘러맨 새쉬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내보였다.달리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세를 낮추더니 기꺼이 로건에게 내용물을 써 주었다.하는 수 없이 물러서긴 했지만, 헤이온은 병에 든 것이 치료수인지 아닌지 알 도리가 없었다.복면 남자가 혹시나 이상한 짓을 할까 봐, 검 손잡이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그를 응시했다.치료수는 가히 신약이었다.화살을 뽑아낼 때만 해도 걱정이었는데, 순식간에 상처가 아문 것은 물론 흉터도 남지 않았다.나은 것은 겉뿐이 아닌 듯, 로건은 “우와, 우와!”하는 감탄을 연발했다.“정말 다 나았어? 아무렇지 않아?”“응, 괜찮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로건은 복면 남자를 향해 무릎을 꿇고 머리를 한껏 조아렸다.“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그때까지도 헤이온은 미심쩍어하며 고개만 까딱 했다.“죄송합니다. 원래 딱딱한 친구는 아닌데...”남자는 길에 널려 있는 시신들과 유달리 처참한 노중년의 시신을 시선으로 훑었다.이런 일을 겪었으니 경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다.“이해합니다.”남자의 시선이 한 바퀴 돌아 헤이온에게로 가 닿았다.헤이온은 남자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기분이 이상해졌다.복면 틈새로 드러난 은빛 눈동자.마주하노라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 버린 기분이 들었다.‘착각인가?’\*헤이온과 로건은 영주에게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었지만, 복면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성을 먼저 들러 오는 길입니다. 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엔델 마을의 참상을 보고도 그가 별반 놀라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여행하는 동안 이렇게 참변을 당한 마을을 여럿 봐왔다는 말에 둘은 몸서리를 쳤다.“그 정도면 황실에서도 알지 않나요? 왜 아무 조치도 없습니까?”“국경부근 시골 영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라... 생존자가 없으니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아무래도 늦겠지요.”그렇다 해도 갑자기 공물이 올라오지 않고, 거래가 끊기고, 지인의 연락이 끊기면 누구나 이상하게 여기고 한 번쯤은 직접 찾거나 길드에 조사를 의뢰하기 마련이다.그런데도 새어나가는 소문이 없다는 건 경로가 완벽히 차단되고 있다는 뜻이다.실제로 국경 부근을 골라 여행 중이던 남자는 여러 번 괴한의 습격을 받았다.마을에서 마을로 넘어가는 길목마다 진을 치고 있는 괴한들은 하나같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괴한들은 나름대로 정체를 숨기려 애쓰고는 있었지만 남자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남자는 “누군가 중간에서 차단하고 있어 전해지지 않는다.”는 뒷말은 굳이 하지 않았다.\*혼자였더라면 미쳐버렸을지도 모를 엄청난 일들을 겪었지만, 헤이온과 로건은 다행히 서로 의지할 수 있었다.슬픔을 뒤로 하고, 일손이 부족한 만큼 최대한 서둘러 시신들을 수습하기로 했다.저대로 방치해두어 좋을 게 없었다.복면 남자는 이것도 인연이라며 돕겠다고 나섰다.경계가 무색할 정도로 남자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았다.생각보다 인의가 넘치는 타입으로, 둘의 감사 인사에 이번에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이라며 넘어갔다.다만 로건이 은인의 성함을 물었을 때에도 “비밀입니다.”라며 일축하는 바람에, 헤이온이 구시렁댔다.“역시 수상하지 않아?”“헤이온. 날 살려주신 분이야.”셋은 산과 마을 사이의 밭을 묘지로 정하고 분주히 움직였다.어느덧 땅거미가 지고, 별이 떠올랐다.로건의 집에서 다 같이 하룻밤 묵기로 했다.헤이온에게 엔델 산은 앞마당이나 마찬가지여서 어둡다고 오르지 못할 건 없지만, 그 편이 오전 일정을 수행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였다.주방에 남아있는 식재료들로 어떻게든 끼니를 때우고 나자 졸음이 밀려왔다.로건의 집은 방이 안방, 로건의 방, 손님방 이렇게 총 세 개였다.야외의 시신들부터 수습하느라 안방 침대에는 아직 폴칸 부인의 시신이 누워있었다.그래서 헤이온과 로건은 로건의 방을, 복면남자는 손님방을 쓰기로 했다.로건이 나름 고심해서 내린 결정이었다.가까운 사이이긴 해도 평소라면 헤이온과 절대 같은 방을 쓰지 않을 테지만.줄곧 남자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 “얜 여자니까 독방 쓰고, 저희 둘이 함께 써야 합니다.”라고 하긴 뭐했다.헤이온이 여자인 것도 소드마스터인 것도 전부 오랜 비밀로 해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터였다.레온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온 데에는 까닭이 있으리라.그렇다고 생명의 은인에게 “거실 바닥에서 주무십쇼.” “다른 집에 가서 주무십쇼.”할 수도 없는 노릇.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잘 모시고 싶었다.\*복면 남자는 2층 복도에서 둘과 갈라져 손님방으로 들었다.그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갸웃거렸다.‘당연히 나와 같은 방을 쓰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그의 사정복면 남자는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곧이어 새쉬 주머니 중 하나에서 양피지 조각과 핀을 꺼냈다.새끼손가락 끝을 찔러 나온 피방울에 사념을 담아 양피지 조각에 떨어트렸다.그가 허공에 그린 빛의 잔상은, 마법진이 되어 한층 강한 빛을 발했다.돌돌 만 양피지를 마법진 가운데로 던져 넣고 살짝 박수를 치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주먹을 살짝 쥐었다 펴니 새끼손가락의 상처도 온데간데없었다.“하아-.”복면 남자는 침대에 쓰러지듯 몸을 던졌다.‘답답해.’벨 제국의 남부 국경지대를 시찰한지 벌써 보름이 넘었다.일련의 참상에 대한 갈피를 잡긴 했다.마을을 몇 거치다보니 가까스로 구명한 생존자를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의 목격담을 통해 마수왕 그라노이어가 관련되어 있다는 확신을 내렸다.마계의 새 데비도르는 무리지어 생활하는 종이 아니다.그런데도 무리지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는 건, 통솔하는 자가 있다는 것.하급 마수라지만 이렇게 많은 개체를 한 마리의 이탈도 없이 이끌 수 있는 자는, 마수왕 그라노이어 외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그렇다 해도 원격일 줄 알았는데.’마을 중앙의 전투 흔적이 그가 중간계로 넘어와 있음을 말해주었다.‘예상보다 빨리 넘어왔어. 그 정도로 이쪽 생명이 빠르게 줄었다는 거고.’적들은 신성의 기반이 약한 변두리만 노리고, 중앙으로의 정보를 차단해 원조 및 대응을 막고 있었다.마계에 협조하는 인간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마수왕이 넘어온 것은 더 큰 문제였다.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 반드시 해치워야만 하는 상대.하지만 마계에서 손꼽히는 강자인 만큼, 혼자 상대하긴 벅찰 것이었다.고급 신성마법의 영창 시간을 벌어줄 마스터급 이상의 파티원이 필요했다.‘좀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복면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홀로 싸우다 죽어간 소드마스터 노중년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그와 힘을 합칠 수 있었다면 마수왕을 해치우긴 무리라도, 부상을 입혀 행동을 늦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었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은 물론, 그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시신 수습 중, 노중년의 시신을 한참 바라보던 소녀의 모습이 잊혀 지지 않았다.노을과 얽혀 타오르던 브론즈 블론드.눈물이 타고 흐르던 선이 고운 옆얼굴.망연한 눈빛.필시 깊은 사연이 있을 남장 모습.뇌리에 박히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다.‘그 애, 많이 울었지...’슬피 우는 소녀에게 달리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다.나지막하게 “늦어서 미안합니다.”라고 읊조리는 것 외엔.\*벨 제국 황실에 당장 원조를 요청하자니 여행자를 가장해 잠입한 상황이라 껄끄러웠다.원래는 정식 절차를 통해 신성기사단과 함께 시찰하려 했었지만, 영주들에게 입국을 거절당했기 때문이다.일반기사단이 아닌 신성기사단이라 해도, 전시의 동맹국이면 모를까 타국의 기사단을 들이려니 꺼림칙한 모양이었다.자신의 영지를 합법적으로 점령하겠다는 것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는 눈치였다.이해가 되었다.타국 아니라 자국 기사단이라도 부담스러울 테니.주둔을 허락했다가 내외부의 협공으로 영지를 빼앗아갈지도 모르니까.너무 대놓고 수작부리는 꼴이라 그런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만에 하나’인 경우가 없는 것만은 아니었다.그래서 열심히 설득했었고, 돌아온 답변은...“죄송합니다. 물증 없이 의혹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아직 아무 일 없으니 괜찮지 않습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도움요청 드리겠습니다.”‘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자는 것이지, 일어난 후 돕겠다는 게 아니야.’몇 명의 남부지역 영주들을 만나 보았지만 모두 같은 답변이었다.일일이 허락받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그래서 로이먼드 황제에게 영주들의 설득, 혹은 강제 명령을 요청하였더니 그 쪽은 한술 더 떴다.“이상 현상을 감지했습니다.”에 “우리가 알아서 할게.”로 응수해오니, 답이 없었다.로이먼드 황제는 자신의 검술실력과 황실기사단의 규모에 대한 자부가 엄청났다.재수 없을 정도로.“너희끼리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면 우리가 끼어들지도 않습니다.”라고 에둘러 설법해 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마스터급 기사들의 단체 입국은 안 돼. 호위 몇 명만 남겨. 뭣하면 우리 애들 데려갈래?”“최적의 대응을 하려면 일반 기사가 아닌 신성 기사여야 합니다.”“우리 애들 무시해?”“그럼 신성 사제들이라도 여럿 데려가게 해주십시오.”“걔들 얼마나 바쁜지는 아니?”실제로 저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저런 식이라 끝이 없었다.그렇다.인간들은 불행한 일이 자신에게 닥칠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겪고 나서야 비로소 처절한 깨달음을 얻는다.능구렁이 황제는 “국혼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시는 건 어떻소? 황제의 사위라면 얼마든지 환영받을 거요.”라고 흘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아마도 그게 필요조건인 듯했다.거짓으로라도 사랑을 말할 수 있다면 모를까, 자신도 상대도 불행해질게 빤한 결혼.내키지 않아 대답을 미루었다.세상을 구한다는 대의 앞에 정략결혼이 대수인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너희끼리 알아서 잘 해봐라.’라는 심정이었다.사태를 인지하면 늦게나마 협조하지 않을까 해서, 국경부근에서 야영하며 대기했다.그런데 희생자들의 소식이 차단되고 있었을 줄이야.설마하니 인간 쪽에 마계의 앞잡이가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남부지역 대부분의 영지에 난리가 난 것도 모르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을 황제를 생각하니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이제 와서 신성기사단을 투입해도 늦었어.’틈이 벌어진 곳마다 마법진을 치고 출입을 차단하거나, 출입을 막을 수 없다면 경로를 추적해 가로지르는 방법을 썼어야 했다.신탁을 통해 방향을 가늠하는 건 가능해도 정확한 위치까지 파악하긴 어려웠다.투입해 봤자 지금의 자신처럼 뒤꽁무니나 쫓아야 하는 데다, 자칫 전쟁의 명분이 될 수도 있었다.‘마계 막으려다 인간끼리 전쟁 나면 볼만 하겠네.’\*날이 밝았다.복면 남자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어제 저녁엔 입맛이 없다며 거절하더니, 아침도 마찬가지였다.“내 요리가 그렇게 하찮나?”그는 헤이온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스튜를 한 숟가락 들었다.그러면서도 복면을 벗지 않고 입 부위만 재빨리 올렸다 내리는 것이었다.“...왜 저래. 안 그래도 수상한데.”“헤~이~온.”“알았어, 알았다고.”로건은 “이 상황에서 입맛이 있으면 이상한거야.”라며 복면 남자를 두둔해주었다.“이 상황에 넌 왜 그리 잘 드시고?”“먹어야 힘쓰지.”‘네가 만든 거잖아.’입술을 삐죽거리는 헤이온을 로건이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둘을 보고 있자니 복면 남자는 기분이 복잡해졌다.‘로건은 헤이온이 여자인걸 알까, 모를까?’로건이라는 소년은 치료수를 써준 것에 경계심이 완전 허물어졌는지, 어지간한 것은 전부 말해주었다.이름조차 말해주지 않던 소녀와는 대조적이었다.소녀는, “비밀이라며? 그럼 나도 안 가르쳐줘.”하고 딱 잘랐었다.경계심 없는 로건이 몇 차례 소녀의 이름을 부른 덕분에 알게 되긴 했지만.로건의 말에 의하면, 노중년은 헤이온의 외할아버지로, 소드마스터인 것은 어제까지 헤이온조차 몰랐다고.‘숨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로건은 이것저것 말하는 와중에도 헤이온이 여자인 것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노중년이 소드마스터인 걸 줄곧 숨겨왔듯, 그의 외손녀인 헤이온도 남장으로 성별을 숨겨온 것 같았다.‘외조부께서 검술까지 가르치셨으니.’벨 제국에서 여자에게 교양 검술이나 검무가 아닌, 실전 검술을 가르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되었다.헤이온이 허리에 찬 검은 값싼 것이긴 해도 엄연한 실전용 검이었다.‘어제 빼어들려 했었지. 제대로 배운 자세였어.’그래서인지 로건은 헤이온이 진짜 남자인 줄 아는 것 같기도 했다.헤이온을 대하는 행동이나 말투가 동성친구를 대하는 그것이었으니까.하지만 그가 종종 보이는 눈빛은... 착각이 아니다!‘이, 이상한 생각 하지 말자.’복면 남자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해 질 무렵.“장사 지내고 오두막에도 가봐야겠어.”라는 헤이온의 말에, 복면 남자는 어째서인지 마음이 놓였다.‘로건과 같은 방을 쓰진 않겠네.’하지만 전멸한 마을 주변은 마계의 앞잡이들이 길목을 차단하느라 수시로 순찰을 다닌다.혼자 보낼 수 없었다.노중년의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자 하는 마음도 컸다.그가 마수왕과 접전을 벌이지 않았다면 넘어온 것을 몰랐을 테니.“함께 가겠습니다.”“됐어. 혼자가 빨라.”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헤이온이 모포로 감싼 노중년의 시신을 안아들었다.다른 가족 곁에 묻겠다며 따로 빼두었었다.“걱정 마세요. 저 녀석이 위험할 일은 없거든요.”로건의 말에 복면 남자는 잠시 멍해졌다.헤이온이 여자인 것을 알든 모르...든, 로건이 헤이온을 좋아하는 건 분명했다.‘좋아하지 않아도 그렇지. 어떻게 전혀 걱정하지 않을 수 있지?’자신보다 덩치가 큰 시신을 번쩍 안아든 것도 그렇고, 지금껏 본 바로 힘이 세다는 건 알겠지만.‘곧 해가 지는데 혼자 산을 오르겠다는 걸 말리지 않는 건가?’다행히 로건은 상식 밖의 사람은 아니었다.“그렇지만 나도 할아버지 장사 지내드리고 싶어.”“저도 그렇습니다.”결국 셋 모두 산을 올랐다.헤이온은 시신 한 구를 안고 오르면서도 들어달라는 부탁은커녕 힘든 내색도 하지 않았다.복면 남자와 로건이 몇 차례 교대를 제안했지만 그 때마다 거절했다.복면 남자는 헤이온에게서 처연한 강함을 느꼈다.묵묵히 시신을 안고 오르는 그녀의 뒷모습에, 어제의 눈물 젖은 얼굴이 자꾸만 겹쳐보였다.‘이럴 땐 기대도 괜찮을 텐데.’한동안 더 오르자, 나란히 자리한 두 개의 묘비가 저만치 보였다.헤이온은 그제야 로건에게 운구를 맡겼다.대신, 삽을 빼앗아들고 달려 올라갔다.어쩐지 다람쥐가 겹쳐 보이는 뒷모습이었다.‘뭐지? 이 상황.’복면 남자는 산중 오두막의 침대에 누워있었다.마을에서 들리지 않던 벌레 울음소리가 들려와 왠지 반가웠다.오두막 천정의 자그마한 창을 덮은 나뭇잎 사이사이로 별이 쏟아져 내렸다.하지만, 모처럼의 운치 있는 풍경이 애석할 지경이었다.오두막은 한 칸 구조였고 구석에 일인용 침대가 둘 있었다.‘저 둘, 정말 저래도 괜찮나?’복면 남자는 옆 침대가 계속 신경 쓰였다.아무도 때리지 않았건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로건과 같은 방을 쓰진 않겠네.’에서 ‘둘이 같은 침대를 쓰다니.’가 될 줄은 전혀 몰랐다.“은인께서 하나를 쓰시지요.”너무도 자연스럽게 둘은 한 침대로 올랐다.하마터면 큰 소리 내어 “제가 아니라 헤이온이 써야지요.”라고 말할 뻔 했다.로건은 정말 몰라서 저럴 수도 있었다.하지만 헤이온은?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가족도, 연인도 아닌 남자와 동침이라니.오로지 ‘남자’로 보이기 위해, 성별을 감추기 위해?그렇게까지 해서 숨겨야만 하는 사연이 대체 무엇이기에.내친 김에 궁금하던 것을 묻기로 했다.“저어... 어제도 한 침대에서 그리 주무셨습니까?”“네, 뭐. 저흰 괜찮습니다. 편히 쉬세요!”로건은 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 대답했지만, 덕분에 은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변수한 공간에 있다 보니 알게 된 것이 있었다.베게에 머리가 닿기 무섭게 잠든 헤이온과 달리, 로건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로건의 뒤척임이 멎어들었다.로건이 잠들고 난 후에도 복면 남자는 여전했다.상태이상 치료 마법을 써봤지만 역시나 소용없었다.불면증에 걸린 게 아니니까.‘수면 마법을 배워둘 걸...’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종일 움직인 건 물론, 시신마다 일일이 정화마법을 입히기까지 했다.엔델 마을뿐 아니라 지금까지 거친 마을 전부 그리 해왔다.묘지는 눈에 띄는 족족 정화와 축복을 걸어두었다.데비도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인간과 짐승의 육신을 훼손하지 않는 점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벨 제국도 화장을 하면 좋았겠지만.’보름가량을 선잠으로 피곤을 달래며 발길을 재촉해왔다.보통 사람 같으면 진즉 실신했을지도 모를 강행군이었다.그런데도 잠들 수 없다니.‘물어보지 말 걸.’그럼 어제처럼 조금이나마 잘 수 있었을 텐데.신경이 자꾸 저 쪽으로 쏠리는 걸 막을 방도가 없었다.‘자긴 글렀어.’복면 남자는 조용히 오두막 밖으로 나왔다.동녘 하늘이 어슴푸레 밝아지고 있었다.작은 마당 구석에는 판자를 얹어 만든 벤치가 있었다.그 곳에 걸터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자 몇 개의 봉우리를 지나 산자락 끝에 엔델 마을이 보였다.멀리서 내려다보니 무척 평화로워 보였다.모두가 잠든 시각.하지만 해가 떠올라도 깨어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또다시, 죄책감이 밀려들었다.그 때, 오두막 문이 살짝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났다.밖으로 나온 헤이온이, 남자와 눈이 마주치자 심드렁하게 물었다.“뭐 해?”단순한 한 마디였지만 남자는 헤이온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막 떠오른 태양빛이 그녀의 블론즈 블론드와 금빛 눈동자에 녹아들고 있었다.헤이온이 빙긋 웃었다.“그래, 씹어라.”“앗, 그러려던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사과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그냥... 뭘 좀 생각했습니다.”헤이온은 대꾸 없이 빨랫줄에 걸린 수건 한 장을 집어 들었다.제 때 걷지 못해 밤이슬에 눅눅해졌지만, 없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았다.“저어,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남자의 조심스런 말투에 헤이온이 걸음을 떼려다 말고 뒤돌아보았다.“뭔데?”“막아야 할 것을 막지 못해 죄스러울 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헤이온은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대답했다.“막을 일을 만드는 쪽이 잘못한 거지, 못 막은 쪽이 잘못한 건 아니야.:“졌다...”“무엇 말입니까?”헤이온은 가장 가까운 계곡에서 목을 축이고 세안을 마친 참이었다.복면 남자가 뒤따라오기에 세안하려는 줄 알았더니, 그는 복면의 입 부분을 올려 목을 축이곤 빠르게 다시 내렸다.그리고선 아무 일 없다는 듯 이 쪽을 보는 것이었다.그는 도통 시원스레 복면을 벗는 일이 없었다.먹을 때도, 마실 때도, 잘 때도.‘이쯤 되면 저 복면, 피부 아닐까? 에이, 감추고픈 흉이라도 있는 거겠지.’남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헤이온을 보며 미소 지었다.조금 전, 오두막 마당에서 헤이온의 대답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었다.-막을 일을 만드는 쪽이 잘못한 거지, 못 막은 쪽이 잘못한 건 아니야.그 뒤에 눈을 가늘게 뜨고,“잘못한 쪽을 아작 낼 방법부터 찾아야지. 다신 못 그러게 잘-근-잘-근.”이라고 해서 좀 오싹하긴 했지만.마을의 참상을 겪은 터라 과격한 대답이 나왔으리라.피해자이자 생존자인 그녀가 저렇게 말해주니, 마치 죄를 용서받은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정말 고마워.’‘뭐 좋다고 웃어? 세수하게 꺼지라고 눈치 주는 건가?’어째서인지 헤이온의 표정이 아니꼽게 변했지만, 남자에겐 그마저도 편하게 느껴졌다.순간, 수상한 기척이 느껴졌다.‘뭔가 날아온다!’“피하... 컥!!”남자는 헤이온을 옆으로 밀치고 자신도 피하려 했으나, 헤이온이 더 빨랐다.헤이온의 발이 남자를 가격했다.남자를 날려 보내곤 자신은 우아하게 상체를 틀어 날아오는 화살을 피했다.캉, 카앙! 표적 잃은 화살 두 개가 바닥의 돌을 쪼갰다.헤이온은 적당한 돌 두 개를 집어, 화살이 날아온 궤적 그대로 튕겨 보냈다.“악!”“뜨앗!”짧은 비명소리에 이어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두 차례 들렸다.“으으...”“찢어 죽일 거야!”나무에서 떨어진 괴한들은 더 이상 몸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그들은 대놓고 거리를 좁혀왔다.엉덩이를 주무르면서.“무희 오라비 같은 놈이 잔재주는 있어가지고!”“저기 수상한 놈은 내가 맡을게.”‘누가 할 소릴... 라이트 힐!’누가 봐도 수상한 복면 남자는, 그런 취급을 받은 것에 억울해하며 몸을 일으켰다.발길질 당한 부위에 몰래 치료 마법을 쓰면서.생전 처음 해 보는 진귀한 경험이었다.‘아군에게 맞아 치료마법을 쓰는 날이 오리라고는...’그는 괴한들과 헤이온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치료해주면 되는 것과 별개로 헤이온이 다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실전 검술을 배웠고 힘이 세다는 건 알지만.‘지금 헤이온에겐 무기가 없잖아.’괴한들은 활을 거두고 허리춤에 찬 단도를 꺼내들었다.괴한들이 달려들기 직전, 격투 자세를 취하려는 복면 남자의 옆쪽으로 헤이온이 쏙 빠져나왔다.헤이온은 자세를 낮추고, 빠르게 짱돌 몇 개를 연속으로 집어던졌다.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는 짱돌을 피하지 못하고, 괴한들이 비명을 질러댔다.“악! 어억!”“끄윽!”헤이온은 멈추지 않고, 돌이 손에 닿는 대로 모조리 투척했다.괴한들은 더 다가올 엄두를 못 내고 막기에 급급했다.복면 남자는 이 상황이 어이없으면서도 흐뭇했다.‘참 용하단 말이야.’“너도 같이 해! 재밌어~.”“그럴까요?”“히이익!!”쏟아지는 짱돌의 비를 버티지 못하고, 괴한들이 뒤돌아 도망쳤다.“살살 던졌는데 그걸 못 피해? 느림보들.”“그러게요.”꽁지 빠지게 달아나는 그들의 뒷모습에, 헤이온과 남자는 마주보며 피식 웃었다.“웃어주시네요. 다행입니다.”“?”“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안 싫어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 정말로.”헤이온의 말은 진심이었다.복면 남자는 값비싼 치료수를 망설임 없이 로건에게 써 주었다.로건마저 잃었다면 미쳐버렸을지도 몰랐다.로건을 살린 건, 자신을 살린 것과도 같았다.게다가 연고도 없는 마을의 일을, 대가 없이 도왔다.평생 갚아도 다 갚기 어려울 크나큰 은혜를 베푼 사람.‘좀 전에는, 내 앞으로 나서기까지 했지. 어떻게 싫어할 수 있겠어.’헤이온의 진심을 듣자, 남자는 기쁘면서도 쑥스러워졌다.왠지 모르게 벅차오르는 것을 감추려, 일부러 딱딱하게 대꾸했다.“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또 그 소리. 뭐, 그렇다고 수상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그렇군요. 아 참! 혹시 모르니 오두막으로 서둘러야겠습니다!”“괜찮아.”“네?”“오두막 근처엔 할배가 설치해둔 함정이 많아. 로건이 저런 놈들에게 당할 정도로 약골도 아니고.”어제 산에 오르기 전의 로건과 마찬가지로, 헤이온 역시 로건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었다.‘서로를 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강하게 믿기 때문인가?’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헤이온은 강하고 똑 부러졌다.그런 헤이온이 믿는 로건.‘강한 사람이겠지.’“그보다 너, 세수는 안 해?”“...”‘그야, 세수도 안 하는 더러운 놈으로 낙인찍히긴 싫지만...’그런데 헤이온이 남자의 사정을 이해한다는 듯, 뒤돌아 서 주었다.“기다릴게.”남자는 헤이온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물가로 다가갔다.그가 복면을 벗자, 땋아 올린 은발과 수려한 얼굴이 드러났다.\*오두막으로 향하는 오솔길을 줄지어 걷노라니, 덤불 너머 아름드리나무에 발을 묶여 거꾸로 매달린 괴한이 보였다.헤이온이 씨익 웃으며 괴한을 응징하러 가려는데 복면 남자가,“제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라며 주머니에 넣고 계속 만지작거렸던 짱돌을 내밀었다.“끅!”상체를 들어 밧줄을 자르려던 괴한은 뒤통수에 짱돌을 맞고 축 늘어져버렸다.“이런 걸 챙겨오고, 센스 있네.”“모처럼 재밌었거든요. 처음 해 봐서.”“응? 뭐가? 돌팔매질?”“네. 진작 해볼 걸 그랬습니다. 앞으론 종종 할까 봐요.”“어디서 못된 걸 배워가지고.”“풉!”그들은 이따금 보이는, 함정에 걸린 괴한들에게 번갈아가며 짱돌을 선물해주었다.오두막 마당에 도착하자 로건이 기절한 괴한 둘을 깔고 앉아 있었다.손에는 찌그러진 프라이팬을 든 채.“나만 혼자 두고.”“덕분에 아침운동 하고 좋잖아.”남자는 로건을 살폈다.“괜찮으십니까?”“넵! 이번엔 너무 시시한 녀석들이 와서 이상할 정도... 어?”로건의 안색이 새파랗게 질렸다.로건의 시선을 따라간 하늘 저 멀리, 검은 점이 여러 개 떠 있었다.검은 점들은 그 크기가 커지는가 싶더니, 날갯짓하는 새의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정확히 오두막 쪽으로 몰려오고 있었다.“헤이온!”“나도 봤어! 이봐, 도망쳐야 해!”헤이온과 로건이 복면 남자의 팔을 잡아당기려 했지만, 그는 가볍게 피했다.“알고 계셨군요. 먼저 피하십시오.”“무슨... 앗!”남자는 양 손을 휘저어 투명한 마법 구체 두 개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 헤이온과 로건을 각각 가두었다.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둘은 피할 틈이 없었다.안쪽에서 쾅쾅 두드렸지만 구체는 쉽게 깨지지 않았다.“뭐야, 마법사였어?! 야! 싸울 거면 같이 싸워!”“그래요！ 풀어주세...!!!”둘의 외침을 못 들은 척, 남자는 구체를 팡! 소리와 함께 엔델 마을의 반대편 산자락으로 날려 보냈다.구체에 부딪친 나무들이 우지끈 부러져나갔고, 그 소리는 빠르게 멀어져갔다.‘이대로 피하면, 저 자들은 죽어.’곳곳에 기절해있는 괴한들이 남자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이다.‘일부러 형편없는 자들로 정찰 보냈군.’정해진 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버리는 패.그런 줄도 모르고 충성을 바친 우매한 자들.죽는다 해도 자업자득이지만, 보이는 곳에서만이라도 생명의 손실을 줄여두는 것이 좋을 터였다.그들이 죽으면 그만큼 마계에서 중간계로 넘어올 수 있는 개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그 동안은 전멸시킨 마을 길목을 차단할 뿐, 정찰 후 데비도르를 다시 보내 확인 사살하는 경우는 없었다.하지만 마수왕이 넘어온 이상, 마수와 인간 양 측에 세세한 지시가 가능해졌을 테고, 그는 꺼진 불도 다시 보는 타입인 듯 했다.남자는 신성 광역공격마법을 영창하기 시작했다.마수 데비도르 무리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말살하고 말리라.‘그럴 린 없지만, 저 사이에 마수왕이 끼어 있으면 좋고.’이런 산골에 고위급 신성사제가 있으리라곤 예상치 못했을 테니, 만약 그가 온다면 치명타를 입힐 절호의 기회였다.영창을 마쳤다.언제든 쏘아 보낼 수 있도록 수인을 맺고 대기했다.유리 긁는 듯한 특유의 울음소리가 제법 가까워졌다.이제 곧 사정거리 안.‘조금만. 조금만 더 와라!’“엇?!”남자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데비도르 무리는 사정거리에 들어오기 직전, 우회했다.그들이 향하는 곳은 반대편 산자락이었다.구세의 입맞춤헤이온은 눈을 날카롭게 떴다.하늘에 짙게 깔린, 검은 무더기.가까워질수록 확연해지는 검은 새의 형상.그것들은 고도를 점점 낮추며 직선거리로 다가오고 있었다.‘마을을 그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오두막까지?’산 자를 남기지 않겠다는 집착에 치가 떨렸다.‘할 수만 있다면 전부 짓이겨버리고 싶어!’하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안개로 바뀌기 전에 공격하면 될 것 같긴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다.튀어 올라 몇 마리 도륙해 봐야, 기다리는 건 개죽음.“헤이온!”로건이 부르는 소리에 헤이온은 퍼뜩 정신을 차렸다.옆을 보자 복면 남자가 놀랐는지 경직되어 있었다.해괴한 것들이 몰려오니 그럴 수밖에.“나도 봤어! 이봐, 도망쳐야 해!”헤이온과 같은 생각을 했는지, 로건도 남자를 향해 팔을 뻗었다.‘어?’남자는 미끄러지듯 유연한 움직임으로 둘의 손을 피했다.“알고 계셨군요. 먼저 피하십시오.”근접 거리에서 두 명을 피한 것도 놀라운데, 말투마저 침착했다.“무슨... 앗!”남자가 양 손을 휘젓자 투명한 마법 구체 두 개가 생겨났다.이어 주먹을 쥐자, 마법 구체는 일순간 몸집을 불려 헤이온과 로건을 각각 감쌌다.여기까지 1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둘은 피하기는커녕 놀랄 틈도 없이 구체 안쪽에 갇혀버렸다.둘 다 안쪽에서 거세게 두드렸지만 구체는 쉽게 깨지지 않았다.“뭐야, 마법사였어?! 야! 싸울 거면 같이 싸워!”“그래요！ 풀어주세요....!!!”둘의 외침을 못 들은 척, 남자가 주먹을 확 폈다.팡! 소리와 함께 구체는 엔델 마을의 반대편 산자락으로 날려 보내졌다.구체는 산비탈 지면을 따라 낮게 공중을 가르며 질주했다.솟구치는 흙먼지 사이로, 오두막이 빠르게 멀어져갔다.구체에 부딪친 나무들이 우지끈우지끈 부러져나가고, 바위는 굉음을 울리며 박살나 파편을 흩뿌렸다.그런 와중에 둘에게는 아무런 충격도 전해지지 않았다.‘보호막이라 이거지? 누가 보호해 달랬어?!’헤이온이 온 힘을 다해 내벽을 갈겼지만, 어찌나 단단한지 흠집조차 나지 않았다.분명, 복면 남자는 검은 새들에 대해 아는 눈치였다.‘어차피 안 믿을 테니 말하지 말자고 했었지.’로건이 자신 몰래 떠벌린 건 아닐 것이었다.남자의 마지막 말은, 둘이 새에 대해 모르는 줄 알았다는 뉘앙스였으니까.남자 역시, 참변을 당한 마을을 여럿 보았다고만 했을 뿐, 검은 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었다.이쪽과 마찬가지로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였을지도.남자는 엔델 마을에 이르러, 새 이외에도 소드마스터를 처참히 죽일 정도의 강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리라.‘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그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자신과 로건을 피신시켰다고 가정하면, 남자는 그 존재가 나타날 시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어쩌면 새만으로도 희망이 없을 수도 있고...’마법은 기초도 떼지 못하고 접어서 잘은 모르지만 이것만큼은 안다.강한 마법일수록 주문이 어렵고 길며, 많은 양의 마나를 전환시키려면 시간이 꽤 필요하다는 것.첫 발은 미리 주문을 외워둘 수 있으니 쓸 수 있는 것 중 가장 강력한 걸 쓴다고 해도, 이후가 문제다.검은 날개인간이 새만 먼저 내려 보내면?함께 내려온대도 한 방에 죽지 않으면?...보나마나 두 번째 주문 외우다 골로 간다.‘차라리 엄청 여유 있고, 우리가 방해돼서 치워버린 거라면 좋겠다.’이쪽에서 전력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렸다면, 혼자 싸우려 들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할배의 모습이 겹쳐 자꾸만 불안해졌다.‘소드마스터, 아니... 마나 유저라고 해둘 걸.’헤이온은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억누르고, 주먹에 마나를 집중시켰다.그 상태로 가격하니 드디어 마법 구체 내벽에 금이 갔다.‘이거거든!’좀 더 강하게 응집시켜 치려는 순간, 어두워지더니 뭔가가 하늘에서 내려와 구체에 따라붙었다.검은 날개인간이었다.새들보다 앞서 움직이는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새들은 상공에 띄워둔 채 혼자 내려왔다.가까이서 보니 위압감이 상당했다.하나하나가 검과 같은 여러 겹의 비늘은 물론이고, 날개도 어처구니없었다.그가 구체를 따라붙으며 펼친 날개 면적 안쪽은 철저히 파괴되고 있었다.나무, 바위 할 것 없이 모조리 퍽퍽 갈려나갔다.깃털도 비늘과 같은 장르인 것 같았다.‘날개 맞아? 무슨 전설의 금속이라도 이어붙인 공성병기 아니고?’어느새 산자락 근처까지 왔다.곧 평지가 가까운 지점.검은 날개인간이, 로건이 든 구체를 발뒤꿈치로 내려찍었다.로건은 구체와 함께 땅 속 깊이 푸욱 박혀버렸다.‘나가기만 해, 가만 안 둬!’날개인간은 헤이온이 든 구체를 잡아 자신의 가슴 높이로 들어올렸다.“?!”그리곤 어딘가로 이동하려는 듯, 그대로 날아올랐다.헤이온이 구체를 부수고 낙하하는 바람에 도로 하강해야 했지만.날개인간은 헤이온이 추락하기 전, 멱살을 잡아 붙들었다.“꺼져!”그는 마나로 강화된 발차기를 한 손으로 간단히 잡아내고는, 귀찮은지 꺾어 부러트렸다.아직 쓰지 않은 다른 다리까지도.‘하, 씨... 마나 유저 살살 녹네... 소드마스터라 했어도 날려 보냈겠다...’날개인간의 어깨 너머 눈부신 빛의 폭발이, 헤이온의 가늘어지는 시야 안으로 들어왔다.\*‘거의 다 왔었는데! 어째서?!’복면 남자는 아연실색했다.데비도르 무리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기 직전, 방향을 틀어 반대편 산자락으로 향했기 때문이다.조금 전, 헤이온과 로건에게 디펜스 쉘을 씌워 날려 보낸 방향이었다.디펜스 쉘은 일반 물리 데미지의 방어에는 탁월하지만, 대기 중에 퍼진 마기를 막아주진 못한다.그들이 난전에 휘말릴까 봐 보호하려 한 행동이, 오히려 사지로 내몬 게 되어버렸다.‘구해야 해!’하지만 한 번에 두 가지의 마법을 캐스팅할 수도, 이미 전환 완료된 마나를 내부로 되돌릴 수도 없었다.그랬다간 운이 좋으면 기절, 나쁘면 즉사할 수도 있었다.무조건 외부로 형상화시켜야 했다.하는 수 없이, 남자는 데비도르 무리의 뒤를 향해 마법을 쏘아 보냈다.일부밖에 명중시키지 못하겠지만, 관심을 이쪽으로 돌릴 순 있을 것이었다.양 손바닥에서 좌우로 뻗어나간 빛의 줄기가 반 바퀴 돌아 거대한 링을 그렸다.링의 반경 안은, 화산이 폭발하듯 터져 나온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다.빛을 맞은 데비도르들이 흔적도 없이 녹아내렸다.마기는 퍼지지도 못하고 빛의 입자에 묻혀 사라졌다.남자는 대기 중에 퍼져 있는 마나를 몸 내부로 끌어들였다.산이라 그런지 도시보단 확실히, 마나의 농도가 짙었다.반대편 산자락에 도착하자마자 남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수왕에게 붙잡힌 헤이온이었다.의식이 없는지 머리를 잡힌 채 축 늘어져 있었다.마수왕은 남자와 헤이온을 번갈아 보더니, 실망했다는 제스처를 취했다.“권능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나. 괜히 물렸군.”놀랍게도 마수왕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마수왕이 이 쪽 언어를 사용할 줄 안다기보다는, 마수와의 교감이 가능한 자이니 마찬가지 원리로 인간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았다.마계의 마수는 중간계의 동물에 해당하고, 인간은 동물이니까.‘권능? 무슨 소리지. 게다가 일부러 물렸다고?’어쩐지 여기까지 오는 길이 수월했다.나머지 데비도르들이 몰려들 것을 각오했는데, 오히려 하늘 길을 터주어 희한하다 싶었다.조종당하는 중에도 본능적인 공포를 느껴 피하는 줄 알았더니만...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이쪽의 말도 알아들을 수 있나? 당장 놔!”남자는 마수왕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손바닥을 펼쳐 한 가닥 빛줄기를 날렸다.마수왕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만 까딱여 피해버렸다.직후, 눈앞의 인간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 마수왕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왔다.동물인 이상 절대 속일 수 없는, 마수왕의 권능.고급 광역마법으로 마나가 고갈되다시피 했을 텐데, 회심의 일격을 실패했으니 어찌 보면 당연했다.“안타까워하고 있군. 이제 죽어라.”한껏 기대했는데 날아온 것이 인간이라 적잖이 실망한 참이었다.절대 곱게 죽이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남자에게 손끝을 겨누었다.남자는 덤덤한 투로, 내뱉듯 말했다.“그래. 안타깝다, 네가.”“...?”자세히 보니, 남자의 손바닥은 빛줄기를 날릴 때 펼쳤던 그대로였다.사라진 줄 알았던 빛줄기는, 빗겨나간 듯 눈속임 후 수직 상승해 있었다.남자가 손바닥을 아래로 내리그었다.마수왕 머리 위 상공에 떠 있던 빛줄기가, 수천 갈래로 쪼개지며 지면에 일직선으로 내리꽂혔다.투콰콰콰콰콰콱!!수천 발의 광선에 강타당한 산자락 일대에 자욱한 흙먼지가 일었다.데비도르를 물려준 덕에, 날아오면서 캐스팅했던 홀리 레이를 그대로 선물할 수 있었다.‘녀석이 방심해서 다행이야.’고급 마법을 연달아 쓰리라곤 생각지 못한 듯 했다.라이트닝 볼트쯤으로 여기고 1격을 가볍게 피한 것이 마수왕의 패착.이쪽으로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남자는 손을 휘휘 저으며 바람 마법으로 흙먼지를 날려 보냈다.“으으.”옅어지는 흙먼지 사이로 신음하는 마수왕이 보였다.워낙 빠른 자이기에 치명상은 피한 것 같았다.그래도 한 쪽 날개를 포함해, 몸의 절반이 너덜너덜해져 있었다.그렇게 되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헤이온을 붙들고 놓지 않았다.정확히는, 헤이온을 감싼 마법 구체를.홀리 레이의 2격을 시전하자마자 곧바로 헤이온을 홀리 쉘로 감쌌었다.‘아까는 기절해서 늘어진 거라고만 생각했었는데...’홀리 쉘에 담긴 그녀의 다리가 둘 다 비정상으로 꺾여 있었다.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그녀 대신, 차라리 내 다리였다면.마음이 아팠다.지체 없이 당장 치료해주고 싶었다.“다가오지 마라! 통째로 부숴버리겠다!”서두르던 남자는, 마수왕의 협박에 멈춰 섰다.협박이 통하자, 마수왕은 속으로 비웃었다.이번에야말로 진정 안타까움이 전해져왔다.연민이 뒤섞인.중간계의 생명체들은 대개 쓸데없는 감정놀음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우매하고 약한 주제에, 생존이나 영광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에 얽매이기까지.저런 하등한 것들은 하루빨리 비워내고, 중간계를 마계의 새로운 터전으로 삼으리라.마수왕은 남자의 미간을 향해 비늘을 쏘아 보냈다.하지만 비늘은 남자 근처의 보이지 않는 막에 부딪혔고, 비늘은 튀는 불꽃과 함께 빛의 입자가 되어 흩어졌다.마기를 방출하기도 전에.“...!!”마수왕은 그제야 당황하기 시작했고, 본인이 무얼 놓치고 있는지 빠르게 깨달았다.어떤 계열의 마법이든 고급 클래스일수록, 특히 광역기일수록 방대한 마나를 필요로 한다.마나의 재충전까지 수십 분은 족히 걸리기에 고급 마법을 연달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그런데 눈앞의 인간은 그걸 해내고 있었다.산 중턱에서 보호막을 두 개나 동시에 생성한데다 광역 폭발 마법을 썼다.이후 바로 날아오고, 광선 비에 이어 또다시 보호막, 언제 시전 했는지도 모를 방패까지...심지어 저 방패는 비늘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단숨에 소멸시켰다.방어마법 중엔 최고 클래스임이 분명했다.고급 신성마법의 연사가 가능한 중간계의 고등생명체는, 자신이 알기론 하나뿐이었다.신계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다는 자.신의 축복으로, 무한에 가까운 마나 스토레이지를 타고난 자.“넌! 은백의 성자, 클레어 힐트 루!!”“짜증나.”중간계 정복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신성 최고사제.그의 예상 좌표는 중간계에서 루 공국이라 불리는 곳이었지, 벨 제국, 그것도 남부의 끝자락은 아니었다.이런 곳에 단신으로 나타날 거라곤 예상하지 못해 당했을 뿐.그래봤자 인간인 이상 한계는 존재한다.마나의 비축량이 무한에 가까운 것과 별개로, 마법을 캐스팅하는-마나를 전환하는-시간은 필요하다.물을 담는 그릇이 크다고 해서, 그 안의 물이 저절로 기체나 고체가 되진 않듯이.더군다나 상황 봐서 적절한 마법을 캐스팅하는 것이지, 마구잡이로 할 수는 없는 법이다.마수왕은 방패를 시전한지 얼마 안 된 지금, 재빨리 움직이자는 결론을 내렸다.은백의 성자는 아무래도 ‘이것’의 가치를 모르는 듯 했다.일단 후퇴하고, ‘이것’을 취한 후 설욕해도 늦지 않으리.마수왕은 헤이온이 든 구체를 들고 날아오르는 동시에, 데비도르 무리를 불러들였다.“!!” 한 가닥의 빛줄기가 아슬아슬하게 스쳐지나갔다.돌아보니 은백의 성자가 자신을 향해 손바닥을 펼쳐들고 있었다.본능적으로, 머리 위를 올려다보았다.아무 것도 없었다.은백의 성자는 그런 자신이 우습다는 듯, 얄밉게 빈정댔다.“1격을 어느 방향으로 보낼지는 내 마음이라서.”즉, 2격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른다.손을 보고 피하면 그 땐 이미 늦다.좀 전에 2격의 시발점을 보고 피했는데도 몸의 절반이 너덜 해졌다.멀쩡한 상태에서도 그랬거늘 한 쪽 날개가 망가진 지금은... 진땀이 났다.“그거 내려 놔.”아마도 날아오기 전, 산의 중턱에서부터 이미 방패가 시전 되어있던 모양이었다.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렇게 빠르게.마수왕은 한숨을 내쉬었다.아무래도 ‘이것’을 취하는 것은 뒤로 미루어야 할 듯 했다.은백의 성자는 ‘이것’이 죽도록 내버려두고 자신을 추격하지는 않을 테니까.“클레어! 이 굴욕은 반드시 되갚아주마!!”“내려놓기나 해.”마수왕은 마법 구체를 데비도르 무리가 있는 곳으로 던졌다.구체를 향해 비늘 수십 개를 쏘아낸 뒤,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로 도망쳤다.클레어는 마수왕의 뒷모습을 힐끗 보며 아까와는 차원이 다른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홀리 실드와 마찬가지로 홀리 쉘도 타격을 받으면 신성력을 반사한다.‘통째로 부수겠다더니, 결국 한 대도 안치고 그냥 가?’협박 때문에 멈춰 섰던 게 아니라, 캐스팅한 홀리 실드를 배치하던 중이었다.당연히, 두 번째 홀리 레이의 1격은 속임수였다.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다.‘1격을 어느 방향으로 보낼지는 내 마음이라고 했지, 방금 쏜 게 홀리 레이의 1격이라고는 안 했어.’겁에 질려 라이트닝 볼트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망쳐버렸으니, 어느 쪽이 운이 좋은 건지 미묘한 지점이었다.그가 쏜 비늘들은 홀리 쉘에 명중하자마자 터져나가며 빛의 입자가 되어 흩어졌다.데비도르 무리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부리로 찍어댔고, 마찬가지로 터져나갔다.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데비도르 무리가 태양빛을 차단하고 있는데도 구체 외벽에서 터져 나오는 빛의 입자에 눈이 시릴 정도였다.무리 중 일부가 홀리 쉘의 아래쪽을 받치고 있는 바람에, 공중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시달리고 있었다.데비도르가 전멸할 때까지 버텨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형편 좋은 경우는 잘 없는 법.강도가 엄청난 비늘 수십 개와 데비도르 수백에 뚜드려 맞은 상황이고, 데비도르는 아직도 수천 마리가 남아 위태위태했다.‘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버텨 줘!’빛의 입자가 흩뿌려질수록 홀리 쉘의 외벽이 눈에 띄게 얇아져갔다.마침내 쩌엉! 하고 산산조각 난 홀리 쉘은, 파편을 튕겨내며 마지막까지 주변의 데비도르를 빛의 입자로 만들었다.추락하는 헤이온에게 따라붙은 수천 마리의 데비도르가 줄줄이 자폭했다.언제 눈이 부셨었냐는 듯, 앞뒤 분간조차 어려운 암흑.그리고 암흑을 찢는, 찬란한 빛의 폭발.클레어는 빛의 기둥 속을 날아올라, 떨어져 내리는 헤이온을 받아 품에 안았다.클레어의 입술이 헤이온의 입술을 덮었다.사우스바인으로 수차례 굉음이 땅을 두드리고, 암흑과 빛이 교차했다.아무리 때려도 사라지지 않던 마법 구체가, 어느 순간 훅 사라졌다.아마도 유지 시간이 종료된 것 같았다.가까스로 흙더미를 기어 나와 처음 본 것은, 거대한 빛의 기둥.그리고 그 안의 두 사람.남들보다 뛰어난 시력을 지닌 것은 행복일까, 불행일까.로건의 눈동자에, 헤이온과 남자의 입맞춤이 선명히 각인되었다.\*“오해하지 마십시오. 치료 행위였습니다.”클레어는 말하면서도, ‘이걸 굳이 설명해야 하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로건도 알고는 있었다.착지 예상 지점으로 달려오는 내내, 한시도 헤이온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었으니까.착지 후에도 한동안 지속된 입맞춤이 끝날 때까지.그 사이 헤이온의 꺾인 다리가 올바르게 맞춰지고, 창백했던 얼굴에 다시 핏기가 도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구태여 설명을 듣지 않아도 남자가 무엇을 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었다.‘알아. 아는데! 무척 감사한 일인데...!’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심정이 복잡했다.“네! 감사합니다.”딱딱한 인사 후, 빼앗듯이 헤이온을 옮겨 받아 안았다.‘헉!’잇따른 충격 때문인지 헤이온의 셔츠 앞섶이 풀려 가슴 일부가 노출되어 있었다.게다가...‘폴리모프가 풀렸잖아!’로건은 재빨리 헤이온의 상체를 당겨, 자신에게 밀착시켰다.남자에겐 헤이온의 등만 보이도록.‘레온 할아버지의 방침을 따르는 것뿐이야.’사실은, 저 남자... 아니 그 누구라도, 헤이온이 여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싫은 거지만.‘언제 풀렸지? 설마, 들켰나?’로건은 남자를 흘깃 보았다.그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복면을 고쳐 쓴 것 외에는.“...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남자의 대꾸가 미묘하게 떨떠름했지만, 로건은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다.남자가 자신에겐 치료수를 쓰고, 헤이온에겐 입을 맞춘 것이 더 신경 쓰였다.‘여자인 걸 알아채고 일부러 음흉한 방법을 쓴 거 아냐?’그저께, 남자가 새쉬 주머니에서 치료수를 꺼낼 때, 분명 보았다.안쪽의 같은 병 여러 개를.‘여분이 있는데도 구태여 그런 방법을 쓰다니.’자신에게 망설임 없이 치료수를 써줬던 사람이다.이제 와서 치료수가 아까워 그런 것은 아닐 것이었다.‘신세진 마당에 따져 묻기도 뭐하고. 후...’감사한 한편, 불쾌했다.불편하긴 클레어도 마찬가지였다.헤이온의 골절과 무의식은 둘째 치고.데비도르 수천마리 분량의, 농도 짙은 마기 한가운데 노출되어 한시가 급한 상태였다.그녀가 들이마신 마기를 빠르게 정화하기 위해, 신성력을 숨에 직접 불어넣는 방법을 썼다.워낙 대량의 마기가 침투해있어 정화를 마치기까지 좀 걸렸을 뿐인데.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도, 로건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그래서 변명 같은 설명을 했건만...여전히 미심쩍다는 눈초리였다.‘빤히 본 걸 설명까지 했으면 됐지. 어쩌라는 거야? 설명 말고 해명하라고?’치료수는 일반적인 내, 외상과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마기를 정화하는 효과는 없다는 거?성수는 지난 마을 피해자들에게 쓴 것이 마지막이었고, 남아있었다 한들 병마개를 따는 것조차 시간낭비였을 거라고?의식을 차리도록 외상을 치료한 후, 병을 꺼내고 마개를 따서, 마시라며 건넬 때쯤이면 이미 그녀는 죽어 있었을 거란 거?죄 지은 것도 아닌데 해명씩이나.‘구구절절 읊는 거야말로 변명 같잖아.’은인님, 은인님 하며 친근하게 굴 땐 언제고, 확 바뀐 태도라니.공은 공이고 사는 사 아닌가?씁쓸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헤이온을 저렇게까지 밀착해서 안고 있는 건...자신을 의식한 행동임이 분명했다.자신보다 오래 알고 지낸 돈독한 사이이니, [당연하다]는 듯 그에게 헤이온을 넘기긴 했지만.‘...당연하다는 건 뭘까? 구한 건 난데.’보고 있노라니 역류한 위산을 되삼킨 마냥 씁쓸했다.솟구치는 짜증의 원인이, 둘이 밀착해 있다는 사실 때문인지, 그의 바뀐 태도와 괜한 견제 때문인지 확실히 짚을 수 없어 더더욱.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알고 있었군.’마수왕에게 잡혀 있었을 때부터 줄곧, 헤이온의 가슴은 압박하던 무언가가 풀렸는지 봉긋한 태가 나는 상태였다.저리 붙어있으면서 그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놀라는 기색도 없으니.이미 여자인 걸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았다.‘알고도 한 침대에...’클레어는 잡념을 떨치려 말문을 열었다.“엔델 마을은 저들이 수시로 정찰할 겁니다.”“도적들이요? 검은 새들이요?”어색한 침묵보단 낫다 싶었는지, 아니면 궁금해서였는지 로건이 빠르게 대꾸했다.“둘 다입니다. 그런데 도적들이라니요?”“열흘에 한두 번쯤 오나? 그 때마다 할아버지와 저희가 쫓아냈지만요.”그러고 보니 오두막 마당에서 로건이, ‘이번엔 너무 시시한 녀석들이 왔다’고 했었다.‘앞잡이들이 아니라 단순한 도적떼였나?’그렇다 해도 약탈 시도가 잦은 편이었다.‘경비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건가, 갖추지 않는 건가.’이들이 수문장 역을 해주어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 마을은 진즉...“아 참! 검은 새들은 정체가 뭐죠? 날개달린 인간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마수와 마인입니다. 신성력이 없는 일반적인 공격은 통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엔델 마을을 떠나 아예 남부지역을 벗어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어서 안전 지역까지 함께 해주겠다는 말을 하려던 차에, 때마침 통신 마법진이 들어왔다.주둔지 피습으로 신성기사단 사실상 궤멸.잔존 후퇴 중으로 지원 불가.주둔지 복귀가 아닌 본국 귀환 요망.나무그늘 아래.깨어난 이후로도 헤이온은 로건의 다리를 베개 삼아 계속 누워있었다.“사우스 바인?”“엉. 할배가 그랬어. 당신께 무슨 일 생기면 사우스 바인을 찾아가라고.”“거기가 어디쯤인데?”“난들 아나. 지명만 봐선 남쪽 어디쯤이겠지.”로건은 ‘가본 적 없는 곳이란 거잖아.’라고 대꾸하려다 말았다.그렇게 말하는 대신, 헤이온의 머리카락을 부드러운 손길로 쓸어 넘겼다.‘어차피 어디론가 떠나지 않으면 안 돼.’복면 남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생계를 꾸려가자니 막막했다.폴칸 가의 사람들은 전부 루인 남작령에 터를 잡고 있었으므로 의지할 곳이 하루아침에 몽땅 사라졌다.인근 마을은 물론이고 영주 성까지 전멸하는 바람에 교류도 이사도 불가능했다.오로지 둘뿐인 고립된 마을.사냥과 채집만으로도 먹고 사는 것 자체는 걱정 없지만, 헤이온에게 보다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었다.‘큰 도시에서 뭐든 일자리를 구하면 돼.’헤이온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도 능력은 충분하니 굶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 했다.그래서 헤이온이 깨어났을 때, 떠나자는 얘길 했더니 [사우스 바인]이 거론된 것이다.아는 거라곤 지명뿐이지만 목적지가 아예 없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았다.제국의 남쪽에 있는 곳이라면 엄청 먼 곳도 아닐 테니.적어도 북쪽보단 나았다.엔델 마을이 남쪽 끄트머리니까.“엄마가 자란 곳이라고 했어. 비상시 후견인이 되어 줄 친척이라도 있는 거 아닐까?”“그래? 그럼 꼭 가보자. 촌장님 댁에 쓸 만한 지도가 있을 거야.”말을 마친 로건이 일어나 그늘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헤이온이 콱 붙들었다.‘이크...!’아니나 다를까, 헤이온이 전후사정과 사라진 남자의 행방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다리 부러진 다음부터 기억이 없어. 그 사람이 물리쳤다고? 혼자?”“응. 어떻게 싸운 건지는 나도 못 봤어. 뭐가 막 번쩍번쩍 했는데, 기어 나오니까 상황 끝나 있더라.”“그래? 나한테도 치료수 써줬구나. 지금은 멀쩡하잖아.”“어? 응... 그렇지.”헤이온은 나무 기둥을 툭툭 차고, 제자리점프도 해 보았다.평소 컨디션 그대로라, 부러졌던 게 꿈처럼 느껴졌다.마나를 응집시켜 강철같이 만든 다리를 풀꽃 꺾듯 꺾어버린 날개인간.‘할배의 원수를, 한 대 갈기지도 못하고...’무기가 없었다고는 해도 그토록 허무하게 당할 줄은.무기를 들었던 할배도 당했으니 당연한 결과라지만, 너무너무 분했다.‘그 어처구니없는 괴물이 도망갈 정도면, 얼마나 강한 사람인거야?’구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생명이 위급한 부상도 아니고 응급처치로 충분한 걸, 비싼 치료수를 써 주었다.생색내기는커녕 이름도 나이도 출신도 밝히지 않고 홀연 떠나버린 남자.“대체 은혜를 어떻게 갚지? 하이클래스 마법사를 전부 찾아다니면 만날 수 있나?”헛다리짚는 헤이온을 보자, 로건은 얼버무리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남자와 비교하면 자신이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졌다.그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신성사제인데다 강하고, 체형도 은근 좋았으며, 목소리마저 차분하고 부드러웠다.제대로 본 건 턱 뿐이지만 얼굴선도 날렵한 것 같았다.있는 그대로 다 말해주면, 헤이온이 남자에게 큰 관심을 가질까 걱정되었다.다시 볼일은 없을 테고 남자도 헤이온에게 관심 없어 보여 그나마 다행이지만.‘생각해 보니, 헤이온이 여자인 걸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무관심할 수는 없지. 괜히 의심했었네.’문제는 헤이온이었다.은혜가 어쩌고 해도, 헤이온이 남에게 관심을 보인 건 처음이라 신경 쓰였다.하이클래스 마법사를 전부 찾아다니겠다는 둥 저러니, 신성사제란 걸 알면 신전을 다 뒤져서라도 찾으려 할지 몰랐다.신성사제들의 근무지는 백이면 백 신전이고, 수가 한정되어 있어 작정하고 찾으면 생각보다 금방 찾을 것이었다.마법사들은 연구소나 아카데미 등, 정해진 근무지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은둔생활을 하는 자들도 많으니 오해하도록 두는 편이 나았다.‘나도 반드시 강해져서, 꿀리지 않을 때 고백하겠어.’“인사도 못 했네. 나 깨어날 때까지만 있으라고 붙잡지.”“나도 못 했어. 갑자기 확 날아가 버리더라. 비유가 아니라 진~짜 날아갔어.”“오, 멋지네. 나도 마법 배울 걸 그랬나. 검보다 마법이 더 센 거 아냐?”“그건 아닐 걸. 상성이 있다는 것 같아.”“아하! 그 사람은 그런 것도 아는구나. 마법에 약한 괴물이래?”“...몰라.”\*둘은 오두막과 마을 몇몇 집들을 차례로 들러 옷을 갈아입고 준비물을 챙기는 등 떠날 채비를 마쳤다.대장간에서 제일 좋은 검과 활을, 식료품점에서 육포를, 빵집에서 마른 빵을, 촌장님 댁에서 지도와 나침반을...허락받을 수 없으니 무작정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이제 없다는 것이 새삼 실감났다.그리고 자신들은 정든 마을을 떠난다.가족과 이웃을 땅과 가슴에 묻고.불현듯 서글퍼졌다.“잘 쓸게요. 빌려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해요.”촌장님 댁에서 제법 큰 지도를 찾긴 했지만, 사우스 바인이 표기되어있지 않았다.둘은 가장 가까운 도시로 떠나기로 했다.더 크고 정밀한 지도를 구하는 것이 여행길의 첫 목표가 되었다.“헤이온, 폴리모프.”“숭그리당당 숭당당!”“푸핫, 뭐야?”“네가 너무 굳어 있어서.”“고마워.”로건의 ‘고마워’에는 ‘웃게 해줘서 고맙다’외에도 다른 뜻이 감춰져있었다.헤이온은 여전히 남자 모습으로 폴리모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이대로 지낸다면 헤이온이 여자란 걸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헤이온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유일했으면.최소한, 강해지기 전까지.오리무중도 식후경클레어는 본국으로 바로 귀환하지 않고, 남부 국경지대의 전 주둔지로 향했다.신성 기사단 단원은 모두, 마나 유저 이상의 신성사제들이다.일명 전투사제라 불리기도 하는 구마사제.이번에 출정한 신성기사단 1군에는 메이스마스터가 다섯이나 되고, 7서클 이상의 신성마법 구사가 가능한 고위급 사제도 자신을 포함해 둘 있었다.‘그 며칠 새 궤멸이라니?’거짓 정보일 리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후퇴 중인 아군과 합류할 생각이었다.엔델 마을 부근에서 이미 크게 터트려서, 더 이상 정체를 숨기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클레어는 방해물 없는, 높은 공중을 가로질렀다.발 밑 풍경이 휙휙 바뀌었다.숲에서 들로, 들에서 강으로, 강을 지나 마을, 다시 숲...거의 다다라서야 고도를 낮추어 나무 사이사이를 비집었다.‘이럴 수가.’보고도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다.울창했던 나무들이 온데간데없는 붉은 언덕.일대가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전멸한 마을들을 여럿 봐 왔지만, 전해지는 중압이 달랐다.일반인도 아닌, 구마사제들이...동고동락해온 듬직한 수하들이 생전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갈가리 찢겨 있었다.개중에는 압사당한 듯, 짓눌려 터져나간 시신도 있었다.두 동강나 상체와 하체가 멀리 떨어진 시신도.멀쩡한 상태의 시신은 한 구도 없는, 쏟아진 피와 부산물의 아수라장.‘대체 무엇이 피습해왔기에?’전투력에서 밀리더라도 스스로, 서로를 치료해주며 오랜 시간 버티는 것이 가능한 이들이다.이들이 이렇게 된 건, 치료마법을 쓸 겨를이 없었거나, 버티고 버틴 끝에 신성력이 고갈될 정도의 강력한 적이 출현했다는 것.‘원군 요청을 할 틈도 없었다는 건가...’본국에 원군 요청이 들어갔다면 그 사실이 자신에게 통보되었을 텐데.본국은 물론이고, 비교적 가까이 있던 자신에게조차 지원 요청이 없었으니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클레어는 피바다 위를 떠다니며 떠나간 이들을 애도했다.당장 수습할 수 없으니 들짐승 밥이 되지 않도록, 축복을 내린 참이었다.“클..레어...전하...”“!”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황급히 몸을 날렸다.난도질당해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오스틴 경이 보였다.“흐아아... 감사합니다! 꼭 와주시리라 믿고 기다렸습니다.”오스틴이 감사 인사를 하며 몸을 일으키자, 박살난 갑옷 파편이 덜그럭 소리를 내며 떨어져나갔다.그는 깊은 숨이 고팠었다는 듯, 심호흡을 했다.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다신 크게 숨 쉬는 일이 없을 줄로만 알았으니까.“인사를 받기엔,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클레어의 시선이 언덕으로 가 있는 것을 본 오스틴은, 고개를 저었다.“아닙니다. 제가 죽기 전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입니다.”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건져 다행이란 의미가 아니었다.기사단원 전원이 클레어와의 직통 통신마법 채널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았다.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대원수들하고만 공유 중으로, 1군 대원수는 마법이 주특기인 요르센이었다.그래서 오스틴은 클레어가 와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만신창이인 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신성력을 아껴가며 버티고 또 버텼다.끝끝내 클레어가 오지 않았다면 전할 수 없었을, 이 말을 전하기 위해.“요르센은 변절자입니다! 그리고, 다크 드래곤이 넘어왔었습니다!”헤이온과 로건은 마을을 떠난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했다.일부러 산행을 택한 보람이 있었다.어차피 중반부터는 계속 산이긴 했지만.전속력으로 말을 달려도 하루는 꼬박 걸릴 거리를, 남들 눈을 피해 휙휙 내달리니 비교적 금방 도착하게 된 것이다.루인 남작령 북서쪽 산맥 너머 분지에 자리 잡은, 글레이드 산악 요새도시.첩첩산중이라, 지형적으로는 ‘이런 곳에 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뚱한 위치였다.“옛날엔 엔델 마을만큼이나 작은 마을이었는데 특산품과 관광산업이 주가 되어 발달했대.”“뭐 그런 걸 설명하고 있어...”글레이드는 규모에 비해 엄청 활기찬 곳이었다.성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반대편 성문까지 가로지르는 넓은 대로가 반겼다.대로변에는 상점과 상인들이 줄지어 있었고, 커다란 시장을 중심으로 숙박업소들이 포진되어 있었다.곳곳에서 흘러나오는 맛있는 냄새,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상인들의 호객, 행인들의 수다.모험자는 물론, 용병으로 보이는 자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들어왔다.개중에는 번쩍번쩍, 고급스러워 보이는 장비를 갖춘 자들이 있어 저절로 눈이 휙휙 돌아갔다.행인들 대부분, 시골 촌뜨기인 둘과 비교해 세련되고 좋은 차림새였다.한껏 멋을 부린 아가씨들이 로건의 맞은편에서 다가와 옆을 스쳐지나갔다.로건은 그녀들이 머리에 꽃은 장신구와 유달리 폭이 풍성한 치마에 시선이 갔다.‘저런 차림이 유행인가? 헤이온이 하면 훨씬 예쁠 텐데.’헤이온이 여자인 것을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마음과, 숨기지 않고 예쁘게 마음껏 꾸몄으면 하는 마음.두 마음의 상충에, 로건은 저도 모르게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헤이온이 씨익 웃으며 로건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저 중에 누가 네 취향? 내가 말 걸어 줄까?”“그런 거 아니거든.”루인 남작령은 작은 마을들이 주된 곳이었다.그 곳을 벗어난 적 없던 촌뜨기들에게, 도시는 그야말로 별세계였다.글레이드는 산중의 요새라 도시 치고는 규모가 작은 곳인데도 온통 시선을 빼앗는 것들로 가득했다.대도시로 나가면 어떨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엔델 마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야.’헤이온은 언제나처럼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내심 부러워졌다.옆 영지의 비극을 알 길 없는, 평소처럼 살고 있을 뿐인 사람들.중심부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신전도 보였다.신전을 보자, 복면 쓴 남자 생각이 났다.저길 썰어버리겠다고 하자, 갑자기 나타나 ‘안 됩니다’라던 그 사람.‘편도에 반나절. 왕복이면 거의 하루. 내가 아무리 설쳐 봤자, 그 남자 아니었으면 로건은 죽었겠지...’게다가 자신까지 살려주었으니,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었다.‘반드시, 반드시 찾아내서! 꼭 보은할 거야.’“서점, 저기 있다.”로건이 말을 걸어오는 바람에 더 생각하길 그만두었다.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자, 책 그림이 그려진 간판이 있었다.\*“사우스 바인이라고 했느냐?”“예. 남쪽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나와 있는 지도가 없어서요.”나이 지긋한 서점 주인은, 둘을 대놓고 위아래로 훑어보았다.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둘은 뻘쭘해졌다.서점에는 지도가 여러 개 구비되어 있었지만 그 중 어떤 지도에도 사우스 바인은 표기되어있지 않았다.둘은 의아해서 서점 주인에게 더 상세한 지도가 있냐고 물었고, 주인이 내어준 지도를 살폈지만 역시 사우스 바인은 없었다.그래서 혹시 아시냐고 물었더니 저런 반응인 것이었다.“요즘은 이런 시골뜨기들도 사우스 바인을 찾아다닌단 말이지? 말세다~.”서점 주인은 지도를 돌돌 말아 쥐더니,“예끼! 인석들아! 어서 가서 부모님 일이나 도와드려라!”하고는 둘의 머리를 번갈아 내리쳤다.둘이 샤샥 피해버려서 헛손질을 한 게 되었지만.“아나 본데? 알면 가르쳐 줘. 책 많이 사갈게. 나 이래보여도 돈 많아.”서점 주인은 흠, 흠 헛기침을 했다.강도를 만날까 봐 가난뱅이로 위장한 여행객들이 없진 않았다.책을 많이 사가겠다는 말에 다소 누그러진 표정으로 그가 말문을 열었다.“사우스 바인은 글레이드의 북문 밖 산맥과 그 너머 산림, 초원 전체를 아우르는 별칭이야. 그러니 지도에 표기되지 않지.”“엥? 어떤 마을이나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아니 근데, 이 녀석이 따박따박 반말이야-?”서점 주인이 다시 손을 휘둘렀지만 황동 금발 녀석은 얄밉게도 잽쌌다.“아무튼. 너희도 사우스 바인의 보물을 찾으러 온 거라면 포기해라. 허황된 걸 찾으면서 인생낭비 할 테냐!”“보물? 무슨 소리야?”“너희 아무것도 모르고 왔구나. 모르면서 왜 사우스 바인을 찾는 게냐?”“역질문하지 말고.”계속되는 반말에 서점 주인은 어이없다는 눈초리로 헤이온을 빤히 보았다.너무 당연하다는 듯 반말이 이어지니, 어느 귀족 가의 자제와 수행원인가 싶을 정도였다.차림새는 남루했지만 얼굴은 곱상하니 귀티가 나는 것도 같았다.“글레이드를 찾는 모험가들 대부분은 사우스 바인의 보물을 노리는 자들이요. 긴 세월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 갔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지요. 책 몇 권 살래...요?”헤이온이 말없이 손가락을 전부 펴 보였다.그러곤 세 번, 짤짤짤 흔들었다.서점 주인의 입가에 은근한 미소가 감돌았다.“흠, 흠. 사우스 바인은 예로부터 유명했습니다요. 어딘가에 드래곤의 레어가 있다고 말입죠.”“그딴 게 어디 있어. 동화책에나 나오는 거 아냐?”“글쎄요? 쇤네가 아는 건 전부 말씀드렸으니 이제 구입하실 책을 가져 오시면...”헤이온은 주머니에서 육포 하나를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지금 말고. 미래의 내가 많이 사 줄 거야.”“죄,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로건은 연신 꾸벅 인사하며 헤이온의 등을 떠밀듯 데리고 나갔다.\*다른 서점도 가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여행자 안내소가 있어 사우스 바인 내에 민가가 있느냐 물었더니, 직원은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는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글레이드에도 종탑이 있었다.아래에서 줄을 잡고 종을 치는 엔델 마을의 그것과는, 비교하는 것이 미안할 만큼의 규모였다.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올라 꼭대기에 도착했다.반대편 성문 밖을 내다보니, 안내소 직원의 반응이 이해가 갔다.사우스 바인이라는 별칭으로 퉁 쳐지는 지역은, 해도 해도 너무 광범위한 곳이었다.끝도 없이 펼쳐진 울창한 산림.저 속에 도저히 민가가 있을 것 같지 않았다.있다 해도, 꽁꽁 감춰져 아는 이가 없을 것이었다.산림에서 초원으로 이어지고, 초원 끝은 다시 다른 산맥에 가로막혀 있었다.엄마가 자랐다는 곳을 대체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해졌다.이후, 하릴없이 거리구경을 하노라니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했다.둘은 여관 몇 군데를 돌아본 뒤, 가장 저렴한 곳으로 방을 잡았다.가구가 낡긴 했지만, 중심부 시장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어 소음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었다.검과 주머니를 탁자에 내려놓고, 헤이온은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이제 어쩌지.”“할아버지께서 뭔가 더 말씀하셨던 건 없어?”“없어.”로건은 긴 의자에 걸터앉아 공연히 활줄을 몇 차례 퉁겼다.잠시 동안의 침묵.돌연, 헤이온이 눈을 반짝 빛내며 일어나 앉았다.“아! 혹시 그런 뜻인가?”“어떤?”“드래곤의 레어인가 뭔가를 털어서 먹고 살라는!”“아니란 거 너도 알잖아.”헤이온이 다시 벌렁 드러누웠다.한창 저녁식사 시간인지라 아래층 식당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올라왔다.“그래봤자... 저녁은 육포다...”육포도 맛있긴 하지만, 사냥하며 살아온 터라 지겹게 먹었었다.‘기껏 도시까지 왔는데 저 많은 음식들 중,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맛있는 음식은 냄새만 맡아야 하고, 사우스 바인에 대한 단서는 오리무중에, 갈 곳 없는 신세.뭔가 맥이 빠졌다.헤이온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로건! 우리도 맛있는 거 먹자!”“그래.”아끼자고 할 줄 알았던 로건이, 의외로 순순히 따랐다.헤이온이 눈을 동그랗게 뜨자 로건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했다.“저렴한 방을 찾은 건, 맛있는 거 먹을 돈 남기려고 그런 거야. 내일 쓸 돈은 내일 벌면 돼.”“역시, 넌 나를 잘 알아!”1층으로 내려와 식당으로 들어서자 맛있는 냄새가 더욱 강하게 코를 간지럽혔다.종일 제대로 먹은 것이 없다보니 절로 군침이 돋았다.중심부에서 떨어진 곳이어서 그런지, 다행히 몇 테이블 비어 있었다.자리를 잡고 앉기 무섭게, 옆 테이블에서 큰 소리로 으스대는 소리가 들려왔다.남자 셋, 여자 하나.저마다 무기를 휴대한 것으로 보아 모험가 파티인 듯 했다.그 중 덩치가 가장 큰 사내가 잔뜩 오른 취기를 이기지 못해 떠들어대고 있었다.“무작정 뒤지기만 해서 되겠냐 이거야~! 멍청이들은 평생 그러고 살라 그래!”“형님, 정보가 들어온 겁니까? 전에...”“어엉! 드디어 포인트를 찾았다!”“그게 뭔데?”“...?”덩치 큰 사내와 일행은 어안이 벙벙해졌다.끼어드는 목소리가 있어 올려다보니 처음 보는 황동 금발의 소년이 서 있었다.소년은, 매우 당당하게 요구해왔다.“나도 알려 줘.”현자 세카트로“저리 안 꺼져?”새침한 인상의 사내가 손을 휘휘 저었다.하지만 덩치 큰 사내는 워낙 기분이 좋았는지, 흑맥주 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허허 웃었다.“어린 녀석이 맹랑하군. 내가 너한테 왜 말해줘야 되지? 납득시켜 봐.”“나도 고급 정보를 가진 게 있어. 맞교환하자.”덩치 사내는 황동 금발 소년을 빤히 보았다.녀석은 허리춤에 양 손을 얹고 눈도 깜박이지 않은 채, 이쪽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의외였다.‘궁금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등의 반응을 예상했으나 가뿐하게 비껴갔다.“형님, 들어 볼 필요도 없어요. 저런 놈에게 무슨 고급 정보가 있겠습니까? 영악한 놈이 개수작이야!”새침한 사내가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그가 일어서려는 것을 덩치 사내가 붙잡았다.“잠깐만. 나도 오늘은 기분이 좋아. 특별히 기회를 주지.”“형님?”“나와 팔씨름해서 이긴다면 알려주마.”덩치 사내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 황동 금발 녀석이 포기할 줄 알았다.체격 차이가 너무 나는 데다, 근육양의 차이까지 어마어마했으니까.꺼지란 말을 좋게 돌려 말한 것에 불과했다.새침한 사내는 소리 없이 이죽거렸고, 다른 파티원들은 ‘그럼 그렇지’라는 표정으로 식사를 계속했다.“진짜지?”덩치 사내는 녀석의 대답에 어이가 없었다.‘네 동료 안 말리냐?’는 눈빛으로 옆 테이블의 자색 머리 녀석을 바라보았지만, 자색 머리 녀석은 메뉴판에 열중할 뿐, 이쪽에 관심이 없었다.황동 금발 녀석은 재빠르게 빈 테이블로 가서는 탕, 탕 가볍게 두드렸다.“여기서 하자!”어른 체면에, 다른 이들도 보고 있는데 방금 한 말을 없던 말로 우기긴 좀 그랬다.귀찮지만, 이렇게 된 참에 제대로 힘을 써서 녀석을 쫓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그런데-.“형님? 뭐 하십니까?”“...”녀석을 망신주려고 맞붙자마자 작정하고 힘을 썼건만, 녀석은 미동도 없었다.‘마나 유저인가? 그래서 자신만만했군. 하지만, 어림없다.’사내는 팔에 마나를 끌어 모았다.그런데 여전히 미동이 없었다.조금 더 끌어올렸더니, 녀석이 씨익 웃었다.“형님???”정신차려보니 어느새 손등이 테이블에 닿아 있었다.‘마나 익스퍼트 유저 이상이라고? 저 녀석이?’“왜 봐주고 그래. 내 정보가 궁금하긴 했구나?”덩치 사내가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음을 눈치 챈 헤이온은, 너스레를 떨었다.‘체면 살려줄 테니 말 바꾸지 말란 거군. 허 참, 녀석.’파티원 전원이 나서면 녀석을 제압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으스대서 생긴 일을 파티원들에게 짐으로 지우고 싶지 않았다.정보를 말 해줘 봐야, 녀석이 뭘 어쩌지는 못 하리란 생각도 들었다.구태여 소동 일으킬 것이 아니라, 좋게 넘어가고 체면 구기지 않는 편이 나았다.“기분 좋아서 봐주신 거니까, 썩 꺼져! 혼내주는 수가 있어!”덩치 사내는 주먹을 쥐고 까부는 일행을 붙잡아 앉히고, 자신도 앉았다.“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겠다. 가까이 오너라.”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이 들을세라, 그는 으스대던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작게 소곤거렸다.“정보 길드에 의뢰하고도 장기간 걸려 받은 정보야. 비싼 거니까 잘 들으라고.”작당 모의라도 하는 냥, 머리를 둘러 맞대고 들은 이야기는 대강 이러했다.호기심 반, 호승심 반으로 사우스 바인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드래곤의 레어를 찾지 못했다.모험가들과 몇몇 길드들은 무작정 헤매기보다 사우스 바인의 상세한 산악 지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누구도 지도를 완성할 수 없었다.그 이유는, 일정 지역에 가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뱅글뱅글 같은 구역을 돌게 되기 때문이었다.환각 마법–결계-가 쳐져 있다는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 있었고, 호기심인지 호승심인지 제법 클래스가 높은 마법사들이 여럿 다녀갔지만 그들조차 파훼하지 못했다.결계 마법이란, 시전한 사람보다 더 높은 클래스의 사람에게는 쉽게 파훼당하는 성질이 있었다.견고한 자물쇠로 문을 잠가도, 뛰어난 실력의 열쇠공은 그것을 열 수 있듯이.정말 드래곤의 레어라면, 9서클을 넘나드는 신수 드래곤이 쳐 놓은 마법이니 풀 수 없는 게 당연했다.인간 중에도 드물게 9서클의 고급 클래스 대마법사가 있긴 하지만, 그런 자들이 이런 곳을 찾을 만큼 한가할 리도, 아쉬울 리도 만무했다.이미 명성과 부를 누리고 있는데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뜬구름을 잡으려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혹은, 이미 왔었지만 파훼하지 못해 입 꾹 닫고 사는지도 몰랐다.“그런데, 구심점이 있다- 이 말이야.”“결계에?”“그렇지. 그동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지도를 공유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정보 길드에서 거금을 들여 직접 조사에 나섰어. 시간이 엄청 걸려서 그렇지, 결국 밝혀졌단 얘기지.”뱅뱅 돌게 되는 지점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원이 그려지므로, 그 중심지가 아마도 드래곤의 레어일 것이란 것이었다.“그래서 그게 어딘데?”“그것까지 알려줘야 되냐?”“왜 알려줘야 하는지 납득시키라는 거지?”“꼭 드래곤의 레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굉장한 보물을 꽁꽁 숨겨놓은 것 아니겠어?”덩치 사내는 말을 돌리며 지도를 펼치고 어느 지점을 손가락으로 콕 찍었다.헤이온은 머리를 긁적였다.“뱅뱅 돌게 된다며. 어떻게 들어가?”“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덩치 큰 사내는 ‘어차피 네녀석에겐 들어갈 방법이 없어 보이니 가르쳐 준 거다’라는 말을 삼켰다.말 없는 파티원 둘 중, 여자는 윈드 계열에 특화된 중급 클래스 마법사다.구심점에 들어가기 위해 조금 전에 영입했다.걸어서 들어갈 수 없다면, 날아서 들어가 볼 생각으로.멀티 레비테이션이 가능한 마법사를 찾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던지.여자가 자기 일행도 함께 받아주어야 파티에 들어오겠다고 해서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 모를 놈까지 받아줬다.“내 정보는 여기까지다. 네가 가진 정보는 무어냐?”“아, 그거? 혹시 이상하게 생긴 검은 새를 보면, 코와 입부터 틀어막아. 최대한 숨 참고 자리를 뜨라고.”“저런 헛소리를! 형님,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새침한 사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지만, 덩치 큰 사내가 붙잡았다.\*“안녕? 또 보네.”“...”아침 일찍 짐을 꾸려 1층으로 내려왔더니, 식당에 풀죽은 두 사내가 있었다.“나머지 둘은?”“...도망쳤다.”“음~. 왠지 그럴 것 같았어.”“네 녀석 때문이잖아! 너 때문에 정보를 말하게 돼서!”“왜 내 탓이야? 나한테만 말해줬어도 되는 걸. 흠, 이러고 있는 걸 보니 구라는 아니었나 보네.”“그래, 들떴던 내 탓이 맞다. 파티원이라고 너무 믿은 것도 있고.”“형님...”“파티를 맺으려면 신원보증 길드에 서약서를 써내야 하니까, 설마 배신할 줄 몰랐지. 블랙리스트와 막대한 채무를 감수할 정도로 눈이 뒤집혔다는데, 어쩌겠냐.”“보물을 찾기만 하면 그깟 블랙리스트, 그깟 채무가 대수랍니까? 남 좋은 일만 했어요. 진짜 속상합니다.”둘의 대화를 듣던 헤이온이, 의아해서 물었다.“그 사람들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네?”“이제 와서 말이지만, 걸어서는 못 들어가니까, 날아서 들어가 볼까 했었다. 다시 마법사를 구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그 전에 놈들이 털어갈 수도 있고...”“안 될 걸.”헤이온의 부정을 로건이 거들었다.“그 많은 마법사들 중, 날아서 넘어가보려는 시도를 해 본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쉽게 뚫리면 결계라 할 수 없잖아요.”듣고 보니 그럴듯했다.같은 자릴 뱅뱅 돌다 지쳐 날아올라본 자가 한 명도 없었겠는가.두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아마 결계를 파훼하는 특정한 조건이 있을 겁니다. 단순히 서클과 클래스가 높다고 되는 게 아니라.”“그게 뭐일 것 같나?”“저야 모르죠.”정보만 듣고 도망간 연놈들이 보물을 찾을 거란 걱정은 접어두어도 되겠다는 결론이었다.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기도 했지만.“그렇다고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헤이온의 말에 두 사내는 물론, 로건까지 눈이 휘둥그레졌다.“드래곤이 진짜 있다면, 드래곤이 건 마법이라면 인간이 어떻게 풀겠어.”“이게 장난하나?”일어서는 새침한 사내를 덩치 사내가 또 붙들었다.“이 쪽에서 못 들어가면, 그 쪽에서 나오게 만들면 돼. 안 나오고는 못 배기게 대형 사고를 치던지, 드래곤이 좋아한다는 황금을 무더기로 들고 가던지. 시도는 해 봤어?”‘일리는 있지만.’드래곤이 보다 못해 튀어나올 정도의 대형 사고를 치려면 대체 뭘 어떡해야 하는 걸까.이 경우는 드래곤이 나와도 문제인 것이, 공격받을 가능성이 농후했다.드래곤이 환장하고 튀어나올 정도로 많은 황금을 준비할 수 있으면, 대박의 꿈을 꾸며 사우스 바인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결국 불가능하단 소리잖아.”“이제 알았어? 그러니 가능한 걸 하자고. 일단 밥부터 사 줘.”“미쳤냐? 우리가 네 밥을 왜 사?”헤이온이 테이블 밑 의자를 빼내 앉았다.의도를 눈치 챈 로건이 얼른 말을 받았다.“도망간 사람들, 잡아다 드리겠습니다.”“너희가 무슨 수로 잡아? 잡을 수 있으면 진즉 우리가 잡았지! 아, 형님! 왜 저한테만 자꾸!”덩치 큰 사내는 성내는 사내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어깨를 누르고는, 메뉴판을 이쪽으로 밀었다.신원보증 길드에서 블랙리스트를 걸고 채무를 건다 한들, 그들이 길드에 붙잡혀 상환한다는 전제 하에 이쪽은 약간의 위로금을 받는 것이 전부였다.할 수만 있다면, 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왕창 뜯어내는 것이 이득이었다.그것으로 정보 길드에 낸 정보비의 상당을 메울 수 있을 테니까.조금만 생각해보면 허황된 짓이란 걸 알 수 있었는데.파티원에게 뒤통수 맞고 나서야 깨달았다.‘받아봐야 소용없는 정보에 그 비싼 돈을... 휴우.’이왕 이렇게 된 거, 식사 한 끼 내는 정도로 큰일 날 것도 없거니와,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여자는 윈드 계열에 특화된 6서클 마법사다. 남자는 확실치 않지만, 서약서에 무도가라고 적었더군. 자신 있어?”헤이온이 메뉴판을 받아들었다.“물론.”식사를 마친 후, 둘은 신전에 들렀다.대기자 명단에 있느냐는 경비원의 질문에 아니라고 하니, 명단을 쓰라고 했다.“얼마나 기다리면 되나요?”“글쎄다. 세 달 정도? 더 걸릴 수도 있고.”경비원의 대답에 로건이 두리번거렸다.“왜죠? 한산해 보이는데요.”“사제님들 신성력이 땅에서 펑펑 솟는 줄 알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수가 한정되어 있는 걸 어쩌란 말이야.”“그럼 이 말만 전해. 만약-”헤이온이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경비원이 달려 나갔다.화려하게 꾸민 마차가 신전 정문을 들어서고 있었다.“어서 오십시오, 헨슨 님!”마차에서 풍채 좋은 중년 부부가 내렸다.헨슨이라 불린 남자는 경비원에게 은화 한 닢을 건넸고, 경비원은 앞장서서 둘을 신전 안으로 안내했다.헤이온은 명단이 적힌 명부를 살펴보았다.‘헨슨’이라는 이름은 고작 이틀 전 명단에 씌어 있었다.[이상하게 생긴 검은 새를 보면, 코와 입을 막고 숨을 참아라.]부아가 치밀어 명부에 저렇게 휘갈겨 적고 나와 버렸다.“왜 신전에 그걸 전하자고 한 거야?”“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은 안 믿어도 사제 말은 믿을 거 아냐. 주의시키려고.”“그러니까, 왜 하필 영주도 경비병도 아닌 사제냐고. 사제는 우리 말 귀담아 듣는대?”“사제는 검은 새를 알지 않을까 해서.”“왜 그렇게 생각해?”“그, 복면 쓴 남자가 그랬어.”로건은 헤이온에게 복면 남자를 상기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집요하게 물어대는 통에 남자 얘길 꺼내고 말았다.엔델 마을과 같은 비극을 겪는 곳이 다시없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다.“그럼, 이렇게도 하자!”남자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헤이온이 적극적이 되었다.내심 불편했지만 헤이온의 제안은 로건에게도 썩 마음에 드는 것이었다.잠시 후, 쪽지를 꿴 화살이 잇달아 글레이드 신전의 창들을 깨고 날아 들어갔다.둘은 흡족해하며 글레이드 북문 밖으로 나섰다.\*끝없이 펼쳐진 산림.오히려 둘에겐 도시나 들판보다 이편이 좋았다.사람이 거의 없고 엄폐물이 많기 때문이었다.헤이온은 가죽신발이 터져나가지 않을 정도로만 마나를 응집시켜 내달렸다.이 이상 마나를 응집시켜 봤자, 땅이 패이고 나무가 으스러져 괜히 눈에 띌 뿐이니 이 정도면 충분했다.혹여 다른 모험가가 보더라도 마나 유저로 생각할 것이었다.마나 유저 정도는 세상에 많으니 남들 눈을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로건이 극구 쑥스러워한다는 것이 문제였다.로건은 헤이온에게 안겨 있었다.‘내가 안아주는 쪽이면 더 좋았을 텐데.’벌써 몇 그루의 나무와 몇 개의 시내를 지나쳤는지 셀 수조차 없었다.광대한 사우스 바인의 산림을 정신없이 내달린 지 한참.로건은 속이 울렁이며 멀미가 나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한계다 싶을 즈음, 헤이온이 우뚝 멈춰 섰다.“다 왔다.”전후좌우 여전한 산림 속이었다.“여기가 어딘데? 그냥 탐색하는 거 아니었어?”헤이온이 검지를 세워 좌우로 흔들었다.“결계 근처야. 결계를 따라 빙- 돌며 기회를 보는 거지.”“무슨 기회?”“생각해 봐. 어찌어찌 드래곤의 레어에 들어간다 해도, 보물 훔쳐 가는데 드래곤이 가만있겠어?”“아니. 그보다 드래곤 안 믿는 거 아니었어?”“결계가 그렇게 강하다니까 일단 전제하는 거지. 지금으로썬 할배가 한 말에 대한 단서도 없잖아. 그러니 미심쩍은 건 다 파고 볼 거야. 진짜로 보물이 있다면 손해도 아니고.”“그래.”“들어갔을 때 드래곤이 자고 있어야 하는데 운은 둘째 치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억지로 나오게 만들면 화를 내겠지? 그러니 직접 나오길 기다려야지. 드래곤도 외출은 할 거 아냐.”“빈집털이 하자는 얘기야? 드래곤이 집에 있든 밖에 나갔든, 우리가 거길 어떻게 들어가.”“에이, 드나드는 포인트가 어딘가 있겠지. 그걸 알아내자는 거잖아, 지금.”짝, 짝, 짝.둘 말고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박수소리가 들려왔다.돌아보니 녹색 숄을 걸친, 긴 금발 머리의 미남이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네 말이 맞다. 잘 짚었구나. 다만 네 방법은 무리이니라. 드래곤은 수십 년에 한 번 외출하는 존재이니.”“그래? 몰랐어.”“저어... 누구십니까?”“나는 신비의 현자, 세카트로다.”과거의 기억헤이온이 팔꿈치로 로건의 팔을 툭툭 쳤다.“방금, 들었어?”“들었지.”“자기 입으로 자기가 신비의 현자래. 안 민망한가?”“쉬잇, 실례야.”로건이 급히 검지 끝을 입술에 갖다 댔으나, 이미 늦었다.“솔직한 건 좋지만, 예를 배우는 것이 좋겠구나.”세카트로는 여전히 온화한 얼굴이었지만 목소리에 약간 힘이 들어가 있었다.“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던 걸 가르쳐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그대는?”“로건 폴칸이라고 합니다.”헤이온은 세카트로가 탐탁지 않았다.‘이런 곳에서 갑자기 말을 걸어오고, 충분히 수상해.’산행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인데다 비싸 보이는 장신구까지 주렁주렁 달았다.혼자이기까지 하니 영 미심쩍었다.‘길을 잃은 것 같진 않은데. 나랑 같은 생각으로 주변을 도는 마법사인 거 아냐?’경쟁상대를 견제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알려주는 것일지도 모른단 생각이 들었다.“쓸데없이 통성명은. 이제 갈길 가면 되겠네.”퉁명스럽게 뱉고, 턱을 들어 그가 나타난 맞은편을 가리켰다.그 찰나, 세카트로에게 턱을 붙잡혔다.“?!”완전히 무방비한 상태로 당해버렸다.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는데도 눈 깜짝할 새 앞으로 온 것이다.세카트로가 얼굴을 들이밀었다.말갛게 맑은, 그의 수려한 얼굴이 닿을 듯 가까워졌다.“저, 저기요!?”로건이 당황해 말리려고 팔을 뻗었고, 헤이온 역시 밀쳐내려 팔을 뻗었으나 세카트로는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었다.‘분명 있었는데, 어느 틈에?’‘뭐야? 진짜!’“!!”그리곤 다시 앞에 나타나 한 손으로 헤이온의 양 볼을 꾸욱 눌러 잡는 것이었다.“읏띠-!”헤이온의 입술이 뽈록 튀어나와 벌어지며 붕어입이 되었다.“로자리아와 닮은 구석이라곤 얼굴뿐인 듯하구나.”헤이온은 신비의 현자인지 뭔지를 걷어차려고 발을 들었다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에 그대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헤이온이 얌전해지자 세카트로는 손을 거두었다.“당신, 엄마를 알아?”“레온이 별 말 하지 않았던 모양이군. 그러니 내 이름을 듣고도 그런 반응이지. 좀 더 감동적인 재회를 기대했었는데 아쉽구나.”헤이온의 눈이 동그래졌다.발돋움 한 번 없이, 말 그대로 눈 한번 깜박이는 새에 수 미터를 이동해온 것도 놀라운 일인데 할배와 엄마를 알고 있기까지.“내가 로자리아를 거두어 길렀었느니라. 레온 녀석이, 이리로 가보라 일러준 게지?”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엄마의 양아버지.즉, 양 외조부였다.뜻밖의 만남에 헤이온과 로건은 할 말을 잊고 고개만 끄덕였다.그러다 퍼뜩 정신차린 헤이온이 물었다.“하, 하지만, 그런 것 치고 너무 젊은 거 아냐?”“그래서 [신비의 현자]라 하지 않았느냐.”반박할 수 없었다.“이런 곳에서 회포를 풀어 되겠느냐. 내 은신처로 초대하마. 따라 오거라.”\*세카트로의 은신처는 은신처라기엔 너무나도 웅장하고 황홀한 곳이었다.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도 신기했다.분명 그의 뒤를 쫓아 몇 발자국 걸었을 뿐인데 사우스 바인의 울창한 산림은 온데간데없고 거대한 궁전 앞이었다.정원에는 잘 가꾸어진 관엽수들이 줄지어 있었고, 들어가서 수영해도 될 만큼 엄청나게 큰 분수대도 있었다.여러 물줄기가 높이 솟구쳤다 떨어지며 수면을 때리는 시원한 소리에, 귀가 즐겁고 기분마저 상쾌했다.“되게 신기한 연못이다. 그치?”“그러게. 뭔가 장치가 되어있는 건가 봐.”뒤에서 둘이 소곤거리는 소리에, 세카트로가 물었다.“연못이 아니라 분수대이니라. 처음 보느냐?”“응.” “네.”세카트로는 속으로 ‘끄응’하는 신음을 했다.‘레온 녀석, 대체 애를 어떻게 키운 것인가? 세상물정 모르는 아이로 만들지 않겠다더니.’“구경은 천천히 하고. 일단 안으로 들자꾸나.”딱! 세카트로가 손가락을 소리 내며 튕기자 셋의 몸이 동시에 두둥실 떠올랐다.“어? 으, 으왓!”“우우와아!”‘이게 멀티 레비테이션인가 뭔가 그건가? 진짜 죽여 준닷!’뛰어오른 게 아닌, 아예 공중에 떠있는 기분.바람과 하나가 된 그 기분은 어느 것에도 비할 바가 못 되었다.넓은 정원을 공중에서 내려다보니 몇 배는 멋져 보였다.살면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었던가.헤이온의 양 볼이 조금 상기된 것을 본 로건은, 저도 기분이 좋아져 빙긋 웃었다.‘귀여워.’황홀경에 취하길 잠시, 궁전 입구에 금방 도착해버린지라 헤이온은 아쉬움에 입맛을 다셨다.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놀라운 광경은 계속해서 이어졌다.궁전 정문은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열렸다.홀에 들어서니 번쩍번쩍 광이 나는 드넓은 바닥과 거대하고 화려한 여러 개의 샹들리에, 엄청난 폭의 중앙계단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세카트로가 짝, 손뼉을 쳤다.여러 개의 문들 중 하나가 열리고, 그 안에서 나온 커다란 식탁이 바닥 바로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 이동해왔다.홀 중앙에 식탁이 멈춰 서자, 뒤따라온 의자들이 가지런히 자리 잡았다.급기야는 식탁이 나온 문에서 테이블보, 촛대, 꽃바구니, 식기 등이 차례차례 날아와 식탁 위를 채워가는 것이었다.헤이온과 로건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헤이온. 너는 볼 수 있을 것이니라.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려무나.”헤이온은 호기심에 등 떠밀려, 세카트로가 가리킨 식탁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어어?’희미하지만, 무언가 작고 반투명한 것들 여럿이서 집기들을 옮기고 있는 것이 보였다.쉼 없이 파닥이는 작은 날개가 꽤 귀여웠다.가까이 온 헤이온을 의식했는지, 그것들은 일하다 말고 팔을 흔들었다.“반갑다는 거지? 안녕? 나도 반가워.”그것들은 꺄르르 웃으며 다시 제 할 일을 시작했다.“실프들이 네가 맘에 든 모양이로구나. 예뻐해 주거라.”헤이온은 고개를 끄덕였다.‘예뻐해 주라고 해 봤자, 자세히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자아, 말끔한 모습으로 잠시 뒤에 보자꾸나.”“와앗!”실프들이 다가오는 것을 본 헤이온은 그다지 놀라지 않았지만, 로건은 갑자기 제 몸이 두둥실 떠오르자 깜짝 놀랐다.정원을 날았을 때는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무언가가 떠받치는 느낌인데 아래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로건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신없이 목욕 당했다.좀 전에 둥둥 띄워 옮겨진 곳은 목욕탕이었다.장비와 옷이 저절로 벗겨질 때는 당혹스러웠지만, 막상 욕조에 들어가자 기분이 좋아졌다.온도가 딱 알맞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물에서 향긋한 꽃 내음이 물씬 풍겼던 것이다.구석구석 씻김 당하고 나온 뒤에는, 수건이 없어 난감했으나 실내인데도 불구하고 산뜻한 미풍이 불어오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물기가 마르고 뽀송해졌다.입고 왔던 옷은 보이지 않는 손이 세탁해주었고, 마찬가지로 미풍이 순식간에 말려주었다.손이 떠미는 대로 긴 복도를 지나니 아까의 홀이 나왔다.‘기분 탓인가? 엉덩이를 집중해서 떠민 것 같단 말이야.’실프들이 꺄하하 웃다가 어디론가 가버렸단 것을 로건은 전혀 알 수 없었다.홀에는 세카트로가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음료를 홀짝이고 있었다.‘헤이온은 아직 인가. 둘만 있으려니 어색해.’앉아도 되는지, 된다면 의자가 너무 많아 어디 앉으면 좋을지 감이 오지 않았다.그렇다고 서성거리고 있기도 뭐해서, 인사부터 했다.“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곳에서 목욕했습니다.”“그런가. 좋았다니 다행이구나. 대신 내 의문을 해소해 주었으면 하는데.”“네, 말씀하세요.”“그대는 헤이온과 독대했었지. 어떤 관계인지 물어도 되겠느냐?”“저는”“가족이야! 내 동생!”로건이 대답하려는 때에 헤이온이 홀로 들어서며 외쳤다.‘가족...’친근한 말이지만 일순간 로건의 속이 허해졌다.‘그래, 친구 아니면 가족이지...’연인이라 말하고 싶어도, 아닌 건 아니니까.자신도 그렇게 대답하려던 참이지만, 헤이온에게서 들으니 심장이 텅 빈 느낌이었다.어쩐지 친구보다 가족이 더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친구는 연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가족은?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다.“야, 엄연히 내가 오빠...!”아무렇지 않은 척 받아치며 돌아보던 로건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언제나 동여매져 있던 헤이온의 뒷머리가 풀려 있었다.고급 목욕물로 감고 뽀송하게 잘 말려진 브론즈 블론드는 너무나도 곱고 선명했다.헤이온의 움직임 따라 황금빛 물결이 일었다.피부 결도 평소보다 뽀얗고 부드러워 보였다.입술에도 붉은 기가 돌았다.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차이는 극명해졌다.헤이온의 눈에 자신도 평소와 다르게 보이는지, 이쪽을 보며 실실 웃어댔다.“너, 좋아 보인다?”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황금빛 물결이 찰랑이며 향기를 뿜어냈다.텅 빈 것 같던 심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 빈틈없이 채워져 끓어올랐다.미친 듯이 날뛰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기를.“아이야. 괜찮으니 본연의 모습을 보여 다오.”세카트로가 가볍게 허공에 손을 젓자, 헤이온의 폴리모프가 풀렸다.“헉! 이게 왜 풀려?”그것뿐만이 아니었다.그가 허공에 두 손을 한 차례 교차시키자 팡! 소리와 함께 헤이온의 옷이 새 옷으로 바뀌었다.해묵은 튜닉 셔츠와 바지가 하늘거리는 홈드레스가 되었다.‘예쁘다, 예뻐! 잘 어울려!’로건은 넋 나간 사람처럼 헤이온만 뚫어져라 보다가, 문득 자신의 옷도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부드러운 블라우스와 바지로.세카트로가 손을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교차시켰다.헤이온의 머리 위에 화관의 씌워지고 로건의 머리는 반듯하게 정돈되었다.“우와!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입고 있던 건?”“너는 여전히 같은 옷을 입고 있느니라. 네가 쓰는 폴리모프와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니.”“다른 옷인데 같은 옷이라고?”“엘레멘탈 파티클의 구조를 변환시켜 위장한 것뿐, 중간계에서의 질량비는 그대로이니라. 폴리모프를 써도 너는 너인 것처럼.”“??”“둘 다 앉아라.”그가 손뼉 치자 의자 두 개가 빠져나왔고, 한 번 더 치자 요리들이 줄지어 날아왔다.글레이드 여관 식당의 요리도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세카트로가 대접해준 요리들은 상상 이상이었다.고급 식재료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맛있는 요리들.헤이온은 “맛있다!”를 연발했고 세카트로는 그런 헤이온을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다.로건은 고급 식기에 담겨 내어져오는 색색가지 디저트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전부, 내가 헤이온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들이야.’여름이면 찬 계곡물, 겨울이면 찬바람 새는 욕실의 낡은 나무욕조.고급 비누와 향료는 구경해본 적도 없었다.작아지거나 닳을 때까지 여러 해 돌려 입는, 흔한 소재의 옷.신선하긴 해도 늘 비슷비슷한 저렴한 먹거리.적은 재료로 양을 늘리기 위한 스튜, 찍어 먹던 마른 빵.변두리 시골 농가의 삶에 소소한 행복이 전혀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은 싫었다.소소한 행복이 아니라, 커다란 행복을 쥐어주고 싶었다.자신에게도, 헤이온에게도, 이젠 계시지 않지만 어머니에게도.세카트로를 통해 한 차례 체험해보고 나니 그 바람은 더욱 강해졌다.‘이제 내겐 너밖에 없어. 반드시 성공해서 호강시켜 줄 테니까. 그 때까지, 아무에게도 가지 마.’\*식사를 마친 후, 세카트로는 헤이온을 따로 호출했다.“네 부모에 얽힌 진실을 전달하려는데, 괜찮겠느냐?”“응. 전부터 궁금했었어.”그는 그가 아는 모든 것을 헤이온의 머릿속에 주입시켜주었다.신기하게도, 엄마 시점의 화면과 아기인 자신 시점의 화면이 잇달아 머릿속에 생생히, 빠르게 그려졌다.마치 오래전 일이, 눈앞에서 시간 순서대로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로자리아를 지키기 위해 그 애에게 심어두었던 내 힘의 일부가, 너를 잉태하자 너에게 옮겨갔느니라. 힘에 새겨진 기억을 되짚고 있는 게다.”폭풍 몰아치듯 밀려오는 정보의 홍수를 겪고 난 뒤.헤이온은 비로소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작정한 세카트로어째서 평생을 숨다시피 산에서 살아야 했는지.할배가 본인의 능력을 숨기는 건 물론이고, 왜 자신에게도 성별과 능력을 숨기고 살라 일렀는지.아빠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던 이유도, 엄마의 마지막에 대해선 말끝을 흐리고 슬픈 얼굴이 되던 이유도.쭉 이어지는 기나긴 그림을 빠르게 넘겨본 느낌이었다.그 중 몇몇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첫 번째는, 엄마의 생전 시야로 난생 처음 본 아빠.교만과 냉철이 동시에 묻어나오는 인상이었다.그리고 그의 신분은... 정말 의외였다.두 번째는, 아기이던 자신에게로 옮겨온 시야.밤의 숲 속인데다 시력이 약해 자세히 볼 순 없었지만, 엄마를 처음 보았다.어떤 모습인지 몰라 지금까지 늘 상상만 했었다.그리운데도 온전히 그리워할 수 없었던 엄마.아기인 자신을 내려다보던 엄마의 눈빛은, 더없이 따뜻하고 슬펐다.‘그래도 한 번은 안겨봤었구나, 엄마 품에.’가슴이 먹먹하면서도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이었다.세 번째.마찬가지로, 아기일 때 본 세카트로.전혀 변하지 않은, 지금 모습 그대로였다.“우리 구면이었네? 내가 여기 온 것도 처음이 아니고.”“그러하니라. 봐서 알겠지만 레온이 너를 데리고 찾아왔었느니라.”할배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이후, 자신을 데리고 바로 수도를 떠났다.겨울철 칼바람을 뚫고 먼 길을 떠나, 엄마의 흔적을 찾아 방문한 사우스 바인.단서를 잃고 무작정 산림을 걷던 할배 앞에 세카트로가 나타났다.현재의 자신과 로건에게 그랬듯이, 세카트로는 할배를 궁전으로 초대했다.기억을 되짚는 긴 그림은 거기서 끝이 났었다.‘부모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구간만 보여준 듯했다.세카트로는 창가로 걸어가 뒷짐을 지고 밖을 내다보았다.“여기서 지낼 것을 권유했지만, 거절하더구나. 레온은 네가 로자리아처럼 세상물정 모르고 자라게 하지 않을 거라고, 화려한 새장보다는 드넓은 세상에서 살도록 하겠다 하였느니라.”“뭐, 산이 좁지는 않지만.”“당시, 황태자가 레온에게 상당히 집착했었느니라. 민가에서 수색대에게 ‘중년 기사가 여자아기를 맡겼다가 데리고 떠났다’는 증언을 해버려 어쩔 수 없이, 잊힐 때까지 숨어 살 생각이었을 게다.”“흠.엔델 마을도 정들긴 했지만, 숨어 살기엔 여기만한 데가 없을 것 같은데. 할배가 여길 두 번 찾지는 않은 거네?”“저렇게 말하고 갔었으니 다시 찾기엔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을 것 같구나. 그가 로자리아를 찾아 오랜 세월 헤맨 것은 내 탓이기도 하고...”“할배가 그쪽을 원망했어? 엄마를 키워준 걸 감사한 게 아니고?”돌아선 세카트로의 얼굴에는, 쓸쓸함이 묻어나 있었다.“원망의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복합적인 감정이었을 것이니라. 결계 안에 있는 아이를 무슨 수로 찾는단 말이냐. 나는 그에게서 시간과 로자리아를 빼앗은 셈이니라. 차라리 로자리아를 보육원에 맡겼다면 그리되지는 않았을 텐데...”“하긴, 할배는 그쪽에 대해 얘기해주지도 않았었어. 하지만 말이야.”“?”“이 모든 일들의 결과로 내가 있는 거잖아. 내가 태어날 수 없었을 방향의 과거를 아쉬워하는 건,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단 말이야.”초연한 헤이온의 표정과 말에, 세카트로는 무언가로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아득히 긴 세월을 살아왔으면서도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에는 여전히 서툴렀다.세카트로는 헤이온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못내 미안했다.신비의 현자라는 별호가 무색하게 느껴졌다.‘후회를 앞세우다 또 다른 후회를 낳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그쪽이 양딸을 잃어 괴롭다는 건 알겠지만. 난, 엄마에게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야.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랑받았어!”“실언했다. 미안하구나. 로자리아가 사랑한 너를, 나 또한 사랑하는 것을.”진심이었다.헤이온을 아끼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진즉 자신의 힘을 회수했을 것이었다.“흥~. 정말?”헤이온은 울 것 같은 얼굴이 된 세카트로에게 차마 화내지는 못하고, 입을 삐죽거리며 다그쳤다.“정말이니라. 네가 지닌 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힘? 세긴 한데. 이게 뭔 증명이 돼?”“...그게 아니라. 폴리모프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 말이니라.”“헉?! 그게 그쪽이 준 힘 때문이었어? 어쩐지! 나 마법 못 쓰는데, 희한하게 그건 잘 되더라. 용서해줄게! 사실은~ 화 안 났어. 엄마 키워준 거 고맙고, 잘 한 일이니까 후회하지 말란 뜻이었어.”헤이온이 호들갑을 떨며 사과를 받아주자, 그제야 세카트로의 얼굴이 조금 풀렸다.하지만 곧바로 다시 굳어버렸다.‘마법을 못 쓴다고? 마나 로드가 활성화되어 있어 조금만 연습해도 수준급이 될 텐데. 레온 녀석, 대체 애를 어떻게... 설마, 대책 없이 키우진 않았겠지? 뭐라도 가르쳤겠지.’“아이야. 네 특기가 무엇이더냐?”“발리기만 해서 특기라 하긴 뭐한데. 검을 좀 써.”‘그래. 레온 녀석, 소드마스터였지. 마법 대신 검술을 가르친 게군.’헤이온이 검을 장비하고 있었던 것 같긴 했다.하찮은 싸구려라 제대로 살필 맘이 들지 않았을 뿐.“좋다, 네 수준에 맞춘 선물을 주도록 하마.”“오와아? 우와!”“대신, 그 전에.”“?”“‘그쪽’이 무어냐. 세카트로 님이라 부르도록 하여라.”호칭이 바로잡히면 존댓말이 따라붙으리라 생각했건만.“알겠어, 세카트로 님!”“...”완벽한 오산이었다.\*로건과 실프들은, 세카트로와 헤이온이 있는 방을 급히 찾았다.눈을 크게 뜬 로건과, 날개를 파닥이며 좌우로 왔다갔다 움직이는 여러 실프들에게, 헤이온이 덤덤히 물었다.“왜들 몰려왔어?”‘몰려왔다니? 아니, 그보다.’“무슨 일이야?”로건은 크게 구멍이 난 외벽을 가리켰다.큰 소리가 나서 달려온 참이었다.검을 들고 있는 걸로 보아 헤이온이 한 짓이 분명했다.세카트로 님의 궁전을 본인이 보는 앞에서 망가뜨리다니, 대체 무슨 생각인지.‘뭔가 급발진 해야 할 일이라도 있었던 건가?’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다.“내가 힘을 보이라 했느니라. 벽을 부술 줄은 몰랐지만.”세카트로가 구멍 난 외벽을 향해 손가락을 빙빙 돌리자 말끔히 원상태로 돌아왔다.“그 검으로 이 정도면 소드 익스퍼트는 되겠구나.”‘레온 녀석이 제대로 가르치긴 했군.’“아닌데요. 헤이온은 소드마스터예요.”“?!”레온이 이곳을 찾아왔던 것은 고작 17년 전 일이었다.“17세의 나이에 소드마스터라고?”“올해부터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소드마스터였어요.”소드마스터는 8서클 마법사에 견주는 검술의 경지.자신의 힘을 나누어가졌다 한들, 인간인 이상 그 경지에 이르려면 20년은 족히 걸릴 터였다.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세카트로가 짐짓 놀라는 것을 보고, 헤이온이 씨익 웃었다.“살짝 툭 쳤어. 궁전을 날려버릴 순 없잖아. 지금 보니 날려버렸어도 복구했을 것 같지만.”“천재로구나, 내 새끼.”“헷.”그 때, 세카트로의 뇌리에 의심이 스쳐지나갔다.‘아니 잠깐. 설마?’“괜찮다면, 네가 소드마스터가 된 과정을 살펴봐도 되겠느냐?”“응.”헤이온의 기억을 더듬던 세카트로는 이마를 탁! 쳤다.헤이온은 걸음마를 뗀 무렵부터 막대기를 가지고 레온과 검술놀이를 했다.언어를 배워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검술 수업을 받았는데, 그것이...‘고문 수준이잖아!’어린 아이임에도 불구, 엄청난 난이도의 훈련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다.특히, 폴리모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레온이 알아차린 이후부터는 훈련 강도가 혹독하기 이를 데 없었다.‘지독한 자식! 아이가 내 힘을 받은 걸 알고, 작정하고 굴렸네, 굴렸어!’죽지 않을 정도로만 훈련시켰다는 표현이 딱 이었다.어지간해선 죽지 않을 테니, 한도 내에서 최대한 격렬하게 굴려댄 것이다.헤이온은 타고난 천재보다는 만들어진 천재에 가까웠다.보통 인간이라면 죽고도 남았을 살인적인 훈련에 혈통이 더해져, 일찍이 각성한 것 같았다.다만, 성과는 경탄할 만하나, 레온의 훈련법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다.‘온실 속 소드마스터라고 할까. 죽어라 훈련만 받았지, 실전 경험은 전무하군.’레온은 제 정체를 감추느라 제대로 대련해주지 못했다.물론 일반적인 인간의 생애에서, 이 정도면 제 한 몸 지키기에 충분하다 못해 넘친다.적당히 신분을 만들어 주고 세상에 내보내면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것은 일도 아니리라.그런데, 헤이온이 조금 전 ‘발리기만 했다’고 하지 않았던가.실전 경험이 문제되는 것은 비슷한 급의 상대와 대전할 때다.승패를 가르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훈련으로는 가질 수 없는, 실전으로만 얻을 수 있는 예리한 감각.그것의 부재가 헤이온이 패배한 결정적 원인일지도 몰랐다.‘속상하단 말이지. 다음엔 이길 수 있도록 약점을 찾아 줘야겠다.’“너를 패하게 한 자가 누구인지 봐도 되겠느냐?”“응. 아, 참! 엄마가 자라난 과정 보게 해줘.”“...”로건과 실프들은 끼어들 틈 없이 둘만의 세계에 빠진 헤이온과 세카트로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점차 포근해지는 헤이온의 얼굴과 달리, 세카트로의 얼굴은 어두워지고 있었다.\*“이게 선물이야? 뭐로 만든 거지?”“진짜 선물은 따로 있느니라. 그걸로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줄 것이니라.”서로의 기억을 공유하고 난 뒤, 헤이온이 세카트로에게서 건네받은 것은 희한한 검이었다.헤이온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검을 앞뒤로 살펴보았다.가볍지만 무척 단단한, 날부터 손잡이까지 단일 재질로 된 검.‘흰색인 것도 같고 누런 끼가 도는 것도 같고.’세카트로는 ‘내 송곳니로 만든 것이다.’라는 대꾸는 생략했다.헤이온이 가지고 있던 검은 인간 수준에서도 그다지 괜찮은 물건이라고 해줄 수 없었다.‘소드 유저들이나 쓸법한 검을 소드마스터가, 그것도 내 손녀가? 안 되지.’그래서 심심풀이로 만들어두었던 본소드를 내준 것이다.“좋아. 무슨 시험인데?”“내가 만들어내는 것들을 모조리 해치우면 통과이니라.”사실 좀 전만 해도, 세카트로는 헤이온에게 본소드만 주려 했었다.그런데 헤이온의 기억을 살펴보다, 중간계에 마계의 간섭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마수왕 그라노이어.그 자가 넘어와 헤이온을 노렸다.헤이온에게 심어둔 자신의 힘, 드래곤 로드로서의 권능을 노린 것이 틀림없었다.아이를 인질로 협박을 하든, 힘 자체를 빼앗든.‘죽다 살았었구나, 내 새끼.’지켜주려고 준 힘이 도리어 독이 된 것을 알고, 가슴이 철렁했었다.마계에서 이런 식으로 행패를 부리리라고 생각지 못했었다.이따금 자잘한 놈들이 넘어오긴 했지만, 구마사제들의 감시와 대응으로 큰 문제는 없었다.그들이 있는데도 최상위 마인이 넘어왔다는 것은, 이상 현상의 전조였다.‘그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요인이 있었겠지. 인간들은 쓸데없는 제약을 만들어 자신들을 가두곤 하니까.’심지어 기억을 좀 더 돌려보니 마을이 전멸하고 레온마저 마수왕 손에 사망한 상황이었다.‘놀러온 것이 아니라, 오갈 데 없어 나를 찾은 것이었구나.’세카트로는 이제 와서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헤이온에게서 자신의 힘을 회수할 생각은 없었다.처음부터 활성화되지 않았으면 모를까, 이미 활성화되어 여러 차례 마나가 오간 헤이온의 마나 로드.전체, 혹은 일부가 갑자기 비활성화 되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이리저리 마나가 역류하거나, 범람하거나...신성 사제들이 만들어 놓은 치료수도 상처나 병을 치유해줄 뿐, 마나를 가다듬어 주지는 못한다.힘을 회수한다는 것은, 혹독한 훈련을 견디고 소드마스터의 경지에 오른 아이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었다.‘하지만, 이대로 밖으로 내보내면 필시 그놈이 다시 노린다.’자신이 직접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마주칠 일 없게 헤이온이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도록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전자는 인과율을 건드리고, 후자는 아이의 성격상 원치 않을 것 같았다.훨씬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두고 보자, 그라노이어. 감히 내 새끼를.’마나하트 개방세카트로는 언제까지나 자신이 로자리아 곁에서 지켜줄 수 있으리라 믿었었다.헛된 믿음의 결과는 참담했다.마법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을 얼마나 후회했던가.과거, 로자리아에게 인간 세상을 학습시키기 위해 외부에서 지내던 때가 있었다.급한 일로 한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 사단이 난 후였다.공격 마법이 아니라도, 은신 마법 정도는 가르쳐 뒀더라면.병사들에게 끌려가 그 빌어먹을 놈의 밤 시중을 들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여기까지 생각한 세카트로는 눈을 꾹 감았다 떴다.헤이온의 존재를 부정하는 실수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으리.그와 별개로,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긴 했다.언제든 자신을 소환할 수 있도록 로드로서의 권능을 심어주었었는데, 로자리아는 끝내 그 힘을 쓰지 않았다.감옥서는 힘이 태아인 헤이온에게로 전승된 후라 어쩔 수 없었겠지만, 밤 시중 건으로 끌려갈 땐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도.이유를 묻고 싶어도, 당사자가 죽고 없으니 미제가 되어버렸다.‘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일은 다신 없으리라.’세카트로는, 헤이온을 완전무결한 검사로 만들기로 결심했다.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도록.“언제 시작해?”헤이온의 질문에 세카트로는 미소로 답을 대신했다.그리곤 사랑하는 손녀를 향해, 손을 좌우로 교차시켰다.홈드레스가 움직이기 편한 무도복과 경량 갑주로 바뀌었다.바뀐 옷을 이리저리 들여다보는 헤이온 뒤로, 아공간 입구가 소리 없이 열렸다.세카트로는 다짜고짜 헤이온을 그 안으로 밀어 넣고, 입구를 닫아 버렸다.\*“이제 한 달쯤 지났을까?”“네? 무슨 말씀이신지...”헤이온이 아공간에 들어간 지 5분도 채 되지 않았다.세카트로의 뜬금없는 중얼거림에 로건은 괜한 눈치를 보았다.“아, 그대도 있었구나.”“...”‘아까부터 있었는데.’“그래. 훈련시키는 것뿐이니, 걱정 말고 가서 볼 일 보거라.”“네? 네.”꾸벅 인사하고 방 밖으로 나가려 하는 로건을, 세카트로가 정색하며 불러 세웠다.“그대는 이리 오너라.”“네에??”로건은 멍해졌다.‘가랬다가 오랬다가, 뭐지? 나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었나?’하지만 둘러보아도 방에는 자신과 세카트로 외엔 아무도 없었다.‘장난치신 건가?’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워 우물쭈물하고 있노라니,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뺨을 톡 건드렸다.마지막 남은 실프 하나가 로건의 뺨을 건드리고 웃으며 나갔지만, 로건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뭐야, 뭐!? 벌레는 아닌데.’문득, 목욕시켜주고 길 안내를 해줬던 보이지 않는 손이 생각났다.목욕 전, 홀에서 식탁 근처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헤이온이 인사했던 것도.‘둘에게만 보이는 누군가가 여기 와있었던 거구나. 그럼 그렇다고 말 좀 해주시지.’잠시나마 당황했던 자신의 속도 모르고, 세카트로는 평온하기 그지없었다.“그대는 정령과 친화력이 좋은 편이구나.”“정령이요? 아, 그럼 그게...”“활을 장비하고 있던 걸 보아, 평소 바람을 읽어왔을 테지. 이곳을 관리하고 내 시중을 드는 아이들은 모두 바람의 정령이니 무리도 아니니라.”“그, 그렇군요.”‘기분 탓인가? 쓰레기라고 하려다 말 바꾸신 것 같은데.’세카트로의 위 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 로건은 마른 침을 삼켰다.“헤이온이 동생이라 칭했을 정도이니. 그대에게도 그대의 힘에 걸맞은 선물을 하려 하느니라.”굳이 따지자면 로건이 며칠 더 일찍 태어났고, 그 덕에 헤이온도 폴칸 부인의 모유를 나누어먹을 수 있었다.‘제가 오빠입니다.’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었지만, 선물이란 말에 쏙 들어갔다.“그대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 보라. 벽을 부수지는 말고.”“화살이 박히게 할 순 있어도, 부수지는 못합니다.”로건의 대답에, 세카트로가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다.‘그것도 못해?’라고.‘못 해서 죄송합니다...’마나 유저라면 일반 건물 벽 정도는 맨주먹으로도 어렵지 않게 부술 수 있다.부수지 못한다는 건 일반적인 수련자, 보우 유저에 불과하다는 뜻이었다.“그대도 그 일을 함께 겪었으니 알겠지만, 헤이온에겐 강한 동료가 필요하니라. 약한 자는 동료가 아니라, 방해물일 뿐이지.”로건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헌데 이상하구나. 그대는 헤이온과 함께 훈련을 받아왔을진대, 마나 유저도 되지 못했다니.”세카트로가 헤이온의 훈련 기억을 살폈을 때, 대개 로건도 곁에서 함께 훈련받고 있었다.헤이온만큼 심하게 굴려진 건 아니지만, 평범한 인간에겐 충분히 지독한 수준인데도 오기인지 깡인지, 녀석은 그 고된 훈련을 묵묵히 견뎌냈다.소드마스터인 레온이 가르친 만큼, 신체 강화 외에도 마나의 순환 역시 훈련받았다.마나 숙련도를 나누는 기준은 대략 이러하다.신체 일부, 혹은 전체에 마나를 순환시키는 마나 유저.신체 전체의 순환 및 일부에 응집이 가능한 마나 익스퍼트.신체 전체의 응집과 사물에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 마나 마스터.‘그만큼 훈련받았으면 아무리 재능이 없어도, 최하 등급 마나 유저는 되었어야 하거늘.’세카트로의 의아하다는 시선에 로건은 고개를 푹 숙였다.헤이온보다 약하다는 것은 로건의 오랜 콤플렉스였다.약한 정도가 아니라, 근래에는 안겨 다니기까지 하는 신세였다.스킨십이라 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같이 훈련받은 걸 어떻게 아셨지.’처음 레온 할아버지에게 훈련을 받았을 땐, 헤이온이 한다니까 같은 걸 하고 싶어서 받아본 거였다.더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도 우는 소리 한 번 없는 헤이온을 보면서, 자신 역시 이를 악물었었다.하다 보니 강해지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힘든 시간들을 버텨내면 반드시 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고, 강해졌다.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에 한해서였다.주 무기로 활을 선택한 것은 남다른 시력 때문도 있지만, 검을 쓰는 헤이온을 위해 원거리 지원을 해주고자 함이었는데...헤이온은 그런 지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해져만 갔다.시간이 흐를수록 따라잡기는커녕 점점 멀어졌다.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굴복하지 않으려 남몰래 혼자 더,더 훈련했지만...‘저도 미치겠다고요.’세카트로는 말없이 로건의 심장 부근에 손을 갖다 댔다.그리곤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그 의미를 알지 못해 로건은 속으로 진땀만 흘렸다.“내가 가진 것 중, 마나를 쓰지 못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느니라.”‘비웃음 같진 않았는데. 철퇴를 때리시네...’“그대의 가치를 보여 다오.”세카트로는 창문 너머 고공에 과녁 수십 개를 그려냈다.언제 신호했던 건지, 로건의 활과 화살 통이 공중에 둥둥 떠 배달되어 왔다.“감사해요. 정령님.”로건이 활을 받아들며 인사하자, 실프들은 로건이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환호성을 질러댔다.창문 앞으로 다가간 로건은 침착하게 시위에 화살을 걸었다.‘호오?’세카트로는 조금 놀랐다.걸린 화살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였다.로건은 크게 숨을 머금은 후, 잔뜩 당겼던 활시위를 놓았다.쉬지 않고 매우 빠르게, 계속해서 두 대씩 걸고 당겼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가공할 연사가 이어졌다."후우-."과녁 수만큼 화살을 쏘아내고서야 로건은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실프들의 환호성과 박수가 멈출 줄을 몰랐다.모든 과녁의 한가운데가 꿰뚫린 것을 확인한 세카트로 역시, 박수쳐 주었다.마나를 쓰지 못할 뿐, 무기 숙련도는 상당한 수준이었다.이대로 묻어두기엔 아까운 인재였다.일깨워주면 헤이온의 전력이 되어줄 터.“수고하였느니라.”세카트로는 말을 마치자마자 슥, 한순간에 로건 앞으로 이동해왔다.“!”로건이 움찔했지만 세카트로는 아무렇지 않게 활을 빼앗아 창밖으로 집어던졌다.빙긋 웃으며 마법을 쏘아 보내 부숴버린 건 덤이었다.“...”그리고는 로건의 양 손을 마주잡았다.“가끔 그대와 같은 자들이 있지. 지금부터 잠들어있는 그대의 마나 하트를 깨울 것이니라.”로건이 뭐라 대답할 새 없이, 맞잡은 손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파도가 밀려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파도는 전신을 돌고 돌며 요동치다가 어느 순간 심장 부근을 마구 때려댔다.억지로 짓이기는 듯한 감각에 헉, 헉, 하는 짧은 숨을 토해냈다.점점 식은땀이 나고 신물이 올라왔다.“더한 시간들을 버텨내지 않았더냐. 이 또한 버텨 내거라. 염원을 이루고 싶다면.”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고통은, 심장 부근에서 요란하게 뒤틀리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끝이 났다.‘마나 하트가 깨어있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호흡이 거듭될수록, 보이지 않는 힘이 몸 안으로 빨려 드는 느낌.생생한 활력이 전신을 휘감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주고 있었다.‘마나를 쓰는 사람들은, 늘 이런 상태였던 건가.’신세계였다.세카트로가 아니었다면 평생 이런 감각을 모르고 살았을 것이었다.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로건은 바닥에 엎드려 세카트로에게 절을 올렸다.“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그대가 잘 버텨낸 덕이니라.”‘만약 혼절했다면 그대는 이 세상에 없었을 테지.’로건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그 때, 실프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을 닦아주려 하는 것이 비로소 로건의 눈에 들어왔다.“고마워요. 정령님들. 전 괜찮아요. 기뻐서 그래요.”실프들은 자기들이 보이냐는 의미로 손가락을 세워 스스로를 가리켰다.“네, 이제 보이네요. 다들...”“보통은 마나 순환이 되더라도 정령을 볼 수 없느니라. 그대는 친화력이 상당한 것 같구나.”그만큼 수도 없이 바람을 읽었다는 뜻이었다.얼마나 수많은 훈련을 쌓아왔을지 가늠해볼 수 있었다.그렇다고 모든 궁수들이 실프들과 상성이 맞는 건 아니었다.로건은 필요이상 자연을 해친 적이 없고, 자연을 사랑하며 산에서 살다시피 자라왔다.또한 헤이온과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드래곤의 힘에 감화된 면도 있을 것이었다.“자아, 이걸 받으려무나.”세카트로가 어디선가 새 활을 꺼내 로건에게 건넸다.확실히, 쓰던 것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일단 이정도로 해둘까. 진짜 선물은 시험을 통과하면 주겠느니라.”‘어? 저 말씀은... 불안한데.’로건의 옷이 움직이기 편한 무도복과 경량 갑주로 바뀌었다.‘앗, 설마!’그리고 뒤편으로 다짜고짜 밀어 넣어졌고, 빙긋 웃는 세카트로의 얼굴을 본 것을 마지막으로, 입구가 메워지듯 닫혀버렸다.\*“캬악! 망할 영감탱이, 가만 안 둬!”로건은 세카트로에게 달려들려는 헤이온을 붙들었다.작은 방에서 아공간으로 들어갔었는데, 나온 곳은 정원이 내다보이는 테라스였고 세카트로는 티타임을 즐기는 중이었다.둘은 막 세카트로가 집어넣었던 아공간에서 나온 참이었다.아공간에는 처음 보는 해괴한 몬스터들이 가득했다.해치울수록 점점 강한 몬스터가 나타났고 몬스터의 능력과 패턴은 각양각색이었다.같은 공간에 떠밀렸기에 둘은 만나서 협공할 수 있었다.몬스터들의 괴성을 들으며, 체액을 뒤집어쓰며, 먹지도 쉬지도 않고 싸우는 나날들.신기하게 배고프지도 피곤하지도 않았지만... 문제는, 그 안에서 보낸 시간이었다.어림잡아도 삼년은 족히 되었다.그래서 헤이온이 노발대발하는 것이었다.“대체 뭐라고 삼년이나 굴려먹어? 변태 영감탱이!”‘레온 할아버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하긴 했지.’하지만 세카트로가 꺼낸 검을 보니, 저절로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벌어졌다.황금의 검.달리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검 날은 투명해서 건너편이 비쳐보였고, 날을 제외한 부분은 전부 황금이었다.크로스가드에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커다란 보석이 박혀 있었다.검에서 절로 광채가 나는 듯했다.“이, 이게 선물?”“그러하니라.”이어서 꺼낸 활도 굉장한 물건이었다.황금 베이스의 거대한 라이저.핸들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우아한 양각이 도드라졌고, 림은 여러 겹 겹친 깃털 모양으로 세공되었다.깃털 끝에는 촘촘한 작은 보석들이 저마다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세카트로는 놀라는 둘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놀랐나보구나. 둘도 없는 보물들이니 잘들 사용 하거라.”하지만, 헤이온의 분노는 극에 치닫고 말았다.“이딴 장식용을 어따 써먹어!”썩은 물세카트로는 피식 웃었다.“설명해서 무얼 하겠느냐. 새 무기에 익숙해지고 오거라.”“뭐? 또 쳐넣-”헤이온의 뒷말은 아공간이 닫히면서 묻혀버렸다.\*아공간 입구가 다시 열리자마자 헤이온이 튀어나왔고, 그 뒤를 로건이 따랐다.“어? 진짜네.”안에서 두 달이나 지났는데도 세카트로는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티타임 중이었다.접시에 과일과 과자가 담긴 모양까지 전과 똑같았다.“무엇이 말이냐.”“로건이, 안에서 한 달이 바깥에서는 5분 정도일 수 있다고 했거든.”세카트로와 실프의 대화를 기억해낸 로건이, 대노한 헤이온을 달래려 해준 말.3년이나 지났는데 세카트로가 여전히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며, 우리도 아무 변화 없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고.일리 있었다.머리카락과 손톱이 자라나지 않고, 배고프지도 졸리지도 않으니.로건 덕에 가까스로 분노를 가라앉히고 열심히 2차 훈련을 할 수 있었다.“총, 세 시간 조금 넘었구나. 무기에는 익숙해졌느냐?”“그렇지 뭐. 혹시 하고 써봤는데, 말도 안 되는 걸 줬더라? 고마워.”“둘도 없는 보물이라 하지 않았더냐.”‘내 말 맞지?’라고 말하듯 씨익 웃는 세카트로를 향해, 둘은 열렬히 고개를 끄덕였다.“그런데 너무 눈에 띄기도 하고, 위력이 너무 세서 평소엔 훈련용을 쓰는 게 낫겠어.”훈련용 검도 상당한 명검이지만, 황금 검에 비하면 준수하게 느껴졌다.세카트로는 입맛을 다셨다.‘졸지에 드래곤 본 소드가 훈련용 검이 되어버렸군.’“그리 하거라. 발뭉은 넣어뒀다가 적시에 사용하면 되겠구나.”“뭐야, 검에 이름도 있어? 그럼 저 활은?”“크리셀라 카토스.”“부자들은 물건에 막 이름 붙이고 그래? 괴상한 취미네.”“...”\*궁전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다음날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헤이온과 로건은 떠날 채비를 했다.부피가 큰 무기를 받긴 했지만 딱히 짐이 되진 않았다.세카트로가 준 아공간주머니는 굉장히 유용한 것이었다.무엇이든 무한대로 들어간다는 것 같았다.“이 안도 현실과 시간이 달라?”“이것은 아공간의 일부를 떼어 개량한 것이라 그런 기능은 없느니라.”“아니라고 한 마디 하면 될 걸, 굳이 길게...”세카트로는 로건의 아공간 주머니에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의 금속 화살을 넣어주고,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 더 넣었다.그리고는 헤이온을 가까이로 불러서 로건 몰래, 셀 수 없이 많은 금괴와 보석을 주는 것이었다.세카트로의 넓적한 옷소매 안에서 금품들이 쏟아져 나와, 헤이온의 아공간 주머니 안으로 끊임없이 날아 들어갔다.헤이온의 입이 쩍 벌어졌다.‘대체 어디서 어떻게 긁어모아야 이만큼 모을 수 있는 거야?’가장 작은 보석 하나로도 몇 달은 먹고 살 텐데.세카트로가 넣어주는 금품의 양은, 용돈이라기엔 너무나도 어마어마했다.“그만 줘도 돼! 평생 펑펑 써도 다 못 쓰겠다.”“넓은 세상에 나가 보면, 오히려 모자랄지도 모른단다. 돈도 그렇지만, 뭐든 필요할 땐 나를 부르거라.”“어떻게?”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세카트로가 잔뜩 폼을 잡았다.“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멋진 신비의 현자, 세카트로 님이시여! 위대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주시옵소서! 라고, 마나를 실어 우렁차게 외치거라.”“안 해.”“...”세카트로는 끝으로, 둘의 무기에 강화, 귀속, 경량화 등 온갖 유용한 마법을 걸어주고, 옷까지 말끔하게 바꿔 주었다.그래도 떠나보내기 영 아쉬운지, 티를 팍팍 냈다.“더 머물다 가지 않고.”“해야 할 일이 생겼어. 황제와 담판 지을 거야.”속사정을 아직 모르는 로건이 눈을 크게 뜨고 헤이온을 바라보았다.헤이온은 단단히 결심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몰랐으면 모를까, 알면서 이대로 있을 순 없어.”[자신]을 살리기 위한 직무유기로 범죄자 신분이 된 할배.현 황제의 자식을 낳고도 세월에 묻혀버린 엄마.‘공통 열쇠는 바로 나야.’반드시 둘의 신분과 명예를 마땅한 자리로 되돌려 놓으리라.자신에게는 황제가 아쉬워할 만큼의 힘이 있으니, 시도해 볼만했다.소드마스터의는 군사력 증강에 아쉬운 존재이긴 하나, 황제가 수틀리면 소드마스터 기사들을 여럿 불러 자신을 죽이라 할 수도 있었다.엄마를 죽이라 명했던 사람이니 가능성은 충분했다.그래서 할배는 숨어 사는 쪽을 택했겠지만.이제는 3년 하고도 두 달, 전장 최전선에서 날뛴 것과 같은 실전 경험이 쌓였다.감히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굉장한 무기도.그리고 황제를 만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었다.‘남부 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하게 해야 해.’“마수왕이라 했던가. 그 놈도 다시 마주친다면 작살내 버려야지.”이번엔 로건도 고개를 끄덕였다.세카트로는 속으로 음흉하게 웃었다.‘계획대로야.’이쪽에서 애써 찾을 필요도 없었다.헤이온을 노리고 불나방마냥 타죽으러 올 테니.“마계 생명체를 상대할 땐 신성력을 써야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느니라. 사제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성수를 검과 화살촉에 바르거라.”“알려줘서 고마워. 세카트로 님에겐 고마운 것뿐이네.”“그래... 떠나기 전에 뭐 좀 물어도 되겠느냐?”“응.”세카트로는 헤이온이 겪은 일과 레온의 죽음을, 힘의 기억을 읽고서야 알았다.먼저 알려주지 않은 것이 계속 신경 쓰였다.‘전할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생각해서였을까.’“비보를 전하지 않았던 이유가 궁금하구나.”“그냥, 타이밍을 놓쳤어.”‘하핫...’지금까지의 고민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복잡할 것 없는 이유였다.문득 어쩌면, 오랫동안 품어온 의문 역시 날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다.-너는 혹시 아느냐? 로자리아가 황태자 놈에게 끌려간 그날 밤, 나를 부를 수 있는데도 부르지 않았던 이유. 그것이 내겐 지금까지도 풀 수 없는 의문이로구나.-으왓, 뭐야!-너와 나는 근거리에 있을 땐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느니라. 혹시 답을 안다면, 알려 다오.-그거? 봤으면서도 여태 몰랐어? 왜 끌려간 거라고만 생각하지? 결과가 좋지 않으니 시작도 그랬을 거라고 여기기 쉽지만. 그건, 세카트로 님의 관점일 뿐이야. 엄마는...헤이온이 보았던, 과거 엄마의 시야.사냥터에 주둔중인 황태자 일행이 이따금 마을에 들를 때면, 엄마의 시야 한 가운데에는 어김없이 황태자가 자리했다.며칠 후 저녁.마을 아가씨들을 물색 중인 병사들이 문을 두드렸고, 엄마의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끌려간 것이 아니라 따라갔다.한 번이라도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만나고 싶어서.-반했던 거야. 황태자에게.\*결계의 경계 바로 앞까지 세카트로와 실프들이 배웅해주었다.한 발자국만 떼면 사우스 바인의 산림.인사하고 등을 돌렸을 때, 실프 하나가 포르르 날아와 로건의 뺨에 찰싹 달라붙었다.로건은 이 실프가 전에 뺨을 건드렸던 실프란 걸 직감했다.“그대가 어지간히 마음에 든 모양이구나. 괜찮다면 데려가거라. 도움이 될 테니.”세카트로의 말에, 로건이 물었다.“전 괜찮아요. 같이 갈래요?”실프가 끄덕거리며 로건의 뺨에 제 뺨을 비볐다.“그럼 이제 정말 안녕! 담에 봐!”한 발 내딛자마자 거짓말처럼 풍경이 확 바뀌었다.거대한 궁전과 아름다운 정원은 사라지고, 울창한 산림이 반겼다.헤이온은 호기심에 다시 뒤로 한 발 가보았다.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입구와 출구가 따로 인가?’그 때였다.실프가, 바쁘게 좌우로 날며 저편을 손으로 가리켰다.“응~, 알겠어. 그쪽이 입구라고?”실프는 고개를 저으며 양 손을 교차시켜 엑스 자를 만들었다.왜 이러나 싶어 실프가 가리켰던 쪽을 주시했더니, 나무 그림자에 두 사람이 숨어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로건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일반적인 은신은 아니었다.그들이 사용한 은신 마법의 클래스를 뛰어넘는 헤이온과, 정령인 실프의 눈에만 보이는 듯했다.은신마법을 썼다고 해서 충격이 투과되거나 반사되지는 않는다.단순히 몸만 숨겨줄 뿐.헤이온은 발끝으로 땅을 쾅 찍어 그들에게 흙더미를 날려 보냈다.십여 미터를 고속으로 날아오는 흙더미에, 그들이 좌우로 흩어졌다.그늘 밖으로 나온 남녀는 초면이 아니었다.“너네, 나 알지?”헤이온의 말에, 여마법사가 코웃음을 쳤다.“흥! 결계 안쪽에서 나온 걸 봤다. 들어가는 방법을 털어 놓고, 가진 것도 다 내놔!”여마법사가 공격마법을 캐스팅하기 시작했고, 남자는 주먹에 마나를 끌어 모았다.헤이온은 훈련용 검을 뽑아들었다.“밥값 벌러 나간~다!”\*포박하지도 않았는데 둘은 도망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글레이드까지 얌전히 앞장서 걷는 수밖에 없었다.도망치려 했다간 등이 화살에 뚫릴지, 검에 썰릴지.헤이온이 검집 끝으로 여마법사의 등을 쿡쿡 찔렀다.안 그래도 등이 난리 나는 상상 중이던 여마법사는, 화들짝 놀랐다.“왜, 왜 그러세요...?”“안되겠다. 너무 느려. 멀티 레비테이션 좀 써봐.”“쓸 수는 있지만... 걷는 것보다 느려요.”“슝슝 빠르게 날 수 있지 않아?”“혼자라면 모를까, 여럿을 그렇게 띄우려면 9서클 이상 대마법사여야 하는데, 그래도 달리기보다는 조금 느릴 걸요.”“느리게 가면서 도망칠 기회 보려고 수작부리는 거지?”“진-짜 아니에요! 제가 6서클이라 네 명 띄우면 1.5서클에 해당하는 출력으로 날게 된단 말이에요.”여마법사는 세상 억울하다는 표정이었다.“알았다.”‘세카트로 님. 대단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새삼 대단하네.’“저기요. 그 검... 보통 본 소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요. 결계 안에서 가져오셨어요? 드래곤의 레어 맞죠?”“본 소드? 아~, 뭔가 했더니 뼈로 만든 거군.”“좋은 건 먼저 다 챙기셨을 텐데,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가르쳐주심 안되나아아앙요?”몇 차례 말을 주고받아서 그런지, 여마법사의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말끝이 길게 늘어졌다.급기야는 앞서가다 말고 헤이온에게 총총총 다가와 팔짱을 꼈다.“네~?”“하...”남자가 인상을 굳히며 한숨을 쉬었지만, 여마법사는 못 들은 척 헤이온에게 달라붙었다.“어머! 팔 단단한 것 좀 봐아아앙~.”따악! 딱밤을 맞고 이마가 벌겋게 부어올랐는데도 여마법사는 떨어질 줄을 몰랐다.한 대 더 때려주려는데 로건이 급히 외쳤다.“헤이온! 글레이드 남쪽 상공에!”시꺼먼 해일이 일고 있었다.“야, 니들 그냥 가라.”“네에에?” “?”덩치 큰 남자와 새침한 남자에게 이들을 잡아다 주겠다고 했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다.헤이온은 여마법사를 거칠게 떼어내고 날아오르듯 튀어나갔다.실프를 어깨에 앉힌 로건도 뒤따라 날듯이 달렸다.\*헤이온과 로건이 글레이드 북문에 다다랐을 때, 도시는 이미 아비규환이었다.대로 저편 남문 근처엔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고, 대로변은 도망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와중에는 넘어져 짓밟히는 사람도 있었다.“숨을 쉬지 마세요! 코와 입을 막아요!”“숨참아!”마나를 실어 외쳤는데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워낙 커서 묻혀버렸다.엔델 마을과 달리 인구 밀도가 높아 안개가 빠르게 사라져갔다.바꿔 말하면, 그만큼 들이킨 사람이 많다는 것.글레이드의 절반가량이 초토화된 상황이었다.실프가 작은 바람을 불러일으켜 안개를 남쪽으로 밀어냈다.바람에 안개가 밀리는 것을 본 몇몇 마법사들이 합세해 함께 안개를 밀어내기 시작했다.그 틈에 도망치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안개에 당하지 않고 북쪽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하지만 많은 새가 안개로 변했는데도, 그보다 훨씬 많은 수가 밀려오는 중이었다.새들을 향해 공격 마법을 날리거나 활을 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이대로는 실프와 마법사들의 마나가 소진되면 끝장이었다.‘성수를 챙겨 와야 해!’헤이온과 로건은 신전으로 향했다.길이 워낙 사람들로 붐비기에, 건물 벽을 타고 올라 지붕에서 지붕으로 내달렸다.퍽퍽 소리와 함께 밟는 곳마다 움푹 꺼져 들어갔지만 어쩔 수 없었다.그렇게 신전에 거의 다 왔는데...뭔가 이상했다.위에서 보니, 신전 경비들이 사람들을 밀치며 정문 후문 할 것 없이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사람들을 피신시키고 구마에 앞장서야 할 신전이, 왜?’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가족, 애인, 친구를 살려 달라 울부짖었지만 잠긴 문이 열리는 일은 없었다.와중에, 구석에 난 쪽문으로 전에 봤던 풍채 좋은 부부가 급히 입장하는 것이 보였다.헤이온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의외의 조력자쪽문은 평소에 쓰이지 않는 것 같았다.사람들은 그 쪽을 둘러볼 생각은 하지 않고 정문에만 매달려 아우성이었다.사람들이 한 번에 들이닥치면 제대로 사무를 볼 수 없다는 건 이해하지만...후속 조치는 없고, 차별만이 있는 현장.속이 뒤틀렸다.하지만 신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가능하면 타협하는 방향으로 가자.’헤이온과 로건은 지붕 위를 빙 둘러 우회한 후 뛰어내렸다.쪽문 앞에 가서 두드리자 지난번의 나이 지긋한 경비가 다가왔다.“어느 가의 자제분들이십니까?”이번엔 좋은 옷을 입고 있어 그런지, 경비의 태도가 전과 달랐다.하루만인데도 얼굴을 기억 못 하는 눈치였다.“당장 열어. 사제께 급히 전할 말이 있다.”“급하셔도 어느 가에서 오셨는지 말씀을 해주셔야...”“글레이드의 사활이 달린 문제입니다. 사제님을 뵙게 해주세요.”순간적으로, 경비의 표정이 팍 썩었다.“그럼 그렇지. 안 그래도 정신없는데. 썩 꺼져!”그의 태도가 다시 변한 것은 로건의 존댓말 때문이었다.귀족이라면 일개 경비원에게 존댓말을 쓸 리 없으니까.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하대하고, 하대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당연한 아이러니.“그래. 사실 기대하지도 않았어.”헤이온은 문을 발로 차 무너뜨리고 신전 뜰로 들어섰다.막아서다 밀쳐진 경비가 씩씩거리며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나발을 불었다.무장 경비 몇 명이 우르르 달려왔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땐 헤이온과 로건은 이미 신전 안으로 들어가고 없었다.\*신전 안 대기실이 오랜만에 붐볐다.글레이드에 여행 와있던 귀족들 일부가 이리로 대피해온 탓이었다.피난하려 했지만, 길이 막혀버려 할 수 없이 마차와 말을 버리고 차선을 택했다.신전이라면, 목숨 줄이 위태로울 때 치료마법을 받거나 치료수를 쓸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귀족들은 불안한 낯빛을 감추지 못했다.“경비병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더라고요.”“마법사들도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죠?”“사제께서 영주님께 전령을 보낸다고 하니 기다려 봅시다.”“잠깐만요. 영주성은 글레이드 서남쪽에 있잖아요!”“저것들이 남쪽에서 오지 않았어요?”“아... 어떡해요...”귀족들 중 마나를 쓸 수 있는 자들은 이미 피신했다.날아서든 달려서든.제 영지가 아니니 굳이 지킬 필요도 없고, 저와 제 가족만 챙기면 그만이었다.상당수는 마부와 하인도 버리고 달아났다.소양 없는 자들만이 남아 전전긍긍하던 와중.신전 내부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총괄 사제의 집무실.헤이온은 의자와 테이블을 걷어차 한 쪽으로 치웠다.뻥 뚫린 앞을 걸어가, 사제가 앉아 있는 책상을 내리쳤다.“이러지 마십시오. 영주님께 서신을 보냈으니 지원 병력이 올 겁니다. 그 때까지 버티면 됩니다.”“그 때까지 기다리다간 다 죽어. 잔소리 말고 협조해.”“실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아요. 놈들이 안개로 변하면 공기 중으로 퍼집니다.”“...어제 창문을 깨트린 자가 당신들이군요.”“그건 죄송합니다. 나중에 변상할게요. 지금은 서둘러 주세요.”사제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을 뿐,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이러는 중에도 실프와 마법사들의 마나는 줄어들고 있을 텐데.“시간 끌지 말고, 나가서 신성력으로 도우란 말이다!”“글레이드 신전의 사제들은 저를 포함해 모두 일반 사제들입니다. 마계의 생명체들이라 했나요? 저희는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신성사제이니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답답하기 그지없었다.“싸우는 건 우리가 할 테니까,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라고! 일어나!”사제는 고개를 저었다.“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나가면, 다들 달려들 겁니다. 사람들도 사제들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병력이 오고 통제가 가능해지면-”“그럴 시간 없다니까?? 남부 마을들은 전부 한 순간에 전멸했어!”“금시초문입니다만. 아, 어서들 오게!”무장 경비들이 우르르 들어서자 사제는 화색을 띄며 자리에서 일어섰다.박살난 가구들을 본 경비들은, 저마다 검을 뽑아들고 헤이온과 로건을 둘러쌌다.“이 무뢰배들을 당장 포박하시오!”하지만 둘에게 달려드는 경비는 아무도 없었다.헤이온의 검에서 솟구치는 검기를 멍하니 바라볼 뿐.“직접 못 나서겠으면, 성수라도 내놔. 전부!”“성수가 무슨 우물물인 줄 아십니까? 당신들이 도망칠지, 싸울지 어떻게 알고 내주죠?”“이게 그래도!”“잠시만. 성수만 있으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헤이온이 책상을 부숴버리려는 찰나, 난데없이 끼어든 목소리.집무실 입구에 말끔한 인상의, 고급 옷을 입은 남자가 와있었다.“성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수와 우리가 있어야 하지.”남자는 한 차례 고개를 끄덕이곤 집무실 안으로 들어왔다.“제가 보증을 서지요. 이들에게 성수를 내어 주세요.”“도련님, 그렇지만...”총괄 사제는 난감하다는 듯 남자와 헤이온을 번갈아 보았다.“소리가 나서 왔다가, 본의 아니게 엿들었습니다. 이들에게 대응책이 있는 듯하니 맡겨 봅시다. 저 끔찍한 새들이 남쪽에서 왔다는데, 영주성도 어쩌면 녹록치 않은 상황일지도 모릅니다.”그래도 사제가 머뭇거리자, 남자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발트 백작가의 차기 가주가 저라는 걸 잊으셨습니까?”그제야 사제는 쪽지를 적어 경비 한 명에게 건넸다.경비는 어디론가 잽싸게 달려 나갔다.발트 백작가의 장남.발트 상단의 부단주인 그는, 뛰어난 눈썰미를 가지고 있었다.괜히 보증을 선 게 아니라, 저들의 행색을 샅샅이 살펴 내린 결론이었다.한 명은 화살 통을 어디 분실했는지, 활만 들고 있긴 했지만...‘둘 다 장비가 보통이 아니야. 게다가 금발은 소드마스터인 게 확실하고.’그들에게 성수 살 돈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았다.다만, 비상시니만큼 추후 성수를 찾는 귀족들이 있을 터.이런 때에 평민에게 우선 판매했다는 걸 알면, 귀족들이 길길이 날뛸 것이었다.자신이 저들의 배후인 것으로 해두면, 적어도 신전에는 타격이 가지 않는다.치료수만큼이나 성수 또한 가격이 상당하기에 부담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그래도 목숨이 달린 상황이니, 저 정도면 걸어볼 만했다.“참 나. 귀족 나리의 말에는 꼼짝 못하네?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귀족이지? 평민들은 막아놓고. 더러워서, 원.”헤이온의 빈정거림에 총괄 사제가 발끈했다.“전부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선착순도 아니고~, 신분 순이라는 거잖아. 어련하겠어.”도련님이 끼어들었다.“법도가 그러하니, 사제님을 너무 힐책 말길.”“법도?”“귀족이 달리 귀족이겠는가. 타고 나는 것이 다르다. 평민들은 죽을 때까지 이해 못 할 테지.”헤이온은 대꾸 않고 한숨을 쉬었다.저 밉상이 나서주지 않았으면, 말 그대로 신전을 썰어버려야 했을지도 몰랐다.대꾸해봐야 사상이 바뀌지도 않을 테고, 무시하는 편이 나았다.달려 나갔던 경비가 허겁지겁 바구니를 들고 돌아왔다.성수 병은 열댓 개가 전부였다.“이게 다야?”“예...”검기를 본 후라, 경비는 잔뜩 주눅 들어 존대했다.성수는 주로 기도용으로 쓰였다.갓난아기나 새 건물과 마차, 묘지 등을 축복하는 데에 쓰이기도 하지만, 평민들에겐 먼 세상의 이야기.귀족들에게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보니, 판매용이 다량 구비되어 있지는 않았다.“너희도 나가서 싸울래?”“저희는 신전을 지키는 것이 임무라...”“잘도 지키겠다.”“...”헤이온은 아공간 주머니에 성수 몇 병을 집어넣었다.로건은 남은 병 전부, 병마개를 땄다.그 다음, 내용물을 모조리 아공간 주머니 안에 쏟아 부었다.“멍하니 있지 말고 성수 최대한 많이 만들어!”이 말을 마지막으로, 둘 다 창문 밖으로 튀어 나갔다.집무실 안에 남은 모두, 벌린 입을 다물 줄 몰랐다.가장 크게 입을 벌린 사람은 발트 백작가의 도련님이었다.어딘가에서 크게 한탕 한 용병들인 줄로만 알았는데.‘부르는 게 값인 아공간 주머니까지?’\*실프와 마법사들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마나를 쥐어짜고 있었다.바람을 일으켜 안개를 밀어낸 지 한참.검은 새 무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었다.안개로 변하기 전에 죽이려 해도, 그다지 타격받지 않기 때문이었다.활을 비롯, 각종 투척 무기와 장창이 사용되었지만 소용없었다.타지에서 온 마법사들은 어느 샌가 하나 둘, 사라져있었다.끝도 없이 밀려드는 새 무리에 가망이 없다 느끼고 도망친 것이었다.정의감에 남은 자들은 몇 되지 않았다.글레이드 출신 마법사들은 이를 악물었다.이길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가족들과 친구들이 도망갈 시간을 최대한 벌어주어야 했다.시간이 흐르면서, 마나가 고갈되어 탈진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조금이라도 마나가 충전되면 다시 일어서서 바람을 불렀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쓰러지기 일쑤였다.안개와의 간격이 상당히 가까워진 때.하늘을 두 동강낼 기세의 시린 섬광이 일고, 검은 새들이 퍽퍽 터져나갔다.터진 새들은 안개가 아닌 빛의 입자를 흩뿌렸다.섬광은 계속해서 일었고, 섬광이 미처 지나지 못한 곳은 짧은 빛줄기가 빠르게 연사되며 꿰뚫었다.그늘져 어두웠던 게 거짓말 같았다.하늘을 가득 메우는 빛의 입자에, 남쪽을 쳐다보기 힘들 지경이었다.밀려오는 새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참 반가웠지만...문제는 이미 퍼진 안개였다.실프와 마법사들이 기진맥진해 쓰러지려는 순간.기적은 또 한 번 일어났다.북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 안개를 전부 남쪽으로 밀어냈다.“호호! 나이스 타이밍이죠?”“옌장, 여기로 보내면 어쩌자고!”“앗...!”금발 검사의 고함소리에 여마법사는 급히 팔을 들어올렸다.안개가 바람을 타고 위로 후욱 솟구쳤다.짧은 빛줄기가 계속해서 쏘아져 올라가는 가운데, 섬광은 그쳤나 싶더니 금발 검사가 이리로 날아오고 있었다.아니, 지붕을 밟으며 달려오고 있었다.체공 시간이 워낙 길어 나는 것처럼 보인 것이었다.거리가 가까워지자 여마법사는 잔뜩 움츠렸다.“죄, 죄송해요! 때리지 마세요오오,,,!”“누가 때린대? 잘 했어. 이거 공중에 흩뿌릴 수 있지?”여마법사는 금발 검사가 건넨 성수 두 병을 받아들었다.“맡겨 주세요!”되돌아가는 금발 검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여마법사는 하늘로 날아올랐다.새들을 향해 병 하나를 던지듯 띄운 후,강한 직선 바람을 쏘아 보내자 병이 깨지면서 날아갔다.돌풍에 분무된 성수와, 성수가 묻은 병 파편들이 새들을 덮치며 빛의 입자를 만들어냈다.남은 한 병으론 안개를 휩쓸어 정화한 후, 금발 검사 곁으로 날아갔다.\*헤이온은 발뭉을 유감없이 휘두르는 중이었다.발뭉에 검기를 실으면, 단순히 파괴력이 상승되는 정도가 아니었다.검신의 두 배 길이 정도로 검기가 늘어나는데다, 휘두르면 궤적을 따라 검풍이 일었다.그랜드 소드 마스터가 아닌데도 검풍이 나가는 건, 오롯이 검의 역량임이 틀림없었다.거기에 세카트로가 걸어준 각종 강화마법들까지 더해져, 대인 전에서는 봉인해야 할 얼토당토않은 검이 되어버렸다.이런 걸 인간에게 썼다간...‘그렇지만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니까.’한정된 성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발뭉을 꺼내들었던 것이다.검신에 묻은 성수가 검풍에 날려 분사되며 마계 생물 한정, 엄청난 파괴력을 내고 있었다.열심히 휘두르고 있노라니 검은 새들이 많이 줄어든 것이 느껴졌다.빛의 입자가 덜해졌고, 빼곡했던 새들 사이사이로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다.‘그렇다 해도, 이제 남은 성수는 한 병뿐. 할 수 있을까?’신전은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모양이었다.성수를 만들라고 해뒀지만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만들지 않던, 만들고도 조달하지 않는 것이던 참 어지간했다.헤이온은 가까운 지붕에 착지했다.마지막 남은 성수를 꺼내 검에 바르던 차였다.여마법사가 날아와 옆으로 내려왔다.“그거, 몇 개 남았어요?”“이제 없어. 그보다, 네가 여길 왜 와.”“저 쪽은 해결했는데요?”슬쩍 후방을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안개가 사라져 있었다.새들만 처치하면 되는 상황이었다.“잘 했어.”헤이온의 칭찬에 여마법사가 후훗, 하고 실웃음을 흘렸다.헤이온은 하늘로 시선을 돌렸다.로건이 쏘아 올리는 빛줄기-화살-의 기세가 많이 약해져 있었다.이제 성수가 조금 묻은 화살만 남은 듯했다.‘칫! 성수가 좀 더 있었더라면.’막지 못하면 글레이드는 끝장날 텐데, 성수가 없으면 방법이 없었다.피난민들에게 잠시나마 시간을 벌어준 것에 의의를 두는 수밖에.다시 뛰어오르려니, 여마법사가 허리를 붙잡았다.“잠깐잠깐잠깐! 잠깐만요.”여마법사는 뭔가 중얼거리기 시작했다.잠시 후.헤이온은 여마법사를 살짝 안아주고, 높이 뛰어올랐다.루나카와의 결연더 이상 남은 성수가 없으니 마나를 아낄 필요도 없었다.헤이온은 극한까지 마나를 끌어올렸다.지금까지의 배 이상으로 찬란하고 첨예한 검기가 솟구쳤다.‘이 정도의 출력을 견뎌 내다니. 발뭉이라 했던가? 이름 붙이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파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명검.오롯이 전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썩 마음에 들었다.밟고 선 지붕이 푹푹 꺼져 들어갔다.발아래를 고쳐 딛고, 막 도약하려는 찰나.옆에 있던 여마법사가 허리를 끌어안으며 붙들었다.“잠깐잠깐잠깐! 잠깐만요.”헤이온이 최대로 출력한 마나 탓에 따다닥, 불꽃이 튀었다.마법사가 아니라 일반인이었다면 팔이 찢겨나갔을 것이었다.“뭐야? 꺼져!”“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저것들을 한 방에 날려 봐요!”무시해버리기엔, 여마법사의 표정이 꽤나 비장했다.헤이온이 대답하기도 전, 여마법사는 캐스팅을 시작했다.차츰 여마법사의 손바닥 전면에 빛의 마법진이 맺혀 갔다.헤이온은 상공을 올려다보았다.아직까지는 로건이 유효타를 날리고 있었다.무시무시한 연사로 새들의 하강이 견제되고 있지만, 점점 짧아져만 가는 빛줄기가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었다.로건 외에도,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각종 투척무기와 공격 마법으로 힘을 보탰으나, 성수가 없어 위력적이지 못했다.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여마법사를 신뢰해서라기보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기다려보기로 했다.‘딱 10초. 더 이상은 안 돼.’이윽고 손바닥 크기만 하던 마법진이 집채만큼 퍼졌다.여마법사는 마법진으로 새 무리 중앙을 겨누었다.마법진 중심부에서부터 회오리가 뿜어 나와 무서운 속도로 새들을 덮쳤다.점점 거대해지는 회오리에, 새들이 꼼짝없이 말려들어갔다.회오리는 새들을 휩쓸며 거대한 검정 태풍으로 변모했다.로건이 쏘아대는 화살이 태풍에 묻혀 돌며 새들을 때려댔다.퍼버벅 터져 나온 무수한 빛의 입자들이, 도로 태풍 속으로 삼켜졌다.‘굉장한데.’이것만 해도 단순 연사로 관통시킬 때보다 훨씬 효율이 좋았다.여마법사가 이리저리 팔을 돌릴 때마다 태풍의 방향이 조금씩 변경되었다.“헉, 헉...!”여마법사는 마법진을 유지하는 것이 버거운지, 얼굴을 찡그리고 숨을 헐떡였다.새들을 남김없이 휩쓴 것을 확인한 후에야, 마법진을 성벽 밖으로 날렸다.여마법사가 안간힘을 쓰며 손목을 위로 틀었다.비스듬하던 태풍이 하늘을 향해 곧추섰다.“허억, 지금이에요!”예상외의 기회.‘놓칠 수 없지!’헤이온은 여마법사를 가볍게 안아주곤 지붕 끝을 박찼다.“아따따! 땃...”여마법사는 제 어깨를 문지르다 말고, 태풍을 향해 뛰어드는 헤이온의 뒷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다.‘세상에! 너무 멋진 거 아니냐고.’위 아래로 몰아치는 종의 검격.하늘과 땅을 잇는 섬광이 수차례 태풍을 갈랐다.수만 마리의 새가 동시에 터져나가는 소리, 눈부시게 흩뿌려지는 빛의 입자들.나와서 싸우던 이들, 숨어서 지켜보던 이들 모두,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았다.\*헤이온이 로건과의 약속장소에 도착하니, 여마법사도 함께였다.로건은 상의를 탈의한 채였고, 여마법사가 로건의 셔츠를 걸치고 있었다.“헤이온!”“꺄아아앙~! 검사님!”동시에 반기며 다가오나 했더니, 여마법사가 로건을 팍 밀쳐내고 달려들었다.로건이 세상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는 것을 헤이온은 애써 못본 척 했다.여마법사가 목덜미에 팔을 감으며 안겨들기 직전, 슥 피해버렸다.“앗!”헤이온은 넘어지려는 여마법사를 잡아주곤, 그녀의 행색을 살폈다.옷이 대부분 터져나가, 민망할 정도로 맨살이 드러나 있었다.로건이 벗어준 셔츠를 제외하면 다 벗은 거나 다름없었다.‘강력한 마법이긴 했지.’그런데 뭔가 이상했다.“잠깐.”헤이온은 셔츠를 여미려는 여마법사의 손을 잡아챘다.그리곤 셔츠를 열어젖혔다.“그렇게 빤히 보시면...”구석구석 살피는 헤이온의 시선에 여마법사의 뺨이 붉게 물들었다.“마법사들은 마나 모으면 멍들어?”“...!”여마법사는, 황급히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 셔츠를 여몄다.하지만 헤이온은 보았다.셔츠자락 아래 드러난 여마법사의 허벅지 곳곳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전엔 긴 로브를 입고 있어 몰랐다.아무리 생각해도, 마법을 쓴다 해서 멍들진 않을 것 같았다.마나를 외부로 방출하는 방향성이 다를 뿐, 운용 원리에는 차이가 없을 테니까.하지만 생각을 정리할 틈도, 자초지종을 물을 틈도, 이후 계획을 세울 틈도 없었다.“정말 대단해! 덕분에 살았네!”“용사님들, 감사합니다!”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어 빙 둘러싸고 환호성을 질러댔기 때문이다.일부러 한적한 구석으로 약속장소를 잡았건만.지붕을 건너뛰며 달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뒤따라온 모양이었다.보는 눈이 많아지자 여마법사의 얼굴에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여마법사는 헤이온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헤이온은 근처에 있는 한 아가씨에게 손짓했다.“그것 좀 빌려주실래요?”“꺅! 넵! 가지셔도 돼요!”아가씨가 종종걸음으로 다가와 자신이 두르고 있던 숄을 건넸다.헤이온이 숄을 허리에 둘러 묶어주자, 그제야 여마법사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보았다.사람들이, 지금까지 본 적 없던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열렬히 칭송하면서.‘딱히 사람들을 위한 건 아니었는데... 처음이야.’지금까지는 다들 자신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아니면.“!!”여마법사는 둘러싼 사람들 중 한 남자와 눈이 마주치자 굳어버렸다.헤이온은 자신의 팔을 붙든 여마법사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옆을 내려다보니 여마법사의 시선이 어딘가로 고정되어 있었다.시선을 따라가자, 여마법사의 일행인 남자 무도가가 보였다.무도가는 셋이 있는 가운데 쪽으로 한걸음 들어왔다.“루나카, 이리 와.”그가 부드러운 어조로 이름을 불렀지만, 루나카는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루나카의 귀에 더 이상 사람들의 함성소리는 들어오지 않았다.“루나카. 빨리 안 와?”자신을 부르는 무도가의 목소리만이 메아리가 되어 울렸다.무도가가 양 팔을 벌리며 한걸음 더 다가왔다.루나카는 헤이온의 등 뒤에 몸을 반쯤 숨겼다.헤이온의 팔을 붙잡은 루나카의 손이 덜덜 떨렸다.헤이온이 낮게 속삭였다.“저 녀석, 싫어?”루나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떨궈 줄까?”끄덕끄덕.헤이온이 루나카를 품에 꼭 끌어안았다.무도가가 인상을 잔뜩 구겼다.점차 독기가 오르는 무도가의 눈을 보며, 헤이온은 ‘이거다!’싶었다.동료 사이에 저렇게 명령조로 부를 리도, 안기라는 듯 팔을 벌리며 다가올 리도 없었다.그래서 시험해본 것인데 예상이 적중했다.“남의 여자 친구더러 오라 가라 말고, 꺼져.”“하! 여자 친구? 누굴 바보로 아나. 그 년이 어떤 년인 줄 알기나 해?”무도가가 본색을 드러냈다.헤이온은 자신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에 안도했다.“응~. 안 궁금하니까, 꺼져.”둘러싼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서로들 눈치만 보았다.로건은,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자 헤이온과 루나카 가까이 바짝 붙어 섰다.무도가는 빠르게 잔머리를 굴렸다.저들이 새들과의 격전으로 힘이 빠졌다 한들 3:1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었다.‘하지만, 1:1이라면?’“사나이답게, 1:1로 승부내자!”“당사자가 날 택했는데, 뭔 승부. 꺼지라고~.”“겁나나? 하긴, 겁쟁이니 검을 쓰지.”“킥킥, 맨손으로 붙으면 네가 이길 것 같아서 그래?”무도가는 빠드득, 이를 갈았다.자신의 잔머리가 통하지 않은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놈의 얄미운 말본새가 열 받게 만들었다.저 놈의 품에 안겨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는 루나카도.“루나카, 계산 잘 해라. 저 놈, 힘 다 빠진 상태야. 지금이라도 이리 오면 없던 일로 해준다.”하지만 루나카는 무도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계산? 충분히 했어.’무도가는 걸핏하면 자신을 때렸다.그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럽게 이름을 부르고-.벗어나고 싶었지만 놈은 강하면서도 빨랐다.늘 붙어 감시하며 캐스팅할 틈을 주지 않으니 이길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죽으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지만, 그 때마다 저 놈이 살려냈다.치료수 값 때문인지 이후 벌어들이는 돈은 전부 가져갔다.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면 자신을 놓아줄까 생각했지만, 기약이 없었다.그리고 드디어 저 놈보다 훨씬 강한 사람을 만났다.헤이온이라고 이름불린 금발 검사.그가 저 지긋지긋한 놈을 떨궈 주겠다고 했다.‘그런데 내 쪽에서 지레 겁먹고 되돌아가면, 뭐가 돼?’만약 헤이온이 진다면 예전 생활로 돌아갈 뿐이었다.돈벌이에 도움이 되니 죽이지는 않을 것이었다.헤이온이 이기면, 그토록 기다리던 해방.루나카가 속삭였다.“저 놈은, 독을 써요.”“상관없어.”무도가는 잔뜩 열이 올랐다.저것들이 속닥거리는 모습을 보자 속에서 천불이 났다.3:1이 될까 봐 가까스로 억누르고 있었는데, 웬걸.금발 놈이 자진해서 앞으로 나왔다.“덤벼. 밥값 벌자.”놈은 검을 뽑아들 생각이 없어 보였다.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아까의 도발이 먹혀든 게 틀림없었다.‘검은 몰라도, 체술은 내가 우위다!’체급부터 큰 차이가 나기에, 무도가는 자신의 승리를 확인했다.그러면서도 장갑을 고쳐 끼는 척, 독을 발랐다.저 짜증나는 금발 놈을 곱게 보내진 않겠다고 다짐하며.“되게 굼뜨네.”‘어느 틈에?!’금발 놈이 코앞에 와있었다.주먹을 휘둘렀지만, 약 오르게도 놈은 너무나도 재빨랐다.회피 이후의 타격지점을 예상하고 휘둘러도 이미 피한 후였다.그것마저 예상하고 주먹을 뻗어도 또, 또, 또.놈이 대체 몇 수를 내다보는 건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웠다.체술에 특화된 무도가가 검을 쓰지 않는 검사에게 휘둘리는 상황이었다.심지어 검사는 한 차례도 공격하지 않았다.‘루나카가 보고 있는데! 썩을!’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 더욱더 굴욕적이었다.“뭘 봐, 새끼들아!!”무도가는 헤이온을 공격하다 말고, 애먼 사람들을 공격하려 했다.퍼억!!헤이온의 손날 공격이 무도가의 목덜미에 작렬했다.무도가는 힘없이 고꾸라졌다.“와아아아~!!”“용사님께 덤비던 나쁜 놈이 쓰러졌다!”“쪽도 못 쓰고 졌대요, 푸하하!”무도가의 움직임에 움찔했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박수를 쳤다.헤이온은 머리를 긁적였다.‘툭 친 거뿐인데 다들 되게 좋아하네.’공격하지 않은 건, 해봤자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였다.저 쪽은 풀 파워지만, 이쪽은 마나의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상태.힘으로 직접 맞붙으면 불리했다.그래서 틈이 생길 때까지 피하고 보자는 단순한 전략이었다.운 좋게도 얼마 가지 않아 놈은 딴 데 신경을 팔며 틈을 보였다.“꺄아아아악!”루나카가 달려와 매달리듯 안겼다.떨쳐내려다,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에 차마 그러지 못하고 등을 토닥여주었다.‘그나저나, 이놈은 식당으로 배달하면 되려나.’그 때, 사람들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오는 두 남자가 있었다.여관 식당에서 만났던 덩치 큰 남자와 새침한 남자였다.“마침 잘 찾아왔어. 이 놈 데려가.”“응. 전부 보고 있었다. 대단하더군.”둘은 기절한 무도가를 밧줄로 꽁꽁 묶었다.“허술해 보이는데, 그걸로 괜찮겠어?”“강화 마법이 걸려 있으니 괜찮다. 음... 저 쪽은?”덩치 큰 남자가 루나카를 힐끗 보았다.루나카는 움찔하더니, 이내 다가와 사과했다.“정말 죄송합니다. 본의는 아니었어요.”“이래저래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야. 많이 애썼는데, 넘어가 주면 안 될까?”“그럽시다, 형님. 저 여자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새침한 남자가 웬일로 너그럽게 굴었다.덩치 큰 남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호탕하게 웃었다.“하하핫! 좋다! 목숨을 건졌는데 돈에 연연하면 되겠나.”그리 말하고는 헤이온을 향해 오른손을 내밀었다.“처음에 구명할 수 있었던 건 네 덕분이다. 숨을 참고 피신했지. 고맙다.”헤이온은 남자가 내민 손을 잡아주었다.악수를 나누던 중, 실프가 포르르 날아왔다.어쩐 일인지 실프는 로건과 헤이온 주변을 빠르게 돌며 안절부절못했다.신전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다가, 어딘가로 가자는 듯 로건의 팔을 잡아당겼다.“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실프가 발을 동동 굴렀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사람들의 함성에 묻혀 들리지 않던 말발굽 소리가 점차 크게 들려왔다.상당히 가까워진 것 같았다.이윽고 둘러쌌던 사람들이 양 쪽으로 갈라져 섰고, 영주 깃발을 든 기마병들이 안쪽으로 들어섰다.선두의 기마병이 부하들에게 명령했다.“저들을 체포하라.”과분한 희망신기했다.셋이 포박당하고 있는데도 용사님들이라며 환호하던 사람들 중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저마다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긴 했지만 그뿐.뭐라 말하고 싶어 움찔거리면서도 쉬이 나서지는 못했다.보다 못한 덩치 큰 남자가 선두의 기마병에게 최대한 예를 갖춰 물었다.“기사님, 저들을 왜 잡아가시는지요?”하지만 기마병은 힐끗 내려다보곤 말머리를 돌렸다.“모험가 나부랭이하곤 말 섞기도 싫다 이거지?”남자가 불만을 토해낸 것은 기마병들과 포박된 셋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 후였다.\*셋은 포박당한 채, 신전 뜰에 나란히 꿇려 앉혀졌다.기마병들은 말에서 내려 열 맞춰 선 뒤, 경비를 신전 안으로 들여보냈다.얼마 지나지 않아 총괄사제를 비롯한 사제 몇이 걸어 나왔다.총괄사제는 셋 앞을 지나며 비웃듯 흘겨보고는 기마병들과 인사를 나누었다.“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불미한 일부터 맡겨드려 죄송스럽습니다.”“별말씀을요. 이들이 신전을 파손시키고 사제님을 겁박한 자들 맞습니까?”“맞습니다. 성수까지 몽땅 가져갔습니다.”총괄 사제는 발트 백작가의 장남이 보증을 섰다는 이야기는 쏙 뺐다.헤이온과 로건이 성수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었다.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교리는 있어도, 구구절절 모든 걸 읊어야 한다는 교리는 없으니까.‘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신성을, 나를 우습게 봐?’영주의 기사,기마병-들이 신전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들 일부에게 귀족들을 호텔로 호위할 것을 청했다.발트 백작가의 장남이 증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후에 저들에 대해 고발했고, 현재 상황은 그 결과였다.총괄사제는 저들에게 가능한 큰 벌이 내려지길 바랐다.자신에게 무례하게 군 앙갚음이었다.저들이 강하다고 해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영주의 기사들에게 대들 수는 없을 것이었다.헤이온과 로건은 가자미눈을 떴다.나쁜 의도가 아니라곤 해도, 신전 일부를 파손한 건 사실이었다.하지만, 하지도 않은 성수 도둑질까지 덮어씌워지는 상황이라니.사제가 ‘훔쳐갔다’고 하진 않았지만 맥락상 그렇게 받아들여질게 뻔했다.어이가 없었다.전후 상황을 모르는 루나카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일단 가 보자. 뭐라고 하나 들어보게.”라는 헤이온의 말이 아니었다면 이런 곳에 잡혀오지도 않았을 것이었다.아직 고급 마법을 쓸 정도로 회복되진 않았지만 레비테이션으로 제 한 몸 도망가는 정도는 가능했으니까.‘테러에 도둑질까지? 그것도 신전을?’루나카는 헤이온을 빤히 보았다.“강하고 잘생기고, 멋있기까지 하면 어떡하라고... 힝.”“...”“?”어째서인지 주변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었다.잠시 뒤, 루나카는 자신이 속마음을 소리 내어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셋은 글레이드 경비청사의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추운 계절이 아닌데도 바닥이 차가웠고 공기는 눅눅했다.맨바닥에 앉거나 누웠다간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았다.헤이온이 툴툴거렸다.“원래 재판도 없이 막 가두고 그러나?”“재판 열려 봐야, 지들 입맛대로 결론내릴 걸요.”유리창과 가구, 성수 값을 변제 하겠다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어처구니가 없었다.신전은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사로운 파손은 물론이고 도둑질은 엄벌에 처해진다는 것이었다.변제한다 해도 이미 지은 죄는 사해지지 않는다고.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면 누가 변제하려 들겠느냐 따졌더니, ‘잡히지 않았다면 변제하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유죄추정이 따라붙었다.“또라이들. 그딴 게 목숨 값보다 큰가?”“숨어있다 상황 끝나니 기어 나온 목숨이잖아. 그래서 값이 싼가 봐.”글레이드를 사수한 공을 봐서 참작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가관이었다.신전 건과 상관없는 루나카까지 수감된 상황.태풍에 휘말린 생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유족들이 시신을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유였다.“거기다, 건물이랑 성벽 파괴된 것까지 우리 죄라니요? 다 죽게 놔뒀어야 했나 봐요.”로건이 타일렀다.“그렇게는 생각진 마세요. 사람들 살린 건 잘 한 거예요.”‘모두가 죽어나간 광경을 마주하는 것 보다는 나아...’셋은 영웅이 아니라 대역 죄인이었다.이들이 너무나도 강해 통제할 수단이 없다고 판단되자, 힘을 되찾기 전에 부랴부랴 수감한 것이었다.“이딴 데 가둬두면 못 나갈 줄 아나.”“감옥은 대개 마법이 걸려 있으니까요. 무기도 뺏겼는데 어떻게 나가요?”무기만이 아니라 아공간 주머니도 빼앗겼다.총괄 사제 앞에서 성수를 담았던 게 화근이었다.그야말로 빈털터리 신세.“걱정 마. 이 정돈 아무것도 아냐.”헤이온은 주먹에 마나를 응집시키려 했다.그런데 루나카의 말대로 마법이 걸려 있어 그런지, 좀체 마나를 모을 수가 없었다.감옥 내부에는 마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제가 왜 마법 안 쓰고 있겠어요. 여긴 마나가 차단되어 있어요.”완력만으로 강화마법이 걸린 수갑과 창살을 부순다는 건 불가능했다.‘그렇다고 나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우선, 필요할 때 언제든 부르라던 세카트로.가공할 능력으로 미루어,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든’ 부르면 나타나줄 가능성이 높았다.하지만 헤어진 지 반나절밖에 안 된 데다, 더욱이 이런 곳으로 부르고 싶지는 않았다.다음은...똑, 똑, 똑.마침, 지하 감옥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헤이온과 로건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는 씩 웃었다.영문을 몰라 빤히 보는 루나카에게, 헤이온이 말했다.“기다려 봐.”똑똑똑똑똑, 노크 소리가 계속 났다.“이것들이!! 어떻게 빠져나온... 악!”감시병이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들어왔다가, 저 혼자 눈을 감싸 쥐고 버둥거렸다.실프가 열린 문 틈새로 날아 들어와 감시병의 눈을 찔렀기 때문이었다.노크 소리는 안이 아니라, 밖에서 실프가 두드린 소리였다.안에서 두드린 줄 알고 다급히 들어왔던 감시병은, 눈을 감쌌다가 팔을 휘젓고, 엉덩이 가운데를 가렸다가 구레나룻을 붙잡고...이리저리 몸을 휘고 꺾으며 온 몸으로 춤을 추었다.윽, 억, 악, 끅! 추임새는 덤이었다.“왜 저래... 미쳤나 봐...”루나카는 못 볼 걸 봤다는 듯 미간을 찡그렸다.로건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루나카를 바라보았다.“안 보여요?”“뭐가요?”“바람의 정령님이요. 바람 쓰시니까 보일 줄 알았는데.”“앗, 진짜요?”루나카는 후다닥 창살 쪽에 달라붙었다.그러더니 잠시 후 자지러지게 웃어댔다.“꺄하하하하하핫! 저 실프 대박이다!”“아깐 못 보는 거 같더니. 이제 보여?”“아하하하학... 네. 정령은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면 볼 수 없거든요. 자연물이 적은 도시를 기피하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쟤는 실프네요. 바람은 도시에도 곧잘 부니 다행이죠.”“그 말씀은, 이런 꽉 막힌 실내는 안 좋단 건가요?”“네. 빨리 나가지 않으면 저 아이의 생명력이 깎일 거예요. 쟨 지금 목숨 걸고 와준 거라고요.”루나카의 말에 로건은 가슴이 울컥했다.실프는 헤이온을 따라온 게 아니라, 자신을 따라왔다.‘목숨을 걸었다니...’잔뜩 뿔난 표정으로 감시병을 괴롭히던 실프는, 허겁지겁 도망치려는 감시병의 웃옷 주머니에서 열쇠꾸러미를 꺼냈다.감시병은 혼이 반쯤 빠져서는 열쇠꾸러미가 빠진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그는 감옥 문을 제대로 닫지도 않고 도망쳐버렸다.실프가 열쇠꾸러미를 들고 날아와 창살문 자물쇠에 이것저것 맞춰보았다.도망친 감시병이 사람들을 불러올 테니 서둘러야 했다.마음은 급한데 맞는 열쇠가 쉽사리 나오지 않았다.급한 마음만큼이나 날갯짓도 빨라졌다.그 때, 바깥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얌마, 급해도 문은 닫았어야지.”이어서 쾅! 감옥 문이 닫혔다.그와 동시에, 로건의 안색이 새파랗게 질렸다.“안 돼! 정령님!”\*“여러 장의 성명문이 들어왔습니다.”“뭐 하러 그런 걸 일일이 받아줍니까? 해산시키세요!”총괄사제가 씩씩거렸다.경비 책임자는 난감해하면서도 마저 현장보고를 했다.신전 외곽을 빙 둘러싸고, 사람들이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수감된 세 명을 풀어달라는 취지였다.힘없는 평민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사표현이었다.“여러 번 위협도 해보았으나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본보기를 보이면 될 것 아닙니까. 본보기를!”“반발이 심할 텐데요...”“말귀를 못 알아듣는군요. 그 자리에 올라왔으면 이 정도는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오?!”총괄사제는 분을 못 이겨 책상을 내리쳤다.경비 책임자는 평민 출신이라 그런지, 깍듯하긴 했지만 늘 강단이 부족했다.도무지 맘에 드는 구석이 없었다.신전의 구호 사업으로 등용했었기 때문에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잘라버릴 수도 없었다.“명분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력을 쓰지 않고, 말도 한마디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경비 책임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이마에서 피가 흘렀다.총괄사제가 던진 잉크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명분이 없으면, 만들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리고 명분이 왜 없습니까? 휴, 됐습니다. 기사들께 요청하겠습니다.”“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든....”“됐습니다. 물러가세요!”경비 책임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집무실을 빠져나왔다.\*기사들은 앞 열의 사람들 몇을 끌어내 가차 없이 구타했다.뼈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뒤섞이고, 이리저리 살점과 핏물이 튀었다.끌려 나간 사람들이 혼절하고 나서야 구타가 멈추었다.이쯤 했으니 겁에 질려 모두 도망갈 법도 한데, 덜덜 떨면서도 제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다.노인과 학생들을 뒤로 보내고, 건장한 사람들이 앞 열로 나와 서기까지 했다.“해산하라. 지금 해산하면 아무 것도 묻지 않겠다.”“우리의 가족과 친구가 저 지경인데 어찌 해산한단 말입니까... 기사님, 부디 살펴 주십시오. 저희가 모인 것이 잘못이라면, 벌을 받겠사오니 저들이 치료는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한 중년 남자가 눈물로 호소했다.선두의 기사가 손 짓하자, 기사들이 중년 남자와 사람들을 끌어냈다.또다시 구타가 이어졌다.이번에는 사람들이 가만있지 않았다.서로들 앞으로 나와서, 끌려 나온 이들을 몸으로 감쌌다.감싼 사람이 맞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를 감싸고,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감쌌다.기사는 계속해서 그들을 몽둥이로 내리쳤다.비명소리가 끊기지 않았으며, 신전 주변에 점차 피비린내가 감돌았다.“그만두시오!”누군가가 외쳤지만, 기사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누가 뭐라던, 사제의 청이 우선이었다.사제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인 자의 명령이 없는 이상은.“난 발트 백작가의 루인 카터다! 그만두라 했다!”간혹 자신의 아들을 단장이나 수석기사로 기사단에 넣어두는 영주들이 있었다.루인의 막내 동생이 발트 기사단의 수석기사이듯이.타인의 영지에서는 작위 고저를 막론하고 상대에게 예를 갖추는 것이 관례였다.영지 내 사건에 관여하려면 더욱 그래야만 했다.혹시 저들 중 영주의 자제가 있을까 봐 정중하게 말했는데, 역효과가 났다.되도 안한 평민의 울부짖음으로 간주되는 것 같았다.“당장 그만두지 못할까!”명령조로 외치니 이번엔 반응이 있었다.기사들은 행동을 멈추었고, 기사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다가왔다.“왜 그러십니까? 저희는 신전을 수비하라는 영주님의 명을 받들고 있습니다만.”“영주님이 영지민들과 여행객들을 이 꼴로 만들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신성의 결정에 시위하는 것은 법도에 어긋납니다. 해산하라는 명 또한 무시하고 있지요. 즉결처분 가능 사유입니다.”기사대장은 루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어쨌든 살려두고는 있잖습니까. 상단 운영하시는 분께서, 참 눈치도 없으십니다.”루인은 멍해졌다.기사대장이 굳이 ‘상단 운영’을 들먹인 것은, 작금의 행위가 ‘장사를 통한 이득’을 남기기 위해 벌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이들이 누구의 이득을 위해 악역을 자처하고 있겠는가.‘치료수 판매!!’잔머리 마스터희미한 눈웃음을 짓는 기사대장과 달리, 루인은 치가 떨려왔다.귀족과 결탁한 사제들이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하지만 이렇게 적나라할 줄이야.’발트가의 영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곳.평민들을 위하느냐 마느냐가 문제인 게 아니었다.‘귀족이 왜 귀족인가. 명예롭기에 귀한 것이다. 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들과 어울릴 순 없지.’“직접 특산품 탐방을 왔다만, 자네 주인을 뵐 일은 없겠군.”기사대장은 루인을 쏘아보았다.루인은 순간 움찔했지만, ‘설마 뭘 어쩌겠어.’하는 생각에 그와 당당히 마주했다.두 기사가 달려와 자신을 강제로 꿇어앉히기 전까지는.“이 놈들! 내가 누군 줄..”기사대장이 루인의 복부를 걷어찼다.맨발에 채여도 아픈 법이다.하물며 강철 사바톤을 신은 발길질.마나를 쓸 줄 모르는 루인은, 모든 충격을 곧이곧대로 받았다.“끄... 으윽...”“대체 어느 나리가 호위도 없이 돌아다닌다는 거냐. 사칭을 하려거든 제대로 알아보고 할 것이지.”총괄 사제를 불러오면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해줄 거라고 말하려 했지만, 여지없이 걷어차였다.이번엔 옆구리를 맞았다.늑골이 부러졌는지 장기가 찢어지는 고통이 엄습해왔다.고꾸라진 루인에게, 자세를 낮춘 기사대장이 속삭였다.“안타깝게도 발트 가의 도련님은 세 범죄자들의 행패에 숨졌습니다. 태풍에 휘말려 시신조차 찾을 수 없군요. 댁으로 소식을 보내 드리죠.”기사대장은 몽둥이를 버리고 검을 뽑아들었다.날 끝을 루인의 정수리에 겨누고는,“귀족 사칭이 어느 정도의 중죄인지 알고도 저지른 것이렷다!!!”모두 들으라는 듯 크게 고함쳤다.기사대장이 검을 치켜들었다.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아우성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검을 내리쳤다.\*“정령님!”로건은 창살문에 달라붙다시피 꿇어앉아서는 계속해서 실프를 불렀다.감옥 문이 닫히면서 사방이 막혔다.‘바람이 없으면, 정령님은!’아닌 게 아니라, 잠깐 사이에 실프의 행동이 더뎌진 것만 같았다.불안감에 로건의 가슴이 마구 뛰었다.애가 탔다.“정령님, 정령님!”반면, 실프는 로건의 행동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반응 보일 시간에 열쇠를 하나라도 더 맞춰 볼 요량인 듯했다.계속해서 이것저것 열심히 맞춰 보던 중.“!”드디어 열쇠가 끝까지 들어갔다.자물쇠가 해제되자마자, 헤이온이 창살문을 거칠게 걷어찼다.철커덩!! 요란한 소리를 내며 창살문이 열렸다.곧바로 감옥 문으로 몸을 날려, 놀라서 달려 들어오는 감시병을 들이받았다.감시병이 밖으로 튕겨 나동그라졌다.“호호! 들어올 땐 기어오더니, 나갈 땐 날아서 나가네~.”헤이온을 뒤따라 나온 루나카가 감시병을 비웃었다.기절했는지, 기절한 척 하는 건지 대꾸가 없었다.감시병 초소도 지하이긴 마찬가지여서 여전히 공기가 꿉꿉했다.그래도 결계마법이 없고 천정에 작게 난 창이 있어 한결 나았다.“헤이온 님, 느껴지세요?”공복상태일 때 에너지흡수가 빠르듯, 한동안 차단되었던 탓에 마나가 빠르게 밀려들어왔다.그것이 느껴지냐는 말이었다.“응. 잠시만.”“네에!”하지만 편히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철창문 소리가 위까지 들렸는지, 여러 사람이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났다.헤이온은 계단에서 초소로 이어지는 입구 옆 벽에 붙어 섰다.수갑에 걸린 마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직 부술 수가 없었다.‘그래도 부분 응집할 정도는 됐어.’계단이 좁아 어차피 한 둘씩 내려올 테니, 오는 족족 차버릴 생각이었다.그런데 루나카가 계단 정면을 등지고 섰다.“너, 뭐 해?”“말 시키지 마세요. 캐스팅 할 거예요!”“그래? 아홉 명이다. 카운트 해 줄게.”‘그런 것도 아는 거야? 하긴, 그 놈도 알긴 했었지.’루나카는 불현듯 무도가가 떠올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부쩍 발소리가 가까워졌다.“준비. 3, 2, 1, 쏴랏!”루나카는 빠른 곁눈질을 한 후 손을 까딱였다.뒤로 채워진 수갑 때문에 이게 최선이었다.루나카가 손을 까딱일 때마다, 압축된 공기가 계단으로 쏘아져나갔다.‘참 나, 몇 발 쏘지도 않았는데.’경비병들은 넘어진 앞사람에 걸려 넘어지고, 그 위에 또 넘어졌다.도미노 같았다.데굴데굴 굴러 초소에 도착한 경비병들을, 헤이온이 차례차례 걷어찼다.조금 전 기절한 감시병 위로 경비병들이 쌓였다.루나카는 쓰러진 경비병들에게 다가갔다.쇼핑하듯 둘러보다가, 휙 돌아서서 손을 까딱까딱.압축된 공기가 한 경비병의 따귀를 철썩철썩 때렸다.“아, 씨... 왜 나만 때려?!”“네가 제일 비슷하게 생겼잖아!”“?”철-썩-철-썩.연달아 따귀를 맞은 경비병이 기절해버렸다.“흥!”사실 많이 봐준 거였다.제대로 된 윈드 볼트였다면 한 방만 맞아도 턱이 으깨졌을 것이었다.나머지 경비병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마법은 장난 같지만, 저 놈은 진짜다. 잘못 맞으면 죽을 거야!’“웅장했어.”헤이온이 칭찬하자 루나카는 어깨를 으쓱였다.“뒤돌아서 조준해야 했던, 저의 서사시적 노력을 알아주시는군요?”“그런 셈이지. 그나저나 얜 여태 뭐하지?”로건은 그때까지도 실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고통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자신들을 구출해준 실프.‘고맙고, 미안해요.’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걱정할까 봐,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실프를 보면 가슴이 아렸다.실프는 울상이 된 로건의 이마를 쓰다듬어주었다.“정령님, 괜찮아요?”실프가 고개를 끄덕였다.그래도 걱정스러워 한 번 더 물었다.“정말 괜찮으신 거 맞죠?”“당연히 괜찮지.”로건이 고개를 돌리자 헤이온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다.“콧김은 바람도 아니냐? 평생 숨쉬어온 콧김마스터가 셋인데.”헤이온 뒤로 다가온 루나카도 거들었다.“빨리 나가지 않으면 그렇다고 했지, 잠깐 사이에 훅 간다고 하진 않았어요.”“입김 불어주거나, 손바람 부쳐주면 되잖아.”실프가 팔로 동그라미를 만들었다.“아....”머쓱해하는 로건을 위해, 헤이온이 화제를 바꿔주었다.“이건 왜 이렇게 튼튼해?”“조금 기다리면 될 거예요. 아마도... 분명...”기껏 화제를 바꿨더니 이번엔 루나카가 초조해했다.마법을 무효화시키는 디스펠은, 시전자보다 서클과 클래스가 우위여야만 가능하다.같은 서클이라고 마법능력이 다 같은 건 아니기에, 이런 경우 클래스가 좌우했다.이제 막 반열에 들어선 사람과, 해당 서클의 마법에 숙달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다.6서클 중급 클래스인 루나카도 상당한 수준이지만, 관청의 범죄자 구속 장치에는 어림없었다.쉽게 파훼되지 않도록 7~8서클 대마법사들이 제조한 것들이니까.‘저 궁수는 마스터 급은 아니었어. 그럼 나랑 마찬가지야.’무기 수련자의 익스퍼트 급은 4~6서클 마법사에 해당된다.즉, 9서클에 맞먹는 그랜드 소드마스터, 헤이온만이 수갑을 부술 수 있다는 결론이었다.‘믿을 사람은 헤이온님 밖에 없어.’그나마도 9서클 고인물이 제조했다면 힘들지도 몰랐다.수도에서 먼 곳이니, 그렇게까지 강력한 물품은 없을 거란 게 희망이라면 희망이었다.“괜찮겠죠? 헤이온님은 그랜드 소드마스터니까.”“엥? 누가 그래. 아닌데?”“에이~, 농담도. 검풍 날리시는 거 가까이서 봤는데요?”“검이 마법검일 거라곤 생각 안 해?”루나카의 눈동자가 또르르 굴러갔다.검에 검기뿐 아니라 의지를 불어넣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검술의 최고 경지.그랜드 소드 마스터였다면 일일이 뛰어오르며 검격을 날릴 필요가 없긴 했다.가만히 서서 조종하면 그만.‘희귀한 존재라 정체를 숨기려는 걸 수도 있잖아?’하지만 신전을 통해 황실에 충성을 맹세하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아니, 아예 나라를 세워도 되는데 굳이 숨길 필요가?저렇게 젊은데 소드마스터인 것만 해도 굉장하긴 하지만.검풍을 날리게 해주는 마법검이란 또 무엇?그런 검이 세상에 있긴 하나?‘백 번 양보해서, 있을 수야 있지. 그 검을 헤이온 님이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루나카는 미련을 떨칠 수 없었다.“아기 그랜드라 겸손하신 거 알아요.”“내가 부정하는 걸, 왜 네가 긍정해?”“우씨!”“이제 나한테 막 짜증내네?”“아니에요, 저 보라돌이씨가!”헤이온이 뒤돌아보자 로건은 “제가 뭐요? 정령님, 무슨 일 있었어요?”라며 딴청을 피웠다.“계속 메롱 했으면서! 우와, 저 실프, 편드는 것 봐!”\*셋은 계단을 올라 1층으로 이동했다.곳곳에서 경비병들이 달려들었지만, 운동거리조차 못 되었다.“아픈 사람들만 고용했나. 이래가지고 관청이 수비가 돼?”“저들이 약한 게 아니라 헤이온님이 강한 거예요.”애초에 마스터 급이 그리 흔하지 않았다.잊을 만하면 한 명씩 눈에 띄는 정도.글레이드는 영주성이 있는 곳도 아니고, 남부 산맥에 위치한 작은 산악도시였다.커다란 여행자 쉼터 같은 곳.헤이온과 로건이 글레이드를 별세계라고 느꼈던 것은, 워낙 후미진 시골에서 왔기 때문이었다.글레이드에 마스터 급 경비병이 있을 수가 없었다.마스터 급은, 최소한 영주 휘하 기사단장을 하고 있을 테니.마스터 급이면 평민이라도 황실 기사단에서 중견으로 뛸 수 있는데, 뭐 아쉽다고 이런 곳에 남아있을지 의문이지만.‘게다가 영주라고 다 같은 영주야? 공작이랑 남작이 같겠냐고.’마찬가지로, 여행객들 중에도 마스터 급은 극히 드물었다.그런 사정이기에 경비병들은 잘 봐줘야 익스퍼트 급, 대부분은 유저 급이었다.간단히 재껴질 수밖에 없었다.루나카가 물었다.“헤이온님, 아직 이에요?”마나가 빠르게 차오르고 있으니 이쯤이면 될 것도 같은데, 헤이온은 여전히 수갑을 찬 채로 움직였다.‘진짜 재수 없게, 9서클 고인물이 만든 게 어쩌다 굴러들어 왔다든가...’“어, 아직 안 되네.”“우리 그냥, 열쇠 찾아볼까요? 어딘가 있긴 있을 텐데.”“뭐 하러 찾아? 하나 골라서 팔다리 뽑으면 알아서 갖다 바치겠지.”“어머, 죽여도 괜찮은 거였어요? 그러면 싫어하실까 봐 살려두고 있었단 말예요.”헤이온과 루나카는 섬뜩한 눈빛으로 경비병들을 슥 훑었다.“어차피 범죄자 취급인데, 뭐 어때. 하나 골라 봐.”“호호! 이놈으로 할래요.”잔뜩 졸아든 경비병들 중, 가장 어려보이는 자를 골라서 멀티 레비테이션으로 끌어왔다.공중에 띄워진 어린 경비병은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벌벌 떨었다.망설이던 경비대장은, 결국 협상을 시도해왔다.“수갑 열쇠를 가져올 테니 제발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좋아, 10분. 그 이상은 안 돼.”“어서 가져와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경비대장의 지시에 부하 하나가 부리나케 안쪽으로 달려 들어갔다.로건이 혀를 끌끌 찼다.“악마도 도망가겠다.”“킥킥, 슬슬 갈까.”하지만 루나카가 고개를 갸웃거렸다.“어디로요?”“어디로든.”“마법사님, 은근히 둔하시구나.”“말 다했어요?”헤이온이 이동하려는 낌새를 보이자 경비대장이 물었다.“저... 열쇠 가지러 갔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필요 없어.”헤이온은 기합 한 번에 수갑을 부숴버렸다.“어? 어어어?”어리둥절해하고 있는 루나카의 수갑과 음흉하게 미소 짓는 로건의 수갑이 차례로 부셔졌다.헤이온이 태세를 바꾼 경비대장에게 돌진해 복부를 세차게 가격했다.그의 팔을 꺾어 들어 올려 검을 놓치게 한 후, 떨어지는 검을 공중에서 낚아챘다.그러고는 발로 밀어버리듯 차서 벽까지 보내버렸다.그 모습에, 안 그래도 바닥에 깔린 경비병들의 전의가 땅 속으로 꺼져 들어갔다.7서클 마법사가 제조한 수갑을 부수는 놈 상대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현실을 증명하듯, 눈앞에서 소드 익스퍼트인 경비대장이 간단히 패해버렸다.그런 상대이니만큼 놓쳐도 자기네들 탓은 아닐 것이었다.“안 덤빌 거면 비키기나 해!”헤이온은 진로에 방해되는 경비병들을 전부 밀고, 차서 치워버렸다.헤이온이 달려 나가버리자, 루나카는 어린 경비병을 내려놓고 날아올랐다.“먼저 따라가세요. 전 들를 데 있어요.”“가지 말래도 갈 거거든요?”“아 참, 그런데 진짜로 죽이려고 했어요?”“흥! 그거야 헤이온님 뜻에 달렸죠.”로건은 루나카가 나가는 걸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관청을 빠져나갔다.\*헤이온의 예상은 적중했다.관청에는 정문 말고도 외부로 통하는 여러 개의 문이 있을 터였다.열쇠 핑계로 자리를 뜬 경비병은 얼핏 내부로 향하는 듯 했지만, 외부로 빠져나갈 공산이 컸다.수갑이라도 차고 있어야 만만해보일 테니, 일부러 수갑을 못 부수는 척 했다.같잖은 협상을 덥석 물어주고, 10분이라는 넉넉한 시간을 제시한 이유?‘그래야 가장 센 놈을 부르러 가지.’권력이든 힘이든, 가장 센 놈을 만나야 상황이 해결되리란 계산이었다.예상대로, 경비병은 건물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어디론가 달리고 있었다.헤이온은 최대한 거리를 멀리 띄우고 지붕 위를 사뿐사뿐 걸었다.다소 느리게 뒤쫓아도 놓칠 걱정은 없었다.그는 주변을 매우 두리번거렸다.‘쓸데없는 짓을 하는군.’실프가 따라붙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테니 그럴 만도 했다.‘어째 신전 쪽인 것 같은데. 거기 뭐 있나?’글레이드의 새 영주기사대장이 기세 좋게 검을 내리쳤지만, 루인의 목은 멀쩡했다.베기 직전, 검이 두 동강 났기 때문이었다.어디선가 날아온 검이 기사대장의 검을 갈랐다.날아온 검은 바닥 깊이 박혔고, 동강난 검날은 한 박자 늦게 떨어져 나뒹굴었다.기사대장은 검날의 절단면을 망연히 바라보았다.‘부딪히는 정도가 아니라, 깨끗하게 잘려나가?’갑주 따윈 뚫고도 남을 예리함에 식은땀이 났다.‘만약, 날 노렸다면...’자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었다.“대장님! 저기입니다! 위에!”기사들의 외침에 기사대장은 퍼뜩 고개를 돌렸다.금발 소년이 건물 지붕 위에서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표정 없이, 싸늘한 눈길로.글레이드 신전.총괄 사제는 책상 앞에 앉아 인상을 팍 구기고 있었다.오전부터 종일, 뜻대로 되는 일이라곤 없었다.마수들의 침입, 무뢰배들의 난입, 평민들의 억지, 경비의 무능함, 귀족들의 엄살.그리고 도통 열리지 않는 아공간 주머니까지.몇 시간 전.기사대장에게 일러 무뢰배들에게서 압수한 무기와 소지품을 모조리 챙겨두었다.유리창 비용이나 충당하겠다는 말에, 기사대장은 본소드와 나무 활을 힐끗 보고는 별 말 없이 넘겨주었다.기사대장의 안목이 형편없는 것도, 무뢰배들이 힘을 소진한 것도, 전부 천운이었다.‘멍청한 기사대장 녀석. 저 주머니가 아공간 주머니인 것도 모르고.’부르는 게 값인 아공간 주머니가 둘.이것들로 로비하면 직위 상승은 물론, 수도 근처의 신전으로 배정받을 수 있으리라.수도에 으리으리한 저택을 짓고, 대귀족 못지않게 떵떵거리는 삶이 머지않았다.‘난 이런 데서 썩을 위인이 아니야!’문제는-.아공간 주머니의 입구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심지어 점점 무거워지는가 싶더니, 도저히 들어 올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검과 활도 마찬가지였다.그것들은 집무실 바닥에 눌러 붙어 꼼짝하지 않았다.지정된 사용자 외에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귀속 마법이 걸려 있는 게 틀림없었다.워낙 고가품이니 귀속 마법이 걸려 있어도 이상하지 않았다.‘주머니는 그렇다 치자. 저딴 무기들까지 허세는.’대부분의 마법은 시전자보다 월등한 마법사라면 해제할 수 있지만...혹시나 하고 마법 해제를 시도했으나, 역시 통하지 않았다.고가품에 거는 마법을 초보 마법사에게 의뢰했을 리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다.‘대마법사에게 의뢰하거나, 사용자를 죽이는 수밖에.’어떤 게 더 쉬울까 고민하던 중.똑, 똑, 노크 소리가 났다.안 그래도 인상 쓴 얼굴이 더 구겨졌다.어지간해선 아랫사람에게도 말을 높이는 그였지만, 지금은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야이, 눈치 없는-!”하지만 말을 더 잇지는 못했다.콰장창!! 등지고 있는 창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었다.새 창에 걸어둔 강화마법과 결계마법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창문 밖에는 연행되었던 여마법사가 날아와 있었다.“뭐, 뭐야! 어떻게 여기에!”“보다시피 날아왔어.”“감히 여기가 어디라고!”“그러게 두드릴 때 열었어야지~. 죄책감은 없지만, 미안!”노크 소리는 문이 아닌 창에서 났던 모양이었다.총괄사제는 깨진 유리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직접 나서서 마법을 걸어 두었건만 그러나마나였다.“이딴 것도 마법이라고 걸어놨던 거야? 아무튼, 할 말 있어서 왔어.”“...”“알지? 정문 상황. 치료마법이나 치료수가 필요해. 말로 할 때 협조해.”“할 것 같나? 너야말로 자수해라. 신호만 하면 기사대장이-”루나카가 손짓하자 강풍이 총괄 사제의 얼굴을 때렸다.사제모가 날아가고, 입가가 들썩였다.“어푸푸!”루나카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호호... 내가 여기 올 수 있을 정도면, 기사대장의 발은 묶이고도 남지 않았겠어?”\*“헤이온 님! 저 왔어요~.”루나카가 치료수가 가득 담긴 주머니를 안고 달려왔다.그 뒤를, 총괄 사제를 비롯한 사제들이 공중에 떠서 느린 속도로 따르고 있었다.줄줄이 소시지 같았다.“봐. 내가 뭐랬어?”루나카가 총괄 사제를 흘겼지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영주의 기사단이 모두 꿇어앉아있는 상황이었다.묶어둔 것도 아닌데, 하나같이 고개를 푹 숙이고 꼼짝하지 않았다.심지어 금발 검사는 엎드린 기사대장의 등에 올라앉아 있었다.“왜 꼭 말로 하면 안 듣나 몰라. 그쵸?”“가장 센 놈이랑 얘기해보려 했었는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였더라고. 내가 가장 센 걸.”“제 쪽도 그랬어요, 호호!”헤이온이 루나카에게서 치료수 주머니를 받아들었다.“생각보다 빨리 왔네.”“실프가 두목이 있는 방을 가르쳐 줬거든요.”총괄 사제를 인질로 잡으니 그 이후는 일사천리였다.“두목이라니 말조심-, 윽!”헤이온이 총괄 사제의 이마를 철썩 내리쳤다.그 광경에도 말리는 영지민 하나 없었다.오히려 고소하다는 표정들이었다.“너희는, 위급한 환자부터 치료해. 경미한 환자들, 다들 한 데 모여!”사제들을 바닥에 내려주자, 그들은 쭈뼛거리면서도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다.경미한 환자들도 하나 둘 모여들었다.루나카가 치료수 병을 공중에 띄운 다음, 그들 머리 위에서 마개를 땄다.쏟아지는 치료수를 바람으로 분사시키자 이슬비가 되어 내렸다.치료수 비를 맞은 사람들은 너도나도 울면서 폴짝폴짝 뛰었다.루나카 역시, 멍이 사라져갔다.총괄 사제는 미적미적 주변을 둘러보았다.좀 떨어진 곳에, 쓰러져 신음하는 루인이 있었다.조금만 방치해두면 명이 끊길 것 같은 상태였다.서둘러 루인에게 다가간 그는, 치료마법을 쓰는 척 하며 시간을 끌었다.‘살아나면 곤란하지.’구마사제가 아닌 이상 구마전에 목숨 걸고 나설 의무는 없었다.제 목숨 아깝지 않은 자가 세상 어디 있겠는가.용사들을 서포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입증된 자들이 아니라 방어에 주력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둘러대면 그만이었다.지금으로썬 자신의 잘못이라곤 평민들의 신전 진입을 막았다는 것 정도였다.귀족들과 사제들의 안전을 우선시한 것이므로 충분히 면책이 가능했다.하지만 보증 사실을 숨긴 것은 면책이 어려웠다.보증인이 귀족, 그것도 백작가이기 때문.황권과 신권이 독립되어있다고는 해도, 밝혀지면 곧장 구속에 추방형일 것이었다.추방 시, 벨 제국 내에서 벌어들인 재화는 모조리 환수될 테고...기사대장과 어떤 마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 했다.‘교리만 아니었어도, 당장 죽여 버리는 건데!’퍽!! 누군가가 총괄사제의 옆구리를 걷어찼다.몇 미터를 날아가 바닥에 굴렀다.“끄으으으...”엄습하는 고통에, 총괄사제는 제 옆구리에다 바로 치료마법을 썼다.“새꺄, 열 받게 하지 마.”헤이온은 총괄사제가 보증인 쪽으로 간 걸 보고 다른 위급 환자들을 돌보았다.그런데 한 바퀴 돌고 왔는데도 여전히 보증인은 고꾸라진 그대로였다.기척을 죽이고 가까이 가 보니, 총괄사제가 헛짓거리 중이었다.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걷어찼다는 표현이 맞았다.헤이온은 보증인에게 치료수를 붓고, 다시 총괄사제를 걷어찼다.루인이 아직 회복중인 몸을 이끌고 가세했다.루인은 점잖은 사람이었지만, 목숨을 잃을 뻔 한 터라 꼭지가 돌았다.멀고 먼 어느 나라에는 이런 옛말이 전해져온다고 했다.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나.무슨 말인가 했는데, 겪어 보니 비로소 이해가 됐다.총괄사제가 치료해주는 척 하는 바람에, 고통이 길어진 것은 둘째 치고, 치료 기회를 놓쳐 진짜 죽을 뻔 했다.‘기사대장보다, 이 자가 더 악질이야!’“거기 둘, 힘이 넘치면 일손이나 도와요! 보라돌이씨는 언제 온담?”루나카가 총괄 사제를 공중으로 띄웠다.“구해줘서 고맙...”“뭐래? 등신.”총괄 사제가 신전 지붕 중앙, 높게 솟은 조형물 위에 걸쳐졌다.\*로건이 들고 온 소식에, 글레이드에는 파문이 일었다.기사단이 예상보다 빨리 글레이드에 도착한 이유가 있었다.총괄사제가 보냈다는 전령은 영주성이 목적지가 아니었다.영주 기사단의 일부인, 순찰대의 인근 주둔지가 목적이었다.총괄사제는 평소 자신과 뜻이 맞는 기사대장을 불러들인 것이었다.영주에게 알리지 않아도 자기들 선에서 해결할 수 있고, 아울러 다분히 수익도 낼 수 있을 거란 계산에서였으리라.어차피 영주성으로 전령을 보냈더라도 아무런 원조도 받지 못했을 터였다.먼발치에서이긴 하나, 로건이 살폈을 때, 영주성은 이미 전멸한 상황이었다.성 안에 움직이는 생물이라곤 일절 없었다.이 사실 또한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총괄사제와 기사대장의 결탁은 사제들이 증언해주었고, 평민들 또한 성명문을 냈다.총괄사제가 우선보호를 했던 귀족들은, 그를 멸시했다.발트 백작가-귀족-를 우습게 봤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평민들이 낸 성명문에 자신들의 인장을 찍어주는 귀족들도 있었다.서류를 빼돌리거나 임의로 파기하지 못하도록 힘을 보태준 것이다.대신전에 서류가 도착하면, 글레이드 신전의 총괄사제는 추방형을 면치 못하게 될 터였다.기사대장은 영주 기사단 소속이나, 영주는 물론 그의 가족들과 단장도 사망하고 없으니 직위 해제되었다.그간의 악행도 그렇지만, 이번에 귀족에게 해를 가한 것은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영주가 공석인 상황이기에, 피해자이자 체류 귀족 중 가장 작위가 높은 루인이 처우를 결정하게 되었다.그야말로 뚝딱, 형식상의 재판이 열렸을 뿐이었다.노예로 신분을 강등하고, 노역에 동원되는 때를 제외하면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결정이었다.사형시키기보다는, 글레이드의 성벽 보수, 영주성 재건 등의 상황을 고려한 결과였다.그 외 기사단원들은 얼마간 복역하는 것으로 종결.헤이온과 로건, 루나카가 뒤집어썼던 죄목은 당연히 지워졌다.글레이드 마수 침입 및 비리 사건이 일단락되자,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자연스레 ‘영지 소유권’에 맞춰졌다.귀족들 사이에서는, 마수 격퇴의 중요 요소인 성수를 조달했으므로 발트 백작령으로 흡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었다.하지만 민심은 그렇지 않았다.사람들은 용사바라기가 되어 있었다.헤이온 일행이 길을 걸으면 다들 알아보고 환호성을 질러댔다.길을 비켜주고, 필요한 것이 있느냐 묻고, 집에 초대하고...헤이온 일행을 가장 좋은 호텔로 모시는가 하면, 고급 식당에 초대하기도 했다.그새 소문이 퍼졌는지, 호텔 방으로 각종 선물이며 편지가 한가득 배달되어 왔다.루나카가 선물받은 원피스를 자랑하려 왔더니 헤이온의 방에 로건이 와 있었다.루나카는 로건을 못 본 척, 헤이온 앞에서 빙글빙글 돌았다.“이 옷 넘 예쁘다! 그쵸? 이거 입고 식당 가야지~.”“그래.”“옷만 예뻐요? 저는요?”“저기요. 제 셔츠는요? 이제 주세요.”“누가 떼먹는대요? 눈치 없이 끼어들기는.”“그 셔츠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마나 응집해도 안 터지고.”“그러고 보니, 그러네? 방마 소재가 얼마나 비싼... 어머!”분명 헤이온도 로건도 신나게 마나를 써댔는데 그들의 옷은 멀쩡했다.아무렇게나 바닥에 던져둔 로건의 셔츠.금괴 서너 개와 맞먹는 가격이란 걸 망각했다니.루나카의 염통이 쫄깃해졌다.루나카가 급히 나가자마자, 이번엔 루인이 문을 두드렸다.“왜 왔어? 밥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루인은,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면전에 대고 왜 왔냐고 핀잔주는 평민을 겪었다.그것도 식사 때문에.약간의 혼란스러움을 뒤로 하고, 하려던 말을 꺼냈다.“자네도 알겠지만, 글레이드를 포함해서, 이 일대는 현재 영주 자리가 공석이다.”“나랑 무슨 상관이야.”‘...’“글레이드 시민들이 자네를 영주로 추대하고자 하는 성명문을-.”“안 돼. 바빠. 밥만 먹고 떠날 거야.”“영주가 되면 상당한 이권이 있는데, 마다한다는 건가?”“바쁘다니까?”헤이온이 계속 자신의 말을 자르는 통에 말을 끝맺지 못하는 루인이었다.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준 금발 검사에게 성의를 다하고 싶었다.웬일로 다음 말은 끝까지 말할 수 있었다.“민심을 저버리지 말게. 저들은 자네를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어.”민심이라는 말에 헤이온의 마음이 조금 흔들린 덕분이었다.루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글레이드는 마수 뿐 아니라 같은 인간에 의한 상처가 있는 곳이다. 저버리지 말고, 품어주면 안 되겠는가. 바라던 이가 품어주면 크게 기뻐할 텐데.”“난 귀족이 아닌데?”황족이니, 귀족이 아니란 말은 사실이긴 했다.“어차피 작은 영지들은 돈으로 사고팔기도 하는 마당이니, 평민이라 해서 안 될 것은 없다. 내 사용인으로 임시 직위를 내리는 방법도.”“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쓸데없...’“난 일이 있어 떠나야 하니까, 보다 적임자를 찾으면 좋겠어.”“걱정 말게! 대리인을 두면 되니, 내가 알아봐주겠다. 그럼, 승낙한 걸로 알겠네!”루인은 나가려다 말고, 되돌아섰다.“그런데, 어디로 떠나는가?”“수도 벨프리트.”“나도 그리로 향할 것이네만, 괜찮다면 함께 가지.”선수인 듯 선수 아닌 헤이온“귀-”로건의 손이, ‘귀찮다’라고 말하려는 헤이온의 입을 틀어막았다.자신의 이권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헤이온의 공을 챙겨주려는 사람에게 쌀쌀맞을 필욘 없었다.루인은 의아하단 표정으로 둘을 보다가, 마저 할 말을 하고 나가버렸다.“웬만하면 하루 묵었으면 하는군. 내일 아침, 취임을 공표할 테니 떠나는 건 그 뒤로 하는 것이 어떤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최소한의 절차로 간소화해보겠다. 식사가 끝나면 내 방으로 오게.”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로건이 손을 거두었다.헤이온은 질렸다는 표정으로 푸념했다.“어우, 왜 이렇게 말이 많아.”“고마운 거야. 남의 일에 저렇게 나서주기가 쉽지 않아. 소감은 어때? 차기 영주님.”“이래도 되나 싶다.”“안될 거 뭐 있어? 다들 원한다는데. 어차피 봉토 받을 거, 일찍 받은 셈 쳐.”로건은 엔델 마을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둘이 적당한 곳에 자리 잡고 살아가게 될 줄 알았다.하지만 헤이온은 수도로 가겠다고 했다.그 이유로는, 남부지역의 상황을 황실에 알린다는 것도 있지만, 출세를 위한 것도 있다고 생각했다.헤이온 같은 실력자가 초야에 묻혀 사는 것이 내심 아까웠었다.다행히 계속 정체를 숨길 생각은 아닌 듯 했다.레온 할아버지의 뜻과는 반대되긴 하지만.‘확실히, 세카트로 님을 만난 이후 달라졌지. 뭔가 이유를 찾은 걸 거야.’“황제와 담판을 짓겠다고 했었잖아. 그거 뭔지 물어봐도 돼?”“아직 말 안 했던가? 그건...”헤이온이 간략하고 덤덤하게 들려준 이야기.로건에게는 복잡하고 당혹스럽게 느껴졌다.하지만 깊이 생각할 틈도, 대꾸할 틈도 없었다.방문이 벌컥 열렸다.“셔츠, 여기요!!”\*루인의 방으로 간 헤이온은 꽤 오래 붙들려 있어야 했다.생각보다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회의 결과, 루인이 영지를 우선 합병한 후 헤이온에게 헌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서류더미에 싸였던 경험은 나름 신선했지만, 또 겪고 싶지는 않았다.대략 일을 마치고 루인에게 던졌던 질문.“왜 굳이 나한테 주려는 거야? 당신이 가지면 더 좋은 거 아냐?”“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 전부 설명하길 바라는가?”“아니, 됐어.”길어질 것 같아서, 답은 듣지도 않고 빠져나와버렸다.새벽이 되어서야 제 방으로 돌아왔다.‘피곤해.’헤이온은 침대에 풀썩, 쓰러지듯 몸을 뉘였다.“아얏!”난데없이 이불 아래서 들려온 비명 소리.루나카였다.“네가 왜 여기 있어?”“기다리다가 깜박... 잠들었어요. 아웅, 아파.”살펴보려 하니, 루나카는 도리도리를 하며 이불을 돌돌 말았다.“아프다며?”“어... 저기, 그게, 괜찮아요!”루나카가 묘하게 이쪽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다.“괜찮으면 됐고. 뭐 할 말이라도 있어?”“...”잠시 기다려줬지만 답이 없었다.“할 말 없으면 가서 자.”전날 거의 쉬지 않고 움직였다.오전부터 또다시 일정이 있으니 한시라도 빨리 자고 싶었다.조금만 자도 거뜬한 체력이지만, 아예 안자도 되는 것은 아니었다.헤이온은 대자로 몸을 펴고 눈을 감았다.루나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헤이온 옆에 웅크리듯 누웠다.“같이 자도... 돼요?”“우리가 그럴 사이는 아니잖아?”퉁명스러운 헤이온의 대꾸.루나카의 뺨이 대번에 붉어졌다.안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헤이온이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그래도 그렇지,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절했어.’딴엔 용기 낸 거였다.민망함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목이 메었다.어두운데다 헤이온이 눈을 감고 있어 다행이었다.거절당한 마당에, 질척거린단 인상까지 줄 수는 없었다.조용히 침대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헤이온이 루나카의 팔을 잡고 끌어당겼다.당겨 눕혔을 뿐 아니라, 팔베개까지 해주었다.루나카가 놀라 헤이온을 바라보았지만, 헤이온은 눈감은 그대로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였다.“이제부터 그럴 사이가 되면 되지.”“나빴어...”루나카의 칭얼거림에 헤이온이 피식 웃었다.“그래서, 싫어?”“누가 싫댔어요?”“너도 피곤할 텐데. 그냥 여기서 자.”그 말을 끝으로, 헤이온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침묵.그리고 고른 숨소리.루나카는 멍해졌다.‘이건 또 뭔가요오...’설마하니 이 남자, ‘잠만 자라’는 건가?팔을 붙잡혔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콩닥거렸었는데.헤이온은 미동도 없었다.‘헐? 뭐냐고.’그렇게 기분을 널뛰기시켜 놓고, 진짜 잠만 잔다고?이젠 민망하다기보다 약이 올랐다.루나카는 일어나 앉았다.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옆자리를 꿰차고야 말겠다고 다짐했다.‘어차피 그러려고 온 거였잖아.’벌써 깊게 잠들지는 않았을 테니 이판사판이었다.손을 헤이온의 가슴께에 올려 보았다.부드러운 피부 아래, 단단한 근육이 만져졌다.손을 떼지 않고, 쓸어 올리듯 어깨로 옮겨갔다.어깨 역시 마찬가지였다.‘팔 뿐만이 아냐.’팔이 강철 같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숲에서 팔짱꼈을 때, 그리고 방금 전 팔베개를 벴을 때.몇 군데 만져보진 않았지만, 전신이 이러할 것이었다.불필요한 볼륨은 전혀 없는, 밀도 높게 압축된 단단한 몸.호리호리한데도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근육 반, 살 반인 누구와는 차원이 다르... 아, 씨! 왜 그 놈이 생각나?’루나카는 괴로운 얼굴로 헤이온을 내려다보았다.창 너머 달빛이 어슴푸레 그의 곱상한 얼굴을 비춰주고 있었다.쓰레기 같은 놈에게서 벗어나게 해준 감사한 사람.이제는 잊고 싶은, 과거의 나날들.‘이 분과 함께라면, 금방 잊을 수 있어. 분명.’루나카는 헤이온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며, 입술로 입술을 덮었다.지금까지 알던 입술과는 전혀 달랐다.거칠고 투박한, 각질 뜬 입술에 때로는 근처의 수염까지 따가운...그런 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았다.‘세상에! 나보다 더 부드러워.’루나카는 헤이온의 입술과 피부에 감탄하며 천천히 음미했다.하지만 거기까지였다.헤이온의 입은 루나카의 혀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굳게 다문 채 루나카를 빤히 응시하던 헤이온은, 루나카의 양 어깨를 붙들어 옆으로 앉혔다.아깐 몰랐는데, 이불이 걷히자 숨겨져 있던 루나카의 몸이 드러났다.“다 벗고 뭐해, 지금.”“저, 그...”“뭐하냐고.”“...”‘이게 아닌데. 어쩌지? 화나신 것 같아.’헤이온의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에, 루나카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하지만 헤이온은 루나카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대답 안 한다, 이거지?’헤이온이 루나카의 손목을 잡고 침대에서 끌어냈다.그녀가 벗고 있든 말든, 방에서 내보낼 생각으로 그대로 문 앞까지 갔다.그제야 루나카가 다급히 외쳤다.“알아듣게 말해.”“모시고 첩실이 되려 했다고요! 으앙, 몰라!”“푸읍!!!!”루나카의 말에 헤이온이 크게 뿜었다.“아하하핫! 뭐야, 그게.”“ 왜 웃으세요...”헤이온이, 너무 웃어서 나온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너야말로. 왜 부인도 아니고 첩실이 되겠다는 거야?”“네? 그야...”루나카는 헤이온이 외국의 고위 귀족가 자제일거라 짐작하고 있었다.어쩌면 귀족 정도가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왕자일지도 몰랐다.드물긴 해도, 고급 검술교육 없이 소드마스터의 경지에 오르는 평민이 있긴 했다.하지만 그의 부는 평민 출신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았다.귀족과 달리, 평민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보물급 물건들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이것은 비단 벨 제국뿐만이 아닌, 대륙 전역에 유효한 법도였다.전신을 감싸는 마력방어 소재의 옷도, 아공간 주머니도, 황금 마법무기도 평민들에겐 꿈의 물건일 뿐.특히 아공간 주머니는 왕족이나 고위 귀족이라도 가진 자가 극히 드물었고, 황금 마법무기는 듣도 보도 못한 보물이었다.마방 옷이 뭔지 모르는 일반인이 절대다수인데다, 아공간 주머니는 사용하는 걸 보기 전엔 누구도 알 수 없고, 황금 마법무기는 싸움이 끝나자마자 아공간 주머니에 넣어버렸으니...사정을 잘 모르는 루인 공은 헤이온을 여전히 평민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자신은 전부 똑똑히 보았다.‘부인이 될 수 있을 리 없으니까요- 라고 해야 해? 아님, 부인이 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실 거냐고 해버려?’루나카가 버벅이는 동안 헤이온은 계속 실실 웃어댔다.“대답 안 해도 돼. 어느 쪽이든, 난 네가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없어.”“첩실도... 안 되나요? 저는 헤이온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함께 있으려면 꼭 그런 게 돼야 하나?”‘그렇진 않지만.’루나카는 시선을 힘없이 방바닥으로 떨구었다.‘하긴, 내 주제에 첩실도 과하지. 영애들이 줄을 설 텐데.’“그럼, 헤이온님의 여정 동안만이라도 제가-.”“그런 건 됐어.”대수롭잖다는 듯 거절하는 헤이온의 말투에, 그토록 참으려 했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리고 말았다.이번에는 헤이온이 어쩔 줄 몰라 했다.“어, 어? 야, 왜 울어?””급기야 루나카가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왜 우냐고!”“흐어아아아아앙~~.”방에 둘 뿐인데 헤이온은 공연히 주변을 두리번거렸다.뭔가, 자신이 나쁜 놈이 된 기분이었다.“그런 거 안 해도,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만 울어.”“으헝헝헝어어어어어... 으웽?”끅끅거리며 올려다보는 루나카의 젖은 눈동자에, 헤이온은 범람하는 답답함을 느꼈다.‘하아~. 여자라고 밝히고 싶다.’하지만 황제를 만나기 전까지, 성별만은 만약을 대비해 숨겨두어야 했다.루나카가 비밀을 지켜줄지 어떨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얘가 좋아하는 건 남자인 나지, 여자인 나는 아닐 거 아냐.’“끅, 뭐라고, 끅, 하셨어요?”“너 못생겼다고.”루나카는 헤이온에게 안겨 침대로 옮겨지는 동안, 내내 “나빴어, 진짜 나빴어.” 라고 종알거렸다.내용과 달리, 다소 들뜬 목소리였다.눕혀주고 이불까지 덮어줬는데도 종알거림은 끝이 없었다.일부러 들으란 식이었다.“흥, 나쁜 놈. 여자를 얼마나 들었다 놨다, 가지고 논 거야? 아예 몸에 뱄네, 뱄어.”“자라.”“알몸을 보고도 아무 느낌 없나봐. 힝, 고잔가?”“...”\*다음날 아침.로건은 헤이온을 깨우러 왔다가 기함했다.문이 잠겨있지 않아서 일찍 깬 줄 알고 들어갔더니, 침대에 두 사람이 있었다.“으왓, 뭐야!”“쉿.”루나카가 고개를 들고 자신의 입술에 검지 끝을 갖다 댔다.헤이온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루나카는 헤이온을 지켜보고 있었다.그런데 로건이 상황을 자세히 살피자, 뭔가 이상했다.루나카의 어깨에 걸쳐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어깨 아래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지만, 그녀가 옷을 입지 않았거나 속옷만 입고 있으리란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헤이온이 루나카가 들어온 것을 모를 리 없었다.옆에 있는 것을 허락해준 거라고 보는 것이 옳았다.로건은 안 됐다는 눈빛을 루나카에게 던졌다.“같이 잔 것 정도로 의미부여 하는 건 아니죠? 잠이라면 저도 여러 번 같이 잤어요.”“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쪽이랑 저랑 같아요?”로건은 ‘다르니까 어떻게 봐도 이쪽이 더 이슈지.’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꾹 참았다.“애쓰지 말라고요. 녀석은 당신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없으니까.”“저도 알거든요? 조용히 하세요.”‘알긴 뭘 알아. 모르고 있고만.’“그런 모습으로 있다고 반응하던가요? 아니었겠죠. 헤이온은 여자에게 관심 없어요.”엄연히 말하자면 남자에게도 관심 없는 것 같지만.아니, 자신 외에는 없어야만 했다.불현듯 로건의 뇌리에 복면남자가 스쳐지나갔다.로건이 인상 쓰며 고개를 젓는 모습에, 루나카는 짜증이 올라왔다.‘너는 헤이온과 어울리지 않으니 떨어져라, 이거 같은데. 참 나, 지가 뭐라고.’“그렇다고 하기엔, 다정하게 팔베개 해주셨는데요?”팔베개 얘기에, 로건의 눈썹이 꿈틀했다.‘침착하자. 저 여자가 헤이온과 잘 될 가능성은 나보다도 더 희박해.’“그런 모습이니 일단 달래려던 겁니다.”“아... 그래요? 헤이온님은 정말 여자에게 관심이 없나요? 만났던 사람 정돈 있을 거 아녜요?”루나카의 시무룩한 표정에, 로건이 신나서 받아쳤다.겉으로는 깊게 한숨을 쉬면서.“만나기는커녕 여자얘기 꺼낸 적도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런 얘길 하겠습니까. 그러니 포기하세요.”그러나 곧, 입 꼬리가 올라가는 루나카를 보며 실수했단 것을 깨달았다.인기 없는 이유루나카는 잠들어있는 헤이온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동틀 무렵부터 계속 들여다본 얼굴.봐도 봐도 질리지 않더니, 이제는 감격스러울 지경이었다.영웅은 색을 밝힌다고 했다.아니, 영웅 아니어도 밝히는 자들이 널린 세상이었다.‘재력, 무력, 외모 다 되시잖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날 텐데. 만났던 여자가 없다고?’로건의 말이 사실이라면, 헤이온은 보기 드문 순정남일지도.루나카의 안도에 젖은 미소가, 로건을 초조하게 만들었다.그리고 결정타.“어쩌면, 제가 첫 키스 상대일수도 있겠네요?”로건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이리저리 흔들리는 동공이, 그의 속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헤이온이 미쳤다고 당신이랑? 설마. 좀 전처럼 떠보느라 헛소리하는 거겠지.’불쾌했다.헤이온을 성적 화제로 걸고넘어지다니.괜스레 복면남자와의 입맞춤이 떠올라 더더욱.구명 행위라 해도, 정말 다른 수단은 없었던 건지 가뜩이나 신경 쓰였는데.“얄팍하군요. 두 번은 안 넘어갑니다.”로건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그 모습에 루나카가 픽 웃었다.‘적어도 보라돌이가 아는 한에선 진짜 첫 키스인가 봐.’“제가 누구 앞이라고 그런 걸로 거짓말 하겠어요.”“무슨 거짓말?”마침 잠에서 깬 헤이온이 눈을 부비며 물었다.“아앙, 헤이온 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전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보라돌이씨는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보라돌이? 헉!”헤이온이 방문 쪽을 보니, 로건이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헤이온은 급히 이불을 당겨 루나카를 꽁꽁 감싸고, 품으로 바짝 끌어안았다.“뭘 쳐다보고 있어! 나가!”“저 마법사가-.”“나중에 얘기하고, 나가! 이러고 있는 걸 봤으면 바로 나갔어야지!”뭔가 말하고 싶은 듯, 로건이 입술을 달싹거렸다.베개를 집어던지자 그제야 피하듯 나갔다.“저게, 문도 안 닫고.”“괜찮아요.”이불 밖으로 빼꼼 고개를 내민 루나카가 문을 향해 손가락을 까딱거렸다.문이 스르륵 닫혔다.헤이온이 그제야 안심하고 일어서려는데 루나카가 덥석 매달렸다.새벽에만 해도 눈치를 보더니, 이젠 노출도 개의치 않는 듯 했다.목에 팔을 감으며 한껏 밀착해왔다.‘매달리는 것 까진 그러려니 하겠지만.’얇은 실내용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감촉이 너무 낯설었다.“옷은 어디 있어? 좀 입어.”“에헤헷, 질문이 있는데요오. 답해 주시면요.”“강제로 입히기 전에.”루나카는 헤이온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쿡쿡 웃었다.‘강제로 벗기는 것도 아니고, 입히겠대. 이런 남자도 있구나.’헤이온은 루나카가 숱하게 봐온 남자들과 달랐다.그것도, 많이.여자에게 벽을 세우는 쉽지 않은 남자.너무나도 신선하게 와 닿았다.또한, 귀족들은 보통, 평민의 체면 따위 챙겨주지 않는다.밤 시중의 경우, 옷 입을 시간도 주지 않고 내쫓기가 다반사라 들었다.‘보라돌이가 조금이라도 볼까 봐, 꽁꽁 감싸주셨어. 무심하다가도 세심할 땐 진짜 세심해.’평민에게 이리 대해주는 영식이 세상 어디 또 있을까.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람을 두 번 만나지는 못할 것 같았다.“저 헤이온님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어떡하죠?”“그게 질문이야?”“앗, 아니요! 헤이온님 나이요!”“열일곱.”루나카가 끄덕거렸다.소년과 청년 사이 그 어디쯤일거라 생각했었다.역시 성년식 전이었다.보라돌이가, 자신을 떨궈내려 하면서도 강수를 쓸 수 없던 이유.‘약혼녀 있다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였어.’성년식 후에 본격적으로 약혼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황족과 귀족들의 정례였다.약혼 상대가 있으면, 아무래도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정략결혼이니 애정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별개로 체면은 귀족들에겐 매우 중요한 문제.난잡한 이성문제를 사유로 파혼 당하게 되면, 대대적 망신을 당한다.처음보다 좋은 혼처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기도 하고.첩실이나 애인을 두는 귀족은 많지만, 그것은 결혼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의 이야기였다.가문의 입장과 정실 배우자의 체면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었다.이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망나니들도 있긴 하지만.‘마음에 안 드는 여자를, 옆에서 자게 뒀겠어?’그러면서도 첩실은 안 된다, 밤 시중도 필요 없다, 하지만 함께 있을 수는 있다...행동거지를 조심하느라 당장은 안 되지만, 훗날을 기약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었다.그런데 그게 아니었다.‘약혼녀가 없는데도 벽을 친 거라니. 게다가, 첫 키스?’헤이온에 대해 조금은 알 것도 같았다.흔하진 않지만, 무언가에 깊이 빠져 그 외엔 담쌓는 사람들이 있다.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높은 경지에 오른 만큼, 재능 이상의 엄청난 훈련을 해왔을 것이었다.‘검술밖에 모르는 검술바보로 살지 않았을까? 그러다 성년식 전에 세상 구경 나온 거고.’마음이 있어서 옆에 재운 게 아니라, 별 뜻 없이 재웠을 가능성이 높았다.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감정이 앞서 착각해버렸다.실제로, 그는 아무 번뇌 없이 편하게 잠들지 않았던가.지금만 해도 알몸으로 달라붙어 있는데, 진짜로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았다.‘관심이 없으니 여자를 모르고, 모르니까 흥분도 안 하고...’루나카는 실망하는 한편, 어딘지 모르게 안도감을 느꼈다.“넌?”“스물이에요.”“그래? 아공간에서 3년을 지냈으니 나도 정신적으론 스물인가.”“네에에??”루나카가 어찌나 눈을 크게 떴는지, 눈알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옷이나 입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고.”헤이온은 경직된 루나카의 팔을 풀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욕실로 들어가 버렸다.\*글레이드 중앙 광장.루인 카터 발트가 헤이온 바넷의 영주 취임을 공표했다.헌정식을 겸한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광장이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찼다.“새 영주님 만세!”“헤이온 바넷님 만세!”멋모르고 헤이온을 따라 나갔던 로건과 루나카는 너무 놀라 벙 쪘다.사람들이 로건과 루나카에게도 동경과 감사 어린 시선을 보내왔다.“용사님들도 만세!”둘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주었다.헤이온과 일행들은 영지민들의 환호 속에, 관청으로 이동했다.관청 뜰에 직원들이 전부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새 영주를 보고 관청 경비병들의 안색이 새파랗게 질렸다.하지만 헤이온은 그들을 벌하거나 자르지 않고 용서해주었다.영주성을 비롯, 대부분의 영지가 전멸해 당장 새 인력을 차출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그게 아니라도 익숙한 자들이 계속 업무를 맡아보는 것이 나았다.잘못된 명을 내린 자들이 문제이지, 명을 수행한 자들이 문제인 건 아니니까.경비병뿐 아니라 사무직원들도 가급적 현 체제를 유지할 참이었다.모두 나와 있으니 굳이 안으로 들어갈 것 없이, 바로 명을 내렸다.“세 가지만 하달하겠다. 성벽 보수 및 망루 건설. 영지 전역의 시신 수습. 신전과 협력한 방어선 구축.”청장이 손을 들었다.“영주님, 동시 진행하기엔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외지인들을 적극 고용해.”“지리적 접근성이 좋지 않아 노동력 유입이 적습니다. 대부분 관광 목적으로 옵니다.”“그럼 노동 관광을 오게 만들어.”헤이온의 말에 직원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멍해졌다.새 영주가 너무 젊다보니, 현실파악이 잘 안 되는 건지도 몰랐다.“니들, 안면 근육에 문제라도?”“죄, 죄송합니다! 저어,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지시해주십시오.”“관청 경비병을 포함해서, 모든 병사들의 방어선 구축 훈련을 최우선해. 성별 가리지 말고 신병 받아서 원거리 공격수로 훈련시켜. 용병도 최대한 받고.”이번엔 직원뿐 아니라 경비병들까지 멍해져버렸다.‘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하는 걸까.’하지만 다음 말에 번뜩 정신을 차렸다.“너희는 몰랐겠지만, 남부지역 상당부가 전멸한 상태다. 전시나 마찬가지야. 검은 새들은 물론이고, 더한 놈도 있어. 또다시 글레이드를 공격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저희 공격이 통하지 않던데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신전과 협력하라 했잖아. 그것들은 신성력에 약해. 안개는 바람 마법으로 밀어낼 수 있으니 마법사를 적극 양성하고, 그게 어려우면 마법사 용병을 웃돈주고라도 받아야지, 뭐.”직원들과 경비병들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나머지는, 원정 온 노동자들과 자원한 영지민들로 해결한다. 용병들도 전투 없을 땐 그쪽으로 굴려.”“알아들었습니다만... 실행하기엔 문제가 있습니다.”“뭔데?”“보수 지불과 물자 조달에 쓸 자금이 부족합니다. 올해 남은 예산을 전부 끌어 모아도 어렵습니다.”대체 신하들 말을 듣기는 한 건지, 새 영주는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마법사들에겐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등 몇 가지 지시를 더 내렸다.영주가 작은 주머니를 꺼내든 때까지만 해도, 다들 근심어린 얼굴이었다.그렇지만, 곧 깨달았다.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을.그의 한 마디 한 마디에는 해구보다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을.영주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내역 빠짐없이 보고해. 빼돌리면 재미없을 줄 알아.”관청 뜰에 남은 자들은, 영주와 일행들이 떠나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영주가 돌멩이 던지듯 툭툭 던져 쌓아놓은 저것.금괴가, 자그마치 300여개나 되었다.글레이드의 5년 치 예산이었다.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새 영주는 신전에 성수 300병과 치료수 및 치료마법 200인분 값을 지불해두기까지 했다.’글레이드를 위해 싸우는 모두에게’라는 전언과 함께.\*연락책이라곤 서신이 다인 시골 마을들은, 길목이 차단되면 외부로 소식을 전할 방법이 없었다.하지만 글레이드는 아니었다.글레이드에 지부를 둔 각종 길드들은, 전송 마법진을 동원해 각각 본부로 상황을 전했다.정보길드 산하 신문사에서 기사를 낼 테니, 금세 벨 제국 전역에 소식이 전해질 것이었다.글레이드를 지켜낸 결과, 마수에 대해 직접 전할 수고를 덜었다.‘그래도 어차피 황제를 만날 거지만.’헤이온과 일행은 루인이 공수한 마차를 함께 타고 가기로 했다.헤이온은 귀찮을 것 같아서 따로 움직이려다, 마음을 돌렸다.루인이 호위 용병을 고용하느니 이쪽에게 최고급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큰 도시에는 엄청 호화스러운 귀족 전용 호텔이 있다나.“한 번쯤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전 갈래요. 헤이온님도 같이 가요, 네?”루나카가 적극 조르기도 했고.검문이라든가, 비상시에 루인의 귀족 신분은 꽤 쓸 만할 것 같았다.게다가 수도에 도착하면 백작 저에서 머물도록 해주고 각종 편의를 봐 주겠다니,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그리하여 마차에 오른 것 까지는 좋았는데...마차가 문제인건지 길이 문제인건지, 심하게 덜컹거려 속이 울렁였다.고행중인 셋에 비해, 멀쩡해 보이는 루인이 신기할 정도였다.“마차도 타본 놈이 타는 거군.”헤이온이 마차 문을 열고 휙 뛰어내렸다.“헉!!”깜짝 놀란 루인이 벌떡 일어나 창밖을 살폈다.헤이온은 마차보다 더 빠르게 앞으로 달려 나갔다.그러더니 달리는 말 위로 훌쩍 뛰어올라 고삐를 잡는 것이었다.“와...”루인은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헤이온의 뒷모습을 보다가 “흠, 흠.” 헛기침을 하며 제 자리에 앉았다.한 쪽 고삐를 뺏긴 마부는, 이런 일을 처음 겪는 건 아닌지 자연스럽게 합을 맞추었지만.그마저도 뒤따라 나온 로건에게 빼앗겨버려 할 일이 사라졌다.심지어, “당신이 들어가 있으라구욧!” 하며 루나카가 마부를 띄워 마차 안으로 집어넣어버렸다.잠시 서로를 보던 루인과 마부는, 이내 바깥만 내다보았다.헤이온과 로건이 각각 말에 올라타 고삐를 잡았다.루나카는 마부석에 앉았다가, 맘에 안 드는지 헤이온 뒤쪽으로 날아와 앉았다.헤이온의 등에 달라붙어 허리를 꼬옥 끌어안는 루나카의 모습에, 로건이 혀를 찼다.“쯧.”루나카도 질세라 코웃음을 쳤다.“흥!”의아한 헤이온이 물었다.“왜들 그래?”로건이야말로 헤이온에게 묻고 싶었다.아무리 같은 여자라도 저렇게까지 들러붙는데 괜찮은 거냐고.로건은 고개를 갸웃거리는 실프에게 살짝 미소지어보이곤 여마법사를 곁눈질했다.‘헤이온이랑 이것저것 이야기 좀 하려 했더니만. 젠장.’눈치 없이 따라 나와선 들러붙기까지 하는 여마법사.하는 말까지 얄미웠다.“호호! 헤이온님만 인기 많아서 부러운가 봐요.”“아닌데? 나 인기 없어.”‘검술 수련만 하시느라 주변에 관심 없으셨던 거 알아요.’“농담도~. 헤이온님이 모르시는 것뿐이죠.”“진짜로. 아무도 가까이 안 와. 본체만체 했어.”루나카는 헤이온이 끝까지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다.그렇지만 헤이온의 말은 사실이었다.마을로 놀러나가도 어울려 노는 친구는 로건 뿐.또래 중에 여자고 남자고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다.친해지고 싶어서 먼저 다가가도, 그들은 어색한 핑계를 대며 떠나가곤 했다.‘이젠 왜 그랬느냐고 물어볼 수도 없네...’“왜들 그랬을까? 로건, 혹시 넌 알아?”로건이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내가 어떻게 알아.”너랑 하고 싶어클레어는 오스틴 경과 합류해 줄곧 북서쪽으로 이동했다.휴식은 최소한으로, 비행할 때는 최고 속도를 냈다.오스틴 경의 목격담을 듣고 나니,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다크드래곤이라.’기사인 동시에, 신성사제인 오스틴 경.거짓을 말할 리 없거니와, 설령 그랬다 한들 자신에게는 통하지 않는다.사제로 발탁되었을 때 얻은 능력.타인의 거짓을 간파함은 물론, 왜곡된 진실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었다.처음엔 신성사제라면 누구나 이런 능력을 가지는 줄 알았다.아니란 걸 알고, 쭉 비밀로 해온 덕택에 종종 요긴하긴 했으나, 양날의 검과 같았다.홀로 얼음장 위에 선 것만 같은 고독이 뒤따랐으니까.혀에 가시를 심은 사람들이 그토록 많을 줄이야.지고 가야 할 숙명이니 되도록 좋게 생각하려 애써왔다.축복인지 저주인지 애매한데다, 편리한 듯해도 허점이 있긴 하지만.정보의 왜곡을 가려낼 수는 있어도, 진위를 가려낼 수는 없다는 점이 그러했다.상대방이 잘못된 정보를 진실로 알고 있는 경우가 문제였다.즉, 오스틴 경이 허상을 보고 진짜라고 굳게 믿어버린 나머지, 그의 말이 ‘진실’로 와 닿았을 가능성도 있었다.‘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신성기사단을 빠르게 궤멸시킨 파괴력.시신에서 보이는 흔적.허상이나 마법 따위가 아닌, 진짜 다크드래곤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맞을 것이었다.그럼에도 애써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라 할까.중간계에 벌써 다크드래곤이 비집고 들어올 정도로 틈이 생긴 거라면...다른 대륙에서 이미 어마어마한 생명의 희생이 있었다는 뜻이 된다.벨 제국 남부처럼, 외곽 곳곳이 야금야금 먹혀들어갔다면?벨 제국 남부 상황은, 중간계 침공이 아닌, 리토피아 대륙 침공의 시작에 불과할지도.‘아직 시간이 있을 줄 알았어...’로이먼드 황제의 협력 없이도 어떻게든 막아내 보리라 다짐했었는데.오랫동안 말이 없는 클레어에게, 오스틴 경이 조심스레 물었다.“전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벨 제국을 중심으로, 구마 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어지기 전에, 제국의 군사력을 원조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벨 제국이 무너지면, 대륙이 무너진다.약소국들의 단합이 말처럼 쉽지도 않거니와, 단합해봐야 턱없이 부족한 전력이리라.‘마수왕과 다크드래곤 하나라면 아직은 해볼 만해.’본국으로 귀환하는 즉시, 요르센의 수배령을 내리고, 1군을 재정비하고, 먼 대륙의 정황까지 확인해봐야 한다.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넉넉지 않은 상황.지금 이 시각에도,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는지도 모른다.그래서 최대한 서두르는 중이었다.“로이먼드 황제가 원군을 순순히 내어줄까요? 일전에도...”뺀질거리던 황제를 떠올린 오스틴 경이 말끝을 흐렸다.그때와 달리 남부지역 상황을 증거 삼을 수는 있지만, 밀입국을 밝힐 순 없었다.신성기사단 1군의 궤멸은 대원수 요르센의 변절에 의한, 루 공국 내부문제로 취급하면 그만이었다.클레어는 고개를 저었다.“원하는 것을 먼저 주어야겠지요. 구혼장을 보낼 겁니다.”\*헤이온 일행의 첫 날 여정은 순조로웠다.다만, 다음 도시와 거리가 꽤 있어 야영을 해야 했다.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광활한 사우스바인.종일 달렸는데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간단히 식사를 마쳤다.“얼마나 더 가야 되지?”헤이온의 질문에 마부가 대답했다.“사흘은 더 달려야 작은 마을이 나옵니다요. 거기서 종일 가야 도시가 있고요.”루인이 거들었다.“수도까지 한 달 가량 걸릴 걸세.”“그렇게나?”“벨 제국은 소왕국이 아니네.”헤이온의 착잡한 표정을 읽은 루인이 어깨를 토닥였다.“걱정 말게. 정보 길드를 통해 소식이 이미 전해졌을 테니. 벌써 진군 준비 중일지도 모르지.”“당장 진군해도 마찬가지로 한 달 걸릴 거 아냐. 아니, 여럿이 이동하니 훨씬 오래 걸리겠지.”“주변 영지에 공문이 보내질 걸세. 그들이 잘 버텨주길 바라는 수밖에.”대국적 비상사태일 경우 황실과 영주들이 서로 원군을 보내주기도 하지만, 영지를 수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주와 휘하 기사들의 몫이었다.“...”벌레 우는 소리와 모닥불 타는 소리만 타닥타닥 들려왔다.\*모두가 잠든 시각.마차 지붕 위에 누워있던 헤이온이 눈을 떴다.쏟아져 내리는 별무리가 시야를 가득 메웠다.헤이온은 자신에게 꼭 붙어 자는 루나카를 조심스레 떨어냈다.소리를 죽이고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가, 꺼져가는 모닥불이 희미하게 보일 무렵에야 털썩 주저앉았다.얼마 지나지 않아, 로건이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어떻게 찾았냐고 물을 필요가 없었다.포르르 날갯짓하는 실프가 보였으니까.“여기서 뭐 해?”“생각 좀 하느라.”“내 생각?”“하핫.”로건의 실없는 농담에 헤이온이 소리 내 웃었다.“수도로 가는 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그사이 중부까지 먹힐지도 몰라. 글레이드를 거점으로, 방어를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그만큼 투자해 주고 일러줬으면 됐지. 한 번 구한 것만으로도 할 만큼 한 거라고 봐.”“정말 그렇게 생각해?”“애초에 난 검은 새들을 소탕하려던 거고, 사람들을 구하려던 건 아니거든.”“그게 그거잖아.”“아니, 목적은 복수였어. 결과가 구원일 뿐. 성수만 넉넉했다면, 마수왕이 나타나길 바랐을 거야.”‘신성사제에게 당한 부상 때문에 숨어있는 거겠지.’마수왕이 언급되자 헤이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그 놈은 나한테 양보해.”“당연하지.”침묵이 흘렀다.먼저 정적을 깬 것은 로건이었다.“대의도 좋지만 너부터 챙겨. 그랬으면 좋겠어.”“...”“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킬 수 있게 될 거야.”“...”“정 불안하면, 당분간은 세카트로 님께 부탁드려보면 어때?”“인간사에 관여할 수 없댔어.”실프가 고개를 갸웃거렸다.그러더니 헤이온을 가리킨 후, 팔로 크게 원을 만들었다.“뭐라는 거야. 부탁해도 된다는 건가?”연신 세차게 끄덕이는 실프.로건이 헤이온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이제, 고민 해결?”“응. 일단은.”새벽이 깊어지도록, 헤이온과 로건은 그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었다.대화가 끝나고 헤이온이 엉덩이를 털며 일어서는 것을, 로건이 붙잡았다.“잠깐만. 한 가지 더.”“?”“마법사... 루나카 말인데. 적당히 거리를 둬야 하지 않을까? 너무 달라붙어.”“뭐 어때. 아무 일 없을 건데.”“그쪽이 치근덕대는 이유를 알면서도 놔둔다고? 나중에 네 정체를 알면, 크게 상처받을 걸.”“그렇다고 당장 밀어내고 싶진 않아. 처음이야, 나를 좋아한다고 해주는 사람. 선은 긋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헤이온의 대답이 의외였는지, 로건의 표정이 복잡해졌다.“설마... 진짜 키스했어?”“걔가 그래? 글쎄. 애매해.”‘뭔가 비슷한 게 있긴 있었다는 거군.’로건은 아랫입술을 꽉 물었다.-처음이야, 나를 좋아한다고 해주는 사람.헤이온의 말이 계속 뇌리에서 메아리쳤다.오래 함께 있었지만, 헤이온에게 한 번도 좋아한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그래서 마법사가 특별히 여겨지게 된 거라면, 온전히 자신 탓이었다.무엇을 위해 그동안 속으로 삭여 왔던가.일찌감치 고백했다면 특별한 사이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성공해서 고백하겠다던 다짐은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헤이온에게 좋은 옷과 음식 등,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 고백하려 했지만.지금 생각하니 참 비루한 것들이었다.성공해 봤자 평민은 평민.황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줄 수 있을 리 만무했다.자신으로서는 그저 조용히 곁을 지키는 것이 최선.‘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면, 차라리... 지금...’신분의 벽이 현실로 나타나, 감히 전달할 수조차 없어지기 전에-.꾹꾹 눌러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고야 말았다.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기분.로건은 헤이온을 끌어안았다.“나, 너 좋아해.”“알아.”헤이온이 로건의 등을 토닥였다.“...알아?”“우리끼리 새삼스럽게. 신경써줘서 고마워.”‘그런 의미가 아니라.’로건은 헤이온의 허리로 팔을 옮겨, 제 쪽으로 바짝 당겼다.서로의 체온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리.“내가 너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으면 해.”“이미 특별해. 걱정 마.”로건의 입술이 바짝 말라왔다.조금은 눈치 채 주길 바랐건만.틈 없이 밀착되어 있는데도 헤이온에게선 아무런 동요가 느껴지지 않았다.그저 아이를 달래듯 자신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다.아무래도, 직구를 던지지 않으면 평생 모를 것 같았다.“너랑 하고 싶어.”“응? 뭘?”‘이것저것 전부 다.’헤이온은 토닥이던 손길을 멈추고 로건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로건의 숨결이 평소보다 조금 가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며칠간 로건과 변변한 대화조차 제대로 못했다 보니, 많이 섭섭했던 모양이었다.조금 전, 쌓인 이야기들을 전부 해줬는데도 아직 씩씩거리는 걸 보니, 덜 풀린 게 틀림없었다.손가락을 세워 로건의 등에 물음표를 그렸다.“왜 말을 안 해? 뭔지 알아야 해주든가 하지.”“...키스.”“에엥? 그런 건 나중에 네 애인이랑 해.”로건이 수많은 갈등을 꺾고 겨우 소리 내 말했지만, 심장을 때리는 반응만이 돌아왔다.여기서 더 용기 내도, 그건 용기가 아니라 객기가 될 터였다.로건은 쓴웃음이 났다.‘할 수 없네.’툴툴거리는 소꿉친구 포지션 따위 맡고 싶지 않았지만.수습은 해야 했다.“마법사하고는 애인이라서 키스했나, 뭐.”“푸핫! 그걸 신경 쓰고 있었어?”“어엉! 아주 샘난다, 샘나!”“킥킥킥~. 신경 쓰지 마. 별 거 아니야.”헤이온은 로건의 엉덩이를 팡! 가볍게 쳤다.‘그래서 떼썼구나.’여자끼리의 스킨십을 샘내다니, 로건이 귀엽게 느껴졌다.그런데,“별 거 아닌 거면, 나하고도 해.”라고 말하는 로건의 목소리는, 상당히 가라앉아 있었다.방금 전과 온도차가 상당했다.“걔랑 했던 거, 나한테 똑같이 해 봐.”로건의 팔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내가 그렇듯, 너한테도 내가 첫 번째일 순 없어?”‘오늘따라 심히 보채는군.’어렸을 때부터 함께한 터라 헤이온이 로건의 성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다른 사람에게 하나를 주면, 로건에게는 둘을 주어야 꽁한 것이 겨우 풀리곤 했다.그래도 밉지는 않았다.로건은 제 손에 들어온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헤이온에게 나누어주었다.‘항상 내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더 많이 주려 했지.’일일이 떠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챙김을 받아왔다.자신을 가장 챙겨주는 사람이자, 늘 함께 웃고 울던, 친구이자 형제.로건과 의를 상하느니, 조금 낯간지럽더라도 해주는 것이 나았다.헤이온은 로건의 얼굴을 양 손으로 감싸 쥐었다.그리고는 그의 얼굴을 당겨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로건의 팔이 스르륵 풀렸다.좋긴 한데, 생각한 것과는 영 달라 얼이 빠졌다.“이... 이거라고? 진짜?”“아니. 달라.”멋쩍은 마음에, 헤이온은 괜스레 로건의 뺨을 쭈욱 잡아당겼다.“너한텐 내가 먼저 했잖아.”“하...?”‘망할 마법사. 날 가지고 놀아?’헤이온은 조금 찔렸지만, 루나카와 한 걸 로건에게 그대로 할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었다.루나카와의 키스는 그쪽이 멋대로 해온 것에 불과했다.먼저 해줬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쪽이 더 의미 있을 것이었다.‘미안. 이걸로 퉁 치자.’\*다음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헤이온은 마부를 해고했다.본디 계약은 수도까지였기에, 도착한 셈 치고 삯을 내주었다.“정말 괜찮겠나?”루인의 질문에 헤이온이 퉁명스레 대답했다.“그냥 달리는 게 훨씬 빨라. 경비도 절약되고.”짐이 있는 것도 아닌데, 멀미나 일으키는 마차는 불필요했다.말도 마찬가지.먹이와 휴식이 필요 없다면 모를까, 비효율적이었다.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루인을 제외한 셋뿐이었지만.“댁은 내가 업지, 뭐.”“그러지 마세요!” “관둬.”헤이온은 자신이 마부를 해고했으니, 마나를 쓰지 못하는 루인을 책임질 요량이었다.뜻밖에, 루나카와 로건의 반대가 거셌다.“제가 띄우면 되잖아요. 대신 절 안아주세요!”“아니, 그럴 필요 없어. 발트 공은 내가 업을게.”‘어휴, 방해질은.’‘그만 좀 달라붙어라.’서로를 흘기는 루나카와 로건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그 모습을 본 헤이온이, 장난기 그득한 얼굴로 제안했다.“이렇게 하는 건? 루나카가 루인을 띄우고, 로건이 루나카를 안기.”“싫어요오!” “싫어!”누가 영애를 울렸나아직 낮 시간이지만, 이곳에서 하루 묵어가기로 결정했다.글레이드와 가장 가까운 도시이고 주변에도 마을이 몇 있어, 구인 공고를 내기에 안성맞춤이었다.신문광고를 의뢰해둔 것과 별개로, 지역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숙소를 구하는 데에 루인의 신분이 알차게 쓰였다.일체 대기 없이, 귀족 전용 호텔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넓고 쾌적함은 물론, 고급 가구와 화려한 장식들이 곳곳을 채우고 있었다.“수도와 가까워질수록, 더 좋은 곳들이 많다네.”루인이 뿌듯하게 말했지만, 감탄사를 내뱉는 사람은 루나카 뿐이었다.로건은 등 기댈 곳만 있으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쪽이고, 헤이온은 세카트로의 궁전이 떠올라 감흥이 없었다.덤덤한 둘을 보며 루나카는 속으로 한 번 더 감탄했다.‘전혀 놀라지 않으시네. 헤이온 님은 역시 왕족이나 대귀족인 게 틀림없어.’따로 볼 일이 있다는 루인을 제외하고, 헤이온 일행은 관청을 방문했다.부하직원의 전달을 받은 청장이 헐레벌떡 달려 나왔다.“새로 취임한 영주님이시라고요. 축하드립니다!”청장은 글썽이며 악수를 청해왔다.“요사이 인근 지역과 거래가 줄어 걱정이었는데, 일자리 소식이 참으로 반갑군요.”“...”악수를 하면서도 헤이온은 떨떠름했다.악재 때문에 일자리가 난 것인데, 위로의 말은 전혀 없었다.‘위로나 듣자고 온 건 아니긴 하다만.’정보 길드의 전송 마법진은 엄청 탁월하다 들었다.각지에서 송달되는 정보 취합은 물론, 신문이나 황실 공문 등을 신속히 배부하는 데 쓰인다고.며칠 지났으니, 제국 전역에 글레이드의 소식이 전해졌을 것이다.‘다 아는 뻔한 얘기는 생략하자는 건가?’그런 것 치고는, 더 할 말이 뭐 있다고 귀빈실로 모시겠다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고리타분할 것 같아 단칼에 거절하고, 허가 비용을 내자마자 빠져나왔다.문구를 정해주면 작성과 배포를 전담해주는 방식이라 한결 편했다.관청 앞 사거리.헤이온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따사로운 오후 햇빛.모처럼의 짧은 여유.폭풍 같던 며칠 동안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다만-.“어째, 수행하는 기분이란 말이지.”왼편에는 로건의 어깨동무, 오른편에는 루나카의 팔짱.떨어지란 의미로 한 말이건만, 이것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그 때였다.“호외요, 호외!”전단 뭉치를 든 소년이 바삐 걸으며 외쳐댔다.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터였다.혹시 마수와 관련된 소식일까 봐, 한 장 사보았다.전단을 펼쳐본 헤이온은, 한숨을 쉬었다.“괜히 샀어.”로건도 헤이온과 마찬가지로 시큰둥했다.하지만, 루나카는 달랐다.“어머, 대박! 그 희대의 철벽남이?”눈을 반짝이며 헤이온의 팔에 대롱대롱 매달렸다.“아, 얘가 왜 이래.”“헤이온님은 안 놀라세요? 루 공국 국왕이 먼저 구혼장을 보냈다잖아요!”“무슨 상관이야.”“아~, 황녀님은 좋겠다! 어느 황녀님이지? 힝, 그것까진 안 나왔네.”루나카가 마치 제 일처럼 호들갑을 떨었다.‘황녀라...’로건은 그제야 헤이온을 힐끔 보았다.다행히 헤이온은 더 이상 전단을 보려 하지도 않았고, 루 공국 국왕에 대해 궁금해 하지도 않았다.실프가 작은 손으로 로건의 볼을 콕 눌렀다.로건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옮겨지자, 포르르 날아올라 머리 위에 앉았다.저녁시간, 호텔 식당.지정된 테이블로 가니, 먼저 온 루인이 기다리고 있었다.셋을 향해 손을 올려드는 그는, 제법 멋들어지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차려입기는 셋도 마찬가지였다.조금 전, 무턱대고 식당을 찾았다가, 그 옷차림으로는 입장할 수 없다는 문지기의 말에 갈아입고 왔다.의상실을 들르느라 조금 늦은 참이었다.“기다리게 해서 미안.”“나도 금방 왔으니 괘념치 말게.”“밥을 내가 먹지, 옷이 먹나?” 라며 헤이온이 툴툴대자, 루인이 달랬다.“덕분에 자네들, 지금 굉장히 멋진걸.”루나카를 향한 인사치레도 잊지 않았다.“숙녀께서도 한층 빛나고.”“어머, 감사합니다. 발트 공도 엄청 멋지세요.”한껏 상기된 루나카가 헤이온에게 물었다.“헤이온님, 저 꾸미니까 어때요? 발트 공은 빛난다 하시는데.”“한 번만 더 물어보면 열 번째다.”“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그렇죠. 제가 못생겨서 대답해주시기 싫으세요?”루나카의 말이 끝나자마자, 헤이온이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었다.빤히 들여다보는 헤이온의 시선에 루나카의 가슴이 콩닥거렸다.“흠. 못생겼다고 누가 그래? 혼내 줄까?”“헤이온님이 그러셨잖아요!!”“난 그래도 돼.”헤이온은 고개를 휙 돌렸다.루나카가 무어라 항의하려는데, 타이밍 좋게 에피타이저가 서빙 되었다.고급 은 식기에 담겨 나오는 갓 구운 빵과 수프, 크리스털 잔에 따라지는 음료.그것들을 황홀하게 바라보던 루나카가 중얼거렸다.“맞아요. 그러셔도 돼요...”헤이온이 음료를 반쯤 들이켰을 때, 루인이 화제를 꺼냈다.“자네, 알고 있나? 루 공국 국왕이 구혼장을 보내왔다더군.”“아는데. 그게 뭐.”시큰둥한 대꾸에 루인이 이야기를 잇지 못하고 있는데, 고맙게도 루나카가 받아 주었다.“진짜 놀랍지 않아요? 혼담이란 혼담은 다 물리기로 유명하던 분이.”“그래서 테이블마다 그 화제이잖은가.”몇 안 되는 테이블 전부 열이 올라 있었다.어떤 이야기 중인지 낱낱이 들려오는 지경이었다.“어느 황녀님께 보낸 걸까요? 나와 있지 않던데, 발트 공께선 혹시 아세요?”루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아마, 테이라 황녀님이겠지. 데뷔탕트를 앞둔 황녀님은 테이라님 뿐이니. 세이라 황녀님은 너무 어리고.”“역시 그럴까요? 하아~, 은백의 성자와 결혼이라니 진짜 부럽... 헙!”루나카는 아차, 하고 헤이온의 눈치를 살폈다.“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왕녀님들이나 영애님들이 그럴 거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전 헤이온님 뿐이에요!”“누가 뭐랬나.”로건이 혀를 찼다.“쯧.”“댁은 조용히 하세욧.”\*잠자리에 들기는 이른 시각.셋은 호텔 부지에 있는 연무장으로 향했다.검술은 전 세계에 보편화된 병술이다.더욱이 벨 제국은 황제가 검술을 적극 장려하는 국가.영식들의 기본 소양 중 하나였다.귀족 호텔이라면 어디든 연무장이 마련되어 있고, 연습용 검도 비치되어 있었다.헤이온과 로건이 몸 풀러 가려는데, 어찌 알았는지 루나카가 따라오기에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또다시 헤이온에게 매달리다시피 팔짱을 낀 것은 말 할 것도 없었다.“대련까지 따라붙을 정도로, 할 일이 없습니까?”“그쪽 보려는 거 아니거든요.”“관전하는 게 뭐 어때서.”“들었죠? 헤이온님이 괜찮다 하시네요!”“팔은 놓고. 가끔, 네가 내 팔 같아.”“그쪽이야말로 들었죠? 놓으랍니다.”걷다 보니 어느덧 연무장 로비에 도착했다.연습용 검을 대여해 입장했으나, 이미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대련중인 영식 둘과, 한쪽에 마련된 대기 좌석에서 그들을 관전하는 영애 둘.그리고 구석에 선, 그들의 시종과 시녀들.영애들은 지루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영식들은 과장된 몸짓으로 폼을 잡으며 바쁘게 움직였다.그러던 차에 헤이온 일행이 근처로 들어서자, 영애들의 시선이 대번에 이쪽을 향했다.인기척에 잠시 돌아본 거라고 하기엔, 고개를 되돌릴 의지가 없어보였다.그러거나 말거나, 헤이온과 로건은 영애들을 거들떠보지 않았다.그저 영식들의 대련이 어서 끝나기만 기다렸다.사이에 선 루나카만이 영애들의 불같은 시선을 의식했다.조금 떨어져있다 한들, 소드마스터인 헤이온이 저 시선을 눈치 채지 못할 리 없었다.루나카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저렇게 빤히 보는데도 싹 무시하는 거양? 어떡해! 너무 좋아아앗!!’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영애들이 일어나 다가오더니, 루나카에게 말을 걸었다.인근 영지 자작가의 딸들이라며 자기소개를 하고는,“영애께서는 어느 가문이신지요?”하고 물었다.귀족 호텔이니 사용인들 외엔 모두 귀족이라 보아도 되었다.드레스를 입은 루나카를 시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영애들은 루나카의 대답을 기다리면서도, 힐끗힐끗 헤이온과 로건을 쳐다보았다.예쁘장하고 호리호리한 황동 금발 공자.뚜렷한 이목구비에 훤칠한 키의 자색 머리 공자.둘 모두 매력적이었다.“저는...”영애들이 당연하다는 듯 던진 질문에, 루나카는 대답할 수 없었다.귀족 사칭은 중죄.평민임을 밝히자니 그건 그것대로 곤란해질 것이었다.“어서 말씀해 주세요.”귀족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면 또한 불복 죄.할 수 없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저는 루나카 로웬입니다.”“아하, 로웬 가문이시군요. 부친께서 작위가 어떻게 되시나요?”“근방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멀리서 오셨나 보죠? 어느 지역이에요?”영애들이 집요하게 루나카의 출신을 묻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한참 어린 상대라면 상관없지만, 비슷한 나이부터는,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말을 걸 수 없었다.초면에는 남자 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예의였다.이런 사정이다 보니, 대개 영식들은 요청이 없어도 영애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주곤 했다.이들도 잠시 동안은 얌전히 기다렸지만.헤이온과 로건이 도통 말을 걸어주지 않자, 기다리다 못해 루나카에게 말을 건 것이었다.하녀를 보내 인사를 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영애-루나카-와 함께 있는데 그것은 실례였다.루나카와 통성명 후, 루나카가 소개를 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이었다.속보이긴 하지만, 영애들은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었다.어서 소개받고 싶은 마음 뿐.루나카가 대답하지 않고 머뭇거리자 영애들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다.귀족들끼리는 서로 가문 작위를 밝히고 통성명하는 것이 관례였다.그런데 작위를 밝히지 않으니 수상하기 짝이 없었다.“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설마... 영애가 아닌 것일까요?”영애들은 당사자인 루나카가 앞에 있는데도 직접 묻지 않았다.자기들끼리 대화하는 화법으로 슬슬 돌려 까기 시작했다.“드레스 좀 보세요. 저래도 되나요?”“주인 망신시키는 줄도 모르는 사용인들 꼭 있죠.”이제 저 둘은 모든 걸 알아채고, 대놓고 트집을 잡았다.루나카는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영애고 뭐고, 저 둘을 멀리 치워버리고 싶었다.그렇지만 발트 공과 헤이온이 곤란해질 것을 생각하니 참을 수밖에 없었다.헤이온이 고개를 푹 숙인 루나카 곁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왜들 그래? 뭐 문제 있어?”다짜고짜 반말이라 기분은 다소 언짢았지만, 영애들에겐 기회였다.이때다 싶어 냉큼 물었다.하지만 영애들이 자기소개 하려는 것을, “아까 들었으니 됐어. 뭔데 그러냐고.” 라며 헤이온이 싹둑 잘랐다.“사용인이 염치가 없어 저희가 대신 꾸중하였답니다.”“하사받은 드레스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지 않겠어요?”“드레스? 니들도 입었으면서 뭘.”연무장에서 드레스를 입으면 안 되는 건 아닐 터였다.헤이온의 눈엔, 영애들이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보였다.영애들은 점점 기분이 언짢아졌다.보기 드문 미소년이긴 한데, 생긴 것과 달리 어째... 자꾸 반말에 시비조였다.귀족이 평민을 꾸중할 땐, 평민에게 정녕 죄가 없더라도 귀족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 보통이건만.이 공자는 좀 달랐다.하물며 이 사용인은 신분에 혼동을 주는 복장을 하고 있다.말로만 비꼬는 게 아니라 체벌을 내려도 끼어들지 말아야 할 상황인데, 공자는 사용인을 감싸느라 귀족인 자신들의 심기를 거슬리고 있었다.“각기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법이지요.”그 말에, 헤이온이 루나카를 슬쩍 내려다보았다.루나카는 어쩔 줄 몰라 했다.‘나 때문에 곤란해지시는 거 아닌가? 나쁜 소문이라도 돌면 어쩌시려고...’헤이온의 성격이 직선적인 건 알지만, 상대는 귀족.루나카는 자신의 잘못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 헤이온이 걱정되었다.그렇다고 자신을 위해 나서주는데 제가 먼저 꼬리내리는 것도 안 될 일이었다.나서준 헤이온의 입장과 체면이 뭐가 된단 말인가.'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미치겠네.'루나카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헤이온은 능글거렸다.“잘만 어울리는데? 누가 골라줬는지 센스가 좋아~.”뒤쪽에서 구경 중이던 로건이, 헤이온의 자화자찬하는 말에 픽 웃었다.영애들은 잔뜩 약이 올랐다.마냥 곱게 보였던 공자는, 심히 무례한 사람이었다.“공자께서는 어느 가문이신지요?”어지간히 지체 높은 대귀족이라도 같은 귀족에게 이리 구는 경우는 잘 없었다.원수진 가문이라면 모를까.가문 대 가문으로, 정식 항의해 사과를 받아낼 생각이었다.“모르는 게 속편할 걸.”헤이온은 영애의 질문을 가볍게 넘기고, 급기야 루나카의 허리에 팔을 감고 나란히 붙어 섰다.다정한 연인의 모습이었다.루나카는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뺨을 붉혔다.갑자기 영애 중 하나가 엉엉 소리 내 울기 시작했다.비록 가문 작위는 높지 않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귀하게 자라왔다.평민 첩 따위에게 밀려 이런 취급을 받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울화통이 터지고야 말았다.영애의 울음소리를 듣고, 대련 중이던 영식들이 이쪽으로 달려왔다.누가 영식을 울렸나“무슨 일이야!?”영식들이 눈을 부라리며 큰 소리로 고함쳤다.앞서 영애들 곁에 와있던 시녀, 시종들이 손끝으로 루나카를 가리켰다.“저 여자가 아가씨를 모욕했습니다!”“아가씨께서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영식들은 그들이 가리킨 여자를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보았다.평민 신분인 시녀와 시종들이 ‘저 여자’라 칭했다.귀족이 아니라는 뜻.그런데도 여자는 귀족 전용 소재와 디자인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여자 옆에는 재수 없게 생긴 놈이 뻗대고 있고.어찌된 일인지 대충 알 것 같았다.아니, 아무래도 상관없었다.“네깟 게 감히 아리아 양을?”영식 중 하나가 눈이 돌아가서는, 루나카의 얼굴로 주먹을 내질렀다.매에는 장사 없는 법.발아래 머리 숙여 빌게 만들 생각이었다.여자의 주인인 사내에게는 ‘값’을 물어주면 그만.하지만, 주먹은 여자의 얼굴에 닿을 수 없었다.여자의 얼굴에 닿기 직전, 사내가 손바닥으로 막은 탓이었다.“...!”영식은 크게 놀랐다.간단히 자신의 주먹을 막아낸 사내도 놀랍지만, 그보다...장정의 주먹이 날아오는데도 눈조차 깜박이지 않는 여자라니.‘뭐 이런 년이?’루나카는 산전수전 겪으며 살아온 6서클 실전 마법사.이 정도 주먹은 우스웠다.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는 상시 방어마법을 걸어두고 있었다.마나가 실리지 않은 주먹질쯤, 맞아봐야 간지러울 것이었다.‘일부러 맞아주고 헤이온님께 응석부리려 했는데.’루나카는 방싯방싯 웃었다.‘막아주셨어. 막아주셨다고! 누군가가 날 건드리는 걸 용납 못하시는 거야. 꺄하핫!!’갑자기 실성한 듯 웃어대는 여자를 보고, 영식은 할 말을 잃었다.속이 부글부글 끓었다.이어서 금발 사내가 내뱉은 말은, 그대로 기름이 되어 들이부어졌다.“왜 다들, 내 탓은 않고 얌전히 있던 애만 탓해? 굳이 따지자면, 내 탓 아냐?”시녀와 시종들이 ‘귀족인 네 탓을 할 순 없잖아’ 라는 시선을 보내왔지만 헤이온은 가볍게 무시했다.뒤쪽에서 영애를 달래던 영식이, 듣다못해 다가왔다.“듣자하니 저 녀석, 예법은 개나 준 망나니더군.”그는 연습용 검 끝을 헤이온에게 겨누었다.“네가 이기면 없던 일로 하지. 진다면, 군말 없이 사과하고, 네 첩을 바닥에 꿇리는 거다. 어때?”헤이온은 영식을 한심하단 눈빛으로 바라보았다.‘루나카 혼자서도 이런 놈들은 쓸어버리고 남을 텐데.’하지만 평민이 귀족을 이겨봐야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것이었다.귀족은 평민을 때리거나 죽여도 큰 벌을 받지 않지만, 반대 경우는 아니었다.‘어쩔 수 없나?’헤이온은 로건 쪽을 슬쩍 보았다.‘한 판 놀다 오마.’ 라는 의미였다.그것을 본 영식들은 헤이온이 로건에게 ‘네가 대신 싸워주면 안 돼?’ 라고 부탁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로건이 ‘빨리 끝내라.’ 는 의미로 손을 휘휘 내저었다.대련을 제안한 영식은 “저 공자는 현명하군.” 이라며 의기양양하게 미소 지었다.루나카를 때리려 했던 영식은, 헤이온이 자신의 주먹을 쉽게 막아낸 것이 마음에 걸렸다.하지만, 굳이 말하지는 않았다.지레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꺼낼 필요는 없었으니까.금발머리 놈은 검술에 그다지 자신이 없는지 도움을 요청했고, 요청은 거절당했다.그거면 되었다.곧 패배해서 뒹구는 금발머리 놈을 볼 수 있으리라.헤이온이 생각에 빠진 모습을 보이자, 영식은 강하게 확신했다.‘난감해하는군. 이제 늦었어.’그러거나 말거나, 헤이온은 시종과 시녀들을 가리켰다.“내가 이기면, 저들이 바닥에 꿇는 것으로 하자.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대련을 제안한 영식은, 어깨를 으쓱였다.“좋다. 어차피 네가 이길 일은 없으니까.”그가 자신만만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그는 남부 검술 아카데미의 상위권 학생으로, 또래 영식들 중, 실력이 남다른 자들의 정보는 전부 꿰고 있었다.검술을 인정받아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이 그의 꿈이자 가문의 꿈.경쟁자들을 분석하는 것은 필수였다.‘저런 놈은 듣도 보도 못했어.’헤이온과 영식은 연무장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그 뒤에 대고, 영애들과 시종, 시녀들이 영식을 응원했다.“오라버니, 필승이에요!”“도련님, 아가씨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그들은 조용한 로건과 루나카를 향해, ‘대신해서 망신당할 필욘 없다는 거지, 뭐.’ ‘질 게 빤하니 풀죽어있네.’ 라며 제멋대로 떠들어댔다.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마구 얼굴에 들러붙게 만들었다.“아, 뭐야?!”혹시 하고 로건과 루나카를 살폈지만, 수인을 맺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그들은 영문도 모르고 엉겨 붙는 머리와 씨름했다.“아얏!”실프는, 로건을 흉본 사람에게는 꿀밤까지 주고 나서야 로건의 어깨로 돌아왔다.연무장 중앙에 다다른 둘은, 검을 겨누고 섰다.영식이 헤이온을 도발했다.“어쩌냐? 여자 앞이라고 검술 흉내나 내면서 센 척 하려다, 산통 깨서.”“그러게. 안 됐네.”아픈 곳을 찔렀다고 생각했는데 통하지 않았다.남 얘기하듯 슬쩍 흘리니, 엄청 얄미웠다.“마나는 쓰지 않는 거다. 호텔을 박살내면 안 되니까.”“그건 그래.”영식에게 실제로 호텔을 박살낼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었다.겁주기 위해 허풍을 섞었건만, 상대가 자연스럽게 수긍하자 부아가 치밀었다.‘지가 호텔을 박살낼 수 있는 것처럼 대꾸하긴. 웃기고 있어!’“먼저 간다.”영식은 말을 마치자마자, 기세 좋게 정면 찌르기를 넣었다.‘간격에서 불리하니, 받아내기보다 회피한 후 반격하려 하겠지.’오른손잡이이니 십중팔구는 왼발을 뒤로 뺄 것이었다.혹은 자세를 낮추려 무릎을 굽히거나.설령 받아낸다 해도 상관없었다.어떻게 나오든 이후의 수는 충분히 꿰뚫을 수 있었다.리치에서 유리하다는 건 특혜와도 같았다.그런데-.‘어... 어어?!’헤이온은 영식의 찌르기를 받아내지도, 회피하지도 않았다.헤이온이 던진 검은, 영식의 검을 비껴 날아가 그의 왼편 가슴에 적중했다.“끄으...”영식은 둔탁한 충격에 신음을 내뱉었다.머리카락이 쭈뼛 섰다.진검이었다면 사망이었다.“이, 치사한... 이런 법이 어디... 있어?”“왜 없어.”“교본에는... 하, 됐다. 어지간히 망나니로군.”“내가 이겼지?”“대련은 3판 2승제다.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한 번 졌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목숨이 세 갠가.”헤이온은 투덜거리면서도 검을 집어 들었다.‘귀찮지만, 몇 대 더 때려주지 뭐.’영식은 이를 악물었다.‘이번엔 방심하지 않는다!’하지만 두 번째 대결에서도 그는 패배하고 말았다.헤이온이 선 공격할 차례.오른손이 미묘하게 위쪽으로 들렸다.‘역시, 간격을 좁히려 매섭게 들어오는군. 어림없다!’영식이 헤이온의 베기를 막기 위해 검을 세웠다.하지만, 베기는 없었다.속임수였다.“!?”헤이온은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검을 던지듯 옮겨 잡고, 오른 주먹으로 영식의 옆구리를 가격했다.검은 거들 뿐.영식은 고꾸라지면서도 온 힘을 다해 검을 휘둘렀다.마침 왼손에 검을 쥐고 있던 헤이온은, 영식의 검을 가볍게 막아냈다.동시에, 검을 땅으로 박아 넣으며 손잡이를 지지대 삼아 공중으로 뛰어올랐다.반원을 그리며 순식간에 영식 뒤쪽으로 이동한 헤이온은, 영식을 신나게 밟아댔다.“아! 아악! 이런 법이! 어딨! 냐고!”“꼬우면 너도 해.”“악! 교본에는.. 윽! 악!”“아까부터 교본 타령하는데, 그게 뭐야? 실전이면 넌 죽었어.”영식의 패배 요인은 명확했다.검사라 해도, 실전에서 무조건 검으로만 대결하는 것은 아니다.상황에 따라 여러 변격이 이루어지기 마련.판에 박힌 교육을 받은 영식은, 실전 검사인 헤이온을 당해낼 수 없었던 것이다.조금 전 영식들끼리의 진지한 대련이, 로건과 헤이온의 눈에 과장된 몸짓으로 보였던 것은 그 탓이었다.영식은 일어서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맞았다.검을 휘둘러 봐야, 오른 어깨가 땅에 닿아 있어 각이 나오질 않았다.급기야, 이어지는 구타에 놓쳐버리기까지.분하지만 패배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다.\*“무례를 저질러 죄송합니다...”시종과 시녀들이 헤이온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니들 뭐해? 나 말고 얘한테 사과해야지.”헤이온이 루나카를 앞세우자, 그들은 제 주인들의 눈치를 보았다.귀족에게 사과하면, 그의 첩에게 사과한 것과 다름없건만.확실히, 저 공자는 남달랐다.애첩이기로서니, 자신의 첩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다니.귀족 앞에서 꿇는 건 아무렇지 않지만, 같은 평민에게 꿇는 것은 굴욕이었다.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기에, 더더욱 그랬다.법도나 사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공자 쪽이었다.영식과 영애들은 편을 들어주지 않고, 도리어 “뭘 꾸물거려.” 라며 타박했다.시종과 시녀들은 할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영식과 영애들이 처음부터 순순히 약속을 지키려던 건 아니었다.모르쇠로 일관하며 자리를 뜨려는데, 발트 공이 찾아왔다.아리아 영애가 울음을 터트리자, 연무장 관리인이 깜짝 놀라 루인에게 연락을 넣은 것이었다.일행이니 상황을 조율해주리란 바람에서였다.영식과 영애들은, 그의 등장에 하나같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루인 카터 발트 공.그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이었다.발트 백작가의 차기 가주인 데다, 초대형 상단인 발트 상단의 부단주.게다가, 귀족이라고 다 같은 귀족이 아니었다.같은 자작, 남작 작위라도 황실 인사를 맡거나 사교계에 진출한 중앙귀족과, 그렇지 못한 지방귀족으로 나뉘었다.자신들의 가문은 중앙 진출을 열렬히 꿈꾸는 지방귀족.쉽게 말해, 쩌리였다.영식들은 퍼뜩 정신 차리고, 발트 공에게 예를 갖춰 인사를 올렸다.영애들은 그 뒤에서 고개를 숙였다.루인은 그들의 인사를 대수롭잖단 듯 넘기고, 상황을 살폈다.영식 하나가 떡이 되어 있었다.“무슨 일인가?”“별 거 아냐. 대련 해줬어.”영식과 영애들이 입을 쩍 벌렸다.‘발트 공께... 반말을?’심지어 발트 공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받아주고 있었다.루인은 생명의 은인인 헤이온과 그의 일행에게는, 모든 면에 관대하자는 방침이었다.목숨보다 중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으니까.사정을 모르는 제삼자 입장에서는, 경악할 일이었지만.영식과 영애들은 식은땀을 흘렸다.백작가 가주 내정자에게 아무렇지 않게 반말할 수 있는 사람이란, 대체 누구란 말인가.그제야 기억났다.식당에서, 저들이 발트 공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것이.사용인들은 따로 식사하지, 주인과 동석하지 않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또한 동석 중이었다.여자의 주인은 대체 얼마나 높은 사람이란 건지, 아찔해졌다.“정말 별 일 아닌 건가?”“네, 네! 그럼요.”발트 공의 질문에 영식과 영애들은 쩔쩔맸다.“그렇긴 한데. 계산할 건 해야지?”헤이온의 차가운 목소리에 그들은 시종과 시녀들을 독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루인이 “온 김에, 관전하는 것도 좋겠지.” 라며 연무장에 눌러앉자, 자리를 뜨려던 영식, 영애 일행도 덩달아 눌러앉았다.발트 공의 눈에 띄어 나쁠 것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들의 대련이 궁금하기도 했다.특히 헤이온과 대련했던 영식은, 흠씬 맞은 건 억울하긴 해도, 그가 자신의 검술을 되돌아보게 된 계기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교본 타령하는데, 그게 뭐야? 실전이면 넌 죽었어.금발 공자의 말이 계속 뇌리를 맴돌았기 때문이다.저들은 교본에 구애되지 않는, 살아남기 위한 검술을 구사할 터.봐두고 싶었다.이윽고 헤이온과 로건의 대련이 시작되었고, 모두 손에 땀을 쥐고 관전했다.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대련을 마친 둘이, 대기 좌석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영식은, 관리인에게서 수건을 빼앗아들고는, 달려 나가 둘을 마중했다.둘에게 수건을 건네는 영식의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었다.선수 아닌 것 맞나요헤이온과 로건은, 이왕 가져다 준 수건이니 거절 않고 받아들었다.수건으로 얼굴 땀을 닦는 내내, 영식은 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헤이온이 살짝 찌푸렸다.“맞은 데가 잘못됐나?”답을 바라고 한 질문이 아니었건만, 영식은 재빨리 대답했다.“아닙니다! 전 멀쩡합니다!”대답과 달리, 너덜너덜한 머리와 옷.그럼에도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이쪽이 무어라 말해주길 기다리는 것이...마치 커다란 강아지 같았다.‘뭐야, 이거. 개같...’완전히 달라진 영식의 태도에 아연한 와중, 다른 영식이 질세라 달려왔다.그는 말없이 고개를 꾸벅하곤, 공손히 손을 내밀며 수건과 연습용 검을 달란 표현을 했다.로비에 반납하면 되고, 저만치 멀뚱히 서있는 관리인에게 건네도 그만이었다.그런데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제가 수거하겠다니.조금 전, 다짜고짜 주먹질부터 하려 했던 자가 맞는지 참으로 의아했다.헤이온과 로건에겐, 남의 손을 빌리는 것은 익숙지 않은 일이었다.아랫사람을 부려본 적 없고, 어지간한 일은 직접 해왔기 때문.수건은 필요하니 받았지만, 구태여 수거를 맡길 필요는 없었다.헤이온과 로건은 말없이 그를 지나쳐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청을 거절당한 영식은, 풀죽은 얼굴로 뒤를 따랐다.옆의 강아지로 변모해버린 친우를, 부러운 눈빛으로 곁눈질하면서.넷이 가까워지자, 두 영애가 기다렸다는 듯 우아하게 일어났다.온전한 형태가 아니었다고는 해도, 이미 말을 섞었다.다시 마주쳤을 땐, 먼저 말을 걸어도 실례될 것이 없었다.‘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인사하는 거야.’하지만 영애들이 말 붙이기 전에, 뛰쳐나간 루나카가 헤이온의 목에 매달렸다.“아잉, 멋졌어요!”“나 지금 끈적여.”떨어지란 뜻이었으나 루나카는 빙긋 웃었다.“오히려 더 좋을 지도요.”“이래도, 이래도?”헤이온은 루나카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었다.그리고는 젖은 앞머리를 루나카의 목과 얼굴에 들이댔다.루나카에겐 어차피 도망갈 생각이 없었다.도리어 밀착해서는 “꺄하하, 간지러워요~.” 라며 웃음을 터트렸다.헤이온의 짓궂은 장난은, 제삼자들이 보기에 영락없이 연인의 애정행각이었다.범접할 수 없는 둘만의 세계.영애들은 그 사이를 비집고 끼어들 엄두가 나지 않았다.할 수 없이 헤이온은 포기하고, 로건에게로 다가갔다.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다.그것도 영애들의 머리 위로만.“?!”기껏 정리한 머리가 도로 엉망이 된 영애들은, 울상으로 물러났다.실프는 이번엔 가벼운 살랑바람을 불러왔다.얼굴만 닦았을 뿐, 몸은 온통 땀으로 젖어 있던 터라, 둘은 기분 좋게 바람을 쐬었다.어느새 루인이 다가와, 둘의 검술을 극찬했다.“자네의 검술 실력은 알고 있었네만, 이 친구 또한 이리도 뛰어날 줄이야. 헌데, 비슷한 것 같다면, 내 착각인가?”“잘 봤어. 우린 동문이야.”둘 모두, 어린 시절부터 레온 아래서 혹독하게 검술을 갈고 닦았었다.“스승께서도 대단한 분이시겠군.”‘대단한 건지 지독한 건지 애매한데.’“소드마스터니까, 뭐.”헤이온은 몰랐지만, 레온은 현 황제의 황태자 시절, 그에게 검술을 가르친 제국 제일의 사범이었다.검술실력 하나로 작위를 받고 황실 근위기사까지 올랐던 실력자.그런 레온에게서 배웠으니, 아주 제대로 배웠다고 할 수 있었다.거기에 더해 세카트로의 아공간에서 3년간 쌓은 실전 경험은, 날카로운 감각을 새겨주었다.그러다 보니, 영식들이 둘의 대련을 관전한 후 ‘뻑’가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루인은 잠시 멍해졌다.평민 신분이라 고급 교육을 받지 못했어도, 이따금 천부적인 재능을 지녀 소드마스터로 각성하는 자들이 있었다.헤이온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했는데, 소드마스터의 제자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소드마스터쯤 되면 제국의 녹을 먹으며 휘하의 기사단을 양성하기 마련.하지만 헤이온과 로건은 어느 기사단에도 소속되어있지 않았다.글레이드 바넷 기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이 된 것도 며칠 전의 이야기.“동문이 여럿인가?”“내가 알기론 우리뿐이야.”“그럼 직계 제자로군.”‘이들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고, 숨겨 키운 자... 누구지?’루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소드마스터들을 하나 둘 떠올려보았다.돈을 다발로 들고 찾아오는 귀족가가 줄을 선 마당에, 굳이 평민들을 거두어 가르칠 사람?제자를 소드마스터로 각성시키고서도, 드러내서 으스대기는커녕 꾹꾹 숨겨두기만 할 사람?전혀 감이 오질 않았다.루인과 헤이온의 대화를 듣고 있던 영식들은, 소드마스터가 언급되자 크게 흥분했다.검사라면 누구나 갈망하는 경지, 소드마스터.소드마스터는 물론이고, 직계 제자들의 대련을 관전하는 것은 결코 흔한 기회가 아니었다.기사 꿈나무들에겐 영광이나 다름없었다.헤이온에게 두들겨 맞은 영식은 깊은 감격에 젖어들기까지 했다.‘직계 제자께서 대련을 해주시고, 가르침까지 주셨어.’다른 영식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그런 분들 앞에서 주먹을 휘둘렀다니, 으으.’답을 찾지 못한 루인이 질문했다.“혹시, 스승님의 존함을 알 수 있겠는가?”“저도, 알고 싶습니다!”“저도요! 기회가 된다면 꼭 그분께 배우고 싶습니다.”영식들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눈을 빛냈다.루나카도 궁금한지, 헤이온을 빤히 올려다보았다.헤이온은 말이 없었다.때 아닌 적막에 모두 어색해하자, 로건이 대신 대답했다.“영면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세요.”루인은 더 묻지 않고, 화제를 돌렸다.“자네, 참으로 다능한 친구였군 그래.”그는 로건을 다시 봤음을 재차 강조했다.로건은 남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터라, 루인의 칭찬에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내가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헤이온이 칭찬을 잇자, 그제야 입 끝이 희미하게 씰룩였다.“시간이 흐르면, 내가 따라갈 수 없을지도.”헤이온의 말은 진심이었다.로건과 헤이온의 차이는 마스터로의 각성 유무였다.헤이온에겐 세카트로가 심어준 힘이 있었고, 로건은 선천적으로 마나하트가 막혀있었다 보니 격차가 크게 벌어졌을 뿐.같은 조건이었다면 리치와 근력이 앞서는 로건이 더 강했을 것이다.또한, 궁술을 상당 수준으로 연마함으로써 원거리와 근거리 모두 위력을 발휘하는, 전천후 듀얼 클래스.듀얼 클래스 자체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다만, 궁술을 기반으로 한 듀얼클래스라면, 혹시 모를 근접전을 대비해 단검술을 익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휴대가 용이하고 근력 요구치가 낮기 때문이다.마법 쪽에도 소질이 있다면 보호마법을 익힌다거나, 궁극적인 사거리를 얻기 위해 바람마법을 익힌다거나, 관통력을 위해 강화마법을 익힌다거나.주 클래스의 약점을 보완하거나, 강화 수단을 연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로건처럼 상성을 맞추기 어려운 병술을 동시에 익힌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하물며 두 클래스 모두 익스퍼트 급이니, 부정할 수 없는 능력자였다.‘새삼 대단하네. 로건이 마스터 급으로 각성하면, 진짜로 나는 상대도 안 될지 몰라.’로건이 씨익, 미소 지었다.“그렇게 생각해?”“응. 그래서 지지 않게 열심히 수련하려고.”‘지면 안 될 사람인 거야?’뭐가 그리 즐거운지, 로건이 연신 쿡쿡 웃어댔다.\*“마나를 실어 우렁차게 외치라며? 망할 영감탱이.”“...”“신비의 현자께선 치매인가?”“흠, 흠. 그럴 리가 있겠느냐.”조금 전, 헤이온은 씻자마자 로건의 방으로 왔다.세카트로를 선뜻 부르지 못하고 망설이자 로건이 이유를 물었고, 이유를 들은 실프가 진실을 알려주었다.“진짜? 큰 소리 아니어도 돼?”몇 번이나 되물었고, 그 때마다 실프는 팔로 원을 그렸다.시험 삼아 소곤거리듯 불러봤는데, 빛이 번쩍 하더니 세카트로가 나타났다.“헐.”부름에 응한 세카트로를 헤이온이 신나게 타박하는 이유였다.“주문도, 지금 생각하니 뭔가 이상해. 전체를 다 외워야 하는 거 맞아?”“...”세카트로는 뜨끔했다.어엉? 내 말 틀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멋진 신비의 현자’ 이 부분,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널 못 본 며칠이 몇 년 같았느니라. 이럴 줄 알았으면 보내지 말 것을.-말 돌리지 마.세카트로는 헤이온의 추궁을 못들은 척하며 방을 둘러보았다.“잘 지내는 듯해 다행이니라. 그보다, 무슨 일로 불렀느냐?”“보고 싶어서. 그럼 안 돼?”“안 될 것은 없...”영감탱이, 장난치니까 재밌어?...세상에 이렇게 살벌한 손녀는... 너밖에 없을 것이니라...보고 싶었다는 건 사실이야.시무룩했던 세카트로의 얼굴이 대번이 활짝 피어났다.“부탁할 것도 있고.”“뭐든 말만 하거라! 전부 들어주마!!”이후는 일사천리였다.세카트로는 돌아가기 전, 로건과 실프를 보며 의아하단 투로 한 마디 던졌다.“그대들은 아직도 그 상태로구나.”“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계약하려고 데려간 것이 아니었더냐? 저 아이, 무척이나 기다리고 있느니라.”“?”로건이 영문을 몰라 빤히 들여다보자, 실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끙끙거렸다.“그대가 계약하자 하면 기뻐 날뛸 것이니라. 그럼 이만.”말을 마친 세카트로는, 빛과 함께 사라졌다.세카트로에 이어 헤이온마저 돌아가 버리자, 방에는 적막이 감돌았다.로건과 실프는 서로를 한참 동안이나 마주보고 있었다.실프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도망가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로건은 세카트로가 남긴 말을 여러 차례 곱씹어본 후에야 입을 열었다.“정령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계약이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면 뭐가 달라지는 지도요.”실프가 살짝 끄덕였다.“그거, 저 같은 놈이랑 해도 괜찮은 거예요?”실프는 무어라 말하고 싶은 것 같았다.전할 수 없어 답답해하다가, 로건의 얼굴 가까이 날아와 뺨을 비벼댔다.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는데도, 실프의 마음이 로건에게 전해져왔다.“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우리 해봐요, 계약이란 거.”\*“네가 왜 여기 있어?”“뭐 어때서요.”헤이온이 개인 응접실을 지나 침실로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루나카였다.제 침대인 양, 이불 속에 반쯤 들어가 있었다.“이런 짓 하지 말랬잖아.”“안 벗었으니 된 거 아닌가요.”“...묘하게 반항적인데.”“싫으면 끌어내시든가요.”“아냐. 상관없어.”헤이온은 다시 응접실로 나왔다.귀족 전용 호텔에 걸맞은, 고급 소파가 여러 개.가장 긴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누웠다.잠을 청하려는데 뭔가가 얼굴을 간지럽혔다.헤이온의 몸 위로, 둥실둥실 떠있는 루나카에게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었다.“너무하세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이러니 인기가 없었지.”“그랬나 보다.”눈 내리듯, 루나카가 헤이온 위로 살포시 덮였다.헤이온은 루나카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곤 안아주었다.“이거이거, 여자 여럿 울렸을 거야.”“전혀.”“헷, 역시 제가 싫진 않으신 거죠?”“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왜 그랬는지 그거나 말해.”루나카는 헤이온의 어깨와 가슴 사이를 팡팡 쳤다.“우씨, 보라돌이씨만 칭찬하고.”“그게 뭐.”“저는요? 저에겐 뒤 못 맡겨요? 못미더워요?”“푸흡!”헤이온이 웃자, 루나카의 타작이 거세졌다.헤이온은 자신을 때리는 루나카의 손을 붙잡고 그대로 깍지를 꼈다.“루나카 로웬 양은 제 앞에 계시면 되죠. 지금처럼.”“꺄?!”생각지도 못한 경어에 루나카가 당혹해하는 틈을 타, 몸을 일으켰다.루나카와 깍지 낀 손을 당기고, 다른 손으로는 그녀의 옆구리를 받쳐 들어올렸다.“뭐, 뭐예요!”“뭐긴 뭐야. 못 움직이게 붙잡은 거지.”루나카가 뒤늦게 버둥거려봐야 소용없었다.꼼짝없이 붙들려 침대로 강제 배달되었다.던지듯 눕혀진 루나카는, 항의하려다 말고 굳어버렸다.헤이온이 가까이에 앉아 상체를 바짝 기울여온 탓이었다.비록 대사는 로맨스와는 동떨어진 것이었지만.“너한텐 감사하고 있어. 너 아니었으면 글레이드 사수 못했어. 너와 함께라면,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루나카는 소리는 내지 못하고, 입술만 뻐끔거렸다.“내 힘이 되어줘.”여전히 루나카는 대답하지 않았다.흐려져 가는 기름등잔 불빛에 비친 루나카의 얼굴이, 터질 듯 붉게 물들어 있었다.“아하핫, 이제 와서 내외해? 매일 붙어있어 놓고.”“아, 그... 제가 붙는 거랑, 헤이온 님이 붙으시는 거랑 다르다고요...”“그래서, 대답은?”“당연히 그럴 거예요... 조금 화나지만요.”“또? 왜?”‘저를 동료로만 보시니까 그렇죠.’“말 안 할래요. 저도 자존심 있어요.”루나카는 이불을 당겨 덮으며 제 얼굴을 가렸다.헤이온은 루나카에게 더 말 붙이지 않고, 일어났다.문까지 걸어갔다가 문득 멈춰 서서는, 생각에 잠겼다.그러더니 침대로 되돌아왔다.발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이불은 움직이지 않았다.헤이온은 빙긋 웃고는, 이불 밖으로 드러나있는 루나카의 이마에 쪽, 입맞춰주었다.“고맙단 말을 안 했던 거 같아서. 잘 자.”헤이온이 응접실로 나가 침실 문을 닫고 난 후에도, 여전히 이불은 움직이지 않았다.희미하게 앓는 소리만이 새어나왔다.^^^트리플 클래스 로건조식을 먹은 후 떠날 예정이었다.동트기 무섭게 제 방으로 돌아갔던 루나카는, 헤이온이 방을 나서기 직전 다시 찾아왔다.“글레이드에서 선물 받은 옷이에요. 첫 개시인데, 어때요?”거추장스런 장식이 없는 단정한 복장.언제나 늘어뜨렸던 흑단 같은 머리가 높이 묶여 있었다.루나카는 즐거운 듯이 빙글빙글, 두 바퀴나 돌았다.바지를 입었으니 치마처럼 휘날릴 리 없는데도.“잘 골랐어. 산행에 제격이야.”“피잇, 그런 거 말고요.”오리입 마냥 입술을 내민 루나카를 보며, 헤이온이 소리 없이 웃었다.아침 햇살과 어우러진 헤이온의 미소는, 그야말로 빛이었다.루나카의 입술이 쏙 들어갔다.“진짜 치사해...”“응?”“됐어요. 그보다, 중요한 걸 깜박했지 뭐에요.”루나카가 헤이온의 눈높이보다 약간 높게 날아올랐다.두 손으로 헤이온의 얼굴을 감싸고는, 이마에 입술을 맞추었다.거기서 끝나지 않고, 재빨리 입술도 탐했다.“어젯밤의 답례에요.”헤이온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하자, 루나카는 능청을 떨었다.“방심하신 걸까, 아님 기대하신 걸까~?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루나카를 잡으려 헤이온이 손을 뻗었지만, 루나카는 그보다 빠르게 물러나 피해버렸다.얼결에 응접실 추격전이 시작되었다.하지만, 지상에서의 제한적인 움직임으로는, 공중에서의 움직임을 잡기 어려웠다.중력과 마찰을 무시하는데다, 스텝도 필요 없고, 방향 전환도 자유로운 루나카.방이 쓸데없이 넓은 탓에, 공간의 제약조차 받지 않고 있었다.‘잡으려면 나도 마나를 써야겠는데.’그랬다간 방이 엉망이 된다.“밥 먹으러 갈란다.”헤이온이 체념하고 터벅터벅 문으로 향하자, 루나카가 다급히 따라붙었다.“같이 가요오~.”헤이온은 기다렸다는 듯 루나카를 꽉 붙잡았다.“좋아! 잡았다!”“잡혔다! ”“야이...”잡았는데도 진 기분이었다.루나카는 연신 생글생글 웃었다.“리치 차이가 얼만데. 당연히 바이올렛 공자님이지.”“리치로만 검술 하냐고. 금발 공자님 스피드 못 봤어?”“빨라도 닿지 못하면 소용없어.”“닿고도 남아. 내가 대련해봐서 알아.”헤이온과 루나카가 식당으로 들어서자, 입구와 가까운 테이블에서 옥신각신, 설전이 벌어지고 있었다.어제 연무장에서 보았던 영식들이었다.설전의 주제는, 그 나이 또래 소년들이 흔히 불태우는, ‘A와 B중 누가 강할까?’ 였다.헤이온과 로건의 대련이 막상막하, 무승부로 끝났기에 저러는 모양이었다.영식들의 맞은편에서 따분해하고 있던 영애들은, 헤이온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안녕하세요, 공자님.”“좋은 아침이에요.”영애들이 유난히 반가운 내색으로, 스커트 자락을 잡고 우아하게 인사했지만...제대로 통성명할 기회는 없었다.헤이온이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나쳐간 탓이었다.루나카 역시, 자신에게 한 인사가 아니기도 하고, 헤이온이 냉랭하게 대하는 자들에게 살가울 필요도 없으니 못 본 체했다.찬바람 쌩쌩 부는 헤이온의 뒷모습에, 영애들은 무안함을 감추지 못했다.헤이온과 루나카는 루인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갔다.늦지 않게 왔는데도 루인은 더 일찍 와 있었다.“너무 부지런한 거 아냐?”“조금 서둘러 둬야 마음이 편해서. 버릇일 뿐이네.”말은 저렇게 해도, 일행이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한 발 앞서 나와 있었을 게 뻔했다.루인은 사우스바인에서 야영할 때도 늘 앞장서서 움직였다.유일한 귀족 신분이니 거들먹거릴 법도 한데, 일행뿐 아니라 마부에게도 함부로 대하거나 부리려 들지 않았다.점잖은데다 매사 솔선수범하기까지.호감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첫인상은 엉망이었는데 말이지.’며칠간의 동행으로, ‘귀족이 달리 귀족인가, 타고남이 달라 귀족이다’ 라던 그의 말뜻이, ‘귀족만이 고귀하다’ 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발트 상단이 대상단으로 성장한 저력은, 루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었다.“...해서, 여기까지가 괜찮을 듯싶네.”“그래, 그럼.”지도를 보며 다음 행선지에 대해 몇 마디 나누려니, 영식들이 다가왔다.그들은 긴장했는지, 갈라진 목소리로 인사와 자기소개를 했다.루인은 그들의 인사를 받아주었지만, 헤이온은 냉랭하기 그지없었다.헤이온은 영식과 영애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사용인들은 루나카에게 사과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다.정작 루나카를 헐뜯은 것은 영애들이고, 폭력을 쓰고, 비하한 것은 영식들이었다.그들은 루나카에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그러고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루인과 자신에게만 깍듯이 대하는 꼴이라니.앞뒤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루인은, 헤이온과 영식들을 번갈아 보았다.영식들은 눈치가 꽝은 아닌지 잠시 머뭇거리다가, 루나카에게 목례를 했다.“귀부인께 실례가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부디 용서를...”귀족이 평민에게 사과하는, 진풍경.뒤편의 영애들과 사용인들도 매우 놀란 표정이었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루나카였다.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헤이온의 눈치를 살폈다.“내 눈치 볼 것 없어. 네 마음 가는 대로 해.”“어... 그, 그럼. 용서해 드리겠어요.”루나카가 쭈뼛거리며 사과를 받아주자, 그제야 헤이온이 그들의 인사에 답했다.“좋은 아침. 이든, 폴. 난 헤이온이다.”“헤이온님! 감사합니다!”이든과 폴의 허리가 90도로 접혔다가 펴졌다.가문을 밝히지 않으니 의아스럽긴 했지만, 당장은 인사를 받아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였다.발트 공과 겸상하는데다 말까지 트고 있고, 소드마스터의 직계 제자이니 높은 신분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아직 화가 덜 풀리셨구나. 그래도 다행이야.’이든과 폴은 가슴을 쓸어내렸다.그들이 저자세로 나온 것은, 헤이온과 로건의 검술에 감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중을 위해 잘 보여 두는 것이 좋기 때문이었다.찍혀서 출세 길이 막히느니, 고개 따위 몇 번이고 숙일 수 있었다.이왕 고개 숙인 김에, 아부 몇 마디 하는 게 뭐 어려울까.“이토록 금슬이 돈독하시니, 저희에게도 귀감이 되었습니다.”“두 분의 오랜 행복을 빌겠습니다.”마음의 짐을 덜고 되돌아가는 이든과 폴의 발걸음은 매우 가벼웠다.반면, 헤이온은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헤이온 님?”루나카가 걱정스럽게 들여다보았다.헤이온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려던 참에, 입구 쪽에서 이든과 폴의 우렁찬 외침이 들려왔다.“안녕하십니까!!”로건은 고개만 까딱 하고는 그들을 지나쳐버렸다.헤이온과 달리, 루나카의 입장을 고려해서가 아니었다.로건은 루나카가 어떤 취급을 받든 상관없었다.그들이 함부로 대한 사람이 헤이온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보복했을 테지만.이미 헤이온에게 흠씬 맞은 뒤이기도 하고, 깍듯해졌으니 알 바 아니었다.그저 자신이 겪은 일로 격양된 탓이었다.‘어서 보여주고 싶어.’걸음을 서둘러 테이블로 다가갔다.마주보이는 루인과는 눈인사를 하고는 헤이온의 어깨를 두드렸다.“헤이온! 봐봐.”헤이온이 돌아보자, 약간 상기된 로건 옆에, 부쩍 자라나 수줍어하는 실프가 있었다.“아아, 그렇게 됐구나. 축하해.”헤이온은 별반 놀라지 않았다.세카트로의 언질을 함께 들었었으니까.계약 전에는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였는데 지금은 서너 살 어린아이만 했다.예전 모습 그대로 크기만 커진 게 아니라, 성장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었다.머리카락이 자랐고 이목구비도 좀 더 뚜렷해졌다.“귀엽다.”“그치? 이젠 대화도 할 수 있어.”루인은 어리둥절했다.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보라고 하고, 축하한다고 하고, 귀엽다고까지.루인의 표정을 읽은 루나카가 설명해주었다.“저 사람, 이제 듀얼클래스가 아니라 트리플클래스네요.”“??”구체적이진 않았지만.‘말하고 싶으면 제가 직접 하겠지. 그나저나, 의왼데.’루나카는 헤이온에게 일정을 전해 듣고 있는 로건을 빤히 응시했다.그러거나 말거나, 로건은 루나카의 시선을 무시하고 헤이온과의 이야기에 집중했다.그런 셋을 루인이 조용히 지켜보았다.경험상, 로건은 헤이온과의 대화가 끊기는 것을 무척 싫어하기도 했고, 그게 아니라도 도중에 끼어드는 것은 예가 아니었다.로건이 열 내든 말든, 곧잘 끼어드는 루나카는 어떤 의미로든 대단한 사람이었다.아무튼, 둘의 대화가 끝나면 무슨 일인지 물어볼 생각이었다.그런데 저편에서 다가오는 이든과 폴이 보였다.루인이 말릴 새도 없이, 그들은 로건에게 말을 걸었다.“공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귀부인께서 저희를 용서하셨습니다.”“헤이온님께서도 통성명 해주셨어요.”루인은 기대감에 부푼 그들을 차마 더 볼 수 없어,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다.아니나 다를까, 이든과 폴은 곧 움츠러들고 말았다.‘헉!!’바이올렛 공자의 차갑고 살벌한 눈빛.징그러운 벌레를 보는 눈빛도 이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각자 볼일을 마치고 로비에서 모이기로 했다.헤이온은 제 방으로 가는 척 하다가, 곧장 루인의 방으로 갔다.“빨리 왔군. 이쪽은 기다려주게. 전송할 게 있어서.”루인은 책상에 널린 서류들을 하나하나 재확인해서, 봉투에 나눠 넣고 있었다.어제 볼 일이 있다더니, 상단 일이 밀려 바빴던 모양이었다.헤이온은 글레이드에서 인수인계 건으로 서류더미에 묻혔던 일이 떠올라, 급 울렁거렸다.“으으, 고생이네. 넣어둘 건 없어?”“도시락을 주문해 두었네. 잠시 후에 그걸 부탁하지.”헤이온은 달리 할 일도, 챙길 짐도 없었다.짐은 아공간 주머니 안에 대충 넣으면 끝이라, 식당에 가기도 전부터 짐 정리는 다 되어 있었다.루나카와 루인의 짐도 맡아주고 있어서, 새로운 짐이 없는지 물어본 것이었다.로건은 실프와 할 얘기가 있는지 제 방으로 갔다.눈치를 보아하니 세카트로와 자신처럼, 남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대화할 수도 있는 것 같았다.하지만 자신이나 루나카에겐 몰라도, 제삼자들에겐 로건이 허공을 쓰다듬고, 혼자 웃는 걸로 보일 테니까...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과, 구태여 시선을 끄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헤이온은 소파에 걸터앉아 루인이 일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할 말이라도 있는가?”“어떻게 알았어?”“빤하잖은가. 해보게.”“지금? 바쁜 거 아냐?”“하면서 들을 수 있네. 지금이 아니면 할 새도 없을 텐데.”그건 그랬다.늘 루나카 아니면 로건이 가까이 있으니까.헤이온은 뜸 들이지 않고 물었다.“나랑 루나카 말인데. 어제는 첩이니 뭐니, 오늘은 금슬이란 말까지 나왔어. 왜지?”루인 역시 지체 없이 대답했다.“내 눈에도 그리 보이네.”“스킨십 때문에?”스킨십 때문이라면 루나카를 강하게 제지할 생각이었다.하지만 루인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다.“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모두 그렇게 볼 걸세.”“도대체 왜?”루인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할지 잠시 고민에 빠졌다.그는 헤이온이 평범한 평민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소드마스터 스승을 두었고, 본인도 소드마스터에, 괴물 새들을 상대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엄청난 돈, 마력방어 옷, 아공간 주머니까지.‘아마도, 내가 모르는 먼 외국의 왕족, 혹은 대귀족...’뭔가 사연이 있어 숨기는 것이리라.가문이 몰락하기 직전, 보물들을 챙겨 망명 왔다든가.그래서 캐묻지 않고 있었건만, 아무래도 이상했다.‘왕족이나 귀족이라면, 아니, 평민이어도 당연히 알고 있을만한 것들을, 정말 몰라서 질문한다고?’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어딘지 남달랐다.신분과 관계없이 안하무인으로 굴기도 하고, 감싸기도 하고.차라리, 법도와 예를 아예 모르는 것이라 가정하는 편이 아귀가 맞았다.‘연기가 완벽한 건지, 어디 산에서만 살다 나온 건지.’그렇다고 하면, 이번엔 그의 능력을 설명할 수 없게 되지만.루인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자네의 검술과 재력은 자네를 귀족 이상으로 보이게 만들지. 귀족 남성이 평민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은, 그녀가 첩실이거나, 그에 준하는 관계란 뜻이라네.”“친구나 동료, 하다못해 부하라고 생각할 순 없는 거야?”“남성중에도 얼마든지 능력자가 있는데 굳이 여성을, 그것도 평민을 고르는 경우는 달리 있을 수가 없네. 사교 목적이라면 귀족끼리도 충분하니.”“하하...”헤이온은 허탈하게 웃으며 제 이마를 짚었다.아름다운 남자‘그랬구나. 그랬단 말이지.’루나카에게 선을 그어 봤자 세간의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루나카 역시, 언젠가는 자신을 받아 주리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계속 곁에 있어도 된다고 했으니,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을 거야.’이대로 가다간 어떻게 해명한들, 루나카는 자신을 원망하게 될 터였다.그것도 매우 지독한 형태로.“사실, 귀족이 아니라면?”엔델 마을에서 여럿 보았다.평민끼린 이성간에도 얼마든지 이웃, 친구, 동료로 지내는 것을.“스스로를 평민이라 주장하는 겐가? ...자넨 이미 영주가 되었네. 준 귀족에 해당하지. 소드마스터니 새로이 작위를 받는 것도 시간문제고.”이제 와서 평민이라고 한들 씨알도 안 먹힌다는 의미.심지어 루인은 자신에게 이전에도 작위가 있었으리라 여기는 것 같았다.‘돌겠네.’미간을 구기는 헤이온의 모습이, 루인에겐 이상하게 느껴졌다.글레이드 호텔에서 묵은 다음날, 아침에 둘이 같은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사우스바인 산림을 통과하던 며칠간, 헤이온이 루나카를 당연하다는 듯 제 옆에서 재우는 것도.연애란, 가랑비에 젖듯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타오르는 불길처럼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마련.루인은 둘의 관계를 후자로 정의 내렸다.“무엇 때문에 부정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군. 자넨 그녀의 신분에 과한 선물공세를 하고, 귀족 앞에서도 감쌀 정도로, 그녀를 마음에 두지 않았나?”“선물공세라 했어? 드레스가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면 좋았잖아?”“그녀의 방으로 식사를 보낼 생각이었지, 자네가 대동하리란 생각은 미처 못 했었네. 그건 사과하겠네.”‘그러니까, 그게 보통이란 거지? 결국 내가 문제란 거잖아.’시골 촌뜨기에겐 모든 것이 당혹스럽기만 했다.신분이 다른 이성끼리는 함께 다니면 그렇고 그런 사이, 그런 사이라도 식사는 따로,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 감싼 것도 특별한 것...고심하는 헤이온에게 루인이 말뚝을 박았다.“만약, 그녀를 첩실로 들일 게 아니라면, 빠른 시일 내로 정리하게. 자네에겐 여흥이라도, 그녀에겐 앞으로의 인생이 달린 문제네. 혼사가 막힐 수도 있지.”“...”“마법사가 필요한 거라면, 재력도 충분하니 더 뛰어난 마법사를 고용하면 될 게 아닌가.”“고민해볼게. 답변은 고마워.”다소 착잡한 표정으로 소파에 드러눕는 헤이온을 보며, 루인은 처음으로 그에게서 답답함을 느꼈다.‘후우, 그 쪽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루인이 볼 때, 헤이온이 진짜 고민해야 할 건 따로 있었다.여러 차례 목격했다.로건 폴칸, 그 사내의 집요하고 뜨거운 눈빛을.그가 헤이온을 바라보는 시선은, 형제나 친구를 보는 그것과는 달랐다.평정을 가장하다가도 때때로 끓어오르는 정념을 숨기지 못하고, 여과 없이 내뿜곤 했다.사고의 중심도, 행동의 기준도 오로지 헤이온.그 외엔 아무것도 안중에 없다는 듯.‘남색을 밝히는 자다. 틀림없어.’간파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건만, 자신 외에는 그를 꿰뚫어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헤이온은 로건을 마냥 편하게 생각한다.루나카는 로건이 자신을 견제하는 이유를 질투 때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는다.‘훗날 어떤 식으로든 방해가 되면 되었지, 도움이 되지는 않을 텐데.’루인은 내심 헤이온을 무척 아꼈다.목숨을 구해주고도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은 정의와 청렴.대의를 위한 분방과 기백, 실현해낼 수 있는 능력.글레이드라는 자투리땅을 내준 것은, 무엇보다 그를 시험대에 올리기 위함이었다.그가 영주로서 내린 결단들은 대체로 옳았다.완벽하진 못했지만, 기대 이상이었다.‘나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어. 이런 자들이야말로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진심으로 그가 잘 되기를 바랐다.헤이온이 무엇을 원하든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리라.‘이미 출세 가도는 열려 있다. 조금만 밀어주면 훌륭한 대영주가 될 것이야.’그런 의미에서 로건은, 루인이 보기에 절대 재목감이 아니었다.루나카 쪽은 첩실 삼으면 된다지만, 남자인 로건은 그럴 수도 없다.전투 능력은 높이 사나, 그래봐야 익스퍼트 급.‘언제 터질지 모를 화산을 굳이 안고 가야 하는가?’하지만 헤이온은 아무것도 모른다.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로건을 떼어내라 조언해봐야, 근거 없는 뒷담으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었다.헤이온은 로건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니, 도리어 이쪽과 사이가 멀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로건의 집착은 언젠가 독이 될 터.‘그런 자가 왜 하필 헤이온에게 붙어서...’루인은, 무심코 소파에 누워 있는 헤이온을 내려다보았다.그는 눈을 감고 생각에 깊이 빠져있었다.그를 들여다보고 있노라니, ‘왜 하필 헤이온인가?’ 하는 짜증스런 의문의 답을, 금세 찾을 수 있었다.흐드러진 고운 금발, 길진 않지만 풍성한 속눈썹, 뽀얗고 깨끗한 피부, 가느다란 몸선.자못 아름다웠다.같은 남자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루인의 손에서, 서류 뭉치가 후두두 떨어져 내렸다.도시 성문 밖.넷은 산 쪽으로 걸었다.“니들 전부 아공간 주머니에 들어가고 나 혼자 달리면 어때? 그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그러다간 저희 다 죽어요...”헤이온의 제안에 루나카가 정색했다.“3년을 있다 나왔어도 살아있는데.”“또 그 농담이세요? 저 마법사에요!”“...”루나카의 어조가 워낙 단호해서, 헤이온은 더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었다.‘세카트로님 레벨에서만 가능한 뭔가가 있나보지.’산 속, 나무가 적당히 우거진 곳까지 들어왔다.이제부터는 다음 행선지까지, 산맥을 따라 신나게 내달릴 참이다.“루인, 이리 와.”헤이온이 루인을 향해 팔을 활짝 벌렸다.‘안기라는 건...가?’어째서인지, 루인의 가슴이 철렁했다.망설일 틈도 없이, 루나카와 로건이 퍼뜩 나섰다.“절 안아 주시면 돼요오.”“내가 업는다.”‘데자부?’루인은 결코 겉으로 표하진 않았지만, 헤이온은 괜히 의식되고 로건은 꺼려졌다.공중에 뜨는 것은 불안하나, 혹여 떨어진다면, 헤이온이 받아줄 거란 믿음이 있었다.“으음, 날아보고 싶네. 흔치 않은 기회이니.”“호호, 좋은 선택이세요. 열심히 컨트롤할게요.”루나카가 헤이온을 향해 귀여운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굴렀다.헤이온이 루나카를 들어올렸다.그런데 모양새가 어딘지 이상했다.“저기... 헤이온님?”안아준 게 아니라, 어깨에 들쳐 멨다.“안 떨굴 테니 안심해.”“그게 아니라요,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얼굴 본다고 빨라지진 않아.”“...”루인은 봇짐처럼 들린 루나카를 보며,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심기 불편해 보였던 로건은, 한결 편해진 얼굴이었다.“속도 맞춰주지 않아도 돼.”“오, 진짜?”로건이 고개를 까딱거리며 실프를 가리켰다.“나와 계약한 이후부터 로건은 마나를 사용한 모든 움직임에 추가 가속력이 부여돼. 속도만은 너랑 비슷할 거야.”바람의 정령이니만큼 계약자의 속도를 부쩍 올려주는 모양이었다.루나카도 거들었다.“저도에요.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 제 마법도 영향을 받아요. 상성이 좋거든요.”실프를 볼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루인은 어리둥절해하며 셋을 번갈아 쳐다보았다.‘꼭 뭔가가 더 있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지.’아침에 식당에서, 분위기 험악해지는 바람에 묻지 못했던 그것인 듯 했다.“그런데 그것 말고도, 헤이온님과 있으면 묘하게 강해지는 느낌이에요.”루나카는 글레이드에서, 검은 새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토네이도를 시전 했던 일을 떠올렸다.분명, 평소의 역량 이상으로 강력하게 시전 되었다.그땐 자기도 모르는 새 클래스가 올라간 거라고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아니었다.실프가 시큰둥하게 한 마디 했다.“마법사, 감이 없진 않네.”골드 드래곤은 정령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바람의 종주.헤이온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녀는 골드드래곤인 세카트로에게 로드의 권능을 부여받은 용주였다.세카트로의 힘을 일부 공유 받은 덕에, 바람이 관장하는 능력이 자연스레 상승했다.어릴 적부터 남달리 재빨랐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본인은 물론 주변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로, 헤이온 곁에 있으면 관련 능력이 소폭 상승한다.우연인지 필연인지 이들은 모두 바람과 상성이 좋았다.“호호, 그치? 이게 사랑의 힘이 아니면 뭐겠어.”“...”실프의 어이가 급속도로 증발해버렸다.하지만 더한 자가 있었으니.“우와! 니들 부럽다. 난 뭐 없나? 후, 열심히 살아야지...”가급적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나무 사이사이를 돌파했으나, 디딘 곳이 패여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그나마 다행은, 헤이온과 로건의 비상식적인 체공시간 덕에 많은 족적이 남지는 않는다는 점이었다.“되도록 바위는 밟지 마. 다시 못 붙인다고.”패인 곳마다 실프가 바람으로 다시 흙을 쓸어 넣거나 자갈을 채우며 족적을 지웠다.워낙 속도가 빨라 놓치는 곳도 더러 있었지만, 이 정도면 경관을 거의 해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었다.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달린 흔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기도 하고.점심시간을 제외하고 내리 전력질주였다.길고 길었던 산맥의 끝 지점.아직 이른 오후건만, 저녁에 도착 예정이던 다음 행선지가 코앞이었다.산만 내려가면 되었다.잠시 쉬어가기로 하고, 개울 앞에 멈춰 섰다.“우웨에엑...”내려주자마자 루인은 개울로 달려가, 먹었던 것을 전부 게워냈다.이런 식의 장시간 비행은 처음인지라 멀미가 나고 말았다.헤이온이 다가가 등을 두드려주었다.“많이 힘들어? 치료수 줄까?”비상용으로 쟁여둔 치료수와 성수가 몇 병 있었다.루인은 고개를 저었다.멀미는 상처나 병이 아니기에 치료수를 써봐야 소용없다.상태이상이니 굳이 쓰려면 성수 쪽이 맞지만...“이런 건, 좀 쉬면 낫네.”“말하지 그랬어. 다음부턴 속도를 좀 줄일게.”“난 괜찮아...”일어서려다 휘청거리는 루인을, 헤이온이 얼른 잡아주었다.헤이온은 루인을 걱정스럽게 들여다보았다.‘너무 가까워!’루인은 헤이온의 얼굴을 가까이서 마주하자, 이유를 알 수 없이 달아올랐다.“어? 열도 있나 본데.”“이리 줘.”언제 왔는지, 로건이 헤이온에게서 뺏다시피 루인을 옮겨 받아, 대신 부축했다.‘그럼 그렇지. 루나카가 붙는 것도 질색하는데, 나와 붙어있는 꼴을 볼 리가...’루인은 어지러운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니꼬움을 느꼈다.다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부축까지 견제한다니, 참으로 꼬장꼬장했다.헤이온이 아공간 주머니에서 모포를 꺼내 바닥에 대충 깔았다.그 위로 루인이 눕혀졌다.다만 그것이, 눕힌 건지 던진 건지 애매할 정도로 불손했기에... 루인은 한마디 하고 싶었다.‘난들 멀미나고 싶었겠냐 말이다!’그러나 서둘러 눈을 감아야 했다.헤이온이 옆에 앉더니 “생각보다 많이 아픈 거 아냐?” 라며 이마로 손을 뻗어왔기 때문이다.루인은 그의 외모를 의식한 뒤로, 괜스레 신경 쓰였다.‘여성 옷을 입고, 화장까지 한다면 누가 그를 남자로 볼까?’물론, 확실히 남자였다.여자라면 두드러져야 할 신체적 특징이 그에게선 보이지 않고, 남자를 대할 때 거리낌도 없으니까.또한, 여자에게 소드마스터 스승을 붙여 검술을 가르치는 가문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루나카와 동침까지 하는 마당에 의심해서 무얼 하겠는가.여자라는 착각이 들 만큼 아름다운 외모이니, 로건이 저러는 것도 조금은 이해가 갔다.‘나 참, 그런 걸 이해해서 무얼 한다고.’그 때, 머리 근처에서 탁! 소리가 났고, 생각보다 묵직한 손이 이마 위로 덮였다.곧바로 로건의 목소리가 들렸다.“열은 없어. 조금 쉬면 될 거야.”“...”헤이온의 손을 쳐내고, 제 손을 얹은 게 분명했다.루인은 속으로 소리 질렀다.‘헤이온, 왜 아직도 눈치를 못 채!’하지만 헤이온은 무심하게도, 모포를 하나 더 꺼내 깔고는 벌렁 드러누워 버렸다.으레 그렇듯, 루나카가 헤이온 옆으로 달라붙겠거니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이번엔 얌전했다.잠시 후, 로건이 헤이온의 머리맡에 앉더니 무릎베개를 해주었다.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어째선지 로건 쪽에서 살랑바람이 불어왔다.멀미가 워낙 심했던 루인은, 덩달아 단잠에 빠져들었다.좀 떨어진 나무에 기대 서있던 루나카가 그제야 움직였다.헤이온과 루인이 잠든 것을 재차 확인하고는 로건 맞은편에 앉았다.루나카는 무표정으로, 그러나 노골적으로 로건을 응시했다.그러거나 말거나, 로건은 헤이온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저한테 볼 일 없을 텐데요.”“네, 없어요. 단지...”루나카가 빙긋 웃었다.“너무너무 의외라서요.”독사같은 놈잠시 침묵이 흘렀다.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와 개울물 흐르는 소리, 이따금 벌레우는 소리만이 들려왔다.루나카가 먼저 입을 열었다.“뭐가 의외냐고 안 물어봐요?”로건은 전혀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여전히 잠든 헤이온을 내려다볼 뿐이었다.루나카는 그의 시선에서, 상냥함 뒤로 숨긴 농밀한 끈적임을 느꼈다.‘이젠 아예 대놓고?’로건이 대꾸조차 않자, 루나카가 빈정거렸다.“제가 아는 걸, 헤이온님께 말해도 되죠?”“유언치고는 허망하겠어.”루나카는 멍해졌다가, 이내 풋! 하고 웃음을 터트렸다.“설마 했는데. 협박하는 걸 보니 진짠가 보네요.”로건은 표정하나 바꾸지 않고, 헤이온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내렸다.보란 듯이.루나카의 눈이 가늘어졌다.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드러내는 로건의 행태에, 깊숙이 묵은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왔다.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여자관계에 간섭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여자 쪽에 직간접적인 실력행사를 해대다니, 선을 넘은 행동이었다.그럼에도, 그저 오지랖이 엄청나다고만 여겼었다.신분차이가 큰 건 사실이니까.그쯤 되면 첩실 들이는 데만도 상당한 이해관계가 전제될 터였다.가진 게 없으니 어쩔 수 없다며, 꿋꿋이 넘겨왔는데.하지만 ‘어울리지 않아서 떨궈내려는 것’ 이라면, 발트 공과 연관된 행동들이 설명되지 않는다.그간은 견제가 필요치 않았을 뿐.발트 공이 헤이온과 근접하게 되자 이유 불문, 어김없이 견제가 벌어졌다.그 광경을 보고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그가 연적이었음을.‘그게 다, 질투였다니. 진짜 어이없어... 앗!’예전에 헤이온이 했던 말이 불현듯 루나카의 뇌리를 스쳤다.헤이온은 자신이 인기가 없었다고 했다.가까이 오는 사람이 없고, 다들 본체만체 했다고.인기에 파묻혀 지냈을 것 같은 사람이 저러니, 농담인 줄로만 알았었다.‘맙소사! 농담이 아니었어!’“이런 식으로, 헤이온님을 고립시켰던 거군요.”“어차피 떨어져나갈 녀석들이 조금 일찍 떨어져나간 것뿐이야.”루나카의 주먹 쥔 손이 덜덜 떨렸다.그의 뻔뻔함은 상상 이상이었다.‘이 사람은 독이야. 반드시 떨궈내야 해!’“그런다고 당신 차지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아니까 맴돌기만 하는 거잖아? 계속 그렇게 살려고?”로건은 헤이온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뭐라 지껄이든 상관없어. 난 평생 이 녀석을 지킨다.”“누가 누굴 지킨다는 거야? 헤이온님에게 당신의 수호는 필요치 않아!”“그럴지도. 하지만, 여자는 더더욱 필요 없지.”“앞으로 함께 많은 일들을 해나가자고 하셨는걸.”로건이 피식 웃었다.“잘 생각해 봐. 그 말의 의미가 여자로서 인지, 마법사로서 인지. 6서클이나 되면, 머리가 깡통은 아닐 텐데.”“남녀 간에 침대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을, 당신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이걸로, 루나카는 로건이 한 풀 꺾이리라 생각했다.그런데...“푸하하하하핫!!!!”로건이 실성한 듯 웃어재끼기 시작했다.온 몸을 들썩이며 큰 소리로 웃는 바람에 헤이온과 루인 둘 다, 잠에서 깨버렸다.헤이온이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다.“뭐야아...”“아하핫, 그게. 푸흐흐흐!!”루나카는 당혹감을 감추려 애썼다.‘미친 놈, 왜 저래?’“하핫, 마법사께서 재밌는 얘길 하셔서.”로건이 루나카에게 조소 담긴 눈빛으로 물었다.“비밀로 할까요, 말까요? 어쩔래요?”루나카는 모든 걸 폭로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하지만, 헤이온과 아무 일 없었으면서, 뭐라도 있었던 것처럼 흘린 것이 발목을 붙잡았다.헤이온을 조금이라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그 앞에서 우스워지고 싶지도 않았다.‘저 독사 같은 놈을 떨구는 건, 다음에.’루나카는 생긋 웃었다.“비밀이에요.”잠에서 덜 깬 헤이온과 루인은, 세수 하겠다며 개울로 가버렸다.루나카는 헤이온을 따라가려 했지만, 로건이 붙잡는 바람에 그럴 수 없었다.로건이 속삭였다.“난, 저 녀석이 앞으로도 쭉, 그쪽을 건드리지 않을 거라는 걸 장담해.”“...”“그쪽이 남자였으면, 그 날 침대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작작 설쳐.”루나카는 혼란스러웠다.‘아무 일 없었다는 걸 알고 있어? 남자면 죽였다고? 왜?’“녀석을 지키겠다는 건, 포괄적인 의미야. 깡통이라 못 알아들어? 입장 바꿔 생각해봐. 헤이온에게 공주정도 되는 여자가 붙는다면 순순히 접어줄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도움 안 되는 덜떨어진 것들이 붙는다면? 진심으로 행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로건은 여기까지 말하고 개울가 쪽으로 내려갔다.헤이온이 발트 공과 어쩌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테니까.루나카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로건의 말은, 요컨대 ‘도움 안 되는 덜떨어진 것들’ 로부터도 지키겠다는 뜻.자신을 포함시켜 돌려 깐 것이 분명한데도, 반박할 수 없었다.가진 게 없다는 건, 참으로 서러운 거였다.\*막 세수를 마친 헤이온 옆으로 루나카가 다가왔다.루나카는 정리된 모포를 내밀었다.“내가 하면 되는데. 고맙다.”헤이온이 모포를 받아들면서 보니, 어쩐 일인지 루나카가 힘이 없었다.늘 방긋방긋 아양 부리던 모습과 대조적이었다.그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조용한 건 조용한대로 기분이 묘했다.언뜻 본 그녀의 입술에, 붉게 핏물이 올라 있었다.“어? 너...”“아무 것도 아니에요.”“아니긴.”헤이온은 고개 돌리는 루나카의 얼굴을 잡고, 다친 곳을 살폈다.“부었잖아.”루나카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헤이온의 눈빛에 가슴이 먹먹해졌다.그의 손길은 또 어찌나 조심스러운지.‘어떻게 포기하라고 이러시는 거예요.’그러다, 순간 흠칫했다.헤이온의 어깨 너머, 뒤편에서 로건이 자신을 싸늘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루나카는 고개를 푹 숙였다.로건의 협박이 무서운 건 아니었다.다만, 부끄러웠다.그는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다.네 주제를 깨달으라고.그런데, 갑자기 몸이 번쩍 들렸다.“어...? 꺄!”놀란 루나카가 짧게 비명을 질렀다.정신차려보니 헤이온의 품에 안겨 있었다.허둥지둥하는 사이, 헤이온이 머쓱한 투로 사과를 해왔다.“미안하다.”“네?”헤이온이 루나카를 안아든 채로 산 아래를 향해 걸음을 떼었다.루나카는 황급히 루인을 공중으로 띄웠다.멀어지는 셋을 제자리에서 잠시 지켜보던 로건도, 이윽고 뒤를 이었다.루인의 상태를 고려해서인지, 이번엔 헤이온은 그다지 속도를 내지 않고 있었다.루나카는 헤이온을 올려다보았다.‘이 정도 속도면, 굳이 안아주시지 않아도 되는데...’레비테이션을 자신과 루인에게, 각각 3서클 출력으로 나눠 걸어도 충분한 속도였다.‘그걸 몰라서 이러시는 건 아닐 거고.’그러다, 문득 이쪽을 내려다본 헤이온과 눈이 마주쳤다.걱정과 미안함이 담긴 눈빛.루나카는 헤이온이 왜 저러는지 의아했다.미안할 일이 뭐 있다고, 미안하다질 않나...‘아, 혹시!’루나카의 눈이 크게 떠졌다.‘본인 때문에 다친 줄 알고??’그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헤이온은 루나카가 다친 것이 자신 탓이라 생각하고 있었다.자신이 그녀를 그런 식으로 들고 내달렸던 것 외에는, 달리 다칠만한 일이 없었다.‘괜한 짓을 했어. 제대로 안아줄 걸.’루인의 조언을 신경 쓴 탓이라 해도, 분명 자신의 잘못이었다.잘못된 방식을 택해 공연히 다치게 만들었다.헤이온은 산 아래까지 루나카를 안아주기로 마음먹었다.말뿐인 사과보다, 본심을 전하기에 이편이 나을 것이었다.한동안 말없이 산을 탔다.헤이온은, 루나카가 팔에 힘을 주어 어깨와 목을 감아오는 것을 느꼈다.루나카는 헤이온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낮게 중얼거렸다.“....못해.”“응? 뭐?”대답 대신, 목덜미가 서서히 젖어들었다.“울어? 많이 아파?”“네, 아프네요. 너무, 너무너무...”‘이런 사람을 어떻게 포기해? 잊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찢기듯 아픈데.’이렇게 자상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이용해서 뜯어먹고, 제 욕망을 채우려던 놈들 밖에.‘짝사랑도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잖아!’헤이온이 멈춰 섰다.눈물을 쏟을 정도니, 입 안쪽도 다쳤나 싶었다.“정말 미안해. 바로 치료하자.”루나카가 얼굴을 부쩍 파묻었다.보이지 않겠다는 듯.“별로 안 다쳤어요. 헤이온님 때문에 다친 것도 아니고요.”“그럼 왜?”“우응, 그렇지만 헤이온님이 입맞춰주시면 싹 나을 것 같아요.”“어떡하지. 난 그런 능력은 없는데.”루나카가 풋, 웃었다.그 모습에 헤이온은 조금 안심했다.왜 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느 때의 그녀로 돌아온 것 같아서.발길을 다시 재촉했다.\*마을에 도착했을 때, 루인은 적당한 숙소가 있는지부터 걱정스러웠다.지도에는 마을 규모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아 몰랐다.지리상 크지 않겠다고 생각은 했지만.‘이렇게 작을 줄이야.’상단 일을 하다 보면 장거리이동을 하는 경우가 썩 있다.여기저기 많은 곳을 돌아다녔다고 자부하는데도, 이 정도로 작은 촌구석은 처음이었다.주로 귀족 전용 호텔이나, 최소한 상급 여관이 있는 곳을 거점으로, 길이 잘 닦인 루트를 골라 이동했기 때문이다.반면 헤이온 일행과의 이동은, 목적지까지의 직선 루트였다.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 단점보다 장점이 크다고 여겼으나...‘이쯤 되면 내가 동행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군.’숙소 편의를 봐주겠다는 조건으로 동행하게 된 것이었다.하지만 이래서야 어떻게 편의를 봐주어야 할지.더욱이, 이들은 야영을 꺼리지 않는 타입이었다.역할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짐만 될 뿐.‘수도와 가까워질수록 큰 도시들이 많기야 하다만.’마을 안은 길이 제대로 포장되어 있지 않고, 거미줄처럼 오솔길이 나 있었다.개와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곳곳에 닭장이 있는지 병아리 소리도 들려왔다.소작농 몇과 농노들만 거주하는 곳인지, 이렇다 할 시설물이 보이지 않았다.손님방을 둘 정도로 큰 집도 없는 것 같았다.“아직 해 지기 전이니, 차라리 좀 더 가다 야영하는 것이 어떤가?”“조금만 더 둘러보고.”때마침 한 집에서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나왔다.그녀는 개 밥그릇에 먹이를 채워 넣고, 다시 들어가려다 그제야 헤이온 일행을 발견했다.일행의 행색을 빠르게 살피고는, “여행자시군요. 머물다 가시나요?” 하고 물었다.“머물만한 곳이 있는가?”“네, 안내해 드릴게요.”아주머니가 앞장서 데려간 곳은 여관이었다.간판이 없어서 여관인지 알아볼 수 없는, 허름한 건물인 것이 흠이었다.안으로 들어섰으나 관리인은 부재중이었다.“삯은 누구에게?”“운영하는 곳이 아녜요. 가끔 여행자분들이 오시면 내어드리는 쉼터인 게지요.”“그렇군. 혹시 식사를 준비해줄 수 있겠는가?”“물론이죠.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나갔던 이들이 돌아오면, 함께 준비해 드릴게요.”아주머니는 루인이 건넨 은화 두 개를 받아들고, 공손히 물러갔다.일행은 여관 안을 둘러보았다.낡고 허름했지만 있을 건 다 있었다.“아무 방이나 골라 잡으라는 건가?”“그래봐야 세 개야.”루인은, 당연히 헤이온이 루나카와 함께 방을 쓸 줄 알았다.그런데, 헤이온은 “로건, 나랑 쓰자.” 라더니, 루나카를 복도에 놔두고 먼저 들어가 버렸다.로건은 남은 둘을 쳐다보지도 않고, 헤이온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루인은 멍해졌다.‘내 조언 때문에?’그렇다 해도, 바로 태도를 바꿔 루나카를 방치할 줄은...‘정녕 첩실로 들일 생각이 아니었던 건가?’루나카도 루나카였다.평소 억척스러울 정도로 헤이온에게 달라붙더니, 웬일인지 얌전했다.루인은 불안해졌다.자신이 악수를 둔 것이 아닌지.‘차라리 루나카를 첩실로 들이라고 밀어붙이는 게 나았을까?’로건에게 기회를 만들어준 꼴이라 영 찝찝했다.“레이디, 어째서 평소처럼 헤이온을 따라가지 않는 게요?”“가끔은 친구와 있고 싶겠죠. 방해하지 않으려고요.”루인은 평소처럼 따라가라는 뜻으로 한 말이었다.왜 따라가지 않는지, 정말 그게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닌데.방해하지 않겠다니, 답답했다.‘저 자가 남색을 밝힌다고 떠벌릴 수도 없고.’그러나 루나카가 말뜻을 알아듣지 못한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괜찮아요. 헤이온님은 어디 내놔도 걱정 없으니까요. 식사 때 봬요!”오히려 다 알고 있다는 투였다.루나카는 생글생글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루인은 수긍했다.‘어차피 헤이온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그런 거군.’\*로건의 기분이 대번에 좋아졌다.하산할 때, 왜 헤이온이 루나카를 안아주는지 짜증스러웠다.생각 같아선, 여전히 천연덕스러운 루나카의 머리를 뚫어버리고 싶었다.마침 여관에 방이 세 개뿐이라, 헤이온이 루나카를 곁에 둘 것이 빤해 부글부글 끓기까지 했다.헤이온은 야영 때마다 루나카를 은근히 챙겼었다.남자들 사이에 두느니, 자기 옆에 두는 게 마음 편하다면서.그런 속도 모르고, 달라붙어 얼굴이나 붉히는 루나카를 볼 때마다 머리를...‘훗, 나와 있겠다고.’그런데 헤이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 밖이었다.그놈의 취향창밖을 내다보는 헤이온의 눈동자에, 부랴부랴 되돌아가는 아주머니의 뒷모습이 비쳐 있었다.“실프, 부탁 좀 하자. 저 아주머니를 감시해줘.”실프는 바로 움직이지 않고 로건과 눈을 맞추었다.어떡할까?로건은 당연한 걸 왜 묻느냐는 표정이었다.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언제든, 헤이온 말대로 해주세요.내 주인은 로건이지, 헤이온이 아닌 걸.헤이온은 제 주인이에요.실프가 고개를 갸웃거렸다.둘은 주종관계가 아닐 텐데... 로건의 표현을 이해하기 어려웠다.“어쨌든, 다녀올게.”“수상한 짓을 하거든 알려줘.”헤이온이 창문을 열어주려는데, 실프는 “괜찮아.” 하고는 벽을 투과해서 나갔다.“저 능력, 나도 갖고 싶네.”헤이온의 혼잣말에 로건이 쿡쿡 웃었다.“뭐 웃기다고 웃냐. 왜 감시하는지는 안 궁금하고?”“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겠지.”로건 역시 아주머니가 탐탁지는 않았다.텅 빈 마을에 홀로 남아있었다는 것부터.아무리 작은 마을이라도, 뛰어 노는 어린아이 한 명 없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굳이 감시해야겠단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일이 생기든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이었다.‘철저해서 나쁠 건 없지. 무엇보다...’오랜만에 단둘이었다.자신이 작위적으로 만든 상황이 아닌데도.그 사실이, 로건의 기분을 들뜨게 만들었다.사우스바인의 숲에서 잠시 둘이 있긴 했지만, 이후 며칠이 지나도록 둘만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작 며칠가지고 오랜만이라니 비약이 심한 듯해도, 적어도 로건에게는 그러했다.‘쓸데없는 놈들이 끼어서는.’마법사와 귀족.그 둘이 없어도, 수도까지 가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그들 때문에 헤이온과의 오붓한 시간이 사라지다시피 했으니, 눈엣가시였다.헤이온의 신분을 알기 전에는 언제나 함께일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사정이 변했다.‘얼마나 더 같이 있을 수 있을까.’앞으로 헤이온의 신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남들 눈치 보느라 하릴없이 흐르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웠다.귀족 양반은 그나마 도움 되는 면이 있다지만.시도 때도 없이 헤이온에게 달라붙는 마법사를 보고 있노라면, 자신이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왜 나만 참아야 하지? 왜 내가 밀려나있어야 하지?’그래서 마법사가 보든 말든, 자신의 방식대로 애정표현을 했던 것이다.“나 이상해?”너무 빤히 봤는지, 헤이온이 괜스레 제 머리를 정리했다.정리할 게 없는데도 열심인 모습이 귀여웠다.돕는 척, 헤이온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매만졌다.“아니. 하고 싶어서.”“또, 또 주어 집나갔지.”로건은 말을 돌렸다.“쉬어. 목욕물 받아올게.”“번거롭게 뭘. 나가서 씻자.”“안 돼. 물이 차.”“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거 신경 썼다고.”“이제 가능하면 신경 쓸 거야.”로건은 ‘얘가 왜 이래?’ 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헤이온을 뒤로 하고, 밖으로 나왔다.세카트로의 궁전 욕실을 쓰면서부터 다짐하게 된 것.헤이온이 씻을 땐 되도록 고급 입욕제와 온수를 쓰도록 해주고 싶었다.호텔에는 입욕제는 물론, 마법으로 온수가 바로 나오는 욕실이 준비되어 있어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이곳에서는 엔델 마을에서처럼 물을 길어 와야 한다.엔델 마을 시절, 한겨울 외에는 장작 낭비라며 물을 데우지 않았었다.때로는 몸이 시렸는데도.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나, 이제 계절 상관없이 온수를 고집할 작정이었다.그깟 장작이 아까워봐야, 몸보다 아까울까.평생 구석진 시골에 사는 가난한 평민들의 관점이란.‘그딴 건 됐어.’혹시 몰라 아공간 주머니에 입욕제를 몇 개 꽁쳐두길 잘했다.‘고급품이 아니라 아쉬운걸.’돈이 많은 건 헤이온이지, 자신이 아니었다.바넷 기사단의 부단장이 된지 얼마 안 된 터라, 주머니사정이 녹록치 않았다.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고, 야영하면서 계곡물에 담그는 것보단 훨씬 나을 것이었다.“얍!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으앗!”언제 따라 나왔는지, 헤이온이 뒤에서 폴짝 뛰어올라 등에 매달렸다.허리에 제 다리를 감아오는 통에, 강제로 어부바를 해주게 되었다.옛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어릴 땐 자주 업어줬었는데.’어느 정도 자라난 뒤로는 해줄 일이 없었다.누구께서 지나치게 건강하고 튼튼한데다 어리광도 없는지라.“쉬라니까 왜 나와.”“대련하자!”정말이지 지나치게 건강하고 튼튼...루나카는 창가에 앉아, 마당에서 대련중인 두 사람을 내다보고 있었다.벌써 꽤 시간이 지나, 서편에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그런데도 둘은 그만둘 생각이 없는지 계속해서 검을 맞부딪혔다.루나카는 헤이온을 줄곧 주시했었지만, 연습용 검을 챙기는 모습을 보진 못했다.‘보라돌이가 챙겼겠지.’이러니저러니 해도, 인정해야 했다.보라돌이는 헤이온의 곁에 오래 있었던 만큼,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할지 파악하고 움직이는 요령이 좋았다.반면, 자신은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내내 붙어 다녔어도, 헤이온이 무얼 좋아하는지 알아낼 수 없었다.기호나 취향에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해야 하나?되는대로 대충, 뭐든, 아무거나- 라는 느낌.‘나도 좋아하시는 거 챙겨드리고, 웃는 모습 보고 싶은데.’예쁨 받고 싶다던가, 첩실로 자리매김 하고 싶다던가 하는 욕심은 버렸다.보라돌이가 했던 말에 수긍하기 때문이었다.자신 역시, 덜떨어진 사람이 헤이온에게 달라붙으면, 응원하기보다 방해하고 싶을 것이었다.그 ‘덜떨어진 사람’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쓰라리지만, 객관적 사실이긴 했다.‘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었어. 잘 안 돼서 그렇지.’루나카가 어린 시절 일찍이 깨달았던 것.자신이 고아라는 사실이었다.보육원에서는 원생들의 자립을 위해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했는데,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 후원자와 연계해주기도 했다.귀족들은 영지를 관리하는 데에 이런저런 인력이 필요하므로, 될 성 부른 새싹은 찜해놓는다는 개념이었다.자신을 후원해준 귀족은, 마법을 공부할 것을 제안했다.영지 내에 독채를 마련해 주고 가정교사를 붙여주니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가진 거라곤 남들보다 조금 잘 돌아가는 머리뿐이라, 죽기 살기로 마법을 공부했다.여럿이 부대끼던 낡은 침대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으니까.해가 갈수록, 후원자는 눈에 띄게 상냥해져갔다.나이가 꽤 찼을 무렵에는, 다들 그랬다.영락없이 아버지와 딸 같다고.곧 양녀로 입양하실 모양이라고.아가씨가 되어도 자기들을 잊지 말라고.‘열심히 공부해서 예쁨 받는 거라고 뿌듯해하던 내가 등신이었지.’후원자가 한밤중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을 때, 열지 말았어야 했는데...뒷일이 두려워 그동안 배운 마법은 쓰지도 못하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빌고 또 빌었다.일을 마친 그는 만족한 얼굴로, 사랑한다고 속삭였다.첩실로 앉혀줄 테니 기다리라며 돌아갔지만...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찾아온 사람은 마나님이었다.온갖 모욕과 매질이 이어지는 동안, 후원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무서웠을 뿐인데, 억울한데,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죽도록 맞다가 살기 위해 도망쳤고, 그 일로 소위 ‘후원 먹튀’ 가 되어버려 수배가 걸렸다.후원받는 조건이, 성인이 되면 영지를 위해 일정기간 봉사하는 것이다 보니, 도망친 이상 사기꾼이나 다름없었다.평민을 속인 것도 아니고 귀족을 속였으니, 잡히면 최소한 중형.변변한 곳에 취직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했고, 그렇다고 범법을 저지르며 살고 싶진 않았다.그래서 택한 것이 트레져 헌터.주인이 있는 것을 가져가면 도둑질이지만, 주인이 없는 것을 가져가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위험할 때도 있고 허탕 칠 때도 있지만, 이따금 대박이 터지면 한동안은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특히, 혼자 움직여도 된다는 점이 안성맞춤이었다.그렇게 방방곡곡을 떠돌다가, 불문에 붙일 테니 동업을 해보자는 무도가를 만났고, 그 뒤는...‘공부머리랑 세상머리는 전혀 다른 거더라고. 덜떨어진 거 맞지, 뭐.’불문에 붙이겠다는 말은, 곧 ‘난 네 약점을 쥐었다’ ‘내게 따를 때만 불문’ 이었다.무도가 역시, 심한 짓을 하고 난 뒤에는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했다.그 말이 면죄부라도 되는 건지.사우스바인에 드래곤의 레어가 있다는 소문은 오래부터 있었다.관심은 있었지만 이렇다 할 실마리가 없어 잊고 지냈는데, 운 나쁜 호구 둘이 무도가에게 걸려들었다.그래도 마냥 호구들은 아닌지, 신용보증 길드에 등록해 파티를 맺자고 했다.수틀리면 같이 도망치자는 무도가의 말에, 일단 길드 지점으로 갔다.떨리는 마음으로 본명을 적어 내고 얼굴을 드러냈는데, 아무 문제없이 등록되었다.그때 알았다.이유는 모르지만, 수배령이 거둬졌다는 걸.그렇다 해도 당장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기분이 묘했다.아무튼 헤이온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여전히 엉망으로 살고 있었을 터였다.두 번째 만났을 때, 헤이온이 무도가에게 타격을 입혀 놓은 것이 기회를 만들어주었다.글레이드 상공으로 검은 무언가가 덮쳐들자, 헤이온과 보라돌이는 자신들을 두고 그리로 가버렸다.그 때까지만 해도, 헤이온을 꼬드겨 정보를 캐야겠다는 생각뿐이었기에 어안이 벙벙했다.도망칠 결심을 한 것은 무도가가 쉬어가자며 주저앉았을 때였다.멀쩡한 척 하지만, 어딘가 타격을 받았구나, 기회는 지금뿐이지 않을까.저 놈에게 타격을 입힐 만큼 강한 사람은 이제와 처음 만났다.다음 기회는 언제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압박감.글레이드를 향해, 최고 출력의 레비테이션을 썼다.차라리 보증길드에 자수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였다.놈이 작정하고 추격해오면 언제고 따라잡힐 테니,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채무를 변제해나가는 것이 베스트.‘그땐 그렇게 생각했었지.’글레이드 상황이 영 좋지 못해 나섰다가, 헤이온에게 칭찬 받고, 어쩌다 보니 협조하게 되었다.사우스바인에서 덤벼들었던 건 자살행위였구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었다.그것만으로도 경외하기 충분한데, 무도가를 떨궈 주고, 파티원들에게 자신의 선처를 부탁해 주기까지.헤이온을 좋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라면,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었다.‘진심으로, 헤이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이제 내 바람은 그것뿐이야.’무엇을 해드려야 좋아하실까.보라돌이 말대로 여자에게 관심이 없는 것만은 분명했다.이 방법은 패스.정작 마음에 있는 남자는, 제발 건드려 달라고 들이대도 손끝 하나 대지 않는다니.‘인생...’혼자 생각해 봐야 취향도 뭣도 모르겠고.루나카는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점심 전부터 내리 달려놓고 피곤하지도 않은지, 대련이 끝날 기미가 없었다.로건에 비해 체구가 작은 헤이온은 요리조리 움직이느라 바빴다.그럼에도 정말 즐거워보였다.잘 웃는 사람이 아닌데, 해맑게 웃고 있었다.‘검술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천상, 검술 바보... 어?’루나카는 의자에서 확 일어났다.의자가 뒤로 넘어져 쿠당탕 큰소리가 났지만, 루나카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나, 왜 이렇게　덜떨어진 거야? 헤이온님의 취향, 저거잖아!’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할 무렵에서야 대련이 끝났다.헤이온은 만류하는 로건을 잡아끌고 앞장서서 수조 앞으로 갔다.양동이에 가득 차도록 물을 길어 머리 위에 쏟아 부었다.로건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따라서 물을 끼얹었다.‘내가 해주려던 건 이게 아닌데.’둘은 뚝뚝 떨어지는 물을 대충 털어내고는 방으로 들어갔다.나올 때와 달리, 현관을 거치지 않고 창으로 곧장.로건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축축하게 달라붙은 윗옷을 벗었다.창밖으로 내밀어 꾸욱 짜내고 돌아보니, 헤이온이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왜 그렇게 봐?”“탐나서.”“...”로건은 ‘네 거야.’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을 억지로 삼켰다.헤이온의 말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닐 테니.헤이온은 한숨을 쉬었다.“하아, 새삼 부럽다.”“뭐가?”“너, 나랑 붙으면 솔직히 편하지? 비슷한 거 먹고 자란 것 같은데 왜 너만 크냐? 나 몰래 뭐 먹었어? 불어.”“푸하핫!”로건이 큰 소리로 웃었다.탐나고 부럽다는 건, 체격 얘기였다.‘진짜 못 말려.’“공격에는 좋지만, 방어에는 별로.”“최고의 방어는 최강의 공격이야.”로건은 입술을 삐죽거리는 헤이온이 너무 귀여워서, 또 웃었다.“그렇지도 않아. 너처럼 빠른 타입이 파고들면 정말 막기 힘들어.”“다 막으면서.”“난 죽지 않기 위해 막지만, 넌 죽이려고 찌르는 게 아니니까.”“말발 오졌고~. 그래도, 넘어가 줄게.”헤이온은 뒤돌아 윗옷을 벗었다.창틀로 휙 던져 걸쳐두고, 젖은 머리카락을 한 데 모아 잡았다.물기를 쭉 짜내고 새 옷을 꺼내러 가려니, 뒤에서 로건이 어깨를 붙잡았다.“?”헤이온이 돌아보기도 전에 로건의 팔이 교차되며 헤이온을 화악 끌어안았다.존재감 약한 또라이헤이온이 뒤돌아 윗옷을 벗기 시작할 때부터, 로건의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헤이온은 자신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았다.엔델 산에서, 훈련이 끝난 뒤 종종 윗옷을 벗어던지고 계곡물로 뛰어들곤 했다.결코 앞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자극적이었다.폴리모프를 쓴 상태니 괜찮다는 건지, 뒷모습뿐이니 괜찮다는 건지.입버릇처럼, 정녕 남매라 생각해서 그런 건지.뭐든, 이제 나이가 찼으니 경계할 만도 한데, 여전했다.덕분에 반라 뒷모습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지만.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었다.‘조금이라도 의식할 순 없어?’헤이온은 웃옷을 창틀로 던져 걸쳐두고, 머리끈을 풀었다.젖은 머리카락이 등을 타고 흐르듯 붙어 있었다.떼어내 치워버리고 싶다고 생각한 순간, 헤이온이 머리카락을 한 데 모아 잡았다.그 바람에 미끈한 근육질 등이 훤히 드러났다.숨이 턱 막혔다.‘넌 너무 무방비해!’그녀의 등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숨을 토해냈다.헤이온은 무심하게 머리카락의 물기를 쭉 짜낼 뿐이었다.새 옷을 꺼내러 가려는 헤이온의 어깨를, 충동적으로 붙잡았다.헤이온이 돌아보기도 전에, 그녀 앞쪽으로 팔을 둘러 힘껏 끌어안았다.마르지 않은 물기 탓에 둘의 살갗이 끈적이며 달라붙었다.뜨겁고 축축한, 그 느낌이 좋았다.‘너도 나와 같았으면 좋겠어.’여러 번 포옹했었지만, 반라로 포옹하기는 처음.헤이온이 의미부여 해주길 진심으로 바라며 질러버렸다.이대로 마법사와 귀족 탓만 하고 있어봐야, 이루어지는 건 없을 테니까.시간이 넘쳐난다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시간일 뿐.곁에서 맴돌기만 하다 찌그러지고 싶지 않았다.마음을 제대로 전해보기나 했던가.‘전하긴 했지. 몰라주니 문제지.’그렇다고 무작정 밀어붙이자니, 그간 쌓아온 추억까지 모조리 잃을까 두려웠다.‘빌어먹을 친구, 빌어먹을 가족.’헤이온의 인식을 바꾸는 게 우선이었다.자신은 남자라고.언제까지나 너의 곁에 있고 싶고, 너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함께 하고픈 남자라고.교차된 팔을 뻗어, 헤이온의 어깨를 어루만졌다.헤이온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싫지는 않은지 얌전히 있었다.싫었다면, 이미 자신은 패대기쳐져 저만치 바닥에 누워 있었을 것이다.‘어디까지 해볼 수 있을까?’전에, 헤이온에게 키스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런 건 나중에 애인과 하라는 말을 들었다.그 즈음이 마지노선일지도.‘거부반응 나올 때까지 가보자.’강제로 진행하지는 않되, 이후에는 그 지점부터 어필해 들어가면 된다.난 너와 그 이상을 하고 싶다고.친구나 가족으로 남고 싶은 게 아니라고.로건은 헤이온의 턱을 감싸 쥐듯 잡고, 제 쪽으로 들어올렸다.보드라운 분홍빛 입술이 시야를 메웠다.막상 입 맞추는 시늉을 하려니, 떨려왔다.본의 아니게 뜸들이던 중, 헤이온이 말했다.“난 괜찮아.”그 말에, 로건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키스 해버려도 괜찮다고?’“안 추워.”“...”다른 의미로 숨이 턱, 막혔다.설마하니 보살핌으로 받아들일 줄이야.자신을 올려다보는 헤이온의 금빛 눈동자엔, 순수와 무심이 서려 있었다.‘이게 추울까 봐 안아주고, 괜찮은지 살핀 걸로 보여? 장난해?’부아가 치밀어 올랐다.대체 왜 이 정도로까지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건지.갓난아기 때부터 함께 자란 것이, 행복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생각이 바뀌었다.로건은 헤이온의 얼굴을 두 손으로 꽉 붙들었다.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그리고 입술을 갖다 대려는 그 때.“아주머니, 수상해!!”실프가 다급히 외치며 날아 들어왔다.“하...”로건의 손에서 힘이 절로 빠져나갔다.자정 무렵.헤이온은 쉬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저녁 내내, 로건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말 많은 타입이 아닌 건 알지만, 굳은 얼굴로 아예 한 마디도 않으니 신경 쓰였다.풀어주고는 싶은데, 이유를 묻기가 망설여졌다.‘아까 그거, 어쩌면...’얼굴이 너무 가까웠다.얼마 전, 키스하고 싶다던 것이 번뜩 떠올랐을 정도로.장난치려던 거라고 여기기엔, 가라앉아있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수많은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살짝 눈을 뜨자, 로건의 뒤통수가 보였다.로건은 줄곧, 벽 쪽으로 돌아누워 있었다.그의 뒷모습이 참 낯설었다.‘어릴 때부터, 같이 누울 때면 마주보고 누웠었는데.’잠들었는지 균일한 숨소리.그 숨소리조차 낯설어서, 비로소 깨달았다.로건이 잠든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걸.‘먼저 잠드는 건 항상 내 쪽이었던 것 같아.’헤이온은 로건의 뒤통수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창가에 앉아있던 실프가, 그런 둘을 지켜보다 못해 로건을 불렀다.로건....이번에도 역시였다.감시 결과를 보고하러 왔을 때, 보았다.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눈빛으로 손을 떨구던 로건을.그 이후부터 그는 말이 없었다.우린 이어져있어. 잠들지 않았다는 걸 알아. 대답해 줘.-...-헤이온이 계속 잠들지 못하고 있어. 재워도 되는지 물을게.그제야 로건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그런 것도 가능해요?응.재워요.실프가 주문을 외우자 헤이온의 눈이 스르륵 감겼다.로건은 뒤돌아, 헤이온을 들여다보았다.거짓말처럼 깊게 잠들어 있었다.-혹시나 해서 말해두는데, 어떤 경우든 저한텐 쓰지 마세요.응.로건의 큼지막한 손이 헤이온의 뺨을 덮었다.달빛 어린 얼굴 구석구석, 사랑스럽다는 눈길로 쓸어내렸다.딥 슬립의 절대수면이 유효한 시간은 앞으로 30분 정도야.그렇군요.로건은 헤이온의 이마에 살짝 입 맞추었다.하지만 그게 다였다.무언가를 더 하려 들지는 않고,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실프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로건 주변을 포르르 돌아다녔다.저기... 이해 못 했어? 30분 동안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깨어나지 않는다니까.알아들었어요.-아무것도 안 해?실프의 말은, 마치 헤이온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종용하는 것 같았다.-무슨 말이 하고 싶어요?-로건은, 헤이온과 짝짓기를 하고픈 거 아녔어?“푸학!!”로건이 크게 뿜었다.순간적으로, 헤이온을 살폈다.절대수면인지 뭔지, 효과가 좋아 다행이었다.조금 얼빠진 얼굴로 입가를 닦는 로건을 보며, 실프가 고개를 갸웃거렸다.아니야?아니라곤 못하겠지만, 표현이 너무 적나라해서요.내가 방해해서 화났던 거 맞구나. 이제, 마저 해.실프는 뒷짐 지고 뿌듯한 표정으로 제자리 날갯짓을 했다.로건은 짧게 한숨을 쉬었다.마저 하라고 할 거면, 자리를 피해 주던가요.곰이랑 토끼는 신경 안 쓰고 하던데.으아아아...알았어, 나가 있을게.로건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말이 그렇단 거지, 아무것도 안 해요.어째서?서로 마음이 통한 게 아니면 의미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복잡하네. 인간은 다 그래?-다 그렇진 않지만, 저는 그래요. 인간들 사이에선 강제로 하면 범죄기도 하고.아까, 강제로 하려던 거 아니었어?실프의 무구한 돌직구에, 로건은 변명할 수 없었다.하려던 건 키스지만, 어쨌든 강제로 하려던 건 사실이니까.예... 그래서 고마워요. 방해해 줘서.실프는 다시 창틀에 내려앉으려다 급히 날아올랐다.-그럼 화 풀 거야? 풀렸어? 풀린 거 맞지? 안아줘!!로건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오세요.실프는 꺄르르 웃으며 날아가, 로건의 품에 포옥 안겼다.로건은 서너 살 아이만큼 자란 실프를 다독이면서, 동생이 있다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그 때였다.여관을 에워싸고 다가오는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왔다.로건은 덤덤했다.올 게 왔을 뿐.일어나서 겨우살이나무 활을 꺼내들었다.-내가 방해했을 때, 로건도 이런 기분이었구나. 나, 지금 너무 화나!...로건은 꺼낸 활을 도로 집어넣고, 크리셀라 카토스를 꺼냈다.\*백여 명의 도적떼는, 여관을 포위한 후 잠시 대기했다.여관은 불 켜진 방 없이 고요했다.포위진 후방에서, 도적떼 대장이 식모에게 물었다.“확실하겠지?”“그러믄요. 일부러 늦게 갖다 줬더니, 삭삭 긁어 먹었더라고요.”“말고.”“예에, 확실히, 금발 소년이 엄청 곱상했습니다요. 마음에 드실 거여라.”“좋아. 금발 녀석과 여자는 해독제를 먹이고, 나머진 죽여라. 기분이다! 금발 녀석을 잡아오는 놈에겐 특별 포상이다!”“넵!”대장의 명령에 부하들이 저마다 무기를 꺼내들고, 신나서 우르르 달려갔다.대장은 부하들의 뒤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식모의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 건수는 대박이었다.‘거저 굴러들 오니, 참 편한 세상이야.’식사를 먹었다니 여럿이 올 필요 없었지만, 신입들의 사기를 올리려 전부 데려왔다.‘흐흐, 기대된다. 어?’여관 지붕 위,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황금빛이 대장의 눈에 스쳐지나갔다.목격 직후, 쉐에엑- 공기를 가르는 섬찟한 소리가 간극 없이 잇따랐다.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대장은 잘 알고 있었다.‘활! 활이다!’시위를 당기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눈 몇 번 깜박인 새, 전 방향 앞 열이 무너졌다.‘젠장, 이 속도면...! 최소 익스퍼트!’“버클러를 머리 위로 들어! 없는 놈은 후퇴! 놈은 지붕에 있다, 무차별 공격해라! 돌팔매든 뭐든!!”대장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함질렀지만, 두 번째 열까지 무너지면서 서로 뒤엉켜 아비규환이었다.정규군도 아닌 도적떼에게 일사 분란한 움직임을 기대하긴 어려웠다.정신 차리고 방패를 위로 치켜든 부하가 몇 있었지만, 그마저도 부질없었다.화살은 방패와 머리를 넓은 반경으로 꿰뚫은 걸로도 모자라, 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면 깊숙이 박혔다.‘보우 마스터?! 이런 곳에 왜!’신급 무기에 실프의 보조가 더해져 관통력이 배가된 것이지, 로건이 실제 마스터인 건 아니었다.어쨌거나 도적 대장은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망할 년! 삭삭 긁어 먹어?! 휴대한 무기가 없어?!”“정말-...”식모는 하려던 말을 다하지 못했다.대장이 휘두른 검에 그녀의 머리가 목에서 떨어져 나왔다.분노로 가득 찬 대장은, 식모의 머리가 땅에 닿기도 전에 발로 차 멀리 날려버렸다.그러는 사이에도 부하들은 퍽퍽퍽, 스러지고 있었다.“마나 유저들에게 버클러를 넘겨! 대형을 짜라! 나머지는 뒤로 물러서!”버클러를 앞쪽으로 촘촘히 모아 방어대열을 완성했다.후두두두, 가차 없이 날아와 박히는 화살.화살이 틈새를 뚫고 들어올 때마다, 부하들이 비명을 질렀다.“버텨! 버티면 승리한다!”적이 익스퍼트 급이라면, 다소 피해는 있겠지만 수적으로 우세하니 승산이 있었다.하지만 마스터라면 가망이 없었다.그럼에도 대장이 후퇴하지 않는 이유?상대가 궁수이기 때문이었다.활만 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화살도 필요한 클래스.‘한 통에 많아야 20발. 여분으로 두, 세통 더 있다고 해도 거의 다 써갈 거다.’속사에 방해되고 기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화살 통을 여러 개 지고 다니는 궁수는 없었다.많든 적든, 가진 화살을 전부 소모하고 나면 근접전으로 접어드는데, 궁수들은 대개 버클러와 단검을 쓰며 발악했다.그 시점부터는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검을 잘 쓰면 검사를 하지, 궁수를 할 일은 없다고 봐도 좋았다.제국에서 검사의 대우가 유독 좋기도 하고, 근접 병술로는 검술이 보편화되어 굳이 다른 것을 배울 필요가 없었다.타 병과는 최소인력으로 굴러가는, 형식적인 병과였다.특히 활은, 원거리 특화 무기면서도 마법에 비하면 존재감이 약하다고 할까.아무튼 현재 상황에선, 적이 비인기 종목을 판 또라이라 다행이었다.‘싸울 수 있는 자는, 저 놈 혼자인 것 같군.’대장은 버클러에 마나를 최대한으로 응집시키고 이를 악물었다.‘맘껏 까불어라. 속사가 끝나면, 네놈도 끝이다.’“조금만 버텨! 화살 떨어지면 돌격한다!”“넵!”그런데, 뭔가 이상했다.화살이 끝도 없이 날아왔다.버클러에는 화살이 빼곡했고, 조금만 더 박히면 쪼개질 지경이었다.마나도 소진되어가고, 팔이 뻐근하게 아려왔다.부하들이 대체 몇이나 죽어나간 건지, 피비린내가 진동했다.버클러 틈새로 지붕을 힐끔 보니, 한 명이 더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그것도, 날아서.올라온 자의 양 손이 빛나는가 싶더니, 세찬 바람이 불어 대열이 무너졌다.“으악! 대장님!”“크아악!”넘어진 부하들 위로 화살의 비가 쏟아졌다.‘틀렸어... 다 죽는다.’대장은 눈을 질끈 감았다.헌데, 화살 박히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다들 겁에 질려 열심히 비명을 질러댈 뿐,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어찌된 일인가 눈을 떠보니, 비처럼 쏟아지던 화살들이 전부 저만치 엉뚱한 곳에 떨어져 있었다.카랑카랑한 여자의 외침소리가 들려왔다.“미친놈아, 그만해!!”로건과 루나카의 대립루나카가 도적떼의 발소리를 듣고도 서두르지 않았던 것은, 헤이온과 로건을 믿기 때문이었다.‘나까지 나설 필요 없어. 그보다는...’둘이 적의 침입을 허용하리라 생각하진 않지만, 만에 하나 투척 무기가 날아 들어올 수 있으니, 발트 공을 호위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창문과 발트 공 주변에 실드 마법을 치고, 상황이 종료되길 기다렸다.화살 날아가는 소리가 줄줄이 들리고, 비명소리가 이어졌다.검 맞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아 의아했지만, 어련히 알아서 하겠거니.그런데, 도무지 끝나지 않는 것이었다.‘이쯤이면 끝날 때가 됐는데?’도적 중에도 강한 자가 있을 수 있지만.헤이온과 로건 콤비를, 아니, 둘 중 한 명이라도 애먹일만한 자가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무슨 일인지 창밖을 빼꼼 내다보았다.‘미친!’여관 주변이 너부러진 시체로 가득했다.보자마자 경악해서 창을 통해 지붕으로 날아올랐다.버클러에 의지해 목숨을 부지중인 도적 잔당들에게, 로건이 쉬지 않고 화살을 쏘아대고 있었다.이쪽은 힐끗 조차 않고.화살이 빼곡히 꽂혀 금방이라도 쪼개질 것 같은 버클러 위로, 끊임없이 화살의 비가 쏟아졌다.휭휭휭휭휭- 무표정으로 시위를 당기는 로건의 옆모습은, 섬뜩하기까지 했다.‘다 죽일 셈이야. 너무 심해!’루나카는 도적들을 향해 윈드 밤을 날렸다.압축된 바람 구체가 빠르게 날아가 버클러 대열 중앙을 강하게 때렸다.그 충격에 대열이 무너진 도적들이 혼비백산했다.저런 지경이니 더 공격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려던 루나카의 의도는, 멋지게 엇나갔다.로건은 한 차례 한숨을 쉬었을 뿐, 손을 멈추지는 않았던 것이다.죽이라고 도와준 게 되어버렸다.스러진 도적들은 화살의 폭우 앞에, 처절히 몸부림쳤다.가운데 서 있던 자는 모든 전의를 상실했는지, 망연히 눈을 감았다.루나카는 이를 악물고, 윈드 밤을 캐스팅했다.동일 마법을 연달아 캐스팅할 경우, 고속 영창이 가능해 다행이었다.윈드 밤이 날아가는 화살을 뒤따라가, 집어삼키듯 격추시키며 궤도를 틀어 놓았다.그제야 로건이 손을 멈추었다.루나카가 악에 받쳐 외쳤다.“미친놈아, 그만해!!”로건은 턱을 한 번 까딱해보였다.시건방진 태도에, 루나카는 질려버리고 말았다.영창이 조금만 늦었어도, 도적들은 모조리 죽었을 것이었다.두목만 무력화시켜도 와해되기 쉬운 무리들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꼭 죽일 필요까진 없는데.너무 지독했다.“관청에 넘기면 되잖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로건은 대꾸하지 않았다.대신, 보란 듯이 한 발, 건성으로 시위를 퉁겼다.도망치던 잔당들 중 선두가 픽 쓰러졌다.루나카는, 그런 로건에게 힘을 보태는 실프도 원망스러웠다.“정령이면서, 왜 무의미한 살생을 말리지 않는 거야? 너희 그런 거 싫어하잖아?”“무의미하지 않아. 저들이 먼저 로건을 죽이려 했어.”“죽이지 않고 제압할 수 있는데도 굳이 죽이는 걸, 놔둔다고?”“로건이 용서한대도, 내가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기가 막혔다.간혹, 존재의 본질적 척도보다 주인을 우선시하는 정령들이 있긴 하지만, 이 실프는 유독 외골수였다.‘그 정령사에 그 정령이네.’“헤이온님은? 어디 계셔? 방?”로건은 한 번 더 한숨을 쉬었다.-저거, 재워버릴 수 있어요?나보다 우위 서클이라, 디스펠 해버릴 걸. 방심하고 있을 땐 가능하지만, 지금은...-그럼, 도망치는 놈들을 부탁할게요. 발만 묶어둬도 충분해요.응!실프가 도적떼를 추격하러 날아가자마자, 로건은 낯빛을 확 바꾸고 루나카를 비꼬았다.“몰랐는데. 굉장히 자비로우시네.”“괜한 살생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뿐이야.”“한 놈 정도는 살려둘 생각이었어.”“그걸 말이라고 해?”“의심 없이 저녁을 먹었다면, 저들을 상대할 힘이 없었다면, 죽은 건 우리였겠지.”“안 먹었고, 힘 있잖아. 합리화하지 마.”루나카는, 도적들을 감싸고 싶은 건 아니었다.하지만, 교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묵살한 로건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되지도 않았다.‘게다가... 가지고 놀았어.’버클러를 모아 쥐고, 힘겹게 버티던 도적들.로건이라면, 몇 발 되지 않는 화살로도 그들을 모두 죽일 수 있었을 것이다.일부러 약하게 여러 발 쏘아서, 그들이 희망을 품도록 했다.살려둘 생각 전혀 없었으면서.버둥거리는 개미를 아주 서서히 찍어 누르듯이.노려보는 루나카에게, 로건이 조소를 흘렸다.“살아있으니 배부른 소릴 할 수 있지.”로건은, 예전에 도적들이 쏜 화살에 폐를 뚫렸을 때를 떠올렸다.헤이온이 아닌, 자신이 맞은 건 정말 다행이었지만.그녀를 남겨두고 죽는다는 사실에, 마음을 전하지 조차 못했다는 생각에 얼마나 애통했던가.죽음의 문턱이란, 그런 것이었다.고작 말 한마디 더 할, 그 찰나의 시간이 모자람을 서글퍼해야 하는.힘이 있으면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는 논리는, 이상론에 불과했다.당하기 전에 해치우는 것이야말로 정의.“폐에 구멍이 나 보면, 정신이 들 거야.”로건의 말에 루나카는 흠칫했지만, 스스로를 다독였다.‘쫄지 마, 쫄지 마. 지가 뭘 어쩌겠어.’그러나 다음 순간, 온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다.로건이 자신에게 활을 겨누었기 때문이다.어퍼와 로어가 휘어들어가 있었다.단순히 겨누기만 한 게 아니라 시위를 당기고 있다는 증거.루나카의 안색이 창백해졌다.‘설마 진짜로 쏘진 않겠지? 아, 아니. 저 놈은 그러고도 남아.’이제 와서 캐스팅해봐야 늦었다.이길 자신도, 피할 자신도 없었다.황금 활을 든 로건은 마스터 급에 해당한다.익스퍼트 급이라도 이 정도 근거리에서 갑자기 맞붙어야 한다면 전적으로 불리했다.마법사가 캐스팅 시간을 벌 수 없다는 건 치명적이었다.‘차라리 덤덤히 나가자.’“쏠 수 있겠어? 헤이온님이 널 어떻게 생각하실까?”역효과였다.어두운데도 확연히 알 수 있을 만큼, 로건의 표정이 싸늘해졌다.“네까짓 게 헤이온을 팔아?”로건은 시위에서 손을 놓았다.“!!”화살이 루나카의 귀 옆 공기를 날카롭게 찢으며 스쳐지나갔다.귀걸이가 부서지고, 잘려나간 머리카락 몇 가닥이 공중에 나풀거렸다.루나카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수십 발의 화살이 몸 윤곽을 따라 스치는 동안, 눈도 깜박이지 못하고 동상처럼 굳어 있었다.화살이 스친 곳마다 옷이 쫙쫙 찢겨 넝마가 되었다.맞지도 않았는데, 곳곳에 칼에 베인 듯 길쭉한 상처가 나고, 핏물이 올라왔다.“신념을 설파하려거든, 남을 팔아 모면하려 들지는 말았어야지.”“...”로건은 이번엔 루나카의 가슴을 겨누었다.“기대할게. 나에게도 자비롭길.”로건이 시위를 놓음과 동시에, 루나카는 눈을 꼭 감아버렸다.하지만 수초가 지나도록, 화살은 날아오지 않았다.루나카가 아직 살아있다는 안도를 느끼며 눈을 떴을 때, 로건은 지붕 위에 없었다.‘장전... 안 했었구나...’뒤늦게 온 몸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시체더미 가운데에서 오래 있고 싶진 않았던지라, 루인은 동이 트자마자 모두를 불러 모았다.“꽤 많았더라. 수고했어.”모두 모이고 나서, 헤이온이 루나카에게 한 말이었다.실상 로건이 전부 해치운 거지만, 헤이온은 둘이 수고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어떻게 저걸 모르고 잤지? 미안.”루나카의 눈빛이 흔들렸다.‘그게... 끝?’루나카는 시체더미를 본 헤이온이, 로건을 힐책하길 바랐다.그런데 로건이 한 짓에 자신까지 얹혀 칭찬받을 줄이야.발트 공도 아무 말 없었다.지나가는 말로라도 훈계할 수 있을 텐데, 전혀.그러고 보면, 셋은 귀족이었다.‘죽은 건 평민들이니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걸까?’새벽에 로건에게 욕을 했단 걸 알면, 자신에게 벌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어째선지 보라돌이가 입 다물어주고 있긴 하지만.’루인이 로건에게 물었다.“그래도 몇 명은 살려 두었겠지?”“옆 건물에 감금해 뒀어요.”“잘했네.”루나카는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다.발트 공은 몇 명이라도 살려둔 걸 칭찬하고 있었다.전부 죽이지 않아 다행이라고, 앞으로도 되도록 살려두라는 뜻일 터.“바로 가보세.”“그래야지.”로건이 앞장섰고, 헤이온이 그 뒤를 따랐다.둘은 여관 문을 나서자마자 휘익, 시체들과 담장을 뛰어넘었다.루나카는 루인과 함께 레비테이션으로 이동했다.밤의 장막이 거두어져 적나라하게 드러난 살육현장이 발아래 펼쳐져 있었다.루나카의 얼굴이 절로 찌푸려졌다.트레져 헌터로 연명하던 시절에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은 없었다.함정에 당하거나, 금품을 차지하겠다고 싸우다 죽는 사람들을 보긴 했지만, 경우가 달랐다.비등한 자들이 싸운 게 아닌, 일방적인 살육.‘귀족이면 다야?’마당을 벗어나자마자, 옆 건물 문 앞을 구르고 있는 도적들이 눈에 들어왔다.헤이온이, 마지막 남은 도적을 걷어차 내보내고 걸어 나오며 물었다.“할 말 있는 사람?”도적들은 영문을 모르겠단 표정으로 벌벌 떨었다.그들을 지그시 내려다보는 헤이온의 모습에, 루나카의 실망이 가라앉았다.‘다행이다... 역시 헤이온님이셔. 용서 빌 기회를 주시는구나.’기회를 줬는데도 눈치만 보고 있는 도적들이 답답했다.루나카는 시체들을 가리키며 역정을 냈다.“저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빌어, 바보들아!”순간, 이쪽 셋의 표정이 좀 굳는 것 같았지만, 기분 탓이겠거니.도적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땅에 머리를 박아가며 용서를 빌었다.“잘못했습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죄송합니다, 다신 안 그러겠어요”로건이, 용서를 비는 도적들을 인정사정없이 후려갈기기 시작했다.이따금 뿌드득,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루나카는 기겁했다.‘또라이, 진짜 또라이!’뛰쳐나가려는 루나카를, 루인이 붙잡고 고개를 저었다.루나카는 헤이온이 로건을 말려줄 거라 믿었지만, 그는 말없이 지켜보고만 있었다.가라앉았던 실망감이 급속도로 차올랐다.‘다들, 정말 너무해! 왜 이렇게까지!’로건의 타작이 끝났다.헤이온은 땅을 기며 신음하는 도적들에게 “할 말 있어, 없어?” 라고 종전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도적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앓기만 했다.헤이온이 근처에 떨어져있는 화살 하나를 주워 도적들 중 하나에게 던졌다.허벅지에 화살이 박힌 자가 “끄아아악!!” 비명을 질렀다.거기에 더해, 또다시 로건이 구타할 기색을 보이자, 새파랗게 질린 도적들이 저마다 외쳐댔다.“말, 말씀드리겠습니다!”“살려만 주십시오!”그때까지도 루나카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두목이라며 나선 자를 필두로, 지형에 감추듯 지어진 산장에 도착했다.입구에 선 보초 둘은, 하품을 하며 벌레를 쫓던 중이었다.그러다 갑자기 나타난 두목을 보고 화들짝 놀라 꾸벅 인사했다.“두목님, 안녕하십니까!”“이 시간에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두목과 함께 온 이들을 보며, “아하, 거래입니까?” 하고 물었다.하지만 두목은 대답할 수 없었다.로건의 발차기에 맞고 날아가 기절해버렸기 때문이다.보초들 역시, 헤이온이 번개처럼 튀어나가 날린 주먹에 맞고 뻗어버렸다.헤이온은 지체 없이 산장 문고리를 박살냈다.문을 열어 재끼자, 안에는 젊은 여자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있었다.큰 소리에 놀란 여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헤이온을 올려다보았다.“이 은혜를 어떻게...”“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루나카는 심정이 복잡했다.감금에서 풀려난 여자들이, 자신에게 감사를 표해왔다.이쪽 남자들을 대신해 여벌옷을 전해준 것 말고는 한 게 없는데도.발가벗고 있던 그녀들을 위해, 헤이온은 물론이고 로건까지 망설임 없이 옷가지를 내주었다.아공간 주머니에 여벌옷이 여러 벌 있어 다행이었다.옷가지를 챙겨 입은 여자들은, 헤이온과 로건에게도 다가와 감사를 표했다.“꼼짝없이 팔려가는 줄 알았어요... 흑, 감사합니다...”“용사님들 덕분에... 살았어요.”도적떼는 사실상 전멸했단 소식을 전하자, 산장 앞이 울음바다가 되었다.“언니는... 불려간 뒤로... 흐아아앙!”“부모님과, 오빠가 죽었어요. 흐윽...”저마다의 사연을 꺼내는 여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그런 그녀들 앞에서, 루나카는 입이 찢어져도 ‘전멸시킨 건 너무 심했다.’ ‘용서를 빈 도적들을 선처해라.’ 라고 말할 수 없었다.저급한 무리에게 당할 일이 없었던 자신으로선, 이제야 실태를 알게 된 것이다.고개 숙인 루나카에게 로건이 다가와 속삭였다.“마법사님, 보셨나요? 도적들은 약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자신들 역시, 강자에게 자비 받을 수 없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달을 보다루나카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비꼬는 말투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문득, 한 놈 정도는 살려두려 했다던 로건의 말이 생각났다.혹시 모를 본거지를 알아내거나, 이렇듯 납치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함이었을까.“어디까지 내다봤던 거야?”“도적단 규모와 무장 수준을 봤을 때, 인신매매는 예상 가능 범위였어. 수입원이 있어야 유지되니까.”“...”“마을을 점거한 도적떼를 방치중이란 건, 해결 능력이 없거나, 해결할 생각이 없는 관청이란 거다.”“...”“도적을 섬멸한대도, 평민 피해자의 구제에 얼마나 힘써 줄지는 알 수 없어. 불투명한 가능성에 맡기느니, 직접 움직이면 빠르고 확실하잖아?”“맞아...”“다들 아는데, 너만 모르고 설치더라. 작작 설치랬지.”“미안해...”루나카는, 셋을 오해하고 원망했던 것이 한없이 부끄러웠다.특히 로건은, 이번 일로 사람이 달라 보였다.‘또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평소에 말 수도 적고 표정변화도 별로 없어서, 어떤 사람인지 알기 어려웠다.알게 된 거라곤 헤이온에게 집착한다는 것, 성격이 나쁘다는 것 정도?‘이제 보니 똑똑하고, 상황 판단도 잘 하잖아.’예전에 교묘히 놀려먹을 수 있었던 건, 그의 감정이 격양되어 있던 덕분일지도.냉정한 상태에선 빈틈없는 것 같았다.고개를 들자, 로건의 얼굴이 바짝 가까운 곳에 있었다.“꺄, 뭐야?!”‘하마터면, 닿을 뻔 했어!’로건이 숙였던 허리를 펴고, 루나카를 한심하다는 눈초리로 내려다보았다.“귓속말 중이었잖아.”처음으로 가까이서 본 로건의 얼굴에, 붉었던 루나카의 볼이 더욱 붉어졌다.그간 가까이서 볼 일이 없었다.관심 없기도 했고.키 차이가 상당해서, 구태여 올려다보지 않으면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았으니까.“앞으론, 나서지 말고 헤이온이 하라는 대로 해.”“...”로건이 허리를 숙였다.다시금 가까워진 로건의 얼굴에 루나카는 흠칫했다.귀와 뺨에 그의 숨결이 닿았다.“아예 꺼지면 더 좋고.”납치되었던 여자들을 근처 도시로 인솔했다.다들 굶주려 있던 터라, 식사부터 먹였다.하나같이 사정이 딱했기에, 한동안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쥐어주고 헤어졌다.일정이 다소 늦추어졌지만, 절대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그녀들의 모습에, 뿌듯함이 컸다.헤이온 일행은 새 여벌옷과 비상식량을 구입하고, 다시 산 쪽으로 걸었다.헤이온과 루나카가 앞장서고, 그 뒤를 루인과 로건이 따랐다.도시를 가로질러갈 수도 있지만, 기물 파괴로 민폐인데다 쓸데없이 눈에 띈다.더 이상 지리여건이 허락지 않을 때까지는 산을 탈 예정이었다.걸으면서, 루인이 헤이온에게 말을 건넸다.“말이 필요 없는 일처리 솜씨에 감탄했네. 자네들은 볼 때마다 놀랍군. 세속에 밝은 건지, 어두운 건지 모르겠어.”“뭐면 어때.”“언젠간, 자네들의 지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는가.”헤이온은 루인의 청을, 어색한 웃음으로 넘겼다.사실, 자신과 로건이 세상사에 밝은 건 아니었다.다만, 엔델 마을에도 잊을만하면 도적떼가 들이닥쳤기에, 그들의 행동양식을 저절로 꿰찰 수밖에 없었다.레온 할배를 주축으로 자신과 로건, 마을 청년 몇 명이 자율방범대 역할을 맡았었다.산 곳곳에 함정을 설치하는가 하면, 사냥할 겸 순찰도 자주 나갔다.소드마스터가 둘이나 있는 사상최강의 자율방범대 덕분에, 엔델 마을은 매우 평온했다.‘소드마스터끼리 서로의 실력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어이없는 부분이지만.’영지 외곽의 작은 마을들은 대개 도적떼들에게 시달렸다.주민들이 나서서 싸워 봤자, 방어체계가 잡혀 있지 않고, 훈련받은 병사들이 아니다보니 당하기 일쑤였다.때문에,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은 현실.엔델 마을 역시, 도적떼가 기승부리기 좋은 곳임에도, 경비대원이 파견되는 일은 없었다.‘지금 와서 생각하면, 영주가 경비대원들을 파견할 만큼 가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거지.’보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을을 지키는 이유를, 할배는 이렇게 말했었다.새 터전에는, 당신이 겪었던 지난 아픔을 반복시키고 싶지 않다고.할머니는 살해당하고, 엄마는 납치돼서 생이별했다고 들었다.실제로 만난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얘길 들어도 깊이 와 닿지는 않았다.무기가 없는 자들은 잡아다 영주관에 넘기고, 무기를 소지한 자는 즉결처분하라던 할배의 방침.어린 마음에 죽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여겼다.무기를 든 도적을 만나도, 패서 내쫓았지 죽인 적은 없었다.하지만 엔델 마을의 참사로 유모와 할배를 연달아 잃고, 로건마저 잃을 뻔 했을 때는...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로건은 마계 생명체들에게 당했던 게 아니다.기습해온 건, 같은 인간이었다.남들의 불행을 자신들의 행운으로 삼는 추악한 놈들.그 때,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다.죄책감은 없었다.오히려, 그동안 도적들을 죽이지 않았던 걸 후회했다.내쫓으면, 엔델 마을이 아닌 다른 마을로 타겟이 돌아갈 뿐, 참회하고 새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을 텐데.알량한 자비가 돌고 돌아, 소중한 사람을 빼앗으려 찾아왔던 것이다.직접 눈앞에서 겪고 나서야 깨달았다.쓰레기들을 살려 보내봐야, 다른 누군가에게 슬픔과 고통을 전가할 뿐이란 걸.할배가 옳았다.고통은 가까운데, 국민을 보호해줄 제국 법은 너무 멀리 있었다.와중에 귀천까지 나누는 판이니, 기대할 게 못 되었다.과거의 오판을 씻고 싶었다.모두를 지켜줄 순 없겠지만, 적어도 눈에 띄고 손에 닿는 사람들만이라도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그러려면, 내 선에서 끝내는 게 가장 깔끔해.’산장에서, 루인과 여자들을 먼저 내려 보냈다.두목과 보초들의 목을 베는 모습을 굳이 보여줄 필요 없었으니까.그런데 로건이 막아섰다.“먼저 가. 금방 뒤따라갈게.”배려였다.놈들의 피를 뒤집어쓰지 말라는.늘 로건에게 받기만 하는 자신.조금 먹먹해진 기분으로 발걸음을 떼면서, 루나카를 불렀다.루나카는 로건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나한테 안 달라붙고. 웬일이지?’평소와 달라 신기했다.부르니까 그제야 후다닥 다가와 매달렸다.그러면서도 몇 차례 뒤돌아보는 것이었다.도시를 거쳐 산 앞에 당도한 현재까지도.몸은 이쪽에 있지만, 정신은 로건 옆에 있는 것 같았다.그런 느낌을 받은 건 로건도 마찬가지였는지, 그가 루나카에게 아무렇게나 던졌다.“왜 자꾸 보세요? 그렇게 잘생겼습니까?”“네! 성격은 빻았지만!”“...”모두의 시선이 루나카에게로 향했다.루나카는 상황파악이 덜 된 듯, 잠시 멍 때리다가 다급히 외쳤다.“헤이온님보다는 안 잘생겼어요!!”닷새 연속, 산행이었다.드디어 거대 산맥의 끝에 다다랐다.수도까지 쭉 이어져 있으면 좋았겠지만, 벨 제국은 광대한 국토를 지닌, 대륙 최고의 번성 국가.국토 대부분이 평야라 굳이 산악 지형에 수도를 두지 않아도 되었다.무엇보다, 대륙 전체를 횡단하는 로벨 강이 국토 중심부를 지나는 덕분에,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없었다.수도 벨프리트는 국토 중앙에 강을 끼고 위치해 있었다.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교통 및 무역의 요지.헤이온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실감나 괜스레 벅찼다.산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식사를 마치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간략히 회의했다.“이후부터는 마차와 말을 이용하세.”“어쩔 수 없나...”헤이온이 속도를 더 낼 수 없는 것에 아쉬운 기색을 보이자, 루인은 이만큼 온 것만도 상당히 빠른 거라며 다독였다.“하나, 물어도 되겠는가?”“엉. 살살.”“...이토록 서두르는 이유가 궁금하네.”마족 침공에 대해선 이미 널리 퍼졌을 터였다.그런데도 되도록 서두르려 하니, 의아했던 것이다.“볼 일 빨리 마치고...”헤이온이 말끝을 흐렸다.루인이 붙여주겠다던 대리인을 마다하고, 세카트로에게 글레이드의 내정을 일임해둔 상황이었다.‘문제는 없겠지만, 언제까지고 맡겨둘 순 없어. 내 일이야.’할배와 엄마의 명예를 복권시키고 나면, 어떻게든 마수왕을 찾아내 복수하고...필요하다면, 마계 생명체들 토벌까지.당장 단서는 없지만, 신탁이란 게 있으니 아예 불가능할 것 같진 않았다.그 후엔 글레이드에서 조용히 살 생각이었다.‘엔델 마을과 사우스 바인 사이에 있으니 딱 좋아.’엔델 산에는 가족들의 묘가 있고, 사우스 바인에는 세카트로가 있다.‘단지...’헤이온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흔들리는 모닥불 빛 탓에,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해 다행이었다.“...글레이드로 돌아가야지.”헤이온의 말에, 루인은 물론이고 옆에서 듣던 로건까지 놀란 표정을 지었다.“다들 안면근육에 문제라도?”“자네, 출세하려는 게 아니었나? 보장된 거나 마찬가진데.”“출세해서 뭐 해? 사탕이나 바꿔 먹어? 일 없으면 수도에 가지도 않았어.”“...”루인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로건과 루나카는 듣기만 할 뿐 끼어들지 않았다.헤이온이 자리에서 일어섰다.“잘 자.”“잘 자게.”따라 일어서 팔짱끼려는 루나카를, 로건이 슬쩍 밀쳤다.둘은 서로 노려보았다.헤이온은 둘을 놔두고 나무 위로 훌쩍 올라가버렸다.뒤따라 날아 올라가려던 루나카가 로건에게 붙들렸다.로건은 버둥거리는 루나카의 손목을 꽉 잡은 채로, 나무에 기대어 앉았다.덩달아 앉혀진 루나카가 로건의 팔을 찰싹찰싹 때렸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루인은 그런 셋의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고 있었다.산만 타다 보니 이렇다 할 사건사고는 없었지만...‘저게 문제야.’로건의 남색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루나카도 못지않았다.헤이온은 루나카와 거리를 벌리려는 생각인 듯한데, 그 반동이라 할까?질투 작전인지 뭔지, 정확히 닷새 전부터 루나카가 로건에게 적잖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본인은 안 그런 척 하지만, 주변에서 모를 수 없을 정도로 은근히 티가 났다.로건 쪽은 루나카가 헤이온에게 달라붙는 걸 견제하는 거라지만... 그마저도 애매해보였다.예전 같으면, 견제의 대상과 목적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지금은, 헤이온에게 마음이 있어서 루나카가 달라붙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루나카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녀가 헤이온에게 가는 것을 막는 것 같기도 했다.종종, 전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데, 방금도 그랬다.로건이 루나카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다정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 어쨌거나 루나카는 수줍어했다.그 뒤론 얌전히 붙잡혀 있는 모습.손목을 잡힌 게 싫지는 않은 눈치였다.잠시 후, 로건이 손을 놔줬는데도 루나카는 헤이온 곁으로 갈 생각이 없는지, 모포를 받아 앉았던 자리에 깔고 누웠다.거기까지 지켜본 루인은, 나무 위로 시선을 옮겼다.듬성듬성 난 나뭇잎 사이로, 달을 바라보는 헤이온이 보였다.그의 옆얼굴이 너무나도 쓸쓸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헤이온의 주변이 말끔해지길 바랐던 것이지, 그가 쓸쓸해지길 바란 건 아니었다.로건과 루나카가 짝이 된다면 주변정리가 되긴 하겠으나...이럴 줄 알았으면 루나카를 멀리하라고 하지 말 걸, 괜히 참견했다는 후회가 들었다.‘나도 문제고.’쓸쓸해하지 말라고, 다가가 위로하고 싶었다.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에 마음 한 편이 아려왔다.\*“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양심 있으면, 좀 놓지?”“뭔 소리야?”“너 때문에 난 상처 아직도 있어!”“어쩌라고. 실드 칠 시간 줬잖아.”루나카는 기가 막혔다.활 겨누고 바로 쏘지 않았던 게, 공격을 망설여서가 아니라, 실드 칠 시간을 준 거였다니.공격마법에 비해 비행이나 방어는 캐스팅 시간이 짧긴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저 말은, 헤이온을 들먹거리지 않았더라도 공격 의사가 다분했단 뜻.“넌 피아 구분도 없어?”“누가 빡치게 하래?”찰싹찰싹, 루나카가 로건의 팔을 때렸다.“너랑 뭔 말을 하겠어. 놔! 헤이온님이랑 있을 거야!”“눈치 챙겨. 혼자 있고 싶은 거다.”“어? 그런가...”못 본 체 했었지만, 로건은 헤이온의 눈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뭔가 생각에 깊게 빠질 때면 그랬다.수도와 가까워져가니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모양이었다.자신도 마찬가지였다.황제와 이야기가 잘 되어 헤이온이 황실에 머물 경우, 함께 있을 수 있을지 어떨지... 아무래도 떨어지게 될 공산이 컸다.그렇다고 헤이온의 앞날에 이래라 저래라, 자신의 희망사항을 늘어놓고 싶지도, 방해하고 싶지도 않았다.고민이 많던 차에, 헤이온의 이야기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일을 마치면 글레이드로 돌아가겠다니, 희소식이었다.황실 사정에 휘둘려야 하는 황녀와 달리, 영주는 자신의 영지 내에서라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다.자신이 바넷 기사단의 부단장이니만큼,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 수 있다.헤이온이 말없이 나무 위로 올라가버린 건, 생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일 터.로건이 루나카의 귀에 속삭였다.“지금 설치면 진짜 죽여 버린다. 얌전히 자.”“...”로건의 손에서 풀려났지만, 루나카는 꼼짝할 수 없었다.‘그러고도 남을 놈이야.’“모포나 줘...”납득헤이온은 나무 위에 올라 하염없이 달을 바라보았다.달은 볼수록 오묘했다.창백한 은빛과 은은한 푸른빛이 뒤섞인 빛깔.‘그 사람의 눈도 그랬지.’과거, 로건과 자신을 구해주고 홀연 떠나버린 사람.복면을 쓴 남자.마수왕에게서 어떻게 자신을 구한 건지, 전언이 있지는 않았는지 물었지만, 로건은 “모른다.” “없다.” 로 일관할 뿐,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었다.땅에 처박혀있다 나와 보니 상황이 끝나있었다는데, 딱히 알고 있는 게 없을 것 같기도 하고.어째서인지 불쾌한 기색이 역력해서 도저히 더 캐물을 수 없었다.추측하건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는 데에서 느낀 무력감 때문일지도.‘나도 그랬으니까.’할배가 당하는 걸 지켜보기만 해야 했던 자신에 대한 분노.로건이 죽어 가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타까움.자신이 마수왕에게 죽을 뻔했던 상황은, 로건에게 마찬가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억일 터.복면남자를 화제로 삼는다는 건, 괴로움을 상기시키는 일이기도 하다.그래서 관련된 얘기는 아예 꺼내지 않고 있었다.‘가능하면, 찾고 싶은데.’찾아서 뭘 어쩌고 싶은 건지는 스스로도 잘 모른다.‘그런 건, 찾고 나서 생각해도 돼.’고위 마법사일거라고 짐작은 하지만.아는 거라곤 눈동자 색, 목소리, 체형이 전부.그나마도 달과 같은 눈동자 색 외에는, 아공간에서의 3년으로 인해 기억이 흐려져 버렸다.우연히 마주친대도, 상대방이 먼저 아는 척하지 않는 이상 알아볼 수 있기나 할지.다행인 점은, 폴리모프에 능한 타입은 아닐 거란 점이었다.변신에 능숙하다면 복면을 쓸 이유가 없으니.‘괜찮아. 은빛 눈을 가진 고위 마법사가 흔하진 않을 걸. 찾을 수 있어!’희망적으로 생각하고선, 1초 만에 시무룩해졌다.‘멀리 외국에 있으면? 은둔해 있으면? 날 기억 못하면?’그러다 반짝.‘사례할 테니 찾아오라고 신문 광고를 내자!’고개를 푹.‘오겠냐? 정체 숨기던 사람이. 사례 바라고 평민한테 치료수를 썼겠냐고.’그렇게 꽤 오랫동안 널뛰기하는 기분을 맛보았다.‘바보 같아. 잠이나 자자...’밤이 깊었다.잠들었을 일행을 깨우고 싶지 않았다.최대한 소리를 죽이고 조심조심 나무에서 내려오는데, 아래에 팔 벌리고 선 로건이 보였다.‘받아 줄 테니 뛰어 내리라고?’하지만 로건에게 뛰어들지 않고 마저 천천히 내려왔다.‘그래야 할 상황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팔을 내린 로건이 이쪽을 빤히 응시하는 게 느껴졌지만, 모르는 척 덤덤하게 말을 건넸다.“뭐 하러 기다리고 있어.”“그러게. 뭐 하러 기다렸을까~?”로건이 다가와 얼굴을 불쑥 들이밀었다.‘또? 요즘 부쩍 이러네.’할 말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될 걸.별다른 용무도 없으면서 틈만 나면 얼굴을 들이댄다.하마터면, 고개 돌리다 입술이 스칠 뻔한 적도 있었다.“치워.”밀어버리려 뻗은 손을, 로건이 붙잡더니 제 뺨에 갖다 댔다.손을 떼려 했지만, 그는 능글맞게 웃으면서 놔주지 않았다.“누군가가 잘생겼다 극찬한 얼굴인데. 좀 봐주시죠.”얼씨구.“그 누군가한테 가서 봐 달라 그래.”로건의 뺨을 꼬집어서 손을 빼냈다.꺼져가는 모닥불에 땔감을 몇 개 던져 넣고, 바닥에 모포를 깔았다.자리에 눕자마자, 그때까지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던 로건이, 제 모포를 꺼내 덮어주었다.그러곤 곧바로, 위로 덮쳐들었다.‘!!’“야! 자꾸 까불지?!”“...잠깐만.”조금 전만 해도 멀쩡하던 로건의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었다.그래서 쥐었던 주먹을 도로 폈다.“왜 그러는데?”“잠깐만 나 좀 봐봐. 어떤지.”이렇게 깔려 있어서는 얼굴밖에 안 보인다.기어이 얼굴 보란 뜻이다.“감상평을 원해?”“응. 어때? 잘생긴 것 같아?”“그래, 잘 생겼다아.”“건성으로 말고... 제대로 봐줘.”‘얘가 진짜 왜 이러지? 뭐, 알 것도 같지만.’도적들의 산장에서,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일지도 모른다.어쨌든 로건과 루나카의 분위기가 변했음을 눈치 챈 건, 둘이 함께 도적떼를 소탕한 다음날부터였다.로건이 루나카에게 몇 번인가 귓속말을 건네는 걸 보았다.보고도 못 본 척, 무슨 이야길 했는지 묻지 않았다.드러내놓고 할 얘기면 귓속말로 하지 않았겠지, 라는 생각에서였다.둘만의 비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루나카는 눈에 띄게 수줍어했다.그 때마다 뺨을 붉히니 모를 수가 없었다.결정적으로, 루나카가 이쪽에 달라붙는 빈도가 확연히 줄었고, 제 딴엔 몰래몰래 로건을 곁눈질했다.그동안 하지도 않던 로건에 대한 질문을 해오는가 하면, 그 앞에선 말투가 사근사근해지기까지.곧잘 내던 ‘호호’ 콧소리를 로건 앞에선 내지 않게 되었고, 은근슬쩍 그를 건드리는 일이 잦아졌다.밀고, 잡아당기고, 툭툭 치고.그건 로건도 마찬가지여서...‘루나카는 날 좋아한다고 했었지만, 마음이란 건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어차피 받아줄 수도 없으니, 둘이 잘 된다면 그걸로 됐어.’아마 이 자식은, 루나카가 잘생겼다고 해준 뒤로 그 말에 엄청 의미부여를 하는 것 같았다.일단, 보라고 했으니 봐 준다.보는 척이라도 해야 물러날 테니.로건의 얼굴 구석구석 눈으로 훑었다.‘잘생겼다고? 이게?’말끔한 피부, 날카로우면서도 큼직한 눈매, 높은 콧날, 도톰한 입술.늘 보던 그대로였다.‘에라이, 뭐라고 해줘야 되지?’로건과 눈이 마주쳤다.‘아이스 블루...’모닥불 빛이, 그의 얼음장 같은 눈을 녹여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들여다보고 있노라니, 로건의 얼굴이 점차 가까워졌다.‘어... 어어?’그의 앞머리가 이마에 닿았다.살짝 벌어진 도톰한 입술이, 이쪽 입술에 닿을락 말락, 아슬아슬한 위치까지 내려왔다.‘이 자식, 또 괜히 나한테!’“꺼져!!”퍽, 밀쳤다.맨땅에 구르고도 뭐가 그리 즐거운지, 로건이 쿡쿡 웃었다.“어떤지 말 좀 해줘.”“내가 어떻게 보든, 그게 중요해?”“엄~청 중요해.”이쯤 되니 짜증스러웠다.잘생겼단 말, 듣고 싶은 사람에게 들었으면 됐지, 뭘 자꾸 묻고 확인하려 드는지.늦바람이 무섭다던 어른들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여자에게 영 관심이 없더니 이젠 아주, 그냥, 후우...‘잘생겼단 말 나올 때까지 들이대려나?’하지만 잘생겼다고 해주긴 싫었다.잘 모르겠기도 하고, 기분도 나빴다.대충 대답했다.“엄~청 귀여워.”\*헤이온과 로건은, 도로 사정이 좋아져 괜찮을 거란 루인의 말을 믿고 마차에 올랐다.말을 여러 필 늘려봐야 관리가 번거롭고 유지비만 들어가니, 일단 타보고 결정하기로 했다.돈이야 차고 넘치지만, 괜한 지출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과연, 마차를 타고도 멀미가 나지 않게 되었다.다음 행선지로 이동하는 마차 안.헤이온은 내내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다.같은 영지 외곽이라도, 중부에 가까워질수록 남부와 차이가 났다.마을의 규모나 건물 상태, 양식 등이 조금 달랐다.워낙 북과 남으로 긴 국토 탓에, 식생도 차이가 있어서, 처음 보는 나무나 꽃들도 있었다.그간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던지라, 이렇게 앉아서 바깥구경을 하며 가는 것도 썩 괜찮다고 여겨졌다.이색적인 풍경 아니라도, 안을 보느니 밖을 보는 게 나았다.안을 보면 답답했다.막힌 시야 때문이 아니라.‘뭣들 하는 건지.’헤이온이 그렇게 생각한 순간, 루나카가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당연하다는 듯 옆자리에 있긴 했지만.전 같으면 팔짱을 끼고 바짝 붙었을 루나카는, 지금은 약간 간격을 두고 있었다.헤이온이 돌아보자, 루나카가 살포시 웃었다.“저도 좀 봐주세요오.”‘너도 그 소리냐.’루나카는 로건을 힐끔 보았다.아침부터 계속, 기분이 좋은 것 같았다.‘저 살벌한 놈이 웬일이람. 지금은 괜찮겠지?’헤이온의 어깨에 조심스레 제 머리를 기댔다.‘별걸 다 눈치 봐야 되고, 더러워서 진짜... 하, 좋다아.’헤이온의 체온과 체취에 포근해하는 루나카와 달리, 헤이온은 편치 않았다.로건 때문이었다.싱글벙글... 까지는 아니라도, 입가에 계속 미소를 머금고 있었는데.방금, 루나카가 이쪽에 달라붙자마자 얼굴이 싹 굳었다.관심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가까이 있는 걸 보고, 아무렇지 않은 남자가 있을 리 없으니.‘자식아, 여잔 거 알면서도 그렇게 기분 나쁘냐? 하긴, 루나카는 내가 남잔 줄 아니까.’루나카도 루나카였다.이쪽으로 기대오기 전에, 분명 로건을 살폈다.‘로건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면, 다른 행동을 하는 편이 좋을 텐데.’로건이 다리를 슬쩍 뻗더니, 발로 루나카의 발을 툭툭 쳤다.‘안 떨어져?’툭툭, 루나카도 지지 않고 응수했다.‘잠깐 꼴을 못 봐서! 이 정돈 놔둬라, 좀!’“...”헤이온은 루나카의 팔을 떨어내고 일어섰다.마차 문을 열고, 손을 뻗어 바깥 지붕을 짚고 뛰어올랐다.헤이온이 지붕으로 올라가버리자, 루나카도 올라가려 했다.루나카의 몸이 공중에 뜨자마자, 로건이 붙잡아서는 도로 자리에 앉혔다.씩씩거리던 루나카는, 로건이 나가려 하자 그의 허리춤에 매달렸다.셋을 조용히 바라보던 루인은 마음의 평화가 간절해졌다.수도에 가까워질수록 멋지고 좋은 호텔들이 많다는 루인의 말은 사실이었다.호화스럽기 그지없는 웅장한 규모와 화려한 장식.촌티 내기 싫다던 루나카는, 그 각오는 어디 갔는지 여기저기 둘러보느라 바빴다.헤이온은 전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감흥이 없었다.‘황궁쯤 되어야 비교가 될라나.’루인은 산행 중 밀린 상단 일을 처리해야 했다.전송길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서류를 주고받아야 해서, 느긋한 저녁시간을 보낼 수 없을 것 같았다.“난 밖에서 식사할 예정이니, 저녁은 자네들끼리 들게.”“식당에 안 가고, 방에서 먹어도 되려나?”“그게 편하면 그렇게 하세나. 사용인에게 말해두면 되네.”“고마워. 잘 다녀와.”모처럼 헤이온의 배웅을 받은 루인은, 일 하러 가는 길인데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섰다.루인을 태운 마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루나카가 물었다.“헤이온 님, 같이 식사해도 돼요? 저도 식당은 부담스러워요.”로건까지 나섰다.“그럼 나도.”“...아니. 가끔은 혼자 조용히 먹고 싶어.”그렇게 말한 헤이온은, 뒤돌아 객실로 향했다.바짝 뒤따라온 루나카를 3층 방에 들여보내고, 4층으로 묵묵히 이동했다.방 앞에 다다라 막 들어가려던 참에, 좀 떨어져 오던 로건이 불러 세웠다.로건은 주변을 확인하고도 잠시 머뭇거렸다.그러다가, 아공간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크기가 작은 물건인지 로건의 주먹 안에 쥐어져 있었다.“헤이온, 손바닥 펴 볼래?”헤이온이 내민 손바닥 위에 로건이 올려놓은 것은, 하트 모양의 작은 장난감 세 개였다.영문을 모르겠단 헤이온의 표정에, 로건이 살짝 미소 지었다.“입욕제야. 이런 것도 있더라. 색마다 향이 달라.”“이걸 쓰라고?”‘욕실에 준비되어 있을 텐데, 굳이?’“응.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써보고 가장 좋은 향이 뭔지 알려줘. 참고하게.”‘다음엔 좋아하는 향으로 고급품을 줘야지.’“아하, 그래.”헤이온은 납득하고 고개를 끄덕였다.새삼스레 이런 걸 왜 주나 했더니, 선물에 참고하려는 것이었다.‘좋아하는 사람에겐, 가장 좋은 걸 주고 싶겠지.’로건이 신신당부를 했다.“꼭 알려줘.”“알았어.”“식사, 잘 하고...”헤이온은 훠이훠이, 로건을 향해 손을 젓고 방으로 들어왔다.입욕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소파에 걸터앉아 고민 아닌 고민을 했다.‘목욕부터 할까, 식사부터 할까.’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루나카가 찾아왔다.“저어... 헤이온님. 식사... 역시 같이 하고 싶어요...”루나카는 기회를 놓쳐버리기가 너무 아쉬웠다.로건과 루인이 없는, 헤이온과의 오붓한 식사 기회.이미 거절당하긴 했지만, 한 번 정도는 더 졸라보고 싶었다.헤이온은 단칼에 거절했다.“돌아가.”“앗, 네에... 죄송해요.”잘못이랄 것까진 없는데, 루나카는 사과하고 문을 닫았다.소침해진 얼굴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신경 끄려 해도, 괜히 신경 쓰였다.헤이온은 벌떡 일어났다.입욕제를 낚아채듯 주워들고, 루나카를 따라 나갔다.계단을 내려가는 루나카를 급히 불러 세워, 그녀의 손에 입욕제를 쥐어주었다.나한테 왜 이래루나카는 화장대 앞에 앉아, 비치된 화장수를 공들여 발랐다.빗은 머리를 또다시 빗으며 거울을 들여다보았다.상기된 얼굴로 생글생글 웃는 자신이 있었다.“헷!”혼자 웃음을 터트리고는, 제 볼을 감쌌다.그러고는 또 “후후” 웃었다.누가 보면 정신이 나갔다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좋았다.루나카는 설레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부르셨어. 오라고...’자신의 처지로는 요원한 상대, 헤이온 바넷.여자로서도 거절당했기 때문에 정식 관계의 욕심은 버렸다.하지만, 도저히 마음까지 접을 수는 없었다.짝사랑이라도 좋으니, 최대한 곁에 있고 싶었다.헌데,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았다.보라돌이가 본색을 드러낸 이후부터, 얼마나 눈칫밥을 먹는지 항시 배가 불렀다.‘지도 짝사랑이면서. 지는 되고, 난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그런 것에 굴하고 싶지 않지만 상대는 미친놈이었다.심기를 건드렸다가, 헤이온이 없는 자리에서 막 나오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이었다.보라돌이가 자신의 반말을 묵인해주는 것도, 상황 상 그런 것일 뿐.사실 그것만으로도 목숨 줄을 잡힌 거나 마찬가지였다.‘홧김에 욕도 했었... 나중에 트집 잡으려나?’이래저래 마음 같지 않은 상황에 답답했는데.‘불러주셨어! 야영 때랑은 달라. 다른 거라고.’자신이 헤이온의 잠자리에 멋대로 찾아간 적은 있어도, 그가 먼저 오거나 부른 적은 없었다.그런데 오늘,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밤에 와달라고 했다.저녁식사 전, 둘만의 식사를 거절당하고 돌아오는 길.헤이온이 급하게 뒤따라와 전해준 것은, 고형 입욕제였다.‘그것도, 하트 모양! 꺄아아~. 무심한 것 같으면서도, 어쩔 땐 세심하다니까?’써보고 어떤 향이 좋은지 알려달라며 부른 거긴 하지만...불렀다는 게 중요하지, 이유나 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아닌 척 해도, 많이 쑥스러우셨나 봐.’검술밖에 모르던 검술바보가, 여자에게 “목욕하고 내 방으로 와.” 라고 하려니 얼마나 쑥스러웠을까.욕실에 비치된 최고급 입욕제를 무시하고 헤이온이 준 것을 썼다.뜻밖의 선물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비싼 드레스를 받은 적도 있지만, 상황과 체면상 준 선물이었지, 다른 마음이 있어서 준 건 아니었다.‘같이 씻자고 하셔도 되는데. 우후훗!’루나카는 들뜬 기분으로 입술에 꽃물을 발랐다.그 후로도 거울 앞에서 한참을 보낸 뒤에야 방문을 나섰다.헤이온은 식사 후, 호텔 정원을 산책했다.어쩐지 로건과 대련할 마음은 들지 않았다.연무장에 적당한 상대가 있을지 들러봤지만, 다들 광대 같았다.루나카에게 오라고 한 시간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산책으로 시간을 때우는 중이었다.‘밤공기가 좋네.’중부와 가까워져서 그런지, 바뀌어가는 계절 때문인지, 산이 아니라서인지.습하지도, 싸늘하지도 않았다.인조적인 풍경이지만 잘 가꾸어져 있어서 그건 그것대로 멋졌다.‘그보다, 왜 이렇게 넓어?’20여분을 걸었는데도 전부 구경하지 못했을 정도로 부지가 넓었다.담장 바깥쪽에도 정원 아닌 정원이 넓게 펼쳐져 있어, 도심인데도 도심 같지 않은 느낌.‘이러니 다들 마차를 타시는 거구만.’과하게 넓은 정원은 말할 것도 없고, 호텔방 하나가 웬만한 평민들의 집 한 채보다 넓었다.문제는, 태반이 빈 방이란 점.한미한 가문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영지 내에 휴양지가 있으므로, 먼 데까지 여행하는 귀족은 많지 않았다.업무상 출장, 친목 초대 등의 경우, 대개 영주성이나 저택에서 머물기에 호텔 수요는 적을 수밖에 없었다.그런데도 그 몇 안 되는 귀족 고객을 위해, 드넓은 정원과 웅장한 건물이 항시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바꿔 생각하면, 몇 안 되는 귀족 고객이 투자를 상회하는 수익을 내주고 있는 것이겠지만.가난한 평민들의 주거 및 보안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걸 생각하면, 편치만은 않았다.‘영지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수익금을 쓰면 좋을 텐데.’글레이드에도 호텔이 있지만 귀족 전용은 아니었다.특실이 몇 있을 뿐.글레이드는 산악 요새라 건물 한 채 올리기가 쉽지 않다.그렇기에 놀리는 부지가 있다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숙박비만 지불하면 누구든 호텔에 묵을 수 있으며, 민간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여관들도 많이 있으니 형편에 맞춰 이용하면 되었다.인수인계 때, 숙박업 관련 서류를 휙 던져버렸던 게 생각났다.알아서 잘들 하고 있어서, 운영에 간섭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다만 수익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일부 재지정을 해두었다.‘모험가들 방문 빈도가 높아 호황이니까. 부가수익 창출할만한 거, 뭐 없나? 그걸로 공영사업에 투자를 늘리면...’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건물에서 멀리 떨어져 인적 없는 곳까지 다다랐다.헤이온은 벤치에 앉아 등받이에 양 팔을 걸쳤다.고요와 평화, 그 자체였다.마계의 침략이나, 인간끼리의 사건사고는 존재하지도 않는 세상인 것처럼.다만, 고요와 평화가 너무 짧은 게 문제라면 문제랄까.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두 명인가. 그냥 지나가라.’하지만 귀족들은 다른 귀족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잘 없었다.다가온 두 사람은, 헤이온의 앞에서 멈춰 섰다.‘희한한 놈들. 생 까면 어때서. 귀찮지도 않냐?’그냥 지나갈 생각이 없는 듯, 그들은 계속 서있었다.마지못해 눈을 뜨니 머뭇거리는 영애와 그 뒤에 선 남자가 보였다.나서지 않는 걸 보니 남자는 귀족이 아닌 모양이었다.허리춤에 찬 검집에 시선이 갔다.‘호위기사인가.’“...”헤이온이 달리 말을 건네지 않자 영애는 조금 난처한 기색이면서도, 떠나지 않고 꼿꼿이 기다렸다.이래서야 혼자 조용히 있기는 글렀다.별로, 말 섞고픈 생각도 없어서, 헤이온은 자리에서 일어났다.‘모르는 사인데 뭐 할 말 있다고 기다려? 정 말 걸고 싶으면 그냥 걸지, 하여튼 희한해.’헤이온이 그대로 자리를 뜨자 영애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보다 못한 호위기사가 헤이온을 뒤따라와 불러 세웠다.“공자님. 실례인 줄은 아오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찌 그냥 가십니까? 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뒤편에서 영애가 “그러지 말아요, 제이크 경.” 하고 말렸지만, 제이크라는 기사는 헤이온에게 거듭 요청했다.제이크는 복장이 터질 듯한 상태였다.영애와 함께 멀리서부터 공자를 따라왔다.따라잡고도 한동안 기다렸건만, 그 결과는 무시.‘네놈이 뭔데! 우리 아가씨가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야!’“인사 한 마디만 올려 주시지요.”헤이온은 둘 다 귀찮았고, 특히 제이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말과 말투는 나름대로 예의발랐지만, 그의 눈빛은 ‘네놈이 싫다.’ 였다.뒤쪽에 있는 영애에게 목소리는 들리지만, 얼굴 표정은 보이지 않는다.그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표정 쪽일 것이다.‘내빼버릴까? 영애에게서 멀어질 수 없을 테니, 못 쫓아오겠지.’약올려주려는데, 영애가 기사를 다그쳤다.“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 분을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죄송합니다, 아가씨.”“저에게 말고, 공자님께 사과드리세요. 어서!”“죄송합니다...”하지만 헤이온에게 사과하는 제이크의 눈빛은 여전히 재수가 없었다.영애에게 보이지 않는 위치에선 막나가는 듯했다.‘예의 차리라더니. 이젠 예의 차릴 필요 없으니 어서 꺼지라는 눈빛인데.’헤이온은 내빼려던 생각을 바꾸었다.영애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그 위로 수줍게 얹힌 영애의 손을 살짝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헤이온이라 불러주십시오. 아까는 혼자 생각이 깊어 그만 무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해주시겠습니까?”“저는 마그리타 릴리 그레이시예요. 저야말로 곤란하게 해드려 죄송해요.”헤이온이 알려준 건 이름 뿐, 가문을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마그리타는 캐묻지 않았다.‘루나카를 들볶던 영애들하고는 다르네.’어쨌든, 피곤하지 않게 넘어갈 수 있어 다행이었다.제이크를 슬쩍 보니, ‘빨리 꺼져!’ 의 기색이 역력했다.‘아항.’헤이온은 마그리타의 손을 바짝 당겨 잡았다.“어디까지 가십니까? 에스코트 해드리겠습니다.”“저는...”마그리타가 대답하기 전, 제이크가 나섰다.“아가씨, 시간이 늦어 돌아가셔야 합니다. 공자께서는 갈 길 가시지요.”“그거 잘 됐군요. 저도 영애를 모셔다드린 다음 바로 돌아가려 했었는데.”제이크의 꾹 다문 입이 ‘네놈이 가던 방향은 호텔 쪽이 아니었잖아?’ 라고 소리 없이 외치는 듯 했지만, 헤이온은 코웃음 쳤다.산책로를 나란히 걷는 헤이온과 마그리타 뒤로, 제이크가 쉭쉭거리며 따랐다.아가씨에게 조금만 허튼 짓을 하면 바로 베어버리겠단 기세로.가벼운 대화가 몇 마디 오가고 난 후, 마그리타가 조심스레 물었다.“헤이온님께서 그리 깊이 빠져드셨던 생각이 무언지, 여쭈어도 될까요? 혹시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문제라면 도와드릴게요.”“...”헤이온은 말없이 마그리타를 바라보았다.마그리타는 헤이온의 시선에 무안했는지,“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라며 뺨을 붉혔다.“불편하다기보다, 마그리타님과 저는 오늘 처음 만났는데...”마그리타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 실수해버렸다.‘어, 어쩌지? 주제 넘는 말을 했어.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했을 거야.’헌데 이어진 헤이온의 말은 의외였다.“기뻤습니다. 빈말이라도.”“네?”별다른 표정이 없던 헤이온이 처음으로 살짝 웃었다.“기뻤다고요. 생각한 건, 공영사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외에도 로건과 루나카에 대해 생각했지만, 그걸 말할 필요는 없었다.마그리타는 헤이온의 미소에 겨우 마음을 놓았다.“좋게 생각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공영사업이라니... 저도 그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아, 그렇습니까?”헤이온은 마그리타가 자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그냥 한 말인 줄 알았다.하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정말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로비에 도착했을 땐,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를 수도 있구나 싶었다.“마그리타님은, 다방면으로 지식이 상당하시군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마그리타는 헤이온의 칭찬에 매우 수줍어했다.“자랑할 일이 아닌걸요. 그래도 칭찬해주셔서 감사해요.”다음 순간, 헤이온이 의아하단 시선을 보내오는 바람에 ‘뭘 잘못 말했나?’ 불안해졌지만, 그는 곧 그 시선을 거두었다.헤이온은 체질에 안 맞는 존대를 쓰려니 오글거리던 터라, 마지막 인사는 편히 건네기로 했다.“잘 자. 마그리타.”갑작스러운 반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마그리타의 대꾸가 없었다.헤이온은 뒤돌아 걷기 시작했다.멍하니 서있던 마그리타는, 멀어져가는 헤이온을 향해 작게 소곤거렸다.“헤이온도... 잘 자.”그게 들렸는지, 뒤돌아보진 않았지만 헤이온이 손을 들어 두 번 흔들어보였다.‘왜 자랑할 일이 아니란 걸까? 내 눈엔 대단해 보였는데.’헤이온은 마그리타의 말이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다.하지만 방문을 여는 순간 잡념이 사라져버렸다.응접실에 루나카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어째서인지 안이 비치는 네글리제를 입고.긴 의자 위에, 걸치고 온 가운이 놓인 것이 보였다.“...일찍 왔네.”“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오래 보고 싶어서요!”‘얘는 노빠꾸지.’수줍음을 많이 타던 마그리타와는 장르가 전혀 다른 인간.“나가셨을 줄은 몰랐어요. 어디 다녀오세요?”공중에 둥둥 떠서 헤이온에게 다가온 루나카는, 대뜸 “응? 으응?” 하면서 여러 차례 킁킁거렸다.“여자 향수냄새!! 아아, 모야모야! 해명해!”“여자 만나서 여자 냄새가 나는 걸, 뭔 해명?”“허헐오와어아아...”루나카는 마력을 유지하는 걸 잊었는지,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다.“어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하세요!”“아무렇지 않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말하지.”대수롭지 않다는 듯 소파로 가는 헤이온을 보며 루나카가 울상을 지었다.“너님이 아무렇지 않으면, 남도 아무렇지 않냐고요!”“시끄럽고, 이리 앉아.”소파에 앉은 헤이온이, 옆 자리를 팡팡 두드렸다.“내가 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인 줄 아나? 지 맘대로야!”“그럼 거기 있어. 난 상관없어.”“가려고 했어요.”루나카는 둥둥 날아서는, 헤이온의 옆자리가 아닌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루나카에게서 확 풍기는 복숭아 향기가 헤이온의 코를 간지럽혔다.“이게 제일 맘에 들어?”“아, 몰라요! 말 걸지 마세요!”헤이온의 가슴을 팍팍 때리면서, 루나카가 볼멘소리로 꿍얼거렸다.“나빴어... 목욕하고 오라 해놓고... 진짜... 티내지나 말지...”급기야 울어버리기까지.“변명이라도 하란 말이야, 그래야 속아줄 거 아니야, 이 나쁜노마아아아~, 엉엉~~.”하지만 헤이온의 입에서 나온 말은, 루나카의 기대와는 달랐다.“너야말로, 나한테 이럴 것 없잖아?”새로운 공격스킬 습득헤이온은 루나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와서 어떤 향이 좋은지 알려달라고 했지, 야한 잠옷을 입고 오라고는 하지 않았다.‘잠옷은 지 자유니까 그럴 수 있다 치자.’졸지에 바람난 애인 취급당하는 건 역시 거슬렸다.목격한 것도 아니면서 향수냄새 하나로 상황을 넘겨짚는 건 뭔지.‘해명할 것도 없고, 해명해야할 이유도 없어.’귓가에 바로 꽂히는 루나카의 징징거림을 듣자니, 현기증이 올라왔다.헤이온이 차갑게 내뱉었다.“너야말로, 나한테 이럴 것 없잖아?”“...”때리는 것을 멈춘 루나카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다.헤이온은 그녀의 젖은 눈망울과 뺨에 마음이 순간 약해졌다.하지만 할 말은 해야 했다.“투정도 투정 나름이지, 이런 건 못 받아줘.”“...”“우리가 그런 관계도 아니고.”“그럼... 무슨 관곈데요? 아니, 말하지 마세요... 잘못했어요.”헤이온의 다리 위에 앉아있던 루나카는, 둥실 떠올라 옆 자리로 옮겨갔다.우는 얼굴을 보이기 싫은지 등 돌리고 훌쩍였다.“저도 안 그러려고 했거든요? 끅, 진짜에요. 그렇지만, 쿨쩍... 기대한 만큼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기대? 무슨?”“목욕하고 오라고 하시니까, 전 당연히... 으아앙! 이런 거까지 말하게 만들어! 내 존심 물어내!”루나카는 소리를 꽥 지르면서 뒤돌아 주먹을 휘둘렀다.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헤이온이 바짝 다가와 있었다.주먹을 피하느라 고개를 비튼 헤이온의 얼굴이, 야릇한 각도로 루나카의 얼굴과 근접하게 되었다.루나카는 닿을 듯 코앞에 와있는 헤이온의 얼굴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굳어버렸다.거리를 조금 띄우고서, 헤이온이 머리를 긁적였다.“그게, 그렇게 되나?”가까스로 정신 차린 루나카가 외쳤다.“참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와중에 얼굴공격 뭔데? 왜 이렇게 잘 생겼어? 네, 아시겠지만 저 자존심 없어요! 어우 몰라, 진짜!”“...숨은 쉬면서 말해.”루나카의 말 중에, 헤이온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이 있었다.‘얼굴공격?’헤이온은 제 얼굴을 루나카의 얼굴에 바짝 들이댔다.닿을 듯 말 듯, 무심결에 조금만 몸이 기울어도 닿아버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흐끼약!”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지는 루나카 위로, 헤이온이 덮쳐들었다.루나카는 이번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헤이온의 얼굴만 뚫어져라 보았다.“새삼스럽게, 왜 그래?”“제, 제가 들이대는 거랑 느낌이 와, 완전 다르다니까요!”귀까지 붉게 물들이고 말을 더듬는 루나카를 내려다보며, 헤이온은 얼굴을 좀 더 가까이 가져가보았다.헤이온의 앞머리가 이마에 닿자, 루나카는 그의 등을 끌어안고 눈을 꼬옥 감았다.하지만 헤이온은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 중이었다.‘로건이 하려던 게 이런 거였나? 효과 좋은데, 뭐 하러 나한테 시험했담.’“눈 감지 말고, 봐봐. 내가 잘생겼어?”“앗, 네!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전에 로건에게도 그렇게 말했잖아. 그거 누구한테나 하는 말이야?”루나카는 그제야 헤이온이 여자 향수냄새를 묻히고 온 이유를 깨달았다.‘질투하셨구나! 그래서 나도 질투하라고 일부러...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안 그런 척 해도, 은근 마음 있다니까.’“그럴 리가요. 보라돌이씨 잘 생긴 건 사실인데요, 제 취향은 아니에요. 진지한 질문이 아니니까 저도 그렇게 대답했지, 진지했으면 대답 안 하거나 모른다고 했을 거예요.”“...”“저는 헤이온님밖에 없어요. 저를 구해주신 것도, 일행으로 받아주신 것도 헤이온님이고, 얼굴 너무나 제 취향...!”쑥스럽게 웃는 루나카와 달리, 헤이온은 속으로 탄식했다.누구한테나 하는 말이길 바랐건만.‘나 때문에 둘 다...’루나카에게 연애감정 없는 자신이, 로건의 연애를 방해하고 있다는 자괴감.자신이 남자인 줄 알고, 마음 주는 루나카에 대한 죄책감.중압이 상당했다.헤이온은 셔츠 단추를 하나 둘 풀기 시작했다.설렘으로 가득 찬 루나카의 눈빛에, 단추를 풀면서도 미안함이 커져만 갔다.셔츠를 벗어 테이블 위로 던지고, 루나카를 내려다보니 그녀는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헤이온이 일어섰다.“루나카, 날 봐.”“봐도 돼요? 너무 떨려서...”“보라고 벗은 거잖아.”그 말에, 루나카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어차피 보게 될 텐데, 괜히 뒤로 뺐다가 헤이온의 마음이 바뀌기라도 하면 큰일이었다.자주 스킨십해온 터라, 어떤 모습일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역시나, 상상한 대로 착한 얼굴에 착하지 못한 몸이었다.불필요한 볼륨은 전혀 없는, 날렵하고 미끈한 근육질.‘어...’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루나카의 시선이, 허리에 머물렀다.전체적으로 호리호리한 체형이라지만, 실제로 보니 예상보다 가늘었다.헤이온이 물었다.“이상하지 않아?”“아뇨. 멋지기만 한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허리가 콤플렉스이신가 봐.’다음 순간,“헉!!”루나카는 질겁했다.헤이온이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뱉자, 가슴 모양이 변한 것이었다.여성의 그것으로.어딘가 균형이 맞지 않던 몸이, 비로소 바르게 잡혀 보였다.“이게 진짜 나야.”“...”루나카의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그동안 미안했어.”“...”루나카는 슬그머니 일어나, 헤이온의 가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처음 반응과 달리 너무도 침착해진 루나카의 모습에, 오히려 헤이온이 당황할 정도였다.‘사람이 너무 놀라면, 놀라는 것마저 잊는다더니. 그런 건가?’루나카가 심히 갸웃거렸다.“속임수 장치 같은 게 있나?”“없어.”루나카는 헤이온의 가슴을 덥석 쥐었다.“야이, 노빠꾸 아니랄까 봐!”“진짜 같네... 신기하다...”“진짜야. 바지도 벗어야 믿을래?”“네? 네! 빨리요, 급해요!”따-악.헤이온에게 딱밤을 맞은 루나카는, 소파 구석으로 가서 등 돌리고 쭈그려 앉았다.애써 현실부정을 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야 했다.자신이 반한 미소년 검사는, 사실 소녀라는 것을.“정말 미안해.”헤이온의 사과에 루나카는 고개를 저었다.루나카는 옆의 쿠션을 집어 들고 입에 물었다.곧이어, 어깨를 심하게 들썩였다.헤이온은 그런 루나카를 그대로 둘 수 없었다.다가가서, 안아주었다.\*한참만에야 진정한 루나카의 눈가는 퉁퉁 붓고 발개져 있었다.하지만 눈빛만큼은 언제 울었냐는 듯 생생했다.눈빛만큼이나 손놀림도 생생하고, 또한 바빴다.“야! 너무 더듬는 거 아냐?”“흥! 전 기회주의자라서요.”루나카는 헤이온의 몸을 여기저기 만져보는 중이었다.“우와...”강철같이 다져진 근육들에 절로 감탄사가 흘러나왔다.“이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당연하죠! 이렇게 극한까지 단련하기가 쉽나요? 그것도 여자가.”“할만 해.”“...이 인간이? 너님이 할 만하다고 남들도 그렇진 않거든요?”“여자든 남자든, 마스터 급이면 다들 마찬가지 아냐?”루나카가 도리도리를 했다.헤이온은 극한으로 신체를 단련한 타입이었다.그것도, 검술에 최적화된 상태로.“노말 상태에서 이 정도인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신체와 검술이 다소 뒤떨어져도, 마나발이란 게 있어서...”“그렇군.”헤이온은 고개를 끄덕였다.같은 소드마스터라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였다.멀리 볼 것 없이, 할배와도 차이가 있었고.만약 로건이 마스터로 각성한다면, 이 경우도 분명 차이가 날 테니.다만, 셋 모두 미친 듯이 신체를 단련한 타입이라, 마나발로 각성한 타입은 어떤지 궁금해졌다.“마나발이란 건 어떤 거지? 마나를 잘 쓰나? 검기를 더 강하게 분출시켜?”그렇다면 마나수련을 더 해볼 요량이었다.“아뇨. 필요조건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저도 6서클이니 팔만 미친 듯이 단련해서 마나를 응집시키고 검을 휘두르면, 소드 익스퍼트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대로 된 위력이 나올까요?”“이해했어.”“검기를 내는 원리는, 강하게 응축된 대량의 마나를 검에 전달시키는 거거든요. 강한 검기를 내려면 그만큼 내외부적으로 단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마 헤이온님은 극으로 끌어올려진 상태일 거예요.”이 이상 마나수련을 해도 의미가 없거나 적다는 뜻이었다.“로건은 왜 각성이 아직 이지? 걔도 강한데.”“노멀 상태에서 헤이온님과 쌍벽인 걸 보면, 신체단련 문젠 아닐 거예요. 타고나길 마나 하트와 스토레이지, 둘 중 하나의 수용량이 너무 적다든가. 마나로드가 비좁아서 대량의 마나를 융통할 수 없다던가. 그것도 아니면 마나를 응축시키는 요령이 부족하다든가.”“아아, 알 것 같아.”로건은 선천적으로 마나하트가 막혀있었다고 했다.세카트로가 개방시켜준 지, 아공간에서의 시간을 합쳐도 고작 3년하고 며칠 지났다.그간 수련해온 게 있어 유저 단계를 건너뛰고 익스퍼트로 들어서긴 했지만, 자유자재로 다루려면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나도 익스퍼트에서 마스터로 뛰는데 한참 걸렸었잖아.’세카트로가 심심해서 마나하트를 뚫어주고 훈련시켰을 것 같진 않았다.‘로건에게서 잠재력을 봤을 거야.’막힌 마나하트를 뚫을 정도의 능력자이니, 마나로드 역시 문제가 있었더라도 원활하게 손봐놨을 가능성이 높았다.“후자라면, 수련하기에 따라 각성할 수도 있겠죠. 헤이온님처럼 젊은 나이에 각성하는 경우가 엄청 특별한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수십 년간 병술을 연마해도 마스터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법 쪽도 마찬가지고요.”여기까지 말한 루나카는, 씁쓸하게 웃었다.“그리고 여자 마스터는... 없어요.”“왜?”“병술을 고등 수준까지 교육시키지 않으니까요. 벨 제국엔 여자를 쓰는 기사단이 없어요. 출산을 고려하는 거지요. 남자만으로도 인력이 충분하고요. 제가 헤이온님을 남자로 믿었던 건, 그 탓도 있어요.”“...”“헤이온님은 먼 외국에서 오신 거죠? 영애가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곳이라니, 멋지네요.”“벨 제국민이고, 평민이야. 지금은.”루나카는 헤이온의 말에 바로 대꾸하지 않고 곰곰 생각에 빠져들었다.‘지금은? 그렇다는 건, 몰락귀족인 걸까? 가문의 재건을 위해 유랑하는?’“영주이시니 준 귀족이죠. 소드마스터니까 발트 공 말대로 출세는... 앗, 아니...”여자가 병술로 지위를 상승시키는 건 불가능했다.기사단은 물론이고 용병단, 자경단... 그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으니 공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공식적인 인가 없이 단독으로 활동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마법이라면 아카데미 교수가 되거나 시설물 관리직, 연구직 등을 맡을 수 있지만, 작위가 없거나 낮으면 지위상승에는 한계가 있었다.경력이 오래되고 학식이 높아도 궂은일을 도맡고, 승진은 귀족에게 작위 순으로 돌아가는 구조.‘제대로 올라가려면 결혼을 이용한 방법 밖에.’작위가 높은 남자의 부인이나 첩이 되어 한 방에 올라가거나.평민이나 낮은 작위의 남자와 결혼했다면, 자신의 공을 남편이 대신 받도록 하고, 남편의 작위를 올리거나.둘 다, ‘누군가의 부인’ 으로서 신분상승하는 방법이다.그런 식으로 가문을 재건하는 데까지 가려면, 대체 얼마나 걸릴지.당장, 글레이드 영지를 양보했던 발트 공부터가 헤이온이 여자란 걸 알면 태도를 싹 바꿀지도 몰랐다.말끝을 흐리고 입을 다문 루나카의 뺨을, 헤이온이 쿡 눌렀다.“걱정 마. 재밌게 살 테니까.”다시 폴리모프를 쓰는 헤이온을 보며, 루나카는 침을 꿀꺽 삼켰다.“다시 봐도 대단해요. 몇 서클이신 거예요?”“그런 거 없고~.”“또, 뻥 친다. 폴리모프는 4서클 마법이거든요. 부분적으로 쓰는 거라도, 입도 벙긋 안하고 시전 하셨잖아요. 유지시간도 거의 무한대인 것 같고. 이건, 최소 8서클이양!”“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냐.”‘마법 입문서를 불쏘시개로 썼다고 말할까, 말까.’루나카는 헤이온이 셔츠 단추를 잠그는 것에, 아쉽다는 눈초리를 보냈다.그 눈초리에, 헤이온은 픽 웃어버렸다.“8서클이면 전신을 바꿨지. 안 그래도 더 잘 쓰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 마법은 문외한이야.”“설득력은 있는데, 설득력이 없군요.”“다른 건 쓰지도 못해.”“간혹 한 가지 마법만 죽어라고 파는 똘끼 충만한 사람들이 있... 히야악!”헤이온이 얼굴을 들이대자, 루나카는 또 비명을 질렀다.“와, 이거 효과 좋네.”“짜증나! 취향으로 생겨가지고!”“후후, 부탁이 있어.”“뭔데요?”헤이온은, 세상이 어떤 곳인지 대충은 알 것 같았다.상황이 허락할 때까진 할배의 방침대로 쭉 남장을 하고 있는 편이 나았다.정체를 드러낸 건 어디까지나 로건과 루나카를 위해서였다.“내 정체는 비밀로 해줘. 사례는 원하는 만큼 하겠어.”헤이온의 말에 루나카는 멍해졌다.‘맞아, 이 사람 엄청난 부자였지. 출세가 뭐야? 그 돈이면 평생 재밌게 살 텐데.’“입막음 값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대신...”루나카의 이야기를 들은 헤이온은, “좋아.” 라고 대답해주었다.“호호, 안녕히 주무세요. 아니, 같이 잘까요?”“그래, 안 돼. 복숭아?”“네, 그렇긴 한데... 맥락 없이 집요하시네. 아, 참!”루나카는 침실로 들어가려던 헤이온에게 날아가 목을 끌어안았다.헤이온의 입술에 입 맞추고는 빠르게 문 앞으로 도망쳤다.“여자면 어때? 이렇게 멋진 사람, 또 어디 있다고. 전 헤이온님 뿐이에요!”난 잘생긴 게 아니라헤이온이 이마를 탁, 짚었다.정체를 드러낸 건 교통정리를 하려던 거였는데.아무런 소용이 없었다.\*헤이온은 침대에서 계속 뒤척였다.좀체 잠들 수가 없었다.지금 와서 생각하면 숲에서 로건이 키스 얘기를 꺼내고, 이어서 루나카와의 키스로 닦달했던 건, 단순히 누구랑 더 가까운가 하는 시샘 때문이 아니었다.별거든 별 거 아니든, 좋아하는 여자가 누군가와 키스했다고 하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별 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는 개소리나 해댔으니, 로건의 반응이 차가웠던 건 당연한 일이었다.‘자기한테 똑같이 해보라고 한 건, 확인하고 싶어서였겠지.’이마에 한 키스로 알고, 안심한 얼굴이라니.‘바보, 내가 루나카에게 아무 짓도 안 할 거란 거 알면서. 그렇게 불안했냐.’자기를 첫 번째로 생각해달라는 건, 자신을 위해 루나카와 선을 그어 달라는 의미.‘사회적 인식 같은 건 고려하지도 않고, 선을 확실히 그었다고 착각했던 내 탓이긴 해.’로건의 연애가 꼬인 원인이 자신이니만큼, 되도록 원만히 풀어주고 싶었다.하지만 루나카에게 감정을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자신에 대한 마음을 포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로건을 좋아하게 되리란 법도 없었다.그럼 로건을 포기시켜야 하는가?역시 강요할 수 없는 문제.게다가 포기하란 말을 전하는 것이 자신이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어째서 자신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둘의 문제니 둘이 알아서 하게 두면 되는데.‘원만히 풀어줘야 할 의무가 있나? 어쩔 수 없는 거잖아.’제 발 저려서?아니면, 뭔가 무서워서...?‘아니, 아니. 로건을 도와주고 싶으니까. 어라?’헤이온의 눈이 번쩍 떠졌다.방금, 잠금장치가 저절로 풀리고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곧이어 조심스레 들어오는 발소리와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남자 한 명, 장신. 로건인가?’아무리 주의한대도, 노멀 상태에서는 체형과 체중에 따른 물리적 파동의 분산을 속일 수가 없다.외부 침입자라면 담장을 넘을 때 알람 결계가 발동되고 소동이 일었을 것이다.호텔 내부에 저만한 장신이 흔한 것도 아니니 로건이 확실했다.잠금장치는 실프가 먼저 들어와 풀어준 모양이었다.실프는 자신의 몸 만이라면 벽이든 뭐든 마음대로 투과할 수 있으니까.헤이온은 자는 척 하기로 했다.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당분간은 아무 말 않고 지켜보기만 하자.’로건은 헤이온을 깨우지 않으려 살금살금 침실로 들어왔다.침대 위, 눈을 감고 새근새근 귀여운 숨소리를 내는 헤이온이 있었다.-호흡의 완급조절은 상당하지만, 수면상태는 아냐. 깨울까, 재울까?그냥 두세요.구태여 자는 척을 한다는 건, 지금은 마주보거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뜻.로건은 헤이온을 깨워서 억지로 대화시킬 맘은 없었다.야심한 시각에 찾아온 것 자체가, 대화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니었다.그저 보고 싶어서였다.자든, 자는 척하든, 잠깐 보다 갈 거니까 상관없어요.‘차라리 잘 됐어.’로건은 침대 위로 올라가 헤이온과 마주보고 누웠다.곧이어 헤이온의 머리를 살짝 들어 팔베개를 해주었다.이불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바짝 붙어 안았다.로건의 행동에, 헤이온은 약이 올랐다.‘이 자식이?’어제도 비슷한 짓을 해서, 밀쳐내지 않았던가.그랬더니 잠들었을 때를 노려 또 이런 짓을 해 오다니.이전까지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괜찮았지만, 최근 들어서 좀... 그랬다.‘잠꼬대인 척, 응징해 주마.’그러나 응징하기는커녕, 순간 호흡을 흐트러트릴 뻔 했다.로건이 이마에 키스해온 탓이었다.자는 척 하던 것을 들킬 뻔해서, 심장이 콩콩 뛰었다.들킬 때 들키더라도 이 타이밍에 들키는 것만은 피해야 했다.‘휴우...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고 뜨겁네. 놀랐잖아.’헤이온은 가슴을 가까스로 가라앉혔다.‘내가 해줬을 때, 얘도 이런 느낌 받았을까? 아, 그게 뭐가 중요해. 로벨 물과 엔델 산이 마르고 닳도록~.’딴 생각을 하며 의식을 돌리려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머리카락을 쓸더니, 뺨까지 어루만졌다.부서지기 쉬운 것을 만지듯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너무나도 조심스러워서, 도저히 여기에 대고 화낼 수가 없었다.‘그 투박하고 커다란 손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구나.’머리를 쓰다듬는 부드러운 손길에, 점차 취한 듯 몽롱해졌다.이대로 조금 더 있으면, 잠들 것 같은 기분.-헤이온의 부교감신경이 활성 단계로 들어섰어.-어려운 말은, 몰라요.편안해지고 있다는 소리야. 약간 흥분해 있었거든.‘흥분? 설마.’로건은 헤이온의 이마에 다시 키스를 했다.지금은요?-심박 수가 늘었어.‘조금은 의식하기 시작한 건가?’헤이온은 여전히 자는 척 중이었다.아무것도 모른다는 천연의 얼굴로.-아, 귀여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거, 정말 귀엽지 않아요? 우리 헤이온이 이렇게 귀엽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귀여움 다 가져와도 상대가 안 된다고요.으, 주접.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어요...더 자극하지 않는 게 좋아. 흥분의 원인은 여러 가지니까.분노라면, 쓰다듬는다고 해서 편안해했을까요? 더욱 분노했을 걸요.그것도 그렇지만. 헤이온을 자극시키는 행동이, 로건에게도 자극이 되잖아. 현재, 로건의 중추신경 전달물질 농도가 짙어져 있어. 돌아가자.어렵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조금만 더 보고요.로건은 침대에서 내려갔다.바닥에 앉아, 침대 테두리에 팔을 걸치고 턱을 괴었다.보고만 있어도 참 좋았다.자는 시간마저 아까울 정도로.헤이온은 로건이 돌아가는 줄 알고 속으로 안도했다가, 아닌 걸 알자 복잡해졌다.따갑게 꽂히는 로건의 시선이, 피부로 느껴졌다.반대편으로 돌아누웠다.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잘 자.” 라는 조용한 인사를 남기고 돌아갔다.\*이른 아침, 정원.헤이온 일행은 호텔 주방장의 특제 도시락을 받자마자 마차에 올랐다.일찍 출발해야 그만큼 더 멀리 갈 수 있다.마차 문을 닫기 직전, 마그리타의 호위기사, 제이크가 쏜살같이 달려왔다.“나리, 잠시 만요!!”무슨 일인지 내다보니, 저만치서 마그리타가 차마 달리지는 못하고 빠른 걸음으로 오는 것이 보였다.마차에서 내린 헤이온은, 마그리타를 향해 천천히 오란 손짓을 했다.헤이온을 만난 마그리타는 기쁜 표정으로 숨을 몰아쉬었다.“하아... 전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여행이 끝나면, 한동안 벨프리트 저택에서 머물 거예요. 언제든 찾아주세요.”그레이시 가문의 인장이 찍힌 초대장이었다.“그래, 고마워.”“앗..! 으응.”마그리타는 수줍게 다시 말을 놓았다.루인도 마차에서 내렸다.“안녕하십니까? 마그리타 공녀님.”“안녕하세요, 루인 공. 오랜만이에요.”“바넷 공과 면식이 있으셨군요. 이럴 줄 알았다면 일정을 조율할 걸 그랬습니다. 마침 저희도 수도로 향하는 길입니다. 나중에 저희 저택으로 소식을 보내 주시지요. 기쁘게 찾아뵙겠습니다.”“조금 아쉽지만, 괜찮아요. 꼭 들러주세요.”마그리타는 사실 많이 아쉬웠다.‘식사라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하지만 바쁜 일이 있어 일찍 출발하는 것일 테니, 붙잡아서 부담주고 싶지 않았다.부친인 그레이시 공작은 발트 상단의 투자자다.루인 공의 일행이니, 필시 다시 볼 수 있을 것이었다.루인은 정중히 인사하고 마차에 올랐다.헤이온은 손을 가볍게 흔들었다.“공녀님, 또 보자.”그 모습에, 마그리타 뒤쪽에 서있던 제이크의 눈에 불꽃이 일었다.‘저 놈! 아가씨께 제대로 인사 올리지 않고!’제이크의 마음과 달리 마그리타는 기쁘게 웃으며 인사했다.“응, 기다릴게. 안녕.”그렇게 둘이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자마자, 루나카가 마차에서 내렸다.같은 성별끼리 초면인 경우, 신분이 높은 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주어야 했다.고개를 숙이고 기다리는 루나카에게, 마그리타가 흔쾌히 인사를 건넸다.“좋은 아침이에요.”“안녕하세요, 공녀님. 루나카 로웬입니다.”“안녕하세요, 로웬 양. 마그리타 릴리 그레이시입니다.”마그리타는 마차 안을 힐끗 살폈다.루나카의 옷차림을 보고 헤이온의 가족이나 친척일거라 생각했는데, 미들네임을 말하지 않은 것이다.미들네임이 없다는 건, 평민이란 의미였다.평민 여성이 귀족 남성과 함께 있다는 건...‘루인 공은 여자 소문이 없는 사람이고. 한 분 더 계신데, 저 분일까?’헤이온의 여자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다.하지만 마차에 있는 영식의 여자라면, 제 주인이 움직이지 않는데 단독으로 내려 인사할 이유가 없었다.안타깝게도, 마그리타의 실낱같은 부정은 단번에 끊어져 버렸다.루나카가 보란 듯이 헤이온에게 안겨든 것이었다.허망하게 선 마그리타를 남겨두고, 마차가 멀어져갔다.제이크가 투덜거렸다.“제가 뭐랬습니까. 무희 오라비처럼 생긴 게, 딱 봐도 바람둥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젊은데 벌써부터 첩을... 잘 됐습니다. 더 엮이기 전에 알아서.”“외모와 첩 하나로 바람둥이인 줄은 어찌 안답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보면 압니다. 아가씨와 초면인데도 대하는 게 너무 능숙하고, 바로 반말하잖아요. 작위도 불확실합니다. 그 자는 안 됩니다.”귀족끼린 존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사석에서는 친하면 반말을 하기도 하지만, 만난 날 반말하는 경우는 어린이들 외엔 없다고 보면 되었다.제이크는 그래서 헤이온이 더 싫었다.‘발랑 까진 놈이 아가씨한테 친한 척이나 하고 말이야.’마그리타의 미간이 일그러졌다.“된다, 안 된다를 제이크 경이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군요.”“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겁니다.”“어차피 첩입니다. 정실부인이 아니라요.”“예?”그 말을 끝으로, 마그리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제이크는 울화통이 터져 쉬익쉬익거리며 뒤따랐다.헤이온이란 놈이 너무너무 싫었다.홀연 나타나 아가씨를 홀린 무희 오라비.‘두고 보자. 건수 잡히면 바로 공작님께 찌른다.’그 놈의 첩도 짜증났다.일부러 마차에서 내려 인사했을 게 뻔했다.‘평민 주제에 얕은 수를 써?’마차 안에서 팔짱끼고 앉아만 있던 놈도.그 놈은 이쪽에 관심 없다는 듯, 시선 한 번 보내지 않았다.‘감히 아가씨께 인사를 올리지 않다니!’천하의 쌍놈이었다.\*무성한 초원.듬성듬성 자라난 나무 아래 그늘에서 점심 도시락을 비웠다.말이 아직 풀을 뜯고 있어서, 조금 더 쉬어가기로 했다.루나카는 아무렇게나 자라난 허브를 뜯어 입가심으로 씹었다.심심해서 공연히 주변을 빙빙 돌았다.마부는 자리를 펴고 눈을 붙였고, 루인과 헤이온은 마차 안에서 뭔가 이야기 중이었다.얼핏 들으니 그레이시 공작가에 대한 이야기 같았다.끼어들만한 화제는 아니었기에 방향을 돌렸다.마그리타 공녀를 떠올리자 심통이 나서, 허브를 짝짝 소리 내어 씹었다.헤이온에게 적지 않은 호감을 보이는 공녀도 짜증나지만, 하나 더.‘나는 그렇게 빡세게 견제하면서, 공녀는 가만 둔다고?’로건은 한참 떨어진 나무에 기대 앉아 실프와 노닥거리고 있었다.서로 코를 부비며 웃는, 환장의 커플.‘어후, 눈꼴 시려.’근접하자마자 로건이 차갑게 내뱉었다.“꺼져.”“나도 너 좋아서 온 거 아니야. 차별이 너무 심하잖아. 난 안 되고, 공녀는 돼?”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로건은 대꾸하지 않았다.“난 네가 움직일 줄, 아니, 말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지. 꼼짝도 않더라? 혹시 공작가라 쫄았어? 강약약강 오졌다~.”비아냥대자, 로건이 짧게 한숨을 쉬었다.“넌 이래서 안 돼. 가만있으면 네가 나설 텐데, 뭐 하러 내가 움직여?”“뭐?”“그 상황에서 내가 뭘 어쩔까? 여자를 상대로는, 너라는 패를 쓰는 게 베스트지. 난 너만 갈구면 돼.”듣자하니 공녀라 해서 봐준 건 아니라지만, 이쪽을 체스 말 취급하고 있었다.“이런 개새...”순간적으로 욕이 튀어나가다 말았다.“뭔 새?”“아냐, 아무것도.”“너, 이리 와 봐.”“아무것도 아니라고.”슬금슬금 마차 쪽으로 도망가려는데, 로건이 귀신같이 낌새를 알아채고 땅을 박찼다.로건은 순식간에 자신을 나무를 등지도록 몰아넣었다.잔뜩 긴장해 있는데 자세를 낮추고 얼굴을 들이밀더니,“나 잘생긴 거 맞냐?”하고 뜬금없이 물었다.“아이씨...”“씨? 아이 씨이~?”짜증이 팍 솟구쳤지만, 누굴 탓할 것인가.‘말 잘못 했던 내 죄로소이다...’“맞아, 잘생겼어.”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다는 듯, 로건이 피식 웃었다.“틀려.”“?”“이게 어떻게 잘생긴 거야? 엄~청 귀여운 거지. 이제 꺼져.”턱이 절로 벌어졌다.‘아니,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평화로운 마차로건은 한 발자국 정도 떨어져 다시 앉았다.실프의 꼬물거리는 작은 손을 맞잡고 마주보며 방긋방긋 웃어주었다.아기 어르듯이.그 모습을 어이없이 바라보던 루나카는,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저렇게 웃으니까 인간 같긴 하네.’로건이 실프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웃으며 툭 내뱉었다.“꺼지랬지.”“발트공이랑 헤이온님이 함께 있는데, 지금은 왜 방치해? 전엔 발트 공도 견제했었잖아. 기준이 뭐야?”루나카의 질문은, 면전에서 씹혀버렸다.“궁금해서 그래. 나도 좀 알자.”“헛소리 말고 꺼져.”“나보단 발트 공을 견제하는 게 맞지 않아?”순간, 로건의 웃음이 뚝 그쳤다.“왜 그렇게 생각하지?”싸늘해진 눈빛에 루나카는 덜컥 겁이 났다.하지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헤이온이 있으니 해코지하진 못할 것이었다.“그, 그야, 헤이온님이 여자- 커헉!”로건이 목을 움켜쥐는 바람에 루나카는 말을 끝마치지 못하고 컥컥거렸다.“넌, 정말 안 되겠다.”로건의 손에 힘이 들어가자, 쪼그려 앉았던 루나카의 다리가 풀렸다.주저앉은 루나카의 등과 뒷목을 로건의 다른 손이 받쳤다.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마차에서 보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컥, 끄흑!”루나카가 온 힘을 다해 로건의 가슴을 밀치고 때렸지만, 그는 꿈쩍하지도 않았다.얼굴을 할퀴려니 실프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붙들었다.상황이 어떻든 무조건 제 주인 편을 드는 타입이었다.마차에서는 이쪽이 잘 보이지 않는지, 아무도 말리러 오지 않았다.‘소리가... 안 나와... 미친놈이, 진짜 죽이려고...’괴로워서 얼굴이 일그러진 루나카에게, 로건이 냉소를 보냈다.“함부로 나불댄 입을 원망해.”퉷!루나카의 입에서 튀어나간 침이 로건의 얼굴에 맞았다.침을 뱉기 위해 안간힘을 쓴 보람이 있었다.한 뼘 거리라 피하지 못한 로건이, 조르던 손을 놓고 침을 닦았으니까.기분이 몹시 더러워 보였지만,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다시 조를세라, 루나카는 숨을 몰아쉬면서도 급히 해명했다.“후읍, 허락! 헤이온님이, 헉, 된다고!”“...”“먼저 알려주셨, 후아, 너는 괜찮다고, 하셔서...”“...”로건은 등을 받쳤던 손을 떼고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실프도 손을 놓아주었다.설움과 안도가 북받친 루나카는 울음을 터트렸다.“미친, 엉엉~,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등신아, 그걸 먼저 말했어야지.”“흐끅, 다 일러바칠 거야으어엉!”“그 다음에 살아있을 순 있고?”‘와아, 진짜 악질! 사과 대신 협박이야? 다신 너랑 말 안 섞는다!’질려서 벌떡 일어나는 루나카의 팔을, 로건이 붙잡아 도로 앉혔다.그리곤 말없이 손수건을 꺼내 내밀었다.주니까 일단 받아들긴 했지만, 루나카는 어안이 벙벙했다.‘뭐야? 미안하단 뜻인가? 의왼데.’입술을 삐죽 내밀고, 접힌 손수건을 흔들어 펼쳤다.“흥, 이런다고 네 잘못이 사라지진 않아. 알지?”“까고 있네. 구석구석 닦아. 티 안 나게.”루나카의 턱이 또다시 절로 벌어졌다.‘그럼 그렇지... 너한테 뭘 바라냐.’로건이 벌어진 루나카의 턱을 툭, 쳐서 집어넣었다.“여잔 거 알고도 그렇게 나오시겠다?”'마그리타 공녀 앞에서 나선 거 얘긴가?'살벌한 어조였지만, 루나카의 정신줄도 보통은 아닌지라 지지 않고 응수했다.“마음 접으라고 알려주셨겠지만. 헤이온님보다 멋진 사람이 세상에 없는데, 어떡하라고.”“어쭈,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멋지기만 하면 말을 않지. 얼마나 예쁜데.”“맞아, 맞아! 특히 햇살비치는 곳에 계실 때, 후광이 막-. 보면 진짜 미쳐.”“나도 알아. 제대로 봤네. 어디 외모뿐이야? 성격도 시원스럽고 털털해.”“무심한 와중에 세심해서, 가끔 훅 들어오잖아. 그래놓고 본인은 자각이 없다는 게 너무 치명적이야.”둘은 고개를 끄덕여가며 대화에 열을 올렸다.문득 정신차려보니 실프가 저만치 떨어져 있었다.“정령님, 왜 거기 계세요?”“...”로건은 흠,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루나카에게 지시조로 이야기했다.“넌, 말조심 하면서 네 역할이나 잘 하면 돼. 아까처럼 쓸데없는 질문은 하지 말고.”“궁금하기도 하고, 너랑 잘 지내보려고 그랬어.”“하, 누구 맘대로?”로건의 썩은 표정이 ‘미쳤냐?’라고 말하고 있었다.루나카 역시 표정으로 ‘미친 소린 거 나도 안다.’ 라고 받아쳤다.“헤이온님이 너랑 잘 지내래서. 너 좋은 사람이라고. 후우~.”“와핫, 진짜? 다른 말은? 내 얘기 한 거 있으면 다 불어.”갑자기 표정과 말투가 싹 바뀌는 로건을 보며, 루나카는 진심으로 욕하고 싶어졌다.그렇지만 성질 건드려서 좋을 게 없었다.“...믿음직하고 자상하대. 여자 생기면 엄청 잘해줄 거래. 어휴~.”푹푹 내쉬는 한숨은 들리지도 않는지, 로건이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쿡쿡거렸다.“푸핫, 또?”“유형제고, 어렸을 때부터 검술 훈련 같이 했다고. 이게 끝이야.”“더 생기면 보고해.”“아이씨... 참, 하나 더 있다. 아직까진 여자 만난 적 없다는 거.”로건의 웃음기가 가셨다.듣다 보니 좀 이상했다.‘저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하지만 그 의문은, 루나카의 다음 말에 묻혀버렸다.“헤이온님도 참. 동정인 거 빤한데.”“헛소리.”로건이 인상을 구겼지만, 루나카는 뭐 별거냐는 듯 말을 이어갔다.“정령들은 순수의 결정체야. 순결하지 않으면 계약할 수 없어. 마법학개론 정령파트에 나오는 내용인데, 뭘 정색해?”로건은 대꾸하지 않았다.-정말이에요?-응.실프까지 그렇다는데, 할 말이 없었다.루나카는 제 머리 끝을 손가락으로 꼬았다.“네가 정령사가 된 건, 엄청 의외였어.”“...”“인기 많을 텐데, 다른 의미로 여자 많이 울렸겠다 싶었거든.”“더는 못 듣겠다.”로건이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루나카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의외인 건 또 있어. 이거는 진짜 궁금해. 성별, 신분 안 가리고 견제할 정도로 헤이온님을 좋아하면서, 어떻게 정령사가 될 결심을 했어?”“그게 뭐.”루나카는 실프를 힐끔 보았다.“너 정도면 실레스틴은 무리라도 실라이론하고는 충분히 계약할 수 있었는데, 왜 실프랑 했는지도.”“?”로건의 얼떨떨한 표정에, 루나카는 제가 더 얼떨떨해져버렸다.“저기... 혹시,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지?”\*달리는 마차 안.언제나처럼 루나카는 헤이온에게 찰싹 붙어 기대있었고, 루인은 정자세로 앉아있었다.특이점이라면, 창밖을 내다보는 일이 거의 없던 로건이, 계속 창밖만 보고 있다는 점이었다.로건은 조금 전 루나카의 말을 곱씹는 중이었다.정령사는 자연 친화력, 마나 로드의 활성화, 순결이 전제되어야 하고,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될 수 있는 클래스.일반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희귀하다고 했다.“자연에 묻혀 살다시피 하면서 특정 원소를 반복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마나 수련까지 해야 하는데, 거기에 순결까지 만족시키기는 너무 어렵지.”마나를 다루는 데에 수준급 이상이 되었을 즈음엔, 나이가 들어 가정을 이룬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독신이라도 이성관계가 아예 없는 사람은 드물고, 정령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순결을 지킨다 한들 원하는 정령과 계약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그래서 정령사를 희망하는 자들은, 자신의 능력 내에서 최대한 높은 등급의 정령부터 계약을 시도하는 게 불문율이야.”정령을 볼 수 있게 되자마자 계약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그 시점에서 계약이 가능한 건 하급 정령들뿐이라, 단일 클래스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어차피 듀얼 클래스로 가야 한다면, 힘든 길을 갈 필요가 무엇이냐는 것.“원하던 급의 정령에게 거절당하는 경우도, 다른 밥벌이를 알아봐야 하는 건 마찬가지고. 자기 능력보다 선을 한참 낮춰서 시도하면 될 확률이 높긴 해.”일생을 건 도박에 자진 희망하는 자보다, 어쩌다 조건이 맞아떨어져 우연히 정령사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정도라고.루나카는 “실라이론과 계약했으면, 지금보다 50퍼센트 정도 강력한 속도 버프를 받을 수 있었어. 정령 자체의 독립적인 능력도 비교 불가야.” 라고 했지만.‘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문제는...’루나카가 의외였다고, 진짜 궁금하다고 했던 것.하도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기에 겁을 주자, 겨우겨우 꺼낸 말.“정령사는 순결을 지켜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찢긴다고 할까, 기억을 잃고 순백의 상태가 된다고 배웠어...”순간, 머리로 피가 몰렸었다.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출발하자는 헤이온의 외침에 대화가 끊겼고, 어떻게든 마차까지 와서 올랐지만 머릿속이 어지러웠던 것이다.그러지 않아도 헤이온의 마음을 받기란 막막했다.이제야 조금 진전이 있나 싶었는데.‘결국... 맺어질 수 없다는 거잖아...’이런 기분 상태로 차마 헤이온을 볼 수 없어서, 창밖만 내다보는 중이었다.루나카는 정설을 이야기한 것뿐이라지만 아까부터 실프는 잔뜩 풀죽어 있었다.로건, 걱정하지 마... 로건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이건 불공정계약이야. 원하면 언제든 해지해줄게.공정계약이었다면 원해도 해지할 수 없다는 소리로 들려요.해지도 쌍방이 합의해야 해.-정령 쪽에서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가보죠? 이유가 뭘까요?..실프가 대답하지 않자, 로건은 질문을 바꾸었다.-계약으로 정령이 얻는 이득이 뭔데요?자연원소의 순수 외에, 생명체의 순수를 교류 받는다면, 그렇지 않은 정령들보다 서열이 올라가. 상위 등급으로의 진화 속도도 단축되고. 다른 실프들은, 상급자가 없는 곳에선 내 명령을 따라야 해.-전 분명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었는데. 왜 미리... 아니, 진작 알려주지 않았어요?계약 전에는 대화할 수 없었다지만, 눈치를 주거나, 정보를 얻기까지 계약을 미룰 수는 있었을 것이다.하다못해 계약 직후에라도 귀띔해줄 수 있었을 텐데.실프를 탓하려는 건 아니었다.‘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던 내 탓이야.’다만, 실프에게서가 아닌, 제삼자인 루나카에게서 정보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 못내 씁쓸했다.지성체로서 계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인간을 포함한 몇 종족뿐이고, 그 중에서도 조건을 만족하는 개체는 알다시피 극히 드물어. 하급 정령에게 이만한 기회는 없어. 놓치고 싶지 않았어.-그게... 다에요?-난 로건이 너무너무 좋아. 계약해주지 않았어도 계속 따라다녔을 거야... 분명 해지하기 싫어질 테니까, 로건을 위해서는 불공정계약이 낫다고 판단했어.불공정계약으로, 스스로에게 제약을 걸어두었다는 얘기였다.이해는 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헤이온을 마법으로 재웠을 때, 관계를 권장했었잖아요. 그건 뭐죠? 제가 하겠대도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헤이온은 로드니까.네?세카트로님은 골드드래곤이야. 바람의 정령왕 실피드님과 나란한, 바람의 주인이시지.“쿠헉!”로건은 갑자기 사례가 들려, 크게 기침했다.모두의 시선이 쏠린 터라, 손을 휘휘 내저었다.그 후로도 몇 차례 작은 기침을 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팔짱 끼고 눈을 감았다.‘굉장한 분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대마법사는 다 그런 줄 알았지. 드래곤이 실존하다니.’-하던 얘기, 마저 할까?-네.-헤이온은 세카트로님을 소환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어. 드래곤 로드는, 드래곤의 주인. 정령과의 계약에 타격을 주지 않아.-어... 그럼...-정령들은 정령사와 계약중이라도, 기본적으로는 자연원소의 주인에게 귀속되어 있거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주인의 주인을 탓할 수 있는 정령은 어디에도 없어.-그 말은...-다른 원소계열은 안 되지만, 로건은 바람계열 정령사잖아? 계약중이라도 헤이온과는 얼마든지 짝짓기해도 돼.“푸학!!”또다시 로건이 뿜듯이 기침하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헤이온이 걱정스럽게 물었다.“괜찮아?”헤이온과 눈이 마주치자, 로건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어디 아파?”반쯤 일어선 헤이온이 팔을 뻗어 로건의 이마를 짚었다.“으, 괜찮-”덜컹!때마침 바퀴에 돌부리가 걸렸는지, 마차가 크게 흔들렸다.휘청거리던 헤이온은 서둘러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실프가 때를 놓치지 않고 등을 떠밀었다.“어어억?”“!!”로건이 자신 쪽으로 넘어지는 헤이온을 급히 받쳐주었다.하지만 이미, 둘의 입술이 살짝 스친 후였다.로건의 가슴이 쿵, 크게 뛰었다.닿을 뻔 한 적은 있어도 실제 닿은 건 처음이었다.놀란 건 헤이온도 마찬가지였다.미안하다고 말하며 벽을 짚고 일어서려던 헤이온은, 다시 한 번 마차가 크게 덜컹거리는 바람에 그대로 로건에게 넘어지고 말았다.이번에는 스치는 정도가 아니었다.두 사람의 입술이 자석끼리 달라붙듯, 강하게 포개어졌다.“...!”잠깐 경직됐던 둘은, 퍼뜩 떨어졌다.헤이온은 “미안!” 을 연발했고, 로건은 귀까지 붉어져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나 잘했지...타이밍 좋게 마차가 덜컹거린 것도, 헤이온이 물리법칙을 무시하고 하필 로건에게 넘어진 것도, 전부 실프 짓이었다.모든 걸 생눈으로 지켜본 루나카가 탄식했다.“하이고~.”영문을 모르는 루인은 셋을 번갈아 바라보았다.이유가 뭘까로건은 헤이온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손으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시선을 창밖에 두었다.-다음부턴 이러지 마요.-어차피 두 번은 없어. 들킬 거야.-헤이온은 지금 어쩌고 있어요?-평소랑 똑같아.힘이 빠졌다.‘너한텐 그저 지나가는 사고구나.’자신은 아직도 여운이 가시질 않고 있는데.겉모습은 그렇지만. 시상하부에서 연계된 쉽게 말해, 약간 흥분상태야...하하.지금의 헤이온은 로건이 쳐다보는 것만으로 자극받을 거야. 계속 창밖만 보고 있기엔 아까운데. 어떡할래?‘그렇다면야.’천천히, 정면 쪽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헤이온과 눈이 마주치자 가슴이 떨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꼿꼿하게 마주보았다.헛수고 같은데요.손 치워 봐. 입 가리지 말고.얼굴을 반쯤 가렸던 손을 내리고, 으레 그렇듯 팔짱을 꼈다.반응이 있었다.자신의 입술을 멍하니 바라보던 헤이온이, 등받이에 고개를 기대고 눈을 감아버린 것이다.와하핫! 귀여워.인간들은 신기해. 심리가 다채롭고 복잡해서, 신체 반응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지. 주변 영향도 많이 받고.곰과 토끼처럼 살 순 없으니까요.-고등생물은 이런 점에선 피곤하겠네. 저 남자도 그래.‘남자?’마차 안에 자신 외의 남자는 발트 공 뿐.그는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다.-이따금 헤이온의 입술을 보면서 반응하고 있어. 정확히, 로건과의 키스 이후부터.외진 언덕길로 들어선지 얼마 안 되었다.갑자기 말들이 요란스레 울고, 마차가 크게 흔들렸다.“아이고, 나리들! 큰일입니다!”마부는 마차를 급히 세울 수밖에 없었다.오르막을 올라 시야가 트이자, 전방 내리막에 통나무와 돌을 쌓아 통행을 차단해둔 것이 눈에 띄었다.계속 달리면 말들이 고꾸라지고 마차가 전복되고 만다.마차가 멈춰 서자, 열댓 명의 무장 도적들이 접근해왔다.“나리! 나리!! 어떡합니까!?”마부의 식겁한 외침에 루인이 대답했다.“침착하게.”‘침착하게 생겼냐고요! 왜들 이리 굼떠? 혼자라도 도망쳐야 하나?’점점 거리를 좁혀 포위해오는 도적들.마부는 식은땀이 났다.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말았다.마차를 호위할 기사도, 용병도 없이 출발한다기에 그토록 말렸었건만.발트 공의 “걱정 말게.” 라는 무덤덤한 말과 두 배의 삯에 덜컥 계약해버린 것이, 이제 와서 후회가 되었다.‘괜찮겠지? 발트 공이 아무 대책 없이 출발하진 않았을 거야.’발을 동동 구르던 마부는, 마차 문이 열리자 침을 꿀꺽 삼켰다.하지만, 내린 것은 금발 영식, 흑발 영애가 전부였다.떡 벌어진 장신으로 가장 든든해보였던 자색발 영식은 내리지도 않았다.금발 영식이 마차 안을 향해 “넌?” 하고 묻자, “귀찮아.”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마부는 눈알을 요리조리 빠르게 굴렸다.위기상황에 안에서 뻐기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내린 사람들도 대책 없어 보였다.둘 다 무기 없이 빈손이었다.‘이렇게 되면 두당 최소 넷은 상대해야 하는데...’마부가 근심스럽게 둘을 바라보았다.자신은 무인이 아니니, 하나 상대하기만 해도 다행일 것이었다.둘이 무인이나 마법사라고 가정해도 문제였다.무기는 없고, 캐스팅은 시작하지도 않았다.멀뚱멀뚱 서있는 그들을 보자 정신이 아득해졌다.‘여기서 죽나? 아이고오~.’다가온 도적들이 무기를 들이밀며 소리 질렀다.“안의 놈들도 내려! 마차는 우리가 접수한다!”“나, 나리들...!”다행히, 영식과 영애에게 뭔가 계획이 있는 듯했다.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다.그들이 우렁차게 외쳤다.“가위, 바위, 보!!”마부는 신이 나서 쾌속으로 질주했다.그도 그럴 것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일하는 마부가 자신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가위 바위 보에서 이긴 금발 영식은 어깨를 돌려 으드득 풀고는, 맹수처럼 돌진했다.그가 한 도적의 검을 빼앗은 뒤로, 모든 것이 빠르게 척척 정리되어갔다.열렬한 기세에, 마차 후미에 있던 도적이 인질을 잡으러 달려왔다.영애 하나로 충분하다 생각했는지, 자신에게는 검을 휘둘렀다.꼼짝없이 당하는 줄 알았지만, 검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때리고, 휘면서 미끄러졌다.흑발 영애가 “호호, 마부씨와 말들 주변엔 항상 실드가 있으니까요!” 라며 손가락으로 브이를 그렸다.이후 도적이 공중으로 떠올라 허우적거렸고, 그대로 영식에게 배달되었다.표적이 된 마차의 마부는 공격의 시작과 동시에 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호위를 고용해봐야 자기들 안전이 우선이지, 대체 가능 소모품인 마부와 말의 안전까지 챙겨주는 고용주는 없었다.격하게 감동받은 마부는, 저도 모르게 말들을 재촉했던 것이다.덕분에 예상보다 일찍 다음 숙소에 다다랐다.“나리, 도착했습니다요!”\*마차 문에서 루인이 가장 가까웠다.앞서 내리는 루인의 뒤에 바짝 따라붙은 로건이, 무릎으로 루인의 등을 퍽! 찍었다.“!”예상치 못한 충격에 고꾸라지려는 루인의 어깨와 팔을, 로건이 잡아주었다.“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로건의 말씨는 예의발랐지만, 루인은 승모근과 삼두근을 짓이기는 고통에 휩싸였다.로건이 속삭였다.“웃어.”“하하, 괜찮네...”억지로 웃으며 고통을 참던 루인은, 손아귀에서 풀려나 걸음을 떼자마자, 결국 넘어지고 말았다.로건이 발을 건 탓이었다.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빠르게 발을 원위치로 돌린 로건은, 이번엔 손을 내밀었다.“혼자 일어설 수 있네.”루인은 저 손을 잡아봐야 좋을 리 없다는 걸 알기에 거절하고 일어섰다.마차 안, 의자에서 막 일어난 헤이온이 물었다.“무슨 일 있어?”로건이 루인과 부딪힌 후 잡아준 것까지는 봤지만, 이후는 일어선 루나카의 치맛단에 가려 상황을 볼 수 없었다.루나카가 답했다.“발트 공께서 발을 헛디디신 모양이에요. 크게 다치시진 않았어요.”“그럼 다행이고.”‘다행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네요.’루나카는 답답했지만, 로건의 만행을 곧이곧대로 고자질할 수도 없었다.‘저 또라이한테, 기준이란 게 있긴 있나? 가만있던 발트 공을 왜?’참 알다가도 모를 인간이었다.과격한 면이 있지만 그 때마다 나름 이유는 있었다.하지만 지금의 행동은 이유가 없어 보였다.‘혹시, 점심 때 단 둘이 마차에 남아있었던 거 때문에? 그걸 지금 터트린 거?’발트 공은 헤이온을 신뢰하고 아낄 뿐, 그런 쪽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었다.정 샘나거든 대화를 방해하면 모를까, 이렇게까지 나올 일은 아닌데.발트 공은 귀족, 그것도 백작가 차기 가주이다.헤이온의 말에 의하면 로건은 현재 평민.옛 영광에 젖어, 너무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거 아닌가.‘...저러다 죽지.’루나카는 앞서 걷는 로건의 뒤통수만 뚫어져라 보았다.소매 안에서 손수건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는 채.루인은 약제사를 불러, 까진 무릎을 소독하고 약을 발랐다.그가 공손히 인사하고 물러갈 즈음 쓰라림이 몰려왔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도적들 때문에 마차가 멈췄을 때, 로건은 “귀찮아.” 라며 나가지 않았었다.귀찮아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였다.몇 마디 오가지 않은, 그와의 짧은 대화가 계속 뇌리를 맴돌았다.-어떤 느낌인지 궁금해? 너도 해보고 싶지?-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군.-실수나 사고라면 나도 해볼 수 있을까, 그런 기대는 버려. 전부 막을 거니까..‘내가 그런 기대를 했던가?’했던 것도 같았다.스스로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 루인을 괴롭게 만들었다.헤이온은 보기 드문 미소년이었다.그래서 괜스레 눈길 가는 때가 분명 있긴 했지만...그는 생명의 은인인데다 강하고 현명한 사람.‘동경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지 않은가?’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주리라 다짐했었다.그뿐이었는데.그래야만 했는데.로건과 헤이온의 입술이 맞닿은 것을 본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우연한 사고에 잠깐 놀란 거라 하기엔,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가슴이 뛰었다.헤이온의 입술을 볼 때마다 로건의 입술과 닿아 꾸욱 눌려있던 장면이 떠올랐다.‘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나였다면. 기침을 한 것이 나고, 넘어지는 그를 안은 것도 나라면.’그랬다면, 지금 이 감정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확실하게 정의내릴 수 있었을 텐데.‘아니, 아니야. 정의 내려 무얼 한단 말인가.’그는 남자다.루나카를 밀어내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것도 어찌 잘 해결이 되었는지 전처럼 사이좋은 연인으로 돌아왔다.로건이 아무리 날뛰어 봐야, 자신이 이런 고민을 해 봐야, 소용이 없다.그럼에도 루인은 여러 차례 스스로를 곱씹었다.이젠 인정해야 했다.계속해서 동경으로 포장하고 억눌러왔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처음으로 어렴풋이 깨달았던 건, 아마 그 때.헤이온이 볼 일을 마치면 글레이드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였다.너무너무 붙잡고 싶었다.수도에, 자신 곁에 머물러 달라고 하고 싶은 것을 꾸욱 참았다.여간해선 사람 미워하지 않으려는 자신이지만.어떤 심정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괴롭혀오는 로건이 미웠다.하지만 로건을 욕할 수는 없었다.남색을 하는 자라며 꺼렸지만, 어느새 자신도 마찬가지가 되어 있었으니까.‘다만, 태도가 확실하지 않은 점은 욕하고 싶군.’점심때였다.출발하기 위해 로건과 루나카를 찾았더니, 그들은 한참 떨어진 곳에서 이야기 중이었다.바로 부를까 했지만, 그 두 사람이 키스를 하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다.루나카는 처음엔 로건의 가슴을 때리며 앙탈을 부렸다.하지만 이내 얌전해졌고, 로건은 키스하는 내내 루나카를 다정히 안고 있었다.그 모습을 헤이온도 같이 보았다.그는 “이따가 부르자.” 라며 마차로 들어갔다.기분 탓인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투였다.이후, 마차에서 헤이온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시간이 꽤 지나도록 로건과 루나카는 돌아오지 않았고, 다시 나가보니 이번엔 루나카가 로건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있었다.어찌 해석해야 할지 난해하고, 끼어들기도 뭐한 광경이라 못 본 척 하기로 했다.헤이온을 속상하게 만드는 둘이 원망스러웠다.더는 지체할 수 없어 헤이온이 둘을 불렀다.루나카는 로건의 눈치를 보면서도 천연덕스럽게 다시 헤이온에게 매달렸다.헤이온은 둘의 키스를 봤으면서도, 모든 걸 묻으려는 듯했다.그만큼 루나카를 아끼고 있는 것일 터였다.문제는 로건이었다.초점 없는 눈, 굳은 얼굴로 마지못해 돌아와서는, 마차에서 내리 창밖만 보았다.밀회를 하려거든 제대로나 하지, 이게 뭔지.헤이온을 좋아하는 건 틀림없어 보이는데, 와중에 헤이온의 여자와도 그런 관계라니, 참...난잡하기 그지없었다.로건이 헤이온의 곁에서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그 직후, 키스 사고가 일어났다.\*헤이온은 자는 척 중이었다.또다시 로건이 새벽에 찾아온 탓이었다.그가 싫은 건 아니지만 당장은 어색했다.‘루나카와 잘 되는 게 아니었나? 왜 또...’로건은 이번엔 침대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자는 척하는 자신을 만지지도 않았다.그저 좀 떨어진 곳에 서서, 바라보기만 하다 돌아갔다.잘 자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이딴 걸 왜 확인 하냐고.’이런 로건의 기행은, 단발성이 아니었다.며칠 내내 이어졌다.^^^고귀한 딸기의 현자날이 갈수록, 헤이온의 피곤함이 늘어만 갔다.\*어느덧 벨프리트 입성까지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그간 일을 들을 겸, 헤이온은 세카트로를 부를 생각이었다.그 전에, 호텔 사용인에게 딸기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해 놓았다.얼마 지나지 않아, 카트를 끌고 온 사용인이 딸기가 한가득 담긴 접시와 생크림, 초콜릿 접시 등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나갔다.딸기 철은 이제 지났지만, 보존마법으로 수개월간 싱싱하게 보관해 먹을 수 있었다.제철이 아닌 식재료를 즐긴다니, 한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 하던 일이 지금은 일상이 되었다.헤이온은 탐스러운 딸기를 보며 주문을 외웠다.“세상에서 가장 귀엽고 작은 딸기의 현자, 세카트로 님이시여! 위대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주시옵소서!”잠시 후, 눈부신 빛의 고리 안에서 세카트로가 걸어 나왔다.그가 화사하게 웃으며 팔을 벌렸다.“잘 지냈느냐? 자주 부르지 않고. 보고 싶었느니라.”헤이온은 혀끝을 내밀어 메롱을 하고는, 다가가 부둥켜안았다.“불러야만 와? 그냥 오면 되지.”“네 위치를 특정할 수 없지 않느냐. 정착하면 자주 찾을 것이니 서운해 말거라.”헤이온은 세카트로의 품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세상에서 유일한, 자신이 응석부릴 수 있는 사람.요 며칠간, 영양가 없는 일에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좀 지쳐있었다.세카트로의 품에서는 싱그러운 숲 향기가 났다.그 어떤 향보다, 평생 살아온 산의 나무와 풀 향이 좋았다.안겨 있으니 거짓말처럼 편안해졌다.세카트로는 헤이온을 안아들고, 공중으로 약간 떠올랐다.의자에 앉히듯 제 무릎을 굽혀 헤이온을 그 위에 앉히고, 상체를 조금 젖혀 기대도록 했다.세카트로의 어깨에 걸쳐져 있던 숄이 스르륵 날아가 헤이온의 등 뒤에서 펼쳐지며 덮였다.테이블 위에 있는 딸기와 생크림, 초콜릿 접시들이 가지런히 날아와 옆에 자리 잡았다.헤이온이 딸기에 생크림을 듬뿍 찍어 세카트로에게 내밀었다.세카트로는 쉬이 받아먹지 않고, 헤이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왜? 딸기 별로야?”“그런 게 아니라. 네가 너무 귀엽구나.”세카트로의 말은 진심이었다.딸기를 들고, 받아먹길 기다리는 눈빛이 너무너무 귀여웠다.같이 먹자는 줄로만 알았지, 먹여 주리라곤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풉, 뭐래. 빨리 안 먹으면 내꺼!”헤이온은 딸기를 제 입 안에 쏙 넣고 오물거렸다.“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다시 내놓거라.”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서로 먹여주길 몇 차례.딸기나 먹자고 부른 건 아닐 테니, 세카트로는 헤이온이 묻지 않아도 본론을 꺼냈다.“......해서, 별 일 없이 순조로우니라.”“...”글레이드의 근황을 전했는데 대답이 없었다.“아이야.”“...”피곤했는지, 헤이온이 잠들어 있었다.세카트로는 헤이온의 등을 살짝 토닥여주었다.그 때, 문이 열렸다.“헤이온 님!”놀러 왔던 루나카는, 너무 놀라 제 입을 막고 굳어버렸다.헤이온이 처음 보는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잠든 얼굴이 너무나도 평온해서, 남자가 수상한 사람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다.애초에 수상한 사람이었으면 헤이온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었다.이 세상 것이 아닌 듯, 찬란히 빛나는 미모의 남자.밝고 긴 금발에, 헤이온과 같은 황금안.수수하지만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옷, 화려한 금 장신구들.그가 검지 끝을 살며시 입술에 가져다 댔다.루나카는 일순 압도되어, 꾸벅이고 조용히 물러났다.\*‘누구지? 누굴까? 헤이온님의 애인? 오빠? 친척?’루나카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서 한참을 뒹굴거렸다.‘부티, 귀티, 미모 다 갖췄어. 그런 사람 처음 봐.’고귀하다, 라는 표현이 제격이었다.다시 찾아가 물어보자니, 아직 남자와 있을까 봐 망설여졌다.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았다.‘내일 물어 봐야지.궁금해!’당장 궁금증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함에 애꿎은 베개만 퍽퍽 때려댔다.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다.헤이온일까 싶어서 후다닥 달려가 열었지만, 아니었다.“너냐... 뭐 갈구게?”로건이 말없이 주머니에서 금화 하나를 꺼내 퉁겼다.금화를 잡아든 루나카가 얼떨떨해서 물었다.“왜 줘? 심부름 시키려고?”“헤이온이 수고비래.”좋아서 방방 뛰는 루나카에게, 로건이 시큰둥하게 내뱉었다.“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면 됐지. 저런 식충이에게 수고비씩이나.”“그러는 너도 식충이잖아.”“부단장으로서 영주님 호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마차가 포위돼도 귀찮다며 나오지도 않아 놓고.’“누가 누굴 호위... 성실...”스읍-, 로건이 입으로 공기 새는 소리를 내자 루나카는 입을 다물었다.돌아가는 로건의 뒤통수에 대고 가자미눈을 떴다.‘그 장면을 봤으면 발광했을 텐데. 야, 넌 상대도 안 되더라.’\*로건은 시내 고급 잡화점을 찾았다.수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운이 따라주어 기분이 좋았다.조금 전, 헤이온이 처음으로 먼저 자신의 방을 찾아주었다.실프와의 마나 수련 중에 방해받긴 했지만, 그녀가 찾아와준 것이 너무 반가웠다.글레이드에서 정산이 있었다면서, 직접 수령하지 못하는 자신의 봉급은 기부로 돌려 복지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했다.조금 아쉬웠지만, 헤이온이 내린 결정이니 불만은 없었다.그런데...“대신 여기서 나한테 받아.”라며 금화 열한 개를 건네주었다.“한 개는 루나카의 수고비야. 네가 전해 줘.”루나카의 방이 멀지도 않은데 굳이 자신에게 전해주라는 게 의아했지만, 그러겠다고 했다.헤이온이 루나카에게 전해주면, 그것이 틀림없이 매달리고 부대끼며 난리를 칠 것이었다.그렇게 두느니, 대신 전해주는 것이 속편할 성 싶었다.사무적인 볼일만 보고 바로 돌아간 헤이온이 야속하면서도, 어찌 보면 잘 된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드디어 제대로 선물할 수 있어.’그렇게 바로 옷을 챙겨 입고 시내로 나왔다.고급 잡화점에는 눈이 핑글핑글 돌 정도로 휘황찬란한 물건들이 많았다.우선 복숭아향 고급 입욕제를 집어 들었다.점원이 다가와 물었다.“선물하시는 건가요?”“네.”“안목이 좋으시네요. 혹시, 같이 선물하시면 어떠세요?”점원이 추천한 것은 야한 속옷이었다.목욕 후에 이걸 입고 있어 달라는 의미가 될 터였다.“...그런 사이는 아니라.”“그러시구나. 그럼, 이걸 추천할게요.”\*로건은, 루나카가 찾아와 내민 선물 상자에 얼이 빠졌다.자신이 헤이온에게 주었던 선물 상자였다.분명 흔쾌히 받아 주었었는데.“이걸 왜 네가 가져와? 돌려주래?”헤이온이 이런 걸 대신 돌려주라고 할 사람은 아니지만 혹시나 해서 물었다.루나카는 고개를 저었다.“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헤이온님은 이거 네가 나한테 준 걸로 아셔.”“...”로건은 말문이 막혔다.“그럴 리 없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주고 가셔서. 카드 붙은 거 읽어보니까, 역시 내 게 아니잖아.”“...”“화났어? 나 잘못한 거야? 너 말고 헤이온님께 다시 드릴 걸 그랬나?”“아니... 잘 했어. 잠깐 있어 봐.”‘어디서부터 꼬인 거지?’선물상자를 받아든 로건은, 생각에 빠졌다.전에 각각 향이 다른 입욕제 세 개를 선물하면서, 참고할 테니 가장 좋은 향을 알려달라고 했었다.헤이온은 “야, 복숭아향.” 이라고 지나가듯 말해주었다.‘시용을 했으니, 관련된 다른 선물이 있으리란 예상을 했을 텐데.’제 것인 줄 모르고, 심지어 상자 겉에 붙여둔 카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니.카드에 ‘헤이온에게’ 라고 적어두어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루나카 손에 들어갈 뻔...‘설마...!’로건의 눈이 크게 떠졌다.“네가 썼어? 네가 복숭아향 좋다고 그랬어?”“...어? 어어? 헐!!”루나카도 당황했다.“남의 걸 왜 써? 죽고 싶어?”“아니, 난! 헤이온님이 주시니까 선물인가보다, 했지! 너야말로 뭘 어떻게 했길래 선물상자까지 나한테 오게 만들어?!”로건은 이마를 짚고 으으, 앓는 소릴 냈다.“오해한지 꽤 됐다는 거네. 언제부턴지 감도 안 오는데. 넌 오냐?”“네가 모르는 걸, 난들 어떻게 알아.”“죽기 싫으면 알아내.”“아이씨...”“됐어, 해본 말이야. 나중에 헤이온이 뭔가 묻거든 대답이나 똑바로 해.”로건은 짧게 한숨을 쉬고, 선물상자를 휴지통에 던져 넣었다.“뭐 하는 짓이야?!”“어차피 걔 취향도 아닌데.”루나카가 선물상자를 도로 꺼내, 겉을 제 소매로 닦고 후 불었다.그러더니 테이블 위에 놓았다.“취향이냐, 아니냐가 중요해? 오해를 풀어야 할 거 아니야!”루나카는 그 말을 끝으로, 나가버렸다.로건은 곧바로 선물 상자를 들고, 헤이온의 방으로 향했다.한 번 버렸던 물건을 다시 주려는 건 아니었다.하지만 루나카의 말대로 오해는 풀어야 하고, 푸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었다.한달음에 도착해 노크를 했다.기다렸지만,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일찍 자나?’자는 게 아니라, 자는 척 중일 거란 생각을 하면서 안으로 들어섰다.마법 등도, 기름 등잔도 모두 꺼진, 어두운 응접실을 지나 침실 앞.로건은 간이 문을 조심스레 밀었다.‘?’밀리지 않아서 힘을 더 주었는데도, 여전히 밀리지 않았다.‘이 호텔은 침실에도 잠금장치가 있었던가?’그렇다 해도, 문이 깊이 박힌 거대한 바위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방문을 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실프가 문을 투과해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고, 망연히 문을 짚고 있는 것이었다.-로건, 침실 둘레에 결계가 쳐져 있어.-무슨...?!-걱정 안 해도 돼. 오늘은 돌아가자. 난 디스펠 할 수 없어.-잠깐. 제가 해보면요?-10서클 결계는 드래곤과 정령왕의 영역이야.인간 레벨에서는 디스펠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었다.뜬금없이 정령왕이 찾아와 결계를 쳤을 리는 만무하다.글레이드의 정산 소식을 전달한 건 세카트로였을 테니, 그가 친 결계임이 분명했다.세카트로가 헤이온에게 위해를 가할 리 없었다.그래서 실프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거겠지만...‘그건 그거고.’여러 날, 자신이 새벽에 찾아왔던 것을 헤이온도 알고 있다.‘아니까, 막은 거야.’세카트로가 자발적으로 결계를 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헤이온이 막아 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다.\*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따사로운 햇살.헤이온은 상쾌한 기분으로 기지개를 켰다.‘간만에 푹 잤네. 부탁하길 잘 했어.’어제, 세카트로가 돌아가기 전, 침입과 소음을 완전히 차단해 주는 결계를 부탁했었다.세카트로는 “쉬운 일이니라.” 라며 손끝을 가볍게 돌렸다.“이제, 아침까지 너 이외엔 무엇도 출입할 수 없느니라.”“벌써? 이렇게 간단히?”세카트로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딸기의 현자.”“?”“킥킥, 고마워.”“네 부탁이라면 얼마든지 들어줄 테니, 말만 하거라.”“뒷북이긴 한데. 혹시, 공간이동으로 여러 명을 멀리까지 이동시킬 수 있어?”“내가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는 곳이고, 그들의 이동이 인과율을 뒤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가능 하느니라.”“여기 와본 적 있는 곳이야?”“네가 부르지 않았느냐.”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세카트로가 사과해왔다.“기대에 미치지 못해 미안하구나. 시간과 공간은 본디 신의 영역이니라. 나의 미미함을 용서하거라.”“엥? 뭐가 미안해? 세카트로님,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데. 항상 고마워.”그래도 세카트로의 얼굴에서 침울함이 가시지 않아서, 얼굴공격을 했다.세카트로는 그제야 풋, 하고 웃더니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오늘밤도 불러서 결계 쳐달라고 할까?’로건이 또 왔었는지, 오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왔었다 해도 상관없었다.루나카에게 성별을 밝힌 이후로, 그 둘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았다.키스도 하고, 고급 선물도 하고.‘날 중간에 끼우지 말고 알아서들 하면 더 좋겠다만.’루나카가 이쪽에 달라붙는 건, 이제 와선 버릇 같은 거랄까.로건도 루나카의 행동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서로 툭툭 치는 행동이 눈에 띄게 줄었다.마음이 안정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리라.모처럼 잘 되어 가는데, 공연히 왕래하다 들켜 그녀에게 오해를 사게 할 순 없었다.직접 보고 말하려니 어색하기도 하고, 로건이 계속 오겠다고 하면 강하게 거절하지 못할 것 같았다.그가 계속 찾아오는 이유가 뭔지 확실하진 않지만, 어렴풋이 짐작가기 때문이었다.‘이렇게라도 오지 말라고 못 박는 것이 나아.’무엇보다도, 신경 쓰여서 잠을 설치게 되니 피곤했다.세카트로를 불러놓고 잠들어버렸을 정도로.푹 자고 한결 나아진 컨디션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욕실로 가기 위해, 침실 간이 문을 열었다.“!”문 앞에, 로건이 서 있었다.처량한 얼굴로.그럼 알 때까지 해헤이온은, 로건의 축 쳐진 어깨와 쓸쓸한 표정에 바로 알 수 있었다.그가 밤새 이곳에 서있었으리란 것을.로건은 자신의 품으로 헤이온을 화악 당겼다.고작 하룻밤 새였는데,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던 것처럼 격했다.헤이온은 로건의 등을 감싸려다, 이내 팔을 거두었다.“너 바보야? 돌아갔었어야지. 기다릴 거면 소파에서 기다리던지.”로건은 헤이온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좌우로 저었다.“여기가 너를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곳이야.”생각지도 못한 대답에, 헤이온은 숨이 턱 막혔다.로건이 측은하게 느껴졌다.짐작했던 것 이상으로 그는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었다.스킨십을 자주 해오고 얼굴을 들이대는 등, 전과 달라진 모든 행동들.의존증이 심화된 탓일 것이었다.‘얘한텐 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자신에게는 전폭적인 도움을 주는 양외조부, 세카트로가 있었다.관계가 어찌될지 모른다지만, 혈연인 로이먼드 황제도.반면, 로건에게는 아무도 없었다.자신 외에는.폴칸 아저씨는 일찍이 병사했고, 폴칸 부인은 마계의 습격으로 세상을 떠났다.몇 안 되는 친척들도 인근 마을에 거주했던 터라, 마찬가지로 모두 사망했다.할배도, 촌장도, 벗들도, 마을 사람들 전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로건의 지인들 중, 살아남은 사람은 자신이 유일.그렇기에 그토록 자신의 안위를 살피고, 응석부려오는 것일 터였다.아기일 때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냈다.남매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늘 붙어 다녔다.추억이 된 시간들 곳곳마다, 로건이 들어차지 않은 곳이 없었다.로건 역시 마찬가지이리라.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란 것은 분명했다.‘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경계가 불확실해져가는 로건의 행동을, 더 이상 받아줄 수만은 없었다.지금까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관계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기에.매몰차지는 않되 단호하게 말해둘 필요가 있었다.“너의 이런 행동들은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 날 지켜주지 않아도 돼. 네가 지켜야 할 사람은 따로 있잖아.”로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포옹을 풀고, 옆 탁자에 올려두었던 선물상자를 집어 들었다.헤이온은 짐짓 놀랐다.‘저게 왜... 루나카에게 전해줬던 건데...?’로건이 선물상자에 붙어있던 카드를 떼어내 헤이온의 손에 쥐어주었다.헤이온은 조심스레 카드를 펼쳐보았다.‘...!!’또박또박 정성들여 적은 글씨로, ‘헤이온에게’ 라고 쓰여 있었다.‘아... 어떡하지? 그런 줄도 모르고 루나카한테...’헤이온은 카드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엄청난 실수를 해버렸다.삽질도 보통 삽질이 아니었다.한사코 아닐 거라던 루나카에게, 떠넘기듯 안겨주지 않았던가.자신의 행동이 미칠 듯이 후회되었다.카드를 보고 그녀가 얼마나 실망했을지.둘의 사이를 돕기는커녕, 작정하고 방해한 것과 다름없었다.곰곰 생각해보니, 로건이 루나카에게 전해달라고 하진 않았었다.그저 “좋다는 향으로 준비했어. 맘에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그런데, 어째서 내 선물이 됐지?’이전, 하트 모양 입욕제를 건네받았던 때까지 기억을 더듬었다.‘확실히, 루나카에게 선물할 거란 얘기도, 루나카의 취향이 궁금하단 얘기도 없었지. 설마...’헤이온이 커다랗게 뜬 눈으로 로건을 올려다보았다.“이전 것도 내 거였어?”로건이 손에서 놓아버린 선물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다.대답 대신, 로건은 헤이온을 다시 품에 안았다.“기억해? 내가 죽을 뻔 했을 때.”그 때를 상기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보다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였다.헤이온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그 때, 너에게 뭔가 말하려 했던 것도?”“...응.”“그거 지금 말할게.”헤이온을 안은 로건의 팔에 힘이 들어갔다.죽어갈 때에는 숨 한 번이 간절했으면서, 막상 숨이 붙어 있으니 여기까지 미루는 사치를 부렸다.“헤이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널 사랑해.”\*마차에서, 로건이 이따금 방싯방싯 웃었다.그러다 평소처럼 무표정이 되었다가, 또다시 방싯방싯.루나카가 혀를 찼다.‘드디어 실성했나?’남의 시선이야 어찌되었든, 로건은 기분이 좋은 상태였다.아침에 헤이온에게 고백한 것은, 차일 것을 각오한 것이었다.오해받느니 확실하게 마음을 전하고 차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었다.예상대로, 헤이온은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지는 않았지만.‘아직 차인 건 아니야.’그녀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오래 끌진 않겠다면서, 저녁에 방으로 오라고도.그래서 저녁이 무척 기다려졌다.어느 쪽인가 하면, 아무래도 차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래도 좋았다.단칼에 거절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단 둘이 볼 시간이 생긴 것만으로도 뛸 듯이 기뻤다.예전 같으면 고백하자마자 거절했을 텐데, 지금은 조금이나마 여지가 생긴 것이다.자신에게도 변화는 있었다.전에는 차이는 것이 무척 두려웠다.차이고 나면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대외적으로는 가까이 지내더라도, 심정적으론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테니까.차마 고백하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며 헤이온이 자신을 달리 인식해주기만 기다렸었다.지금은, 괜한 오해를 받는 것만 아니라면 뭐든 괜찮았다.‘차이든, 아니든, 답은 하나야.’실프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헤이온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그걸로 되었다.맺어질 수 있는 상대는 세상에 오직 단 한 사람, 헤이온.계약으로 강제되지 않아도, 오래 전부터 바라던 바였다.‘어차피 다른 여자와는 만날 생각도, 결혼할 생각도 없어.’한 결 같이 그녀를 지키리라.그림자처럼.\*기다리던 저녁.시내에 나온 로건의 발걸음은, 행인들이 뒤돌아볼 정도로 경쾌했다.서둘러 볼 일을 마치고, 지붕 없는 작은 마차에 올랐다.달려가는 게 더 빠르겠지만, 보행로 파손은 둘째 치고, 모처럼 산 꽃다발이 망가져선 곤란했다.호텔로 돌아가는 내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실프에겐 방에서 기다리라고 해두었다.헤이온과의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다.‘다시 한 번 제대로 고백할 거야.’한 번 뿐일까.몇 번이고 말할 수 있다.사랑한다고.호텔에 도착한 로건은, 내부 계단을 세 개씩 건너 밟으며 성큼성큼 올랐다.헤이온의 방 앞에 도착해선 한 차례 심호흡을 했다.똑똑.“들어와.”문을 열자, 응접실 안에 복숭아향이 가득 차있었다.헤이온은 가운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테이블 위, 향초에 막 불을 붙이는 중이었다.목욕한지 얼마 안 되었는지, 머리카락에 물기가 남아있었다.묶은 머리도 좋지만, 저렇게 늘어뜨린 머리는 보기 드물어서 더 설렜다.“뭐 해? 앉아.”로건은 헤이온의 옆자리로 가 앉으며 꽃다발을 그녀에게 안겨주었다.“사랑해.”“...고마워.”헤이온이 꽃다발 안, 가득 들어찬 하얗고 작은 꽃들에 얼굴을 묻었다.기회를 놓칠세라, 로건은 능청을 떨었다.“어? 어디 갔지? 장난치지 말고 나와.”“응?”“거기 있었어? 갑자기 꽃밖에 안 보여서.”헤이온이 푸하하, 웃음을 터트렸다.“그런 말도 할 줄 알아?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진짜 유치했다, 킥킥.”“쿡쿡, 한 번쯤 해보고 싶었어.”헤이온이 꽃다발을 테이블에 내려놓자, 로건은 가까이 붙어 앉았다.방에 들어설 때부터 맡았던 향기.헤이온의 몸과 머리카락에 복숭아향이 스며들어 있었다.아침에, 선물 상자를 주워들고 돌아 나가려는데 헤이온이 붙잡았었다.“왜 도로 가져가? 내 거잖아, 내 놔.”“다른 걸로 줄게.”“내 놔.”강탈당한 거나 다름없는 기억에 절로 미소가 떠올랐다.입욕제는 물론이고 향초까지, 오늘 저녁 바로 써줄 거라곤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고맙고 기뻤다.로건은 헤이온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다.달짝지근한 향내가 짙게 올라왔다.“먹어버리고 싶어.”“그런 소리 하면, 다신 안 쓴다?”“아하핫, 그래서, 생각은 정리됐어?”로건의 얼굴을 슬쩍 밀며, 헤이온이 답했다.“반쯤은. 네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난 널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로건은 실망하지도, 우울하지도 않았다.어느 정도, 예상했던 답변이었다.“하루아침에 받아달라곤 하지 않을게. 천천히 생각해봐줘.”“천천히... 라고 해도. 기약 없는 말로 널 붙잡아두고 싶지 않아.”“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니지 않나?”“응?”“너도 내가 싫지 않잖아.”“좋냐, 싫냐를 따지면 당연히 좋은 쪽이지. 넌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야.”“아니, 그런 의미 말고.”‘아무래도, 자각이 없나...’로건은 헤이온의 입술에 쪽, 살짝 키스했다.헤이온은 기습 키스에 놀라 눈만 깜박거렸다.“이것도 가족끼리 할 수 있는 범위긴 한데.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 봐.”“어... 어?”“어때? 싫었어?”“...”헤이온은 멍하니 로건의 입술을 응시할 뿐, 대답하지 않았다.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싫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싫지 않은 걸 싫다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진지한 로건에게, 농담이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었다.뭐라 대답해야 할까, 고민하는 사이 로건의 얼굴이 다시 가까워졌다.“모르겠어? 그럼 더 해봐.”로건이 헤이온에게 몇 차례 더 키스를 퍼부었다.손으로는 헤이온의 머리카락과 뺨을 만지작거리면서, 입술로는 쉴 새 없이 입을 맞추었다.쪽, 쪼오옥, 쪼옥.좀체 얼굴색이 변하는 일이 없는 헤이온의 뺨이, 점점 붉게 물들더니 전체가 빨갛게 되어버렸다.로건 역시 귀까지 새빨개져 있었다.그럼에도 로건은 헤이온의 등을 받치고, 소파에 눕혔다.미치지 않고서야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헤이온이 거부하지 않고 얌전히 있다는 것은, 역시 싫지 않다는 것이다.강압적인 관계가 불가능한 사람이니 확신해도 된다.과연 어디까지 싫지 않고, 어디까지 좋다고 인정할까.그 끝이 궁금해졌다.로건은 헤이온 위로 넘어지듯 덮쳐들었다.헤이온은 얼굴을 붉힌 채 로건을 응시할 뿐, 일체 움직이지 않았다.“아직도 몰라?”“...”“그럼 알 때까지 해.”헤이온의 이마부터 뺨, 코를 거쳐 입술까지 내려온 로건의 키스는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닿는 시간이 늘어갔다.그에 따라 로건의 호흡도 점차 거세졌다.헤이온이 조금씩 고개를 좌우로 움직였지만, 그럴수록 헤이온의 얼굴을 감싼 로건의 손에도 힘이 들어갔다.집요하게 입술로 입술을 공격하던 로건이, 굳게 앙다문 헤이온의 입 속으로 제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었다.그렇게 헤이온의 턱을 잡아 벌리고, 벌어진 안쪽으로 혀를 밀어 넣었다.“!”그 때까지 전혀 저항하지 않던 헤이온이, 로건의 가슴팍을 밀쳤다.로건은 그런 헤이온을 사랑스럽다는 듯 내려다보았다.“어떤 것 같아?”“우으...”“더 해볼래?”헤이온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로건이 여유로운 말투로 물었다.“싫었어? 솔직하게 답해줘.”아마 싫다고 대답하진 않을 것이었다.이제 와서 싫었다고 하기엔, 너무 와버렸다.헤이온은 대답을 망설이고 있었다.‘싫지 않았다... 라기 보단, 좋았어.’말랑하고 따뜻한 로건의 입술이 닿을 때마다, 숨결이 겹칠 때마다 엄청 두근거렸다.심장 소리가 전해질까 걱정될 정도로.‘솔직하게? 이대로 저 끝까지 가도 좋겠다고 생각했어.’마차에서의 키스 사고 때부터 조금씩 의식했던 것이 사실이었다.하지만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다.“대답하기 전에... 묻고 싶은 게 있어.”“뭐든.”“루나카와도 이렇게 키스했어?”“...”한껏 고양되었던 로건의 얼굴이 단번에 굳어버렸다.“그 애는 어떡할 거야?”헤이온에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다.양다리는 사절이었다.^^^흐트러진 꽃송이로건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답답함을 느꼈다.‘대체 왜?’헤이온은 의심 정도가 아니라 아예 확정짓고 있었다.자신이 루나카와 키스했을 것이라고.뭔가 오해가 있어서 선물이 엉뚱하게 흘러가 버렸고, 겨우 제자리를 찾았다 싶었더니.이제야 헤이온이 남자로 봐주는 듯해 설레었는데.받아주지 않더라도 알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오해받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건만.받고 있는 오해는, 결코 가벼운 오해가 아니었다.“난 네가 처음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알려줘. 전부 설명할 수 있어.”그 누구와도 아무 일 없었으니 떳떳했다.결의를 내비쳤지만, 헤이온의 눈동자에는 깊은 불신이 서려 있었다.\*헤이온은 로건을 믿고 싶었다.‘정말 기뻤었어.’죽기 직전 하려던 말이 자신을 향한 사랑 고백이었다니, 울컥하지 않을 수 없었다.그간 의존에서 비롯된 거라 여겼던 행동들이, 사실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다.알아달라고, 제발 눈치 채 달라고 계속해서 보내온 신호.지금 와서 생각하면, 몇 번인가 로건이 암시를 주었던 것 같았다.아니, 대놓고 드러낸 적도 있었는데... 그 때마다 흘려 넘긴 건 자신이었다.어쩌면 상처를 주었을지도 몰랐다.‘전혀 상상도 못 했었어.’로건과 루나카의 관계가 어떤 것이든, 선물은 자신에게 한 것이 명확했다.그것조차 흘려버렸으니...‘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둘을 위한답시고 방해한 꼴이었다.참 한심했다.미안한 마음에, 보상이라기엔 뭣하지만.생각 정리를 핑계로, 선물을 사용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저녁에 다시 오라 일렀다.다행히 낮 동안 로건의 기분이 원만해보였고, 저녁에 찾아온 이후로도 좋아 보였다.‘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다만, 그간 그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서...‘꽃까지 들고 와선, 간지러운 농담도 할 줄 알고.’전에 없던, 처음 보는 모습들이 여럿 있었다.먹어버리고 싶다며 희롱할 땐, 때려줄까 하다가.‘떠보는 말에 과하게 반응 할 거 없어. 나한테만 하는 말도 아닐 텐데.’스리슬쩍 넘겼다.예전엔 자신뿐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자신만이 아닐 테니까.여러 가지로 새로우면서도 낯설고, 설레면서도 싫었다.‘너에게서 이런 모습을 이끌어낸 건 그녀겠지.’언젠가의 밤에 받았던 부드러운 손길과 이마에의 키스.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면 거짓이다.하지만 루나카와의 딥키스를 목격하고 나서는, 잡념을 잠재우려 애써야 했다.이후 벌어진, 마차에서의 키스 사고.거기서부터는 부쩍 흔들렸다.루나카에게 미안한 한편으로, 로건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그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아 몰랐다.제대로 보기 시작하니 정말 멋진 사람이었다.모난 구석 없는 외모도 그렇지만.아공간에서 치룬 3년간의 접전 동안, 등 뒤를 믿고 맡길 수 있었던 듬직함.무엇보다도, 늘 좋은 것을 양보하고, 챙겨주고, 보살펴주던 자상함...일찍 깨닫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다.남과 잘 되어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와 탐내는 자신이 추하게 느껴졌다.‘...그동안 방해한 걸로 충분해. 더 이상은 안 돼.’로건은 이쪽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라고, 가족이라고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로건이 새벽에 찾아올 때마다 어색함의 극치여서, 자는 척했다.건드리지 않고 보기만 하다 돌아간 건, 그도 그걸 알기 때문일 것이었다.다행이었다.로건이 이전처럼 경계를 풀고 다가왔다면, 이쪽에서 구질구질하게 굴었을지도 모른다.로건과 루나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척, 척...‘둘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전엔 진심이었지만 이제는 마구 뒤엉켜서, 정신적으로 지쳐버렸다.잠이라도 푹 자려고, 세카트로님께 결계를 부탁했을 정도로.로건의 의존에 착각하며 혼자 기대하고 신경 쓰고... 그게 너무 싫었다.벽을 세우면 당장은 로건이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서로를 위해 옳다고 생각했다.로건의 고백은 분명 기뻤다.하지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으니까.그래서 답변의 서두에 ‘반쯤은’ 이라는 제시어를 달았다.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므로 로건에게 들려줄 답은 정해져 있었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다.그는 놀라지 않았다.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는 눈치였다.돌아온 건, 루나카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천천히 생각해봐달라는 말 뿐.‘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는구나.’네가 루나카를 정리하지 않으면, 나도 기약 없을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받아쳤더니, 치사하게 정곡을 찔러왔다.‘언제 들킨 거지? 자는척하며 피해서?’당혹해하는 사이, 눕혀지고 로건이 위로 덮쳐들었다.그가 퍼붓던 가볍고 짧은 키스가, 점차 진한 것이 되어갔다.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사랑받는다는 충만.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다.거칠어지는 로건의 숨결을 피부로 느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좋다고 하면 안 되는데, 싫다고 할 수도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 주길 바랐다.그렇지만 로건의 혀가 입 안으로 들어오자, 불현듯 루나카가 떠올랐다.정신이 확 들었다.로건을 밀쳤다.“싫었어? 솔직하게 답해줘.”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그의 여유로운 모습이 그토록 미울 수가 없었다.‘네가 내 정곡을 찔렀으니, 나도 찔러야겠어.’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다.“대답하기 전에... 묻고 싶은 게 있어.”“뭐든.”“루나카와도 이렇게 키스했어?”로건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그 애는 어떡할 거야?”굳은 얼굴로 잠시 뜸들이던 로건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난 네가 처음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알려줘. 전부 설명할 수 있어.”‘처음? 내 오해라고? 전부...?’신경 쓰이는 건 많지만, 자잘한 것들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핵심만 해소된다면-.‘너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온 힘을 다해 안아줄 거야.’“초원에서의 점심 때, 루나카와 무슨 얘길 했어?”\*로건은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만 같았다.침착하게, 그 때의 기억을 더듬어 가까스로 납득했다.‘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였을지도.’마법사의 가벼운 입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목부터 졸랐다.진짜로 죽이려던 건 아니었다.그저, 극한의 공포를 심어주는 것만큼 효과적인 조련은 없기에.숨이 끊어지기 직전 놓아줄 생각이었다.갑자기 죽어버리면 헤이온이 진상 조사를 하려 들 테니까....번거로웠다.어쨌든, 마법사가 쓰러지는 것을 목격당해선 곤란했다.등을 받치고 목을 조르려니 자연히 얼굴도 가까워졌다.마차를 등지고 있어서 보이는 건 뒷모습 뿐.목을 조르는 것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여겼던 것이 패착이었다.방금 깨달았다.얼핏, 키스로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걸.마법사의 손을 실프가 붙들었으니, 마차 쪽에서 보면, 그녀가 저항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을 터였다.‘그걸 뭐라고 설명해?’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도, 헤이온과 상의를 한다든지, 회유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우선되었어야 했다.자신은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을 택했을 뿐이지만, 이것을 헤이온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안 봐도 빤했다.그대로 실토했다간, 앞뒤 달랐던 그간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추궁당할 것이었다.헤이온은 바보가 아니다.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그녀를 독점하고자 저지른 추태가 들춰지고, 쓰레기란 걸 알게 되면... 과연 자신을 받아줄까?우선 헤이온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봤는지 알아내야 한다.“왜?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은데?”“무슨 얘기 했을 것 같으냐며 떠봐야 할 만큼의 얘기.”헤이온의 눈빛은 싸늘했다.‘역시, 안 되네.’어설프게 수작 부렸다가는 모든 것이 물 건너간다.성의 있게 대답한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최선.“네가 여자란 걸 밝히고, 나에 대한 얘길 좀 했다기에 들어줬어. 또?”“...”“어떤 게 궁금해?”“내가 무얼 궁금해 할지, 묻는 저의가 궁금해.”말문이 막힐 뻔 했지만, 다행히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나왔다.“뭔지 알아야 답해주지. 뭐든 물어봐.”“그러니까, 묻는 것만 답 하겠다? 좋은 판단이야.”“...”“어디부터 어디까지 봤는지 모르니, 묻지 않는 것까지 털어놓을 필요 없지.”헤이온은 더 이상 이쪽을 바라보지 않았다.초점 없이, 향초 불꽃을 보고 있었다.\*헤이온은 로건이 실망스러웠다.‘키스 얘기가 나왔으면, 그에 대한 답을 해야지.’대화 내용을 묻는 게 아니란 것쯤 알 텐데, 빙빙 돌리려 애쓰고 있었다.무얼 알고 무얼 모르는지, 두 번 이상 이쪽을 떠보기까지.그다지 진심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죽을 뻔 했을 때 하려 했다는 말이, 그 말 맞는지도 모르겠어.’기뻤던 만큼, 밀려오는 허망함에 향초 불꽃만 멍하니 보았다.“마법사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 아무 사이도 아니야. 믿어줘.”“그럼, 내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일이 있었겠지. 믿어달라면서, 왜 숨겨?”“...”했다는 걸 인정하고, 정리한다 하던지.안 했으면, 그게 뭐였는지 제대로 답을 하던지.‘내가 어떤 마음인지 헤아릴 수는 없어...?’루나카는 글레이드 사수전에서 큰 도움을 준 사람이다.잔머리를 굴릴 때도, 엉뚱할 때도 있지만 악의가 없는 점이 좋았다.먼저 다가와주는 것도 고맙고 귀여웠다.로건과 연인이 되면, 루나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된다.상처 입히고 멀어질 것을 각오해야 한다.양다리가 유지되면, 유지 되는대로 문제.‘그런 건 싫어.’로건의 말대로, 정말 아무 사이 아니면 좋겠는데, 그는 타당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었다.그 날, 루나카의 소매에서 손수건이 떨어졌었다.로건 거라는 걸 알아봤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주워줬다.마차 아래서 손수건을 받아드는 루나카의 목에, 같은 눈높이에서는 옷깃에 가려졌던 멍 자국이 보였다.시선을 눈치 챘는지, 루나카는 급히 가리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벌레에 물렸어요.” 라고 했다.그 뒤로 루나카는 한동안 목을 가리는 옷을 입거나, 스카프를 맸다.‘자세히 보진 못 했지만, 키스자국 같았어. 그러니까 열심히 감췄겠지.’헤이온은 불꽃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나른한 말투로 물었다.“루나카의 목에 있던 멍, 뭐였을까?”로건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손자국을... 봤어...’감추려 했던 치부가, 결국 드러나고 말았다.아니, 드러나 있는지도 모르고 감추려 했다.부정해봐야 소용없을 것이었다.“거기까지 알면, 내 대답 들을 필요 없잖아.”헤이온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로건을 올려다보았다.어째서 그가 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울고 싶은 것은 자신인데.“로건. 날 사랑해?”“사랑해.”“...나도 사랑해.”로건의 표정이 오묘해졌다.하지만 이어진 헤이온의 말은 용서가 아니었다.“아직까지는.”황금안이 차갑게 타올랐다.“그러니까, 더 이상 선 넘지 마.”\*“오랜만이구나! 내 새끼...”공간을 넘어오며 농담을 하던 세카트로의 표정이, 단숨에 얼어붙었다.어제도 봤으면서 무슨 오랜만이야- 라는 귀여운 반박을 기대했었으나, 헤이온의 상황이 좋지 못했다.세카트로는 소파 위에 쓰러져있는 헤이온에게 번개같이 날아갔다.헤이온의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무슨 일이 있었느냐?”세카트로가 헤이온을 일으켜 앉히고 다독였다.헤이온은 세카트로에게 안겨들며,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말하기 힘들다면, 네 기억을 봐도 되겠느냐?”-싫어, 안 돼!세카트로는 더 묻지 않고 헤이온의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머리와 등을 쓰다듬어주었다.‘쾌활하고 강한 줄로만 알았던 내 아이가...’세카트로는 뭔가 알 수 있을까 싶어 응접실을 눈으로 훑었다.별다른 점은 없었다.복도로 통하는 문 앞바닥, 떨어진 꽃다발 주변으로 가막살나무 꽃송이가 흐트러져 있는 것 외에는.함께 있던 누군가가 밖으로 나간 뒤, 헤이온이 꽃다발을 던졌으리라.누구인지 짐작이 갔다.하지만 전후사정을 캐묻는 게 중요하진 않았다.‘중요한 건, 헤이온이 나를 불렀고, 우울한 상태라는 것이지.’인간들의 감정을 세세히 이해할 수 없는 세카트로에게, 적절한 위로의 말을 건넨다는 건 몹시 어려운 일이었다.아마, 다른 방식으로도 위로할 수 있을 것이었다.아이야, 기분전환을 하러 가자꾸나.헤이온이 젖은 눈동자를 깜박였다.세카트로는 헤이온을 안아들고, 빛의 고리 안으로 뛰어들었다.점핑 데이트-와아...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에 헤이온은 절로 감탄을 흘렸다.끝없이 펼쳐진 순백의 세계.빛의 고리를 통과해 나온 반대편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설원이었다.공중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이는 이색적인 절경에 순간적으로 매료되고 말았다.세카트로가 반대편으로 돌았다.저 멀리, 지금껏 봤던 산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고 가파른 능선들이 헤이온의 눈에 들어왔다.백색으로 뒤덮여 은은하게 반짝이는 산들.그러나 넋 놓고 구경하기도 잠시.“으햣...!”딱딱딱, 이가 맞부딪히고 몸이 덜덜 떨려왔다.-앗, 미안하구나.세카트로는 안고 있던 헤이온을 공중에 띄웠다.그가 손짓하자, 팡! 하고 헤이온의 옷이 바뀌었다.얇은 가운이, 겹겹이 가죽을 누비고, 안을 동물들의 털로 채워 넣은 두꺼운 겨울옷으로 변했다.세카트로는 자신의 금 귀걸이 한 쪽을 떼어 헤이온의 정수리에 얹었다.팡! 귀마개와 방울이 달린 털모자가 되었다.뒤이어, 세카트로가 언제나 걸치고 있는 숄은 가죽 신발이 되었다.벙 찐 눈으로 올려다보는 헤이온을 향해 세카트로가 미소를 보였다.새삼 놀라워하는 얼굴이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귀여웠다.-엘레멘탈 파티클의 구조 변환은 전에도 보았지 않느냐.안 추워? 그거 마법 옷이야?-...세카트로의 폭 넓은 이오닉 키톤은, 최고급 원단이긴 해도 얇은 것이었다.그런데도 아무렇지 않은 모습이었으니 헤이온이 의아해하는 것이 당연했다.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본신은 드래곤.피부는 사실상 드래곤의 비늘이었다.어지간한 혹한과 화염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방한마법이라 둘러대기보다, 이편이 좋겠군.’세카트로는 자신의 옷도 헤이온과 같은 디자인의 겨울옷으로 바꾸었다.귀걸이 한 쪽을 마저 떼어, 모자도 같은 것으로 만들어 썼다.“자아, 조금 더 북쪽으로 가자꾸나.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느니라.”둘은 손을 잡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설원 공중을 날았다.저만치 전방에, 순록 떼가 거닐고 있었다.둘은 고도를 낮추어 순록들 머리 위를 누볐다.스치는 나무들마다 가지에 얹혀있던 눈꽃이 사르륵 떨어져 날렸다.헤이온은 땅과 가까이 붙어 날면서, 쌓인 눈을 양 손 가득 퍼내 흩뿌렸다.시야를 메우는 하얀 반짝임에 손 시린 줄도 몰랐다.한 움큼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호텔 식당에서 얼음을 갈아 만든 간식을 먹어보긴 했지만,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목이 마른 것이냐?-아니. 신기해서. 엔델 마을에서는 눈이 내리지 않는 겨울이 대부분이었거든. 어쩌다 내려도 아주 조금이고, 금방 사라져.-사우스바인도 별반 다르지 않지.여긴 어디야?-리토피아 대륙의 최북단 근처니라. 아이야, 하늘을 봐 보거라.지상 구경에 정신이 팔려 하늘을 볼 생각은 하지도 못했었다.헤이온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쏟아지는 별무리 사이로, 은은한 연녹색 빛의 장막이 아른거리고 있었다.미풍에 날리는 커튼 같기도, 잔잔한 물결 같기도 했다.우와아아아... 이게... 뭐야? 하늘에 뭐 이런 게...운이 좋았구나. 오로라는 때가 맞지 않으면 볼 수 없느니라.헤이온은 황홀과 감동에 빠져들었다.때가 맞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설명으로 미루어, 마법은 아닐 터였다.자연적인 현상이라는 데에 놀라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놀랐다.고마워, 진짜 고마워!감격한 헤이온이 세카트로에게 안겨들었다.평생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아니, 알더라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일 텐데.덕분에 귀한 구경을 했다.세카트로가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나중에 또 보고 싶거든 이야기 하거라.그는 헤이온을 안고, 또다시 빛의 고리를 통과했다.\*첨벙!헤이온이 내려선 곳은 고즈넉한 해변, 얕은 바닷물 위였다.“!”신기하게도, 철썩 차르르르 소리를 내며 물이 앞뒤로 움직였다.헤이온이 아는 한, 물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었다.계곡물도, 강물도, 주전자에 담긴 물도 전부 그랬다.이건 또 뭐야?-바다이니라.지도에서 본 적 있었다.대륙과 대륙 사이를 메우는 아주, 아주 커다란 강.물이 앞뒤로 움직인다는 설명은 적혀있지 않았으므로, 놀라울 따름이었다.-그런데, 그새 날이 바뀌었어?분명 한밤중이었는데, 이곳은 해가 쨍쨍, 대낮이었다.심지어 한여름처럼 뜨거웠다.서쪽 대륙 남단의 무인도이니라. 아직 날이 저물지 않았지.-그래? 세상엔 별의 별 현상이 다 있네.참방, 참방,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발장구치는 헤이온의 모습에 세카트로는 큰 소리로 웃고 말았다.“하핫! 뒤뚱거리는 곰 같구나.”“...”샐쭉해진 헤이온의 표정에, 세카트로가 얼른 손가락을 퉁겼다.털모자가 밀짚모자로, 겨울옷이 얇고 짧은 여름옷으로, 가죽신발은 다시 숄이 되어 세카트로의 손으로 돌아갔다.세카트로는 자신도 옷을 바꿔 입고, 숄은 모래사장으로 날려 보냈다.천막과 해먹이 되었다.헤이온이 신기하단 얼굴로 바닷물 속, 모래를 꾹꾹 밟아댔다.“되게 부드럽다. 이런 흙도 있다니.”맨발에 닿는, 처음 느껴보는 감촉.슥슥 스러지는 고운 입자.“벨 제국은 영토는 넓은데, 바다와 닿는 곳이 없는 게 아쉽네.”“바다가 마음에 드느냐?”“응.”부드러운 모래, 투명한 에메랄드 빛 물결, 시원한 파도 소리.세카트로가 보여주는 세상은, 하나같이 아름다웠다.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는 헤이온에게, 세카트로가 나긋하게 말했다.“궁전을 이리로 옮겨 함께 살아도 좋겠구나.”“헤헷, 그럴까나.”처음으로 헤이온이 웃었다.“...”세카트로가 말이 없자, 헤이온이 물을 살짝 튀겨 보냈다.“왜 그렇게 봐?”“네가 너무... 귀엽지 않느냐.”헤이온은 자신의 몸과 손을 내려다보았다.검사로서는 최적화된 몸일지도 모르지만, 단단히 자리 잡은 근육들은 아무리 봐도 ‘귀엽다’ 는 표현과는 맞지 않았다.오래토록 검을 쥐어 굳은살 투성이인 손, 굵어진 손마디와 뭉툭한 손톱.한 마디로, 투박했다.“참~, 독특해. 뭐가 귀엽다고.”세카트로가 엄청난 양의 물을 퍼 올려, 헤이온의 머리 위로 쏟아 부었다.“캭!!”\*물장난을 하며 놀았더니 출출해졌다.“잠시만 기다리거라.”세카트로가 빛의 고리 안으로 사라졌다.헤이온은 그가 만든, 천막 아래 해먹에 누워 눈을 감았다.신기한 것들을 구경하고, 신나게 놀 때는 떠오르지 않았던 우울...“다녀왔느니라.”...이 떠오르기 전에 세카트로가 돌아왔다.“오올, 되게 빨라!”“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은근 거들먹거린단 말이지.”“천성이니라.”드래곤들은 하나같이, 존재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다.정령왕을 제외하고, 그 어떤 생명체도 도달할 수 없는 10서클 마나하트를 지닌 신수.긴 수명을 지닌 데다, 개체 수마저 희소하니 충분히 그럴만했다.세카트로는 ‘나 정도면 덜한 편이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굳이 말하진 않았다.모래와 나뭇가지로 간이식탁과 의자를 만들고, 아공간 주머니에 넣어온 간식들로 다과상을 꾸렸다.“음식은 못 만들어?”“섭취물의 본질이 모래나 나뭇가지여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세카트로가 손을 뻗자 널찍한 야자수 잎 두 장이 뜯겨 날아왔다.저절로 부쳐지는 부채가 되어 퍼덕였다.“세카트로님은 못하는 게 없네. 대단해.”‘그러니까 그렇게 부자가 됐겠지?’“인과율의 제약을 받는 것은 매한가지이니라.”“전부터 그 얘기 하던데, 그게 뭐야?”“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것이지. 원인 없이 결과만 있지도,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없지도 않는 법이니라.”“뒤틀면?”“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니, 관련된 모든 것이 자정되고 마느니라.”남는 게 없는 헛짓거리란 뜻이었다.헤이온이 세카트로에게 안겨 빠져나온 빛의 고리 반대편은, 사막 왕국의 도시였다.공중에서 내려다보니, 도시 중앙에는 크림을 짜놓은 것처럼 둥글게 올라와 끝이 뾰족해지는 형태의 지붕들이 많았다.지붕 귀여워~.네가 훨씬 귀엽단다.정색하는 헤이온의 양 볼을, 세카트로가 한 손으로 눌러 잡아 붕어 입을 만들었다. 또!둘은 적당한 건물 지붕에 발을 디뎠다.“세카트로님은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구나. 그런데 벨프리트는 안 가봤어?”“당연히 가봤느니라.”“수도로 간다고 했을 때 바로 보내주지 그랬어.”“보내주려 했는데 안 되더구나. 왜냐면-”뭔가 말하려는 세카트로의 입을, 헤이온이 손으로 틀어막았다.“내가 맞춰볼게. 글레이드는 구원될 운명이었고, 구원자 역할에 가장 가까운 적임자가 우리였던 거지? 수도로 바로 가면, 글레이드가 망해버리잖아.”세카트로가 빙긋 웃었다.“그렇단다. 운명의 흐름상 강해질 필요가 있었기에, 너희가 내게로 오게 되었구나.”“엔델 마을이 그렇게 된 것도, 아니, 훨씬 전에 세카트로님이 엄마를 발견하고 키운 것도 우연이 아닌 거네? 지금의 결과가 만들어져야 되니까.”“우연은 필연 속에 내재되어 있지. 모든 것은 유기적이니라.”“글레이드전 이후에도 불렀었잖아. 그때도 안 됐어?”“그 땐 보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구나. 너의 여정 중에 겪어야 할 필연이 있어 그리되었을 것이니라. 사건을 겪는다던가, 인연을 만난다든가. 짚이는 데가 없느냐?”헤이온은 지난 일을 떠올려보았다.도적떼 토벌은 자신이 손쓴 게 없으니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았다.루나카와 루인은 글레이드에서부터 알았으니 마찬가지.여정 중, 기억에 남는 사람은.‘마그리타!’도시 곳곳이 시끌벅적, 축제가 한창이었다.악기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인 거리.헤이온의 시선이 머무른 것은, 처음 보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무희들이었다.벨 제국이라면 밖에서 입는 걸 상상할 수 없는, 노출도가 높은 옷이지만 그녀들의 움직임과 잘 어울렸다.머리장식과 옷에 달린 장식이 챠르륵 흔들리며 반짝였다.헤이온은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세카트로님이랑 여러 곳을 다니는 건, 어떤 결과로 이어지기 위한 원인이야?”“유기적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앞서 있었던 무언가를 원인으로 한 결과이기도 하니라.”‘앞서 있었던 무언가...’헤이온의 눈빛이 흐려지려는 찰나.“실례.”팡! 소리와 함께, 헤이온의 폴리모프가 풀리고, 붉은 드레스가 몸을 휘감았다.무희들이 입은 것과 비슷하지만, 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것이었다.반투명한 붉은 트레인에 수놓인 수만 개의 황금빛 스팽글.머리에 루비가 박힌 황금 티아라.브론즈 블론드가, 티아라 삼방에서 늘어뜨려지는 루비 비즈발과 어우러져 더욱 화사하게 물결쳤다.으아, 내가 이런 걸! 안 어울려!-걱정 말거라. 나는 심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니.-말도 안 되는 거 입히지 말고, 바꿔줘어!바꿔주긴 바꿔줬다.다리를 가렸던 밋밋한 긴 스커트를, 풍성하고 짧은 스커트로.발에는 붉은 비단신이 신겼다.“망할 영감탱이, 이러니까 좋아?”“물론이니라.”너무도 당연하다는 세카트로의 표정에, 헤이온은 눈을 흘기다 말고 피식 웃고 말았다.두 번째 웃음이었다.세카트로의 엄지가 헤이온의 입술을 가볍게 스치자, 꽃물을 바른 듯 색이 입혀졌다.세카트로는 커다란 깃털이 박힌 터번과 화려한 금장 제복 등, 이곳의 왕족들이 입을법한 옷으로 바꿔 입고 손을 내밀었다.손을 잡고 아래로 뛰어내린 둘은, 축제 거리를 활보하며 즐겼다.빛의 고리에서 두 사람이 걸어 나왔다.세카트로의 손을 맞잡은 헤이온의 얼굴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다.공간을 뛰어넘는 여행 덕분에, 확실하게 기분전환이 되었다.하지만 호텔 응접실 소파에 앉아있는 루나카를 본 순간, 헤이온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말았다.루나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녀를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다.바닥에 흩어져있었던 가막살나무 꽃송이들이 테이블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다.‘괜한 짓을...’루나카는, 둘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렸다.‘역시 이국의 왕족이신 걸까? 아니지, 벨 제국민이라 하셨지. 뭐야, 뭐야? 두 분 다 너무 멋지고, 예쁘고, 진짜 잘 어울려! 게다가 방금 공간이동...’그러다 표정이 바뀐 헤이온의 눈치를 살폈다.‘바, 방해하지 말아야겠다!’세카트로에게 먼저 말을 걸 수는 없으니, 일어나 목례를 했다.“헤이온님, 이만 물러갈게요. 저어 그런데... 두 분 어떤 사이이신지 여쭈어도 되나요?”헤이온은 대답하지 않으려다가, 엉뚱한 상상을 할 것 같아서 적당히 대답했다.“가족이야.”“감사해요. 조금 아쉽다... 두 분이 애인사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루나카는 에헷, 하고 머쓱한 웃음을 짓고는 물러갔다.닫힌 문을 바라보는 헤이온의 눈빛은 싸늘했다.‘그게 왜 좋은데? 로건과 내가 엮이지 않길 바라서?’루나카는 ‘로건이 배 아파 뒹굴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지만, 그걸 헤이온이 알 리 없었다.그런데 루나카가 나간 직후, 로건이 들어왔다.어둡고, 초조한 얼굴이었다.로건은, 들어오자마자 넋이 나가버렸다.화려한 이국의 옷을 입고, 다정하게 손을 맞잡은 둘의 모습.세카트로의 목에 팔을 두르고 매달리는 헤이온의 뒷모습이 슬프게 아름다웠다.-싫어! 날 어디로든 데려가줘!둘은 빛의 고리 너머로 사라졌다.변하지 않은 것‘만세! 눈 호강 했다아-!’처음 본 헤이온의 여장 모습이었다.그것도, 화려한 이국의 드레스.늘 긴 바지를 입고 있어 볼 기회가 없던 다리도.‘탄탄하고 선이 좋았어! 어쩜!’루나카는 콩닥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복도로 나왔다.흩어져있던 꽃다발도, 헤이온의 바뀐 표정도 신경 쓰이긴 했지만, 흥분이 워낙 커 묻혀버렸다.팍!문을 닫고 돌아서다가, 누군가와 부딪혔다.“사과하면서 올려다보니 로건이었다.‘윽! 하필.’표정이 무시무시했다.곧 죽을 사람처럼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졌고, 눈빛이 제정신 아닌 듯 보였다.‘지금은 안 돼!’방 안에는 헤이온과 금발 미남이 함께 있었다.로건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간 사달이 날 것만 같았다.설마하니 헤이온의 가족에게까지 해코지하진 않겠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장담할 수 없었다.‘이럴 땐 피하는 게 상책인데. 우쒸, 몰라!’로건의 팔을 붙잡았다.하지만 로건은 ‘다 알고 왔다’ 는 기세였다.“아얏!”먼지 털 듯 이쪽을 털고,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섰다.바닥에서 일어나 급히 문을 열었더니,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인 로건의 뒷모습이 보였다.그 잠깐 새, 헤이온과 금발 미남은 온데간데없었다.공간이동으로 자리를 뜬 모양이었다.‘이게 대체 뭔 상황이야?’로건이 데굴데굴 구르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건 사실이다.막돼먹었으니까.괴롭힘 당했으니까.양상은 다르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일찍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그런데...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로건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루나카는 로건의 앞모습을 볼 자신이 없어서, 문 옆의 긴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헤이온의 색다른 모습을 본 흥분이 빠르게 가라앉아버렸다.상황에 대해 곰곰 따져보니 찜찜해졌던 것이다.그렇게 한참이 지났다.로건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루나카가 물었다.“무슨 일이야?”“꺼져.”‘그래, 이래야 너 답지. 곱게 대답해 줄 거라 기대 안 했다, 이놈아.’루나카는 로건의 뒷모습에 대고 주먹을 확 올렸다가 내렸다.“제 방도 아니면서.”“...”로건은 벌떡 일어나 루나카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루나카의 얼굴로, 체중을 실은 주먹을 내질렀다.쩡!“흐...”로건이 고통스러워하며 오른손목을 감싸 쥐었다.‘어쩐지 피하지도 않고, 전혀 겁먹지 않더라니.’실드를 때린 충격이 어깨까지 전해져왔다.루나카가 후우, 한숨을 쉬었다.‘그놈의 성질머리 어디 안 가지.’“너랑 둘뿐일 땐 항상 실드를 치기로 했어. 나도 살아야지.”“...”“말해주면 덧나나?”“긁지 말고, 꺼지랄 땐 꺼져. 네 면상 보면 돌겠으니까.”“지금 상황,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 맞아? 그것만 말해줘.”루나카는 말해줄 때까지 버티겠다는 집념을 내비쳤다.선물 건이 꼬였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낮의 이동 중에 헤이온은 평소와 같았고, 로건은 실성한 것 마냥 드문드문 웃어댔었다.잘은 몰라도, 오해를 풀었나보다 했다.그런데 저녁에 찾아와 보니 헤이온은 없고, 꽃다발이 패대기쳐져 있고...무슨 일 있나 싶어서 기다렸다가, 여기까지 왔다.로건은 루나카가 앉아있는 긴 의자 앞,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멍하니 바닥을 보면서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고백했었어.”루나카는 엄청 놀랐지만, 어쩐지 납득할 수 있었다.‘그래서 꽃다발이 저렇게... 차였다는 건 알겠다.’하지만 일반적인 거절 상황이 아니었다.‘공간이동까지 해가며 피한다고? 이 또라이, 무슨 짓을 한 거야?’“보다시피 까였어. 네 목의 손자국 때문에.”“아하... 핑계대긴 했었는데, 통할 리가 없잖아. 그러게 성질 곱게 쓰지.”루나카가 갑자기 미간을 찡그렸다.“잠깐, 이상한데? 그것뿐이면 너만 불편해해야지, 왜 나까지?”“너랑 내가 그렇고 그런 사이인 줄 알아. 양다리 걸친 줄 안다고.”“초원에서 키스했다고 확신하던데.”“누가? 너랑, 내가?”로건은 말없이 고개를 한 번 까딱였다.희한하게 일그러지는 루나카의 얼굴에, 로건이 뿌득, 이를 갈았다.“나야말로 역겹다고. 그러니까 꺼지라는데 와가지고는.”“아니, 진짜 이상해서 그래. 손자국을 봐 놓고 키스로 확신한다고?”“!!”로건의 눈이 크게 뜨였다.“너 인성 빻아서 차인 거 아니었어? 조르면서 키스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자세히 본 것도 아니면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다고 확신하긴 무리 아닌가? 헤이온님 상상력이 그렇게 풍부해?”“그만 쫑알대봐.”로건은 루나카를 향해 손끝을 두 번 털었다.헤이온이 했던 말들을 곱씹어보았다.‘그러고 보니 손자국이라고 하지는 않았어. 멍 이라고 했지.’키스 얘기에 이은 멍 얘기.어떤 의미였을지, 맥락이 이제야 이해가 갔다.“정정. 손자국이 아니라 키스자국으로 알았나본데.”“므에잉?”“하, 씨. 이거네. 너까지 불편해했다며.”뒤로 쓰러지듯 누운 로건은, 팔을 눈 위에 걸치고 신음했다.키스자국에 대해 물은 헤이온에게 자신이 했던 말 때문이었다.-거기까지 알면, 내 대답 들을 필요 없잖아.양다리란 걸 시인하는 말이었다.루나카가 눈썹을 찡그렸다.“뭔가 심각하게 꼬였나 봐?”“...”“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고선, 이게 뭐래.”루나카는 이때다 싶어 로건을 비꼬았지만,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었다.‘좋아하는 사람 일에 냉정하기가 쉽나?’자신도 그런 적이 있었다.헤이온에게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던 날, 되지도 않는 생떼를 썼었다.‘그래도 부럽긴 하네.’헤이온이 자신을 보고 불편해 했다는 건, 로건에게 마음이 있다는 증거였다.로건이 앓는 소리로 물었다.“너 같으면 바람둥이랑 쓰레기 중에 뭘 고르겠냐?”“우웩~.”뻐억!실드에 로건의 발길질이 작렬했다.“선택지가 너무 저질이잖아! 이국의 귀공자랑 귀여운 마법사 중에 고르라면 모를까.”빠아악!“흥.”루나카가 일으킨 돌풍이, 로건을 소파 위로 날려 보냈다.쿠션에 파묻힌 로건의 등에, 루나카의 일침이 꽂혔다.“차여놓고 몰라? 바람둥인 절대 안 돼. 쓰레기로서 용서를 구해.”“...”“쓰레기 쪽은 적어도, 한 사람만 바라봤네.”여러 다리 걸치는 건, 정식 관계인 첩실을 두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였다.의리나 도리 상으로도 그렇지만, 법도 상으로도 헤이온의 신분이 더 높기 때문에 통용될 수 없었다.‘시작도 전이니 망정이지.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끌려가 매를 맞아도 할 말 없는 상황인 걸 왜 모르지?’루나카는 후원자와 무도가를 떠올렸다.그들은 자신들의 감정만 앞세우며 강요하고, 강제했다.같은 쓰레기라도, 결이 달랐다.“잘못된 점을 고친다고 하면, 여지는 있을 거야. 넌 남들에겐 막 해도, 좋아하는 사람에겐 잘 하려 했으니까...”“...”“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냐.”“뭐가 문젠데.”루나카가 으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고자나 마찬가지면서 고백하고 싶든?”“조까.”“아무튼, 난 헤이온님께 있는 그대로 말 할 거야.”로건이 벌떡 일어섰다.험악한 인상이었지만 루나카는 굴하지 않았다.“너만 좋아해? 나도 좋아해. 오해 받기 싫어.”“후...”로건은 체념하고 도로 드러누웠다.‘이러나저러나 미움 받긴 마찬가지라면.’하지도 않은 일로 미움 받는 것보단, 저지른 일로 미움 받는 게 나았다.루나카의 말을 헤이온이 믿어 줄지는 모르지만, 손해는 아니었다.‘어차피 본전이군.’“계약 얘긴 빼고 말해. 걘 아직 몰라.”“언젠가 알게 되실 텐데, 미리 터는 게 낫지 않아?”로건은 다른 건 몰라도, 자신에게 걸린 제약에 대해서는 절대 털어놓지 않을 생각이었다.헤이온은 아직 드래곤 로드라는 자각이 없었다.그렇지만 자각 후, 로드와 정령사의 상관관계를 깨닫는 건 시간문제.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너다- 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을뿐더러...우연히 알게 되면 모를까.이쪽에서 정보를 흘리면, 연민에 호소하는 애정 구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다.정령과의 계약은 자신의 선택이었지 그 누구의 강요도 아니었다.“그 언젠가가 네 입 때문에 오게 되면, 차라리 죽여 달라고 빌게 될 거야.”루나카는 갑갑하기 짝이 없었다.‘저 놈의 뇌구조는 도대체가.’“그런 걸 고치시라고요, 네?”\*헤이온은 세카트로의 목에 감았던 팔을 풀고, 주변을 둘러보았다.처음 온 방이지만, 본 적 있는 방.‘엄마가 쓰던 방이야.’공유 받았던 기억 속에서 로자리아가 늘 잠들던 곳.오랫동안 주인 없는 방이었는데도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생전 쓰던 그대로, 깨끗했다.세카트로가 로자리아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음이 느껴졌다.“고마워. 그리고 미안해.”세카트로는 헤이온과 자신의 옷을 편한 옷으로 바꾸었다.헤이온을 침대에 눕혀주곤, 곁에 앉아 온화하게 내려다보았다.“미안할 것이 무어냐.”“내 기분 풀어주려고 그렇게 챙겨줬는데, 좋지 않은 모습 보이고. 이상한 말도 듣게 하고. 호텔로 가지 말 걸.”축 쳐진 헤이온이, 이불을 당겨 얼굴까지 덮었다.세카트로는 헤이온의 방에 있던 6서클 마법사의 말을 떠올렸다.-조금 아쉽다... 두 분이 애인사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전혀 이상할 것 없다. 신경 쓰지 말거라.”‘???’이불 속, 헤이온의 눈썹이 요상하게 일그러졌다.‘그냥 신경 쓰지 말란 것도 아니고, 전혀 이상할 게 없다니?’헤이온은 이불을 확 걷고, 그 표정 그대로 세카트로를 올려다보았다.그의 얼굴은 변함없이 온화했다.“네 부탁은 뭐든 들어준다고, 말만 하라 하지 않았더냐.”“응...?”헤이온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을 잇지 못했다.세카트로가 빙긋 웃었다.아무래도 이 귀여운 인간 아이는, 그 말의 의미를 굉장히 한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애인이든, 배우자든, 네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되어주마.”“노망났어? 세카트로님은 엄마의 양아버지잖아!”헤이온이 당혹해서 외쳤지만, 세카트로는 태연히 질문했다.“모친을 키워준 자는, 애인이나 배우자가 되어선 안 되는 것이냐?”피가 섞이지 않았으니, 안 된다는 법은 없었다.‘그래도 그렇지! 제정신으로 하는 소린가?’“세카트로님, 나이도 엄청 많잖아.”“나이 차가 많으면, 안 되는 것이냐?”나이 차가 많이 나면 안 된다는 법도 없었다.“...”“인간들은 괜한 제도와 제약으로 스스로를 옭아매곤 하지.”세카트로는 급히 덧붙였다.“그리고, 나는 젊으니라.”천년 가까이 살았으니 인간 기준에서는 진토 된 백골 수준이지만, 드래곤 기준으로는 청년에 해당되었다.폴리모프할 때, 수명과 외모를 일체 가감 없는 동일비로 치환했다.인간으로 태어났다면 현재 모습과 같을 것이었다.20대 중후반, 금발과 황금안의 절세미남.“어련하겠어. 뭔 농담을 아주 획기적으로.”‘속세를 오래 떠나 살면 저렇게 되나?’떨떠름한 헤이온의 반응에 세카트로는 미소를 보였다.“너와 나의 관계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였느니라.”“우리 관계가 뭔데?”헤이온이 똑바로 쳐다보며 묻자, 세카트로는 잠시 갈등했다.사실을 알려줄지 말지.‘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날 대하는 너를 좀 더 보고 싶구나.’기울였던 몸을 바로하고, 표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네가 정하기 나름이니라. 현재는 양외조부와 손녀이지. 친구나 아버지가 되어줄 수도 있지만, 아이나 동물 역할은 사양하고 싶구나.”“난 지금이 좋아.”세카트로는 또다시 빙긋 웃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헤이온이 세카트로의 옷자락을 붙잡았다.“가지마.”“?”“엄마한테 해줬던 것처럼, 잠들 때까지 있어줘.”“그래, 그러마.”세카트로가 침대 머리맡에 앉자, 헤이온은 베개를 놔두고 그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다.세카트로는 따뜻한 눈길로 헤이온을 내려다보았다.잠들 때까지 있어 달라더니, 뜬 눈인 채였다.잘 생각이 없는 건지, 잘 수가 없는 건지.아마도 그와의 일을 떠올리는 것이리라.“영영 멀리할 게 아니거든, 화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몰라. 걘 날 속이려 했어.”“때론 들춰내기보다 덮는 것이 나을 때도 있느니라.”“날 전부터 좋아했다면서, 중간에 다른 여자랑 만난 거부터가 잘못됐어. 그래도 정리한다고 하면 덮어주려 했거든? 계속 아니라기에 정말 아니길 바랐는데... 시인을 하잖아... 정리한다는 말도 없고...”헤이온의 목소리가 점차 잠겨들었다.세카트로는 헤이온을 데리고 공간이동 할 때 봤던, 로건의 눈빛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그가 다른 여자를 만났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구나.”“무슨 소리”“너의 기억 속, 어린 시절에서부터 조금 전까지. 널 보는 그의 눈빛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느니라.”짝사랑 중의 행복무언가를 더 말하려던 세카트로에게, 인과의 제동이 걸려왔다.‘그가 받고 있는 제약에 대해, 아직 알아선 안 되는군.’인간 레벨로는 날고 기어봤자 인과율을 뒤틀 수가 없다.드래곤인 자신은 마음먹기에 따라 뒤틀 수는 있지만, 한 번은 제동이 걸린다.그것을 무시하는 결과는, 관련된 모든 것들의 소멸-.“세카트로님은 생각이나 감정을 읽어?”“그렇지는 않단다. 생명체들에겐 감과 느낌이란 게 있지. 그것의 레벨이 높은 것이니라.”“확실한 것도 아니네, 그럼.”헤이온의 어조에는 안도와 실망이 담겨 있었다.세카트로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확실하다. 너와 가깝다 한들, 크리셀라 카토스를 아무에게나 내주었겠느냐.”달의 여신이 사용했다는 전설을 품은 보물.내준 것은 그뿐이 아니었다.몰래, 다른 하나를 더 주었다.그것들의 양도가 가능했다는 건, 운명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거나, 혹은 그래야만 제대로 흐르게 되는 필연에 의한 것.‘그는 아마...’헤이온은 아랫입술을 살짝 물었다.세카트로가 저리 확신하니 다시 제대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듯했다.‘어딘가에서 어긋났을지도 몰라.’잠시 침묵하던 헤이온이, 세카트로의 다리를 톡톡 건드렸다.“여기로 공간이동 할 수 있었던 건, 이동이 인과율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지?”“그러하니라.”“공간이동을 했든 안 했든, 달라질 게 없는 거고. 제대로 이해한 거 맞아?”“내 새끼, 천재로구나.”헤이온의 중압이 한결 덜어졌다.당장은 마주보고 싶지 않아 자리를 떴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다.자신의 회피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지도 몰라서.되돌릴 수 없게 될까 봐.잘 되든 안 되든, 무관하다니 조금이나마 편해지는 것 같았다.“핏, 무슨 천재가 마법 입문서도 못 떼? 어렵더라.”“조악한 잡서에 연연하지 말거라.”“마법 쓸 줄 알면 좋긴 하잖아. 폴리모프도 더 잘 쓰고 싶어.”“욕심이 있었더냐? 진작 말을 하지.”헤이온의 눈이 반짝, 빛났다.“잘 쓰게 만들어줄 수 있어? 빨리 해줘!”\*둘은 이른 아침식사를 마쳤다.궁전까지 온 김에, 글레이드를 둘러볼 참이었다.실프들과 인사하고, 빛의 고리를 통과했다.“헐~, 이 영감탱이가?”헤이온은 혀를 내둘렀다.글레이드 영주관 상층, 세카트로의 집무실이 너무나도 휘황찬란하기 때문이었다.“금과 보석을 안 두르면, 일이 안 되나?”“내 돈 주고 내가 산 것들이니라.”“...”중요한 서류들 몇 가지를 확인했다.황실에서의 병력 지원이나 방어선 구축 등에 대해 하달된 공문서가 없어 의아했으나, 별개로 세카트로의 일처리 솜씨는 뛰어났다.“오호, 빈틈없네.”“내가 누군 줄..”“알아, 안다고.”헤이온은 세카트로의 잘난 체를 차단하고, 눈이 동그래진 관청 직원들과 경비병들의 인사를 받으며 영주관을 나섰다.성벽 보수 현황을 살펴보니, 일전의 보고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문득, 세카트로의 궁전 벽을 뚫었을 때 금방 복원되었던 것이 떠올랐다.“그냥, 마법으로 뚝딱은 어때?”“내 명성이 올라가는 것은, 안 될 일이로구나.”세카트로는 단호했다.그럴듯한 명분 없이 인간사에 개입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다.인간들의 힘으로 해결 가능한 일은 인간이 하도록 두면 되었다.업무를 대신 보는 정도는 누가 맡아도 할 수 있는 일이니 괜찮지만, 공연한 영향을 미칠 필요는 없었다.거리에서, 헤이온을 알아본 영지민들 몇이 고개를 숙였다.“안녕?”“영주님, 안녕하십니까!”“꺅! 용사님, 아니, 영주님!”“오랜만이에요, 언제 오셨어요?”해맑게 웃으며 반겨주는 이들과 마주하니, 마음이 뭉클해졌다.남루한 차림의 꼬마아이 하나가 달려와 다리에 매달렸다.아이의 어머니가 황급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괜찮아, 일어나.”헤이온은 꼬마아이를 품에 안아들었다.“반가워. 난 헤이온이야.”“전 카렌이에요. 헤이온님, 정말 고맙습니다!”카렌이 활짝 웃었다.“마마가 그랬어요. 파파가 의원에 다닐 수 있게 된 것도, 카렌이 공부할 수 있게 된 것도, 전부 영주님 덕분이래요!”헤이온이 쳐다보자, 카렌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헤이온은 카렌에게 미소를 지어보였다.“도움 되었다니 기쁘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기. 약속할 수 있지?”“네!!”카렌의 어머니에게 카렌을 건네 안겨주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탑승 직후 헤이온과 루인이 몇 마디 주고받은 것을 끝으로, 마차 안은 내내 침묵이 감돌았다.어색한 침묵은, 수도 벨프리트를 관통하는 로벨 강이 시야에 들어오고 나서야 비로소 깨졌다.“우와, 보세요!”저도 모르게 헤이온의 팔을 잡고 늘어지던 루나카가, 아차 싶은지 손을 놓고 어깨를 움츠렸다.헤이온은 별 내색하지 않고 밖을 내다보았다.리토피아 대륙의 젖줄이라 불리는 로벨 강은, 바다를 모르는 사람에게 바다라고 속여도 믿을 만큼 웅대했다.대형 가교가 여러 군데 놓여 있고, 곳곳에 섬까지 있었다.크고 작은 배들이 여러 대 떠다니고, 마법사와 마법비행선이 공중을 날아다녔다.“저택은 제 2성벽 안에 있으니 좀 더 가세나.”제 3성벽을 통과한지 꽤 지났는데도 제 2성벽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입이 쩍 벌어지는 도시 규모였다.‘수도는 수도군.’제 3성벽은 벨 제국민이라면 누구든 통과할 수 있지만, 제 2성벽은 강화된 검문을 받아야 했다.범죄 이력이 있으면 통과할 수 없고, 통과할 수 있어도 통행료가 적지 않았다.제 1성벽은 황궁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으로, 황실의 허가가 없으면 귀족이라도 사사로이 통과할 수 없었다.같은 작위라도 중앙 진출 여부에 따라 권세가 갈렸고, 중앙 귀족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지방 귀족들을 무시하곤 했다.지방 귀족들이, 중앙 진출에 혈안일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그 날 저녁, 발트 백작가의 수도 저택에서는 환영회가 열렸다.글레이드에서 사고로 호위들을 잃은 루인의 무사 귀환과, 귀빈들의 방문을 축하하는 기쁜 자리였다.발트 가의 식솔들은, 하나같이 헤이온에게 지대한 관심과 호의를 보였다.발트 백작 부부와 루인의 형제들은 모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특히 젊은 하녀들의 반응이 열렬했다.루인의 생명의 은인이자 글레이드의 신임 영주라는 말만 들었지, 실물이 어떠한지는 들은 바가 없었던 것이다.“소드마스터라며? 그런데 엄청 젊어!”“나, 눈 마주쳤다가 숨 멎는 줄 알았잖아.”“목소리 들어 본 사람? 어땠어?”“폴칸 경도 멋지지 않아?”“수다 떨 시간에, 부지런히 움직이세!”시종장이 그녀들의 수다에 찬물을 끼얹지 않았다면, 끝이 없을 뻔 했다.보이는 곳에서 티내진 않았지만, 묘하게 들뜬 하녀들의 분위기를 루인이라고 모르지는 않았다.‘내게 누이들이 없어 다행이군.’소개와 식사를 마치고, 그간의 회포를 풀고 나자 모두 자리를 비워주었다.한산해진 홀.헤이온과 루인은 단둘이 차를 들었다.“헤이온, 자네가 원한다면 궁중 행사에 동참은 물론,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겠네.”비록 준 귀족이지만, 소드마스터인 데다 재력이 엄청나고, 발트 가가 뒤에 있으니 다들 대놓고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었다.인맥을 다지도록 발판이 되어주겠단 고마운 이야기였으나, 볼일만 마치면 글레이드로 돌아가겠다는 헤이온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그런 건 됐고, 다른 부탁 할게.”“얼마든지 하게나.”“황제와의 알현을 최대한 앞당길 방법을 알아봐줘.”루인은 들어 올렸던 찻잔을 도로 내려놓았다.‘볼일이란 게, 알현이었나.’“이유를 알려줄 수 있는가?”황제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로이먼드 황제는 자애로움과는 거리가 먼, 불길 같은 군주.만에 하나라도, 심기를 거슬리면 거센 역풍이 발트 가로 휘몰아칠 터였다.짧은 순간이었으나, 헤이온은 루인의 심중을 읽을 수 있었다.황제는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성–엄마-를 죽이라 명한 사람이었다.자신의 출신 얘기에 어떻게 나올지 모를 일.수틀리면 자신조차 빠져나올 수 있을지 어떨지 확신이 없었다.도주 수단이나 면책권을 강구하는 게 우선이란 생각도 들었다.그런 와중이라 남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당신이 힘써주지 않아도 돼. 자력으로 가능한 빨리 만나볼 방법, 뭐 없을까?”“독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방법이 없지는 않네.”“독대라야 해.”“이유를 알아야 마땅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나?”헤이온이 망설이자, 루인이 안타까움과 진심을 담아 호소했다.“나는, 은인인 자네를 절대 저버리지 않을 걸세. 나를 믿어준다면,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네.”‘자네는 은인일 뿐만 아니라 나의...’루인은 울컥 내뱉고 싶은 말을 삼키고 또 삼켰다.자신은 발트 가의 차기 가주로서, 정략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헤이온이 자신을 받아줄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받아준다 해도 끝이 정해져 있는 판국에 절대 고백할 수 없었다.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감정이었다.헤이온이 자리에서 일어섰다.루인에게 가까이 다가간 헤이온은, 그의 한 쪽 어깨를 짚고 자세를 낮추었다.루인의 귓가에 제 입을 갖다 대고 낮게 속삭였다.“난 황제의 ...이야.”분명 헤이온이 뭐라고 말한 것 같기는 한데, 루인은 정신이 혼미해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다.얼굴이 바짝 붙어 뺨과 뺨이 스쳤다.편견이라면 편견이지만, 검사의 뺨이라기엔 너무나도 보드라웠다.또한, 귓가에서 바로 전해지는 목소리가 얼마나 잔잔하고 달콤한지.온 몸을 찌르르 울리는 감각에 사로잡혔다.루인은 자신이 무얼 하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눈앞에서 너울거리는 헤이온의 옆머리를 그의 귀 뒤로 쓸어 넘겼다.‘아차!’“가, 간지러워서 그만.”그렇게 말하며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리다가, 흠칫 놀라 멈추었다.코가 헤이온의 뺨에 닿았다.‘헉! 하마터면.’자신도 모르게 한 짓이라지만, 뺨에 키스할 뻔 했다.좀 더 고개를 돌리면 입술에도 닿을 수 있는 지척거리.실수도, 사고도 전부 막겠다던 그 사내도 없었다.충동에 휩싸여,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믿어달라고 해 놓고, 이상한 짓을 해서야 되겠나!’급히 얼굴을 원위치로 돌린 루인은, 민망함과 미안함에 제 이마를 짚었다.그런데 오히려 헤이온이 “아, 미안.” 이라며 사과해왔다.“나야말로 미안하네. 다시 말해주게.”“난 황제의 혼외자식이야.”루인의 정신이, 다른 의미로 혼미해졌다.“뭐라고?”“황제는 내 존재를 몰라. 난, 외조부와 어머니의 지위를 원위치로 돌려두고 싶거든. 당신의 지혜를 빌려줘.”잘 준비를 마치고 누운 루인은, 기쁨과 동시에 착잡했다.헤이온의 말은 거짓말이 아닌 듯했다.로이먼드 황제를 가까이서 본 적이 없을 텐데도 그의 신체적 특징을 꿰고 있었다.황제와 모친의 만남에 대해서도 설명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다.황태자 시절의 당시 행적을 조사해보면 될 터였다.신전의 친자 감별 역시, 언제든 받아도 좋다고 했다.다만, 헤이온의 바람은, 이루기까지 난관에 난관을 거쳐야 하는 종류였다.그러고 나서도 황제의 기분이나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 어찌될지 모를, 도박과도 같은 바람.‘어떠한 경우라도 헤이온이 다쳐선 안 돼.’마찬가지로, 가문의 안전 역시 보장되어야 하니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했다.고민거리가 생겼지만, 그럼에도 헤이온이 비밀을 공유해줬다는 것이 뿌듯했다.좋아하는 이가 자신을 믿고 의지한다-.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 중, 이것만큼 벅찬 일이 또 있을까.헤이온과 자주 대면할 구실이 생긴 것이기도 해서, 좋았다.비밀 이야기인 만큼 단 둘의 시간이 많아질 것이었다.루인은 좀 전의 일을 떠올리며 푸훗, 헛웃음을 흘렸다.“최대한 돕겠네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시간을 들이지 않을 수는 없네. 황제가 자네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춰야 하고, 만약을 위한 대비도 해야 하네.”“고마워, 루인.”그렇게 말한 헤이온이 와락, 포옹해왔던 것이었다.찰나의 포옹이 남긴 긴 여운에, 마냥 행복했다.방문이 열리고, 로건 폴칸- 그가 들어서기 전까지.내 방식대로루인은 일어나 앉았다.표정 없이 천천히 다가오는 로건을 보고 있자니 등골이 서늘해졌다.저 자와 가까이 있어 좋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그간 헤이온 모르게 당한 수모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루나카는 그의 만행을 아는 눈치임에도 말리거나 도와주지 않았다.당하는 것은 고역이었으나, 헤이온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기엔 자존심이 상했다.괴롭힘의 이유를 대는 것도 곤란 했다.그저 참는 수밖에.여긴 호텔이 아니라 발트 가 저택이니만큼 마음이 놓였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아무래도 이상했다.분명 불침번인 경비들과 하인들이 있을 터였다.헌데도 로건의 방문을 알리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인기척 없이 조용하기만 한 복도.루인은 긴장을 억눌렀다.“이 시각에 무슨 볼일인가?”대답 대신, 그가 손짓하자 몸이 둥실 떠올랐다.속도는 느렸지만, 산행 당시 경험한 멀티 레비테이션과 흡사했다.‘이 자가 마법을 쓸 줄 알았나?’보이지 않는 것에 묶이기라도 한 듯,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루인은 팔, 다리를 활짝 펴고 조금 떠오른 채 로건과 마주보았다.로건이 루인의 새끼손가락을 쥐었다.“그 애와 무슨 얘길 했지?”“별 얘기 아니었네.”“별 얘기 아니면, 말해.”루인은 입을 다물었다.뚜둑, 새끼손가락이 부러졌다.로건은 루인의 열 손가락을 전부 부러뜨린 걸로도 모자라, 갈비뼈마저 몇 대 부러뜨린 후에야 치료수를 써주었다.이걸로 괜찮겠어?루인도 독종인 면이 있어서,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버텨냈다.고통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혀를 으깨면서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일단은, 합격이니까요.혐오의 시선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루인을 뒤로 하고, 로건은 문으로 향했다.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실프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헤이온을 쉽게 배신하지 않을 것을 확인했으니, 더는 볼 일이 없었다.-사실 죽이고 싶었으면서.헤이온을 위해선 살려두는 게 맞죠.헤이온과 자신은 정세와 법도에 약했다.루인은 그것을 메워줄 유용한 도구였다.도구답게 쓰임에 맞춰 쓰이면 될 것을, 때때로 기어오르려 하니 밟아줄 뿐.제깟 게 주제도 모르고 헤이온에게 욕정을 품을 때마다, 솟구쳐 오르는 살의를 억눌러야 했다.백작가 자제 따위는, 타협하고 접어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최소한 공작가 이상.’복도로 나와 문을 닫았다.고개를 들자, 자신을 슬프게 바라보는 헤이온이 있었다.\*헤이온은 방을 대충 둘러보았다.발트 가에서 제공해준 귀빈실은 호텔 못지않게 으리으리했다.‘엄청나네.’그런데 따라온 하인 두 명이, 쉬이 나가지 않는 것이었다.“뭔데?”“환복 시중을 들어드리겠습니다.”‘귀족들은 다 이런가? 뭔, 옷 갈아입는 것까지 도움을 받아?’그들은, 필요한 게 있으면 부를 테니 나가라는 말을 두 번 듣고서야 물러갔다.헤이온은 세카트로를 부를 참이었다.그는, 폴리모프의 사용 범위를 바로 넓혀줄 순 없다고 했다.대신 빠르게 늘도록 연습을 도와주겠다는 말에, 매일 일과 후 만날 생각이었다.그런데,“로웬 양께서 뵙기를 희망하십니다.”복도 문 앞에서 대기하던 하인이 루나카의 방문을 알려왔다.“들라 해.”루나카는 대외적으로 자신의 여자였다.별다른 이유 없이 돌려보내면 괜한 소문이 돌지도 몰랐다.편하진 않지만, 루나카가 잘못한 것도 없거니와, 보기 싫을 정도로 미운 건 아니었다.그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잠깐이라도 들이는 편이 깔끔해.’로건과의 일로도 몇 가지 묻고픈 게 있었다.머리를 식힐 겸 당분간 미뤄두려 했으나, 이왕 들인 김에 물어보기로 했다.의외로, 루나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그렇게 된 거예요.”“...”루나카가 들려준 진실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었다.번개를 연달아 맞아도 이만한 충격은 아닐 것 같았다.헤이온은 루나카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스러웠다.소파에 깊숙이 기대고, 천정을 올려다보았다.‘이간질하려고 지어낸 얘기 같진 않아. 그렇지만...’믿자니, 그간 로건의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인지, 회한이 몰려왔다.침묵이 길었던지, 루나카가 조심스레 물었다.“헤이온님, 저와 하신 약속 기억하세요?”“...”입막음 값 대신 루나카가 원했던 것.자신은 그 때 ‘좋아.’ 라고 답했었다.“앞으로, 어떤 상황이든 한 번은 저를 믿어주시기로 하셨지요. 그거, 지금 쓸게요.”“그래... 알았다.”저렇게까지 나오면, 믿어주는 수밖에 없었다.과묵하면서도 자상한 성정인 줄로만 알았던 로건.‘남들에겐 전혀 아니었다니.’모두에게 자상할 필욘 없으니까, 무관심한 성격인 거라고 생각했었다.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과격한 수단을 쓰고 있었을 줄이야.앞뒤 편차가 큰 만큼, 비단 이번 일만이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아마 오래전부터. 그래서 감추려 한 거야.’로건은 루나카와의 사이를 시인했었다.‘이중성을 들키는 게, 오해받는 것보다 더 싫었다는 건가...’눈을 질끈 감았다.‘아니, 아니지. 둘의 사이가 아니라, 이중성을 시인한 거다.’로건 입장에서는, 이중성 때문에 미움을 샀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많이 놀라긴 했지만, 양다리보단 이중성 쪽이 차라리 나았다.‘아무 사이 아니란 말, 거짓말이 아니었구나.’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과, 거짓을 말하는 것은 다르니까.로건은 잘못을 숨기려 했을 뿐, 거짓말을 하진 않았다.믿어주지 못한 것이 미안했다.‘세카트로님의 말 대로였어.’로건이 자신 주변에서 어떻게 행동해왔든, 지나간 일들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과거를 문제 삼느라 현재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로건이 루나카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그거면 돼.’눈을 뜨자, 루나카가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못하는 것이 보였다.“말해줘서 고마워.”“마음이 급해서 그랬을 거예요, 너무 탓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고생은 제가 해놓고, 도리어 마음써주고 있었다.고개를 끄덕였다.“저... 가까이 가도...돼요?”살짝 울먹거리는 루나카를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렸다.“히이잉~!!”루나카가 날아와 안겼다.목에 팔을 두른 것까진 좋았는데, 어째...다리를 벌리고 허벅지 위에 올라탄 자세였다.간을 보는 것도 잠시, 엉덩이를 움직여 안쪽으로 거리를 바짝 좁혀왔다.‘내가 남자였으면, 닿았겠는데.’그녀의 허리를 잡고 들어올려, 자세를 바꾸어 앉혔다.“우응, 그냥 두시지.”“적당히 해.”“미움 받는 줄 알고,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아세요? 봐주면 어때서!”“그건 그거고.”툴툴거리던 루나카는, 이쪽 어깨에 턱을 괴더니 헤- 웃었다.천천히 등을 토닥여주었다.“오해해서 미안했어.”쪼옥, 루나카가 뺨에 키스했다.괜찮다는 의미였겠지만, 다른 생각이 들었다.‘뭐랄까, 확실히...’로건의 키스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자신을 안달 나게 만들던, 뜨겁고 도톰한 입술.“안되겠어.”“네?”“빨리 풀어야겠어.”\*헤이온은 루나카를 데려다주고 로건의 방으로 갔다.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하인이, 로건이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어디로 간다는 말은 없었고?”“네. 위층으로 가시긴 했습니다. 아마 루인님을 뵈러 가신 듯합니다.”하인이 가리킨 방향으로 무작정 걸었다.계단을 오르자마자, 바닥에 드러누워 잠든 경비가 보였다.한 명 뿐이라면 나사 빠진 자라고 여겼을 테지만, 같은 층 곳곳에 그렇게 잠든 자들이 여럿이었다.‘하필 로건이 지나간 곳에 이렇게?’불안한 예감이 들었다.마침 문소리가 났다.로건이 누군가의 방에서 막 나오고 있었다.루인의 방이 틀림없었다.어떻게 잠재웠는지는 몰라도, 경비와 하인들을 재운 것은 로건일 터였다.그렇게까지 해서 이 시각에 보아야 할 볼일이 대체 무언지.성별을 털어놓은 후 루나카가 당했다.출생을 털어놓은 후엔 루인...마주본 로건의 어색한 표정이, 불안한 예감이 현실로 일어났음을 말해주었다.부정하고 싶었다.“별 일 없는 거지?”“없어.”“너 말고, 루인.”“...”로건은 대답하지 않았다.헤이온은 로건을 밀치고 방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루인이 침대에 오르고 있었다.놀란 얼굴의 헤이온을 향해, 그가 “무슨 일인가?” 물었다.“아니, 그냥.”“급히 할 얘기라도 있는가?”“그럴지도, 아닐지도 몰라.”“?”헤이온은 루인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했다.‘특별히 이상해보이진 않는데.’그래도 혹시 모를 일이었다.루나카의 경우도, ‘우연’히 목에 난 자국을 못 봤다면, 옷으로 가려져서 끝내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었다.그냥 지나쳐버리기엔, ‘우연은 필연 속에 내재된 것’ 이라던 세카트로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침대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재빨리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지금은 내가 피곤하네. 웬만하면 내일 얘기하세.”헤이온은 똑똑히 보았다.루인의 뒷목덜미에 흥건한 땀을.달려들어 루인을 바로 뒤집어 눕혔다.“!!”눈을 크게 뜬 루인의 얼굴에 당혹감이 그득했다.그가 가리려던 얼굴은, 온통 땀범벅이었다.‘설마 했었는데!’로건에 대한 실망과 루인에 대한 걱정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다.헤이온은 루인의 셔츠를 뜯어내다시피 거칠게 벗겨 던져버렸다.“어딘지, 말해!”미친 사람처럼, 드러난 그의 몸 구석구석을 살폈다.목, 어깨, 가슴, 배까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무슨 짓을 했기에, 이렇게 되냐고!’루인은 말도 제대로 못 하고 버벅였다.헤이온이 젖어든 눈길로 자신의 상체는 물론, 팔을 따라 이동해 손가락 끝까지 훑고 있었다.축축한 몸 곳곳을 매만지는 손길까지 더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토해내듯 숨 쉬는 것 외에는.헤이온의 걱정에 순수하게 고마워하지 못하고 달아오르는 것이 부끄러웠다.그러고 싶지 않은데 도통 제어가 안 되어 미칠 지경이었다.헤이온을 떨궈내기엔 그의 힘이 자신보다 강했다.‘제발... 눈치 채지 마...’헤이온은 루인을 다시 뒤집었다.엎드려 누운 루인의 등을 꼼꼼히 살폈다.“다리 쪽인가? 벗어!”헤이온이 루인의 바지 허리춤을 붙잡자, 로건이 헤이온을 뒤에서 안았다.더 이상, 다른 남자의 옷을 벗기고 살피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그만해.”“놔!!”“이미 치료했어.”헤이온은 로건의 팔을 풀고 그를 아무렇게나 내던졌다.“당장 사과해! 빌어!”나동그라졌던 로건이 몸을 일으키며 빈정거렸다.“빚은 벌써 갚은 것 같은데.”“뭐?”로건은 어이없어하는 헤이온 너머, 차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루인을 바라보았다.“어이, 도련님. 안 그래?”“...”루인은 로건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로건이 헤이온을 말린 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덕을 보았다.그대로 바지가 벗겨졌더라면 수치스러워 죽고 싶었을 것이었다.“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 치료 받았으니 괜찮네. 다들 돌아 가주게.”하지만 헤이온은 물러서지 않았다.“그런 식으로 계속 덮을 거야? 난 그렇겐 못 해.”그냥 넘어가면, 로건이 앞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했다.짚을 건 짚고, 풀 건 풀고, 모든 걸 바로잡은 후.심중에 걸림돌이 없는 상태로, 편안하게 믿으며 사랑하고 싶었다.“로건이 무슨 짓 했는지 말해.”루인은 대답하지 않았다.“네가 직접 말해 봐.”로건 역시 대답하지 않았다.“그럼 네가 말해. 넌 봤잖아.”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던 루인이 화들짝 뒤돌아보았다.헤이온이 방 안에 누군가가 더 있는 것처럼 말했다.‘전부터도 그랬지. 아까 날 들어 올린 것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짓이었나?’소름이 돋았다.로건만으로도 벅찬데, 로건을 돕는 보이지 않는 존재라니.그나마 다행은, 그 존재가 헤이온에게 적대적이지 않다는 점이었다.실프가 로건에게 물었다.로건의 주인은 헤이온이라던 말, 유효해?-네.원칙적으로, 주인의 주인이 하명하는 것이니 따라야 했다.날 미워하지 말아줘.-네.“뼈를 총 열세 군데 부러뜨렸어.”헤이온은 온 몸의 피가 거꾸로 솟음을 느꼈다.‘그렇게까지...’“루나카는? 목 조른 게 다야?”“응.”루인은 루나카가 로건을 말리지도, 자신을 돕지도 못했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다.‘그녀도 당하고 있었군. 로건과 부적절한 관계여서가 아니라.’헤이온은 마지막 심줄을 부여잡고 로건을 마주보았다.“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론 누구에게도 이런 짓 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내가 무얼 하든, 널 위해서야.”“내가 원치 않는, 날 위한 일 따윈 없어. 사과하고 맹세해.”“사과는 해도, 맹세는 못해.”“뭐...?”“네 삶이 안정되기 전까진, 내 방식대로 움직일 거야.”